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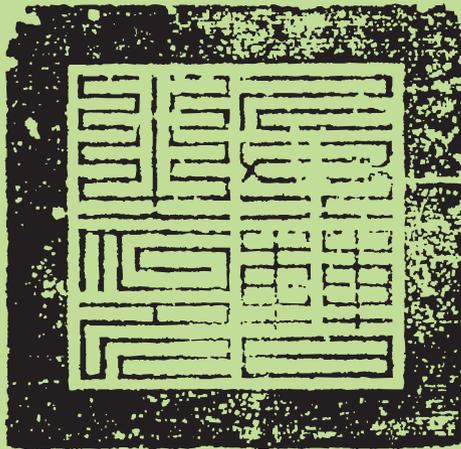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290472-000107-01

ISBN 978-89-89768-68-5 93390

軍事文獻集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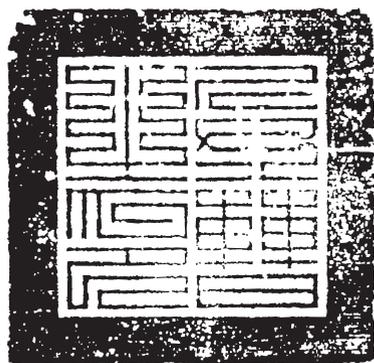
紀效新書(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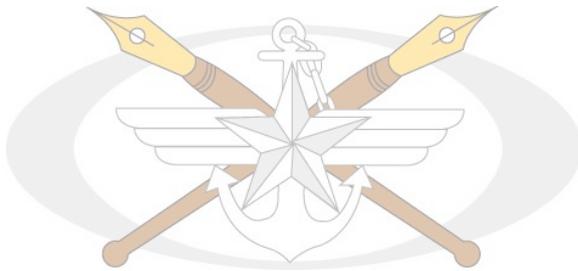
國防部軍史編纂研究所

軍事文獻集 23

紀效新書(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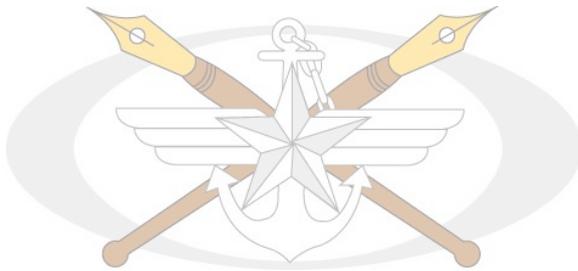
國防部軍史編纂研究所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軍事文獻集 23

紀效新書(上)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최 복 진

우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전통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고병서·전쟁사 등의 군사문헌 자료집과 번역서를 지속적으로 간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11년 현재 자료집 10권과 번역서 22권을 발간하여 군사사 연구의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 격퇴의 유일한 대안으로 수용되었던 ‘절강병법(浙江兵法)’의 이론서·교리서인 『기효신서(紀效新書)』(上) 번역본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번역본은 우리 연구소가 지난 1998년 「군사사연구 자료집」 제6권으로 영인발간한 『기효신서』(상)을 대본으로 삼아 번역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새롭습니다.

『기효신서』는 잘 아는 바와 같이, 중국 명대(明代)의 명장이었던 척계광(戚繼光)이 왜구의 침입에 대응하여 고안한 새로운 전술과 무기체계를 수록한 병서입니다. 이는 왜구의 격퇴에 고전을 면치 못하던 당시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 병법이었습니다. 척계광 병법의 지리적 배경이 중국 남방 절강지역이었기 때문에 흔히 ‘절강병법’으로 불렸습니다. 임진왜란을 맞아 초반에 패전을 거듭하던 조선군은 1593년 1월 평양성 탈환전투에서 절강병법이 위력을 발휘하자 국왕 선조가 영의정 유성룡에게 책임을 맡겨 이 병법의 수용에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 결과 1차적으로 훈련도감을 창설하고, 포수(砲手)·사수(射手)·살수(殺手)의 이른바 삼수병(三手兵)을 양성하였습니다.

한편, 이 『기효신서』의 수용은 단지 임진왜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전술로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후 군제 개혁의 기본 틀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조선군의 편제는 기존의 기병 중심의 오위체제에서 보병 중심의 삼수병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주요 병종이 보병 중심으로 바뀌고 무기체제도 농기구를 응용한 낭선(狼筈)·당과(鎗鈹) 등을 사용하면서 본래 군역계층이 아닌 천민층까지

징발하는 이른바 속오군(束伍軍)체제로 재편됩니다. 나아가 17세기 중반 이후에는 포수를 중심으로 하는 군제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기효신서』도 척계광이 고안했던 본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술 변화에 적응하는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즉, 조선은 중국의 왕세정본(王世貞本) 『기효신서』에 척계광 자신이 북방 민족의 기병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한 이승훈본(李承勛本) 『기효신서』를 대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북방 민족의 기병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 편찬한 『연병실기(練兵實紀)』를 4권으로 요약하여 덧붙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종 5년 병조판서 김좌명(金佐明)에 의해 이승훈본에 『연병실기』 중 4권을 덧붙인 이른바 조선본(朝鮮本) 『기효신서』로 재구성됩니다. 지난 1998년 우리 연구소에서 간행한 영인본도 바로 이 조선본에 해당합니다. 다시말해, 임진왜란 기간에 훈련도감 낭청 한교(韓嶠)가 처음으로 해득한 『기효신서』가 조선본 『기효신서』로 최종 정착되었던 것입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국망(國亡)의 위기를 맞이하여 국왕 선조를 비롯하여 유성룡, 한교 등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새로운 방법을 수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훌륭한 귀감이 될 것이라 믿어집니다. 중국 남부지방의 방언투(方言套) 등이 뒤섞여서 쉽사리 해득하기 어려웠던 『기효신서』를 알기 쉽게 번역해 주신 해동경사연구소 유재성(柳在城) 선생께 감사드리며, 기획 및 편집·간행 업무를 담당한 전호수 연구원을 비롯한 관계관들의 노고에도 치하를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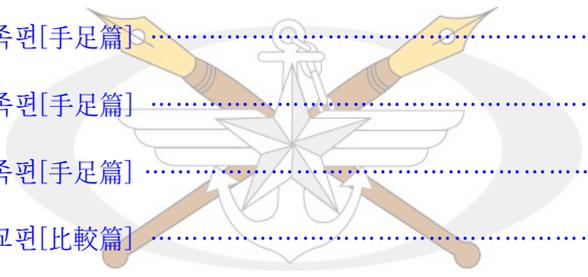
■ 일러두기

- 국역의 범례

1. 이 책의 번역 대본은 1998년 국방군사연구소에서 발행한 영인본 『기효신서(紀效新書)』(上)이다. 위 영인본의 대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도서번호 奎中2207)으로 1664년(현종 5)에 처음으로 간행된 조선본(朝鮮本)이다.
2. 『기효신서(紀效新書)』(上)의 범위는 제10권 실전편[實戰編]까지이며, 장·절의 편차는 원전의 구분에 따랐다. 다만, 원전에는 그 구분이 없으나 제1편 속오편[束伍篇] 앞부분의 ‘서문·자서(自序)·목록’을 묶어서 ‘권두’로 설정하였다.
3. 각 항목별 소항목의 표시방식으로 원전에는 없더라도 ‘▣·◆·○’의 부호를 첨가하거나 원문자를 사용하여 독해상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특히, ‘그림’의 내부 문장의 번역문도 별도의 구분 없이 ‘◆·○’를 사용하여 처리하였으므로 혼동이 없기를 바란다.
4. 가능한 한 원전 그대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접속사 및 최소한의 문장을 사용하여 독해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5. 기타 각종 편집상의 관련 부호는 일반적인 사용 원칙에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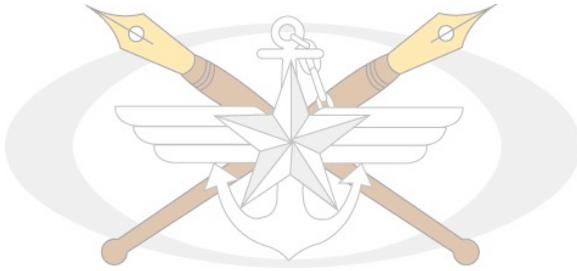
목 차

■ 발간사	
■ 일러두기	
■ 권 두[卷 頭]	9
■ 권1 속오편[束伍篇]	43
■ 권2 이목편[耳目篇]	67
■ 권3 수족편[手足篇]	131
■ 권4 수족편[手足篇]	181
■ 권5 수족편[手足篇]	245
■ 권6 비교편[比較篇]	311
■ 권7 영진편[營陣篇]	337
■ 권8 행영편[行營篇]	393
■ 권9 야영편[野營篇]	423
■ 권10 실전편[實戰篇]	435



[紀效新書(上)]

권 두[卷 頭]



■ 권 두[卷 頭]

□ 척장군(戚將軍) 『기효신서』 서문

민중(閩中)¹⁾의 왕중승(王中丞)²⁾이 와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척장군의 용병(用兵)은 신과 같은데 그가 지은 『기효신서』에 대해서 공이 한마디 말할 뜻이 없으십니까?

불초한 내가 일찍이 왕헌사(王憲使)³⁾를 모시고 척장군의 용병하는 정상을 토론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왕헌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척장군은 소수의 병력을 쓰는 용병을 잘 한다.”

“척장군은 다수의 병력을 쓰는 용병을 잘 한다.”

“척장군은 적을 패퇴하게 하는 용병을 잘 한다.”

“척장군은 아군을 승리하게 하는 용병을 잘 한다.”

내가 척장군의 용병을 잘한 정상에 대하여 묻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방 수령이 해안 지역에서 위급한 사태가 일어나면 온 나라의 힘을 기울여 동남방을 막는데, 대략 열명이 넘는 병사가 왜구(倭寇)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척장군은 비교(裨校: 하급장교)를 거쳐 천여 명의 오합지졸(烏合之卒)을 이끌고서 그 왜구의 소굴을

-
- 1) 민중(閩中) : 중국의 옛날 군 이름. 진(秦)나라 때 설치, 치소는 야현(冶縣), 지금의 복건성 일대.
 - 2) 왕중승(王中丞) : 왕도곤(王道昆)을 가리킴. 명(明)나라 흙(欽) 사람으로 가정(嘉靖)연간에 진사시험에 합격하여 절강성 금화부의 의오령(義烏令)이 되어 백성에게 진술훈련을 하여 사람들이 투석을 잘하여 세칭 의오병(義烏兵)이라 하였다. 뒤에 척계광과 함께 왜구를 격파하여 사마랑(司馬郎)에 발탁되고 병부시랑(兵部侍郎)을 역임하였다.
 - 3) 왕헌사(王憲使) : 왕도행(王道行)을 가리킴. 명나라 곡양(曲陽) 사람.

깃뺏고 목베어 죽이기를 마치 지푸라기를 베는 것과 같이 하니,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척장군이 소수의 병력을 쓰는 용병을 잘 한다는 것이다. 지금 여러 변방의 대장들은 삼천명에 지나지 않는 군대를 거느리고서 그가 행한 전적을 올리지 못한다.

그러나 유독 척장군만은 대장의 임무를 맡아서 수만인을 거느림에 이르러서도 그 의식의 지향하는 바는 균형에 맞게 집중되어 깨끗하고 의젓하게 움직이게 하여 마치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우리나라 오는 것과 같게 한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척장군이 다수의 병력을 쓰는 용병을 잘 한다는 것이다. 척장군이 보낸 군졸이 불행히 적의 계책에 빠져서 패전했다는 보고를 하면, 척장군은 더욱 군사훈련을 강화하여 침착하고 태연하게 이따금씩 그 허점을 이용하여 적을 속인다. 그리고, 적이 해이해진 징후가 나타나면 조용히 아군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돌연히 이를 운용하여 큰 공훈을 이룩한다. 그러므로 척장군의 패배는 왕왕이 승리의 단서가 되었다.

그러나 다른 장수들은 작은 승리를 보면 뜻이 적이 교만해지고 큰 승리를 보면 뜻이 크게 교만해진다. 그래서 마치 생선을 품에 안고 꽃싸움놀이(鬪花)⁴를 하는 것처럼 그 이긴 모습을 아랫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아랫사람들도 또한 다투어서 아첨하는 말로 윗사람의 비위를 맞추어 해이함을 자초한다. 이런 까닭으로 그 승리가 왕왕 패전의 단서가 된다. 그러나 척장군은 도리어 더욱 군사훈련을 강화하여 침착하고 태연하게 대처함으로써 불행히 적이 이겼다고 하여 적이 그 승리로써 아군을 압도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리고 아군이 승리하였다고 하여 적이 그 패배로써 아군을 그르치지 못하게 한다.

지금 척장군은 비교(裨校: 하급장교)로부터 몸을 일으켜 여러번 승진을 거듭, 지위가 대도독(大都督)에 이르러 두 개의 인수(印綬)

4) 꽃싸움놀이(鬪花) : 당(唐)나라 개원(開元) 천보(天寶) 연간에 장안의 사녀들이 투화 놀이를 즐겼는데, 봄에 기이한 꽃을 봄에 많이 꽃은 자가 이기도록 되어 있는 놀이로서, 봄의 투화에 대비해서 천금을 기울여 이름난 꽃을 사다가 정원에서 길러서 봄의 꽃싸움놀이에 대비하였다고 한다.

를 차고 삼도를 점거하여 절제를 행하면서 크고 작은 수십 수백차례의 전투에서 죽이고 탈취한 것이 수만을 헤아려 동남방의 명장으로 일컬어져 척장군과 필적할 만 한 자가 없었다.”

왕헌사는 인하여 한 편의 책을 꺼내어 나에게 주면서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척장군이 지은 『기효신서 다.』

내가 이 책을 손에 넣고 읽어보니, 대체로 여섯권은 속오편(東伍篇)으로부터 수병편(水兵篇)에 이르기까지이며 전부 열 네 권인데, 그 정밀하기로는 찾아 보아도 빈틈이 없었으며, 잡아 보아도 형적이 드러나지 않으니, 이는 마치 장생(莊生)⁵⁾의 답론이 간략하면서도 아득하고 원대함과 같았다. 재능과 공격 방법을 기르치고 군영과 보루를 설치하고 수륙(水陸)으로 군사를 분산 배치하여 상세하게 갖추고 맥락을 이루는 것은 마치 도주공(陶朱公)⁶⁾의 살아날 방도를 도모함과 같았다.

그 상벌을 분명히 함과 조목조목 법도를 규정함은 마치 한비(韓非)⁷⁾의 시시비비를 논함과 같았다. 나타난 도적을 치고 귀신처럼 들고 남은 마치 계주(季主)⁸⁾와 군평(君平)⁹⁾의 선견지명과 같았다.

내가 이에 일어나서 찬탄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5) 장생(莊生) : 장자(莊子, BC 369~BC 289?)를 가리킨다.

6) 도주공(陶朱公) : 범려(范蠡)를 가리킨다. 초(楚)나라 완(宛 : 하남성 남양현)에서 출생하여 중국 춘추시대 말기 월왕(越王) 구천(句踐)을 도와 오(吳)나라를 멸망시켰다. 그후 제나라에 가서 재상(宰相)이 되었으나, 얼마 후에 도(陶 : 산둥성 정도현) 지방으로 은퇴하여 도주공(陶朱公)이라는 변성명으로 상업에 종사하여 거만(巨萬)의 재산을 모았다 한다.

7) 한비(韓非, BC 280?~BC 233) : 법가(法家)사상을 대성한 중국 전국시대 말기의 사상가

8) 계주(季主) : 한(漢)나라때의 유명한 점술사인 사마계주(司馬季主)를 가리킨다.

9) 군평(君平) : 한나라 때의 이름 높은 선지 엄준(嚴遵)을 가리킨다. 벼슬하지 않고 은거하여 성도(成都)에서 점을 치며 살았다고 한다.

“척장군은 요행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척장군은 유능한 현관(縣官)으로서 진실로 북자(北赭)·한해(瀚海)·봉랑(封狼)·거서(居胥)를 써서 만호후(萬戶侯)를 취한다 해도 어찌 족히 말하리오?”

이 어찌 오직 동남방 뿐만 아니라 국한될 일이겠는가? 나는 일찍이 의심스럽게 여겼다. 한무제 때 조선(朝鮮)을 항복시키고 전착(滇笮)¹⁰⁾을 멸망시키고 구민(甌閩)¹¹⁾과 남방의 삼월(三越)¹²⁾을 석권하기를 발길 돌릴 겨를도 없이 잇달아서 이룩하였다. 마치 매미가 새끼를 까는 것처럼(승조: 承蠲) 순식간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그 가장 어려웠던 것은 흉노(匈奴)¹³⁾였다. 그런데 대장군(大將軍)¹⁴⁾과 표기장군(驃騎將軍)¹⁵⁾이 대막(大漠)¹⁶⁾을 건너서 몇 차례에 걸쳐 뜻을 이루었다. 이 어찌 모두가 천행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군량과 병기의 공급이 끊어져 곤궁함에 이른 적이 없었겠는가? 그러나 태사공(太史公) 사마천(司馬遷)은 그들[대장군과 표

-
- 10) 전착(滇笮): 전지(滇池)와 공착(邛笮)을 가리킨다. 전지는 곤명호(昆明湖) 운남성 곤명시 서남부 지역이며, 공착은 사천성 서창(西昌)·한원(漢源)일대의 지역이다.
 - 11) 구민(甌閩): 구월(甌越)과 민월(閩中)을 가리킨다. 구월은 지금의 절강성 구강(甌江) 유역일대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민월은 지금의 복건성과 절강성 영해(寧海) 및 그 이남의 영강(靈江), 구강(甌江), 비운강(飛雲江) 유역 일대에 분포되어 있었다.
 - 12) 삼월(三越): 오월(吳越), 민월(閩越), 남월(南越)을 가리킨다. 대략 지금의 중국 동남 연해 지구 일대이다.
 - 13) 흉노(匈奴): BC 3세기 말부터 AD 1세기 말까지 몽고고원·만리장성 일대를 중심으로 활약한 유목기마민족(遊牧騎馬民族).
 - 14) 대장군(大將軍): 전한(前漢) 무제(武帝) 때의 명장 위청(衛青 ?~BC 106)을 가리킨다. 산서성 평양(平陽) 출신으로 전후 7회에 걸친 흉노 정벌에 전공을 세워 장평후(長平侯) 대장군(大將軍)의 지위에 올랐다.
 - 15) 표기장군(驃騎將軍): 중국 전한 무제 때의 명장 곽거병(霍去病 BC 140~BC 117)을 가리킨다. 18세 때 시중(侍中)이 되어 위청(衛青)을 따라 흉노토벌에 공을 세워 관군후(冠軍侯)의 봉작을 받았다. 전후 6회에 걸친 흉노 정벌에 전공을 세워 위청과 함께 대사마(大司馬)가 되었다. 그가 죽자 무제는 장안 근교의 무릉(茂陵)에 무덤을 만들고, 무덤 앞에 호인(胡人: 흉노인)을 밟고 선 석마상(石馬像)을 세워 그의 무공을 기렸다.
 - 16) 대막(大漠): 넓은 사막. 중국에서는 특히 고비 사막을 가리킬 때에 이 용어를 자주 쓴다.

기장군]이 적과 싸워서 물품을 빼앗고 전공을 세워서 봉작(封爵)과 식읍(食邑)을 받은 것 외에는 모두 생략하고 기록하지 않았다. 생각건대 그 사람이 문장의 격조가 높고 자신의 불우한 처지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무사들로 하여금 그 장점이 나타나지 않게 하고자 하였던 것 같다.

읽음이 황제(한 무제)에 이르러서는 [황제가] 손오병법(孫吳兵法)을 표기장군에게 가르치려 했는데 표기장군이 듣지 않자,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옛날의 병법을 배우지 않고서 방략을 어떻게 강구하겠는가?”

그런 뒤에 표기장군과 대장군이 미친함을 알았다. 저들은 전기(戰技)에는 뛰어났으나 병법(兵法)에는 취약하였다. 그러므로 모두가 천행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후세에 어찌 스스로 나타나는 바가 있겠는가? 예컨대 손자(孫子)·오자(吳子)¹⁷⁾·사마양저(司馬穰苴)¹⁸⁾한신(韓信)¹⁹⁾ 제갈량(諸葛亮)²⁰⁾이 그 간직한 바의 재능을 발휘하여

-
- 17) 오자(吳子, BC 440~BC 381):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병법가. 본명은 오기(吳起). 일찍이 노(魯)나라 장군으로 제(齊)나라를 격파하였으며, 그후 위(魏)나라 문후(文侯)를 섬겨 진(秦)나라를 쳐 5성(城)을 빼앗았다. 다시 초(楚)나라에 가서 도왕(悼王)을 도와 초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었으나 도왕이 죽은 뒤 대신에게 피살되었다.
- 18) 사마양저(司馬穰苴):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의 장군. 본성은 전(田)씨. 제(齊)나라 경공(景公)때 안영(晏嬰)의 추천에 의해 장군이 되어 연(燕)·진(晉)군을 막아 큰 공을 세웠다. 경공이 그를 높여서 대사마(大司馬)로 삼았으나 유력한 세족(世族)인 포(鮑)씨와 국(國)씨의 참소로 물러나 병사하였다.
- 19) 한신(韓信, ?~BC 196): 중국 한나라 초기의 무장. 강소성 회음(淮陰) 출신. 진(秦)말 초(楚)·한(漢)전쟁에서 한고조 유방(劉邦)을 도와 한군을 지휘하여 큰 공을 세워 제왕(齊王)을 거쳐 초왕(楚王)이 되었다. 그후, BC 201년에 회음후(淮陰侯)로 강등되고, BC 196년 진희(陳豨)의 난에 동조하다가 여후(呂后)에게 참살당하였다.
- 20) 제갈량(諸葛亮, 181~234): 중국 삼국시대 촉한(蜀漢)의 정치가 겸 전략가. 유비(劉備)를 도와 오(吳)나라의 손권(孫權)과 연합하여 조조(曹操)의 대군을 적벽(赤壁)싸움에서 대파하고, 형주(荊州)와 익주(益州)를 점령하였다. 221년 유비가 제위에 오르자 승상이 되었다. 유비의 사후 후주 유선(劉禪)을 보필하면서 오나라와 연합하여 위나라와 항쟁하였으며, 생산을 장려하여 민치

일가(一家)의 설을 이루어 그 업이 성취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 깊고 미묘한 속뜻과 심오한 원리는 왕왕이 갑옷과 투구로 무장한 무사로 하여금 이를 보고서도 익히게 하지 못하고 문필(文筆)에 종사하는 선비는 이를 익힐 수는 있으나 비천한 일에 종사하게 할 수가 없다. 비천한 일을 실천함은 곁에 나타난 명분(名分)과 속에 있는 실상(實相)이니, 어찌 척장군의 이 책을 버릴 수가 있겠는가?

비록 그러하나, 병(兵:전쟁)은 은밀한 술책이다. 그러나 드러 내 놓고 말한다면 나는 능히 도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또한 능히 척장군을 향해서 나아갈 수도 있다. 또한 조금이라도 여가를 멈추 어서는 안될 것이다.

장군의 이름은 계광(繼光)으로 동래(東萊) 사람이다. 중승(中丞)의 이름은 도곤(道昆)으로 휘(徽) 사람이다. 민중(閩中) 지방에서의 공로는 척장군과 함께 세운 것이며, 또 문단(文壇)의 지도적 위치에 있으면서 그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나에게 말해줌으로써 척장군을 드러내 준 왕헌사(王憲使)란 분은 이름은 도행(道行)인데, 아지 못 하겠거니와, 척장군에게 겸손하게 사양한 현명함을 함께 쓸 만하다. 병인년(1566) 늦은 봄 오군(吳郡)의 왕세정(王世貞) 원미(元美)가 이 글을 짓다.

(民治)를 피하고, 윈난[雲南]으로 진출하여 남방 개발을 도모하는 등 국가 경영에 힘썼다. 오장원(五丈原)에 출병하여 위나라의 사마의(司馬懿)와 대치하다가 병사하였다.

▣ 『기효신서』 자서(自敍)

정원(定遠) 척계광(戚繼光)이 짓다.

천하(天下)의 일에는 어려운 것들이 많으나, 병사(兵事)에 관한 일에 미쳐서는 그 어려움이 더욱 극심하다. 세상에서 궁술(弓術)과 마술(馬術)을 보기를 변변치 못한 재주라 여기고 행오(行伍: 미천한 졸병의 대열)와 같은 부류로 비교하여 어리석은 사람의 일이라 여기니, 이를 어찌 근본을 아는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황제(黃帝)의 병법은 기미(幾微: 예측 가능한 낚새)에 바탕을 두었으며, 은(殷)나라 탕왕(湯王)과 주(周)나라 무왕(武王)의 군대는 인의(仁義)를 근본으로 하였으니, 기미가 말미암아 일어나는 바는 인의가 따라 나오는 바가 되니, <이는>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발자취는 지극히 소략(疏略)하나 그 운용은 지극히 신묘(神妙)한 것이다. 그렇다면, 병사(兵事)를 어찌 하찮고 사소한 일이라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일찍이 손무(孫武)의 병서(兵書)를 읽고 탄식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병법(兵法), 그것은 무기 창고와 같은 것인가? 용병(用兵)하는 것, 그것은 무기 창고의 병기(兵器)를 골라내는 것과 같은 것인가? 병법, 그것은 약 가게와 같은 것인가? 용병하는 것, 그것은 약 가게의 약재를 골라내는 것과 같은 것인가?”

나중에 여러 명장의 전기를 읽음에 이르러서 다시금 깨닫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들은 진실로 악기(握器)의 방법에 능통하고 재능을 절묘하게 운용한 자들이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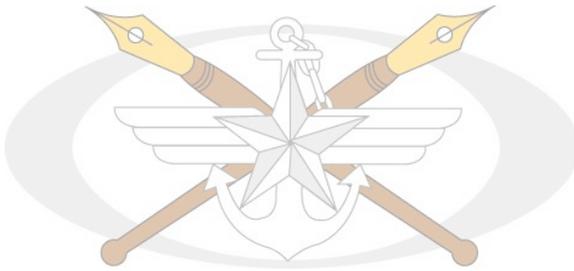
방법을 배우려 하는 자가 바라고 구하여 착실히 공부에 착수할 분야는 이것을 넘을 바가 없다. 내가 수년간을 재능도 없으면서 절강성(浙江省) 동쪽 지방에서 벼슬을 하면서 비로소 손무(孫武)의 방법을 알게 되었는데, 그 줄거리와 체계가 정밀하고 상세하여 여기에 다시 더할 바가 없었다. 편차 정리에 착수하여 단락과 조목을 상세히 분류하였으나 그 어느 한가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참선(參禪)하는 중들이 이르는 바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다.”라는 것과 같다. 학문적 견식이 낮은 나는 어떠한 방법을 썼는가?

이에 사졸(士卒)들을 훈련시킨 조목들을 모아서 선견무민정(選畎畝民丁)으로부터 호령(號令)·전법(戰法)·행영(行營)·무예(武藝)·수전(水戰)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그 실용적이고도 유효한 것들을 택하여 분별하고 교련의 선후를 차례로 매겨서 각각 1권으로 하여 삼군(三軍)을 가르쳐서 익히도록 하였다.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고쳐 베끼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에 관각하는 장인(匠人)에게 주고 책의 제목을 『기효신서』라 하였는데, ‘기효(紀效)’는 ‘입과 귀로만 하는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效)를 본다는 뜻’이요, ‘신서(新書)’는 ‘그것이 옛 방법에서 나왔으나 옛 방법에 구애되지 않고 때에 알맞게 적절히 조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찍이 이를 시험해 보니, 기예(技藝)와 행진(行陣)은 특히 그 훈련 가운데 한가지 일이었다. 그러나 정밀하고 은미함이 지극히 소리없고 냄새없고 조금도 흠트러뜨려 내버릴 수가 없으니, 천지를 감동시키고 귀신을 움직이게 하여 여기에서 크게 넘을 수가 없다. 이에 몸소 실천하여 마음에 깊이 깨달은 배움을 지성스럽고 거짓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아 고치고 그 이익을 꾀하지 않고 그 도를 밝혔으며 그 공로의 성취를 헤아리지 않았으니 그 누가 이와 같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까닭에 성(誠)을 근본으로 하여 정성으로써 분발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윗사람과 더불어 한 뜻으로 하게 하여 이와 같이 하기를

중일토록 곳곳하게 힘써서 쉬지 않아 마음에 만족할 때가 없고, 공(功)이 한껏 성대하나 마음은 더욱 낮아지고 도(道)는 한껏 행해 지나 지킴은 더욱 엄밀해진다. 그러므로 성곽(城郭)을 가지고 굳게 하지 않고,택실(宅室)을 가지고 거하지 않고, 가슴 속에 생각을 간직하여 삼군(三軍)을 복종시키는 자, 이것이 옛날의 현명한 장수였다. 나 척계광이 감히 생각건대 아침 저녁으로 칼을 갈아 오늘 내가 한 말을 저버리지 않거나 해야 할 것이로다. 이에 이 서문을 쓴다.



▣ 『紀效新書』 목록(目錄)

- 교습차제[敎習次第: 교습하는 차례]

◆ 제1권 속오편[束伍篇]

- 편오법[編伍法: 대오를 편성하는 방법]
- 편오해[編伍解: 대오 편성에 대한 해설]
- 명활법[明活法: 운용하는 방법]
- 실복험[實復驗: 시험과 평가를 충실히 함]
- 구모정[究冒頂: 거짓으로 속여 대리 입대하는 것을 밝힘]
- 편병패[編兵牌: 병사들의 대오를 편성하는 패]
- 서사려[誓師旅: 부대별로 맹세하는 글]
- 별칭호[別稱呼: 칭호를 구별함]
- 분영해[分營解: 진영 분리에 대한 해설]
- 한잡류[限雜流: 잡류의 수에 대한 한도를 둠]
- 원선병[原選兵: 병사 선발의 근본을 추구함]
- 조책적[造冊籍: 책자와 문서를 만듦]
- 한보결[限補缺: 결원 보충에 관한 한계를 정함]

◆ 제2권 이목편[耳目篇]

- 연호포[練號砲: 호포에 대한 훈련]
- 기고해[旗鼓解: 깃발과 북에 대한 해설]
- 연호적[練號笛: 호적에 대한 훈련]
- 연나팔[練喇叭: 나팔에 대한 훈련]
- 연바라[練唃囉: 바라에 대한 훈련]
- 연라[練羅: 징에 대한 훈련]
- 연고[練鼓: 북에 대한 훈련]

- 연발[練鉢: 솔발에 대한 훈련]
- 연징[練鉦: 징에 대한 훈련]
- 연기[練旗: 깃발에 대한 훈련]
- 수발방[首發放: 발방을 먼저 함]
- 발방도[發放圖: 발방하는 도형]
- 연전령[練傳令: 전령에 대한 훈련]
- 변기치[辨旗幟: 기치를 분별함]
- 야영등제[夜營燈製: 야간에 진영을 밝히는 등불의 제작]
- 조개도[罩蓋圖: 등불가리개 그림]
- 야영등해[夜營燈解: 야간에 진영을 밝히는 등불에 대한 해설]
- 대장기고해[大將旗鼓解: 대장의 기치와 금고에 대한 해설]
- 당보기제[塘報旗製: 당보기의 제원]
- 청도기제[淸道旗製: 청도기의 제원]
- 금고기제[金鼓旗製: 금고기의 제원]
- 문기제[門旗製: 문기의 제원]
- 대오방기[大五方旗: 대오방기의 제원]
- 중오방기[中五方旗: 중오방기의 제원]
- 고조기제[高照旗製: 고조기의 제원]
- 중군좌독기제[中軍左纛旗製: 중군좌독기의 제원]
- 각기제[角旗製: 각기의 제원]
- 대장청도[大將淸道: 대장청도기의 도형]
- 금환화[禁喧嘩: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금지함]

◆ 제3권 수족편[手足篇]

- 장기단용[長器短用: 장병무기를 단병무기로 사용함]
- 신기해[神器解: 신기에 대한 해설]
- 수기해[授器解: 병기 지급에 대한 해설]
- 조총전제[鳥銃全製: 조총의 전체 제원]

22 『紀效新書』(上)

- 조총해[鳥銃解: 조총에 대한 해설]
- 화약제[火藥製: 화약을 제조하는 방법]
- 호준포제[虎蹲砲製: 호준포의 제원]
- 호준포해[虎蹲砲解: 호준포에 대한 해설]
- 자모총제[子母銃製: 자총과 모총의 제원]
- 자모총해[子母銃解: 자총과 모총에 대한 해설]
- 화전제[火箭製: 불화살의 제원]
- 화전해[火箭解: 불화살에 대한 해설]
- 궁시제[弓矢製: 궁시의 제원]
- 실악사도[實握射圖: 실제로 활을 쥐고 쏘는 도형]
- 궁시해[弓矢解: 궁시에 대한 해설]
- 지기제[指機製: 활각지의 제원]
- 지기해[指機解: 활각지에 대한 해설]
- 궁노제[弓弩製: 궁노의 제원]
- 노해[弩解: 쇠뇌에 대한 해설]
- 경과해[耕戈解: 매복용 쇠뇌에 대한 해설]



◆ 제4권 수족편[手足篇]

- 단기장용해[短器長用解: 단병무기를 장병무기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해설]
- 등패제[籐牌製: 등패의 제원]
- 등패해[籐牌解: 등패에 대한 해설]
- 등패습법[籐牌習法: 등패 연습 방법]
- 요도제[腰刀製: 요도의 제원]
- 요도해[腰刀解: 요도에 대한 해설]
- 표창제[鏢鎗製: 표창의 제원]
- 장도제[長刀製: 장도의 제원]
- 장도해[長刀解: 장도에 대한 해설]

- 왜서습법[倭書習法: 왜구의 책에 있는 연습방법]
- 당과제[鎗鈹製: 당과의 제원]
- 당과해[鎗鈹解: 당과에 대한 해설]
- 당과습법[鎗鈹習法: 당과의 연습 방법]
- 습과보법[習鈹步法: 당과의 걸음걸이 연습방법]
- 낭선제[狼筴製: 낭선의 제원]
- 낭선습법[狼筴習法: 낭선의 연습 방법]
- 장창제[長槍製: 장창의 제원]
- 장창해[長鎗解: 장창에 대한 해설]
- 장창습법[長鎗習法: 장창을 연습하는 방법]

◆ 제5권 수족편[手足篇]

- 대봉제[大棒製: 대봉의 제원]
- 대봉해[大棒解: 대봉에 대한 해설]
- 총결가[總訣歌: 비결을 총괄한 노래]
- 총보목[總步目: 보법의 총목록]
- 곤봉습법[棍棒習法: 곤봉을 연습하는 방법]
- 권법해[拳法解: 권법에 대한 해설]
- 권법도[拳法圖: 권법에 대한 도형]
- 서기계[書器械: 병장기에 대한 기록을 유지함]
- 존교사[尊教師: 교사를 존중하도록 함]
- 기화법[忌花法: 화법을 꺼려함]
- 논향병[論鄉兵: 지방 병으로 편성된 병정에 대한 논의]
- 양전마[養戰馬: 전투용 군마를 기름]
- 양화병간수[養火兵看守: 화병을 양성하여 간수하게 함]

◆ 제6권 비교편[比較篇]

- 비무예해[比武藝解: 무예 비교에 대한 해설]
- 권화병[勸火兵: 화병을 권면함]
- 대비교[大比較: 대규모로 무예를 비교함]
- 교화기[校火器: 화기를 비교함]
- 수화기[收火器: 화기의 수납 관리]
- 찰유실[察遺失: 총기유실에 대한 감독]
- 계손폐[稽損廢: 손실품과 폐품의 조사]
- 교원패[校圓牌: 원패를 비교함]
- 교표창[校鏢槍: 표창을 비교함]
- 교장도당과[校長刀鎗: 장도와 당과를 비교함]
- 교장창[校長槍: 장창을 비교함]
- 교대봉[校大棒: 대봉을 비교함]
- 교눌함[校吶喊: 고함 소리를 비교함]
- 교마기[校磨旗: 깃발 휘두르는 것을 비교함]
- 교타고[校打鼓: 북치는 것을 비교함]
- 비분구칙[比分九則: 비교하고 구분하는 아홉 가지 법칙]
- 비잡류[比雜流: 비정규 군속을 비교함]
- 비연좌[比連坐: 연좌하여 비교함]
- 상벌책식[賞罰冊式: 상벌에 관한 문서 양식]
- 분사습[分私習: 부대를 나누어 무예를 스스로 익히게 함]
- 금화법[禁花法: 화법을 금지함]
- 습예기[習藝期: 무예를 익힐 수 있는 시기]
- 유차역[有差役: 현지 주민의 차역으로 무예를 조련시킴]

◆ 제7권 영진편[營陣篇]

- 영진해[營陣解: 영과 진에 대한 해설]
- 영루해[營壘解: 영루에 대한 해설]
- 원기해[圓機解: 접적시 기밀 유지에 대한 해설]
- 근경마[謹驚馬: 말이 놀라지 않도록 삼감]
- 치후기[治後期: 집합 시기에 늦은 책임을 다스림]
- 계차피[稽差避: 규정을 어기고 숨기는 것을 조사함]
- 정등위[正等威: 부대의 등급과 위의를 바르게 함]
- 근영벽[謹營壁: 영벽의 관리를 삼감]
- 엄영문[嚴營門: 영문의 관리를 엄중히 함]
- 신계방[慎啓放: 인원출입을 엄중히 관리함]
- 계출영[稽出營: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을 살핌]
- 사군기[查軍器: 병기 검사]
- 혁신차[革抽差: 병력을 함부로 빼내는 것을 단속함]
- 노협일자행도극처우경거호포일성입정도[路狹一字行到極處遇警舉號砲一聲立定圖: 길이 좁으면 일자로 나아가 막바지에 이르러 경계할 상황에 다졌을 때 신호포 한 방을 쏘아 올리고 부대를 정지시킨 도형]
- 방기초선출입표도[五方旗招先出立表圖: 오방기와 초기가 먼저 나아가 표를 세우는 도형]
- 입표해[立表解: 표기를 세우는 방법에 대한 해설]
- 부표해[附表解: 부표에 대한 해설]
- 행영도[行營圖: 진영설치도형]
- 초를 3개 기로 하고 1개 기를 3개 대로 편성하여 나란히 행군하는 도형]
- 일사오초행도[一司五哨行圖: 1사를 5초로 편성하여 행군하는 도형]
- 열진도[列陣圖: 진영을 배열하는 도형]
- 방영도[方營圖: 방영의 도형]
- 복병해[伏兵解: 복병에 대한 해설]

- 출진수변취어본진내설복도[出戰隨變就於本陣內設伏圖 : 출진하여 변화에 따라 본진 안에 복병을 설치하는 도형]
- 복병기출노영병급응원각병즉회신향전도[伏兵既出老營兵急應原却兵卽回身向前圖 : 복병이 이미 출진하고 주장이 위치한 본진의 병력이 급히 우군의 작전을 지원하고 형세에 호응하면, 최초로 퇴각했던 병력이 즉시 몸을 돌이켜 전방을 향하여 공격하는 도형]
- 조복해[操伏解 : 복병대비훈련에 대한 해설]
- 척복병[飭伏兵 : 복병에 대한 경계]
- 연설복도[練設伏圖 : 복병 배치 훈련에 대한 도형]
- 분련해[分練解 : 부대를 나누어 조련하는 것의 해설]
- 원양진도[鴛鴦陣圖 : 원양진의 도형]
- 양의진변삼재진도[兩儀陣變三才陣圖 : 양의진을 삼재진으로 변형시키는 도형]
- 원양진해[鴛鴦陣解 : 원양진에 대한 해설]
- 영액해[營額解 : 진영의 인원수에 대한 해설]
- 야영해[夜營解 : 야간 숙영 훈련 한 해설]
- 조후해[操後解 : 조련이 끝난 뒤의 행동 요령 해설]
- 야호해[夜號解 : 야간 암호에 대한 해설]
- 등화해[燈火解 : 등화에 대한 해설]
- 암영해[暗營解 : 암영에 대한 해설]
- 변보사[辨報事 : 보고할 사안을 분변함]
- 전야전[傳夜箭 : 야간의 신호로서 화살을 전달함]
- 하야영[下夜營 : 야간 진영을 설치함]
- 명암해[明暗解 : 명영과 암영에 대한 해설]
- 출야기[出夜奇 : 야간에 기병을 출격시킴]
- 경주해[更籌解 : 시각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해설]
- 신갑도[身甲圖 : 몸에 입는 갑옷의 도형]
- 신갑해[身甲解 : 갑옷에 대한 해설]
- 정대[鞞帶 : 허리띠]
- 두모도[兜牟圖 : 투구와 팔 보호대의 도형]

- 두모해[兜牟解: 투구에 대한 해설]
- 비수해[臂手解: 팔 보호대에 대한 해설]
- 안영거마제[安營拒馬製: 진영 배치 후에 적 기병의 침입을 막기 위한 장애물 제조 방법]
- 거마해[拒馬解: 거마에 대한 해설]
- 질려제[蒺藜製: 마름쇠 제조 방법]
- 질려해[蒺藜解: 마름쇠에 대한 해설]
- 귀전도[鬼箭圖: 귀전의 도형]

◆ 제8권 행영편[行營篇]

- 연계행해[練啓行解: 출정길에 오르는 과정의 훈련 해설]
- 결장식[結狀式: 문서 작성의 격식]
- 상계행[詳啓行: 출정 길에 오르는 과정을 상세히 함]
- 일로변이로행영도[一路變二路行營圖: 일로를 이로로 변형시켜 진영을 설치하는 도형]
- 이로변삼로행영도[二路變三路行營圖: 이로를 삼로로 변형시켜 진영을 설치하는 도형]
- 삼로변사로행영도[三路變四路行營圖: 삼로를 사로로 변형시켜 진영을 설치하는 도형]
- 행암영해[行暗營解: 암영 설치에 대한 해설]
- 선봉해[選鋒解: 정예병 선발에 대한 해설]
- 청화기[請火器: 화기 지급 요청]
- 정보사[定報事: 사안을 보고하는 절차를 정함]
- 전호령[傳號令: 명령과 지시의 전달]
- 청행오[淸行伍: 행군 대열의 정리 정돈]
- 금장령[禁將令: 장수가 어겨서는 안될 금지사항]
- 방해수[防解手: 대열에서의 이탈을 방지함]

- 수병핍[收病乏: 병들어서 지친 자를 거둠]
- 근도유[謹途遺: 길에 떨어진 물건을 조심스럽게 다룸]
- 도수조[渡水阻: 물길이 막힌 곳을 건너감]
- 변분병[辨分兵: 분산해서 나가는 부대를 분별함]
- 우산림[遇山林: 행군중에 산림을 만났을 경우 조치 방법]
- 우졸경[遇卒警: 갑작스런 경계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 봉괴이[逢怪異: 괴이한 상황에 부딪침]
- 엄초법[嚴哨法: 초계 근무 방법을 엄중히 관리함]
- 밀군기[密軍機: 군사기밀을 엄밀히 유지함]
- 연부중[練負重: 휴대품의 중량에 대한 훈련]
- 비건초[備乾炒: 말리고 볶은 식량의 준비]
- 임숙해[任宿解: 유숙할 장소 마련 절차에 대한 해설]
- 발순시[撥巡視: 순시기를 다스림]
- 변간세[辨奸細: 간첩과 세작을 분별함]
- 방무역[防貿易: 무역을 방지함]
- 신군령[申軍令: 군령을 명백히 밝힘]
- 발야순[撥夜巡: 야간 순찰 관리 운용]
- 육병주행해[陸兵舟行解: 육군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의 해설]
- 연계행[練啓行: 출발시점의 연습]
- 분영종[分營踪: 선박으로 구성된 진영을 나눔]
- 명경고[明更鼓: 밤 시각을 알리는 북의 신호를 분명히 함]
- 발방호[撥防護: 방호체계를 운용함]

◆ 제9권 야영편[野營篇]

- 차야영해[筭野營解: 야영 설치에 대한 해설]
- 한소수[限蔬水: 채소를 사오고 물을 길어오는 시간을 제한함]
- 정초채[定樵採: 땔나무를 채취하는 규정을 둠]

- 발복로[撥伏路: 복병을 운용함]
- 금환동[禁喧動: 시끄럽게 떠들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금지함]
- 알인축[遏人畜: 사람과 가축의 접근을 막음]
- 방축소[放廁所: 축간을 이용하는 요령]
- 변순전[辨巡箭: 순찰용 화살을 분별함]
- 중야령[重夜令: 야간 군령을 엄중히 함]
- 하암영[下暗營: 암영을 설치함]
- 명재발[明再發: 명령을 뚜렷히 다시 말함]

◆ 제10권 실전편[實戰篇]

- 계총수[戒銃手: 총수에 대한 징계]
- 징허총[懲虛銃: 공포 발사에 대한 징계]
- 신연좌[申連坐: 연좌제도를 명백히 함]
- 신전구[申戰穀: 전투의 원칙을 분명히 함]
- 책구응[責救應: 호응하여 구원하는 책임을 추궁함]
- 흘진망[恤陣亡: 싸움터에서 죽은 이를 보살핌]
- 기배상[棄背傷: 등 뒤에 부상을 입은 자는 버림]
- 제사심[齊士心: 군사들의 마음을 정제시킴]
- 공적자[公賊賫: 적의 재물을 공유함]
- 원군법[原軍法: 군법을 명확히 함]
- 벌고피[罰故避: 고의로 회피하는 것을 처벌함]
- 금사수[禁私讐: 사사로이 원수값는 것을 금지함]
- 처수함[處水陷: 깊은 하천과 마주쳤을 경우]
- 경산곡[經山谷: 산 골짜기를 지나감]
- 사기고[死旗鼓: 기고와 함께 죽음]
- 실전마[失戰馬: 전마를 상실함]
- 정추병[整追兵: 추격 병력을 정비함]
- 분영공[分零功: 영세한 공로를 구분함]
- 보진향[保陣降: 전진에서 항복하는 자를 보호함]

- 형부간[刑俘姦: 포로를 간음한 자를 처벌함]
- 신망살[愼妄殺: 함부로 죽이는 것을 삼감]
- 전후육책[戰後六冊: 전후에 이루어져야 할 여섯 가지 보상계획]
- 보진상[報戰傷: 전상자에 대한 보상]
- 보진망[報陣亡: 전사자에 대한 보상]
- 보공급[報功級: 적의 수급을 획득한 공로에 대한 보상]
- 보인구[報人口: 적의 포로를 포획한 공로에 대한 보상]
- 보군기[報軍器: 적의 군기를 노획한 공로에 대한 보상]
- 보마필[報馬匹: 적의 마필을 노획한 공로에 대한 보상]

◆ 제11권 담기편[膽氣篇]

- 
- 담기해[膽氣解: 담기에 대한 해설]
 - 원감소[原感召: 원한과 소원을 분명히 가림]
 - 원입신[原立信: 신의를 분명히 세움]
 - 사환양[思參養: 기르고 관리할 것을 생각함]
 - 준절제[遵節制: 절제를 따름]
 - 신구이[信口耳: 입과 귀를 믿음]
 - 신약속[申約束: 약속을 분명히 함]
 - 습정구[習正穀: 전술의 원칙을 익힘]
 - 상책성[詳責成: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힘]
 - 수군례[守軍禮: 군례를 지킴]
 - 정명법[正名法: 명분과 법규를 바로잡음]
 - 금맥월[禁驀越: 뛰어 넘음을 금지함]
 - 계공과[稽功過: 공로와 과실을 살핌]
 - 금이령[禁二令: 두가지 명령을 금함]
 - 원군예[原羣藝: 집단 전기를 분명히 함]
 - 신군기[申軍紀: 군기를 분명히 함]
 - 공상벌[公賞罰: 상벌을 공정히 함]

- 달사정[達士情 : 사졸들의 사정을 숙지함]
- 순사욕[循士慾 : 사졸들이 바라는 바에 따름]
- 집일차[戢溢差 : 교만하고 넘침을 단속함]
- 체초범[體初犯 : 초범을 참작함]
- 홀병상[恤病傷 : 병상자를 구휼함]
- 분군향[分軍餉 : 군향을 고루 분배함]
- 입도약[立逃約 : 도망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세움]
- 보군한[補軍限 : 군비의 한도를 보충함]
- 의포국[擬捕鞠 : 체포와 심문을 헤아림]
- 명구섭[明句攝 : 공무 처리를 명백히 함]
- 엄도령[嚴途令 : 행군도상의 군령을 엄히 함]
- 권함인[勸涵忍 : 관용과 인내를 권면함]
- 금절도[禁竊盜 : 절도를 금함]
- 금박혁[禁博奕 : 장기 바둑을 금함]
- 금괴의[禁乖議 : 비정상적인 논의를 금함]
- 계거상[戒居常 : 평상시의 행동거지를 경계함]
- 원분수[原分數 : 분수를 명백히 함]

◆ 제12권 주사편[舟師篇]

- 속오해[束伍解 : 속오에 대한 해설]
- 기색해[旗色解 : 기색에 대한 해설]
- 호대색[號帶色 : 호대의 색]
- 대장기식[隊長旗式 : 대장기의 격식]
- 책성해[責成解 : 책임추궁에 대한 해설]
- 편병해[編兵解 : 부대 편성에 대한 해설]
- 대기식[大旗式 : 대기의 격식]
- 강열시도[缸閱視圖 : 전함 사열의 도형]
- 수기총해[授器總解 : 병기 지급에 대한 총괄적 해설]

- 수기해[授器解 : 병기지급에 대한 해설]
- 강정제[艇艇製 : 강정의 제원]
- 화기총해[火器總解 : 화기에 대한 총괄적 해설]
- 신비포제[神飛砲製 : 신비포의 제원]
- 신비포해[神飛砲解 : 신비포에 대한 해설]
- 육합총제[六合銃製 : 육합총의 제원]
- 육합총해[六合銃解 : 육합총에 대한 해설]
- 불랑기제[佛狼機製 : 불랑기의 제원]
- 불랑기해[佛狼機解 : 불랑기에 대한 해설]
- 삼비제[三飛製 : 삼비의 제원]
- 삼비해[三飛解 : 삼비에 대한 해설]
- 분통제[噴筒製 : 분통의 제원]
- 분통해[噴筒解 : 분통에 대한 해설]
- 화통제[火筒製 : 화통의 제원]
- 화통해[火筒解 : 화통에 대한 해설]
- 구검제[鈎鎌製 : 구검의 제원]
- 구검해[鈎鎌解 : 구검에 대한 해설]
- 요구제[撓鈎製 : 요구의 제원]
- 요구해[撓鈎解 : 요구에 대한 해설]
- 이두표해[犁頭鏢解 : 이두표창에 대한 해설]
- 소표제[小鏢製 : 소형표창의 제원]
- 소표해[小鏢解 : 소형표창에 대한 해설]
- 고망제[罟網製 : 고망의 제원]
- 고망해[罟網解 : 고망에 대한 해설]
- 주사호령[舟師號令 : 수군선단의 지휘 명령 신호체계]
- 열영도[閱營圖 : 진영사열의 도형]
- 수조해[水操解 : 수군 조련에 대한 해설]
- 발강호령[發艇號令 : 선박 출발의 지휘 명령 신호체계]
- 행박호령[行泊號令 : 출동 정박의 지휘 명령 신호체계]
- 야행호령[夜行號令 : 야간출동의 지휘 명령 신호체계]



- 수진호령[水戰號令 : 수진의 지휘 명령 신호체계]
- 조석가[潮汐歌 : 조석의 노래]
- 태양가[太陽歌 : 태양의 노래]
- 인시가[時歌 : 인시의 노래]
- 조신가[潮信歌 : 조신의 노래]
- 풍도가[風濤歌 : 풍도의 노래]
- 수병육조[水陸操水 : 수군을 육제에서 조련함]
- 장내열도[場內列圖 : 장내의 대열편성 도형]

◆ 제13권 수초편[守哨篇]

- 
- 성제[城製 : 성곽의 제원]
 - 성해[城解 : 성곽에 대한 해설]
 - 치제[雉製 : 치의 제원]
 - 치해[雉解 : 치에 대한 해설]
 - 현안제[懸眼製 : 현안의 제원]
 - 현안해[懸眼解 : 현안에 대한 해설]
 - 타구전제[堞口塼製 : 타구전의 제원]
 - 타구전해[堞口塼解 : 타구전에 대한 해설]
 - 중문루제[重門樓製 : 중문루의 제원]
 - 중문루해[重門樓解 : 중문루에 대한 해설]
 - 웅성문제[甕城門製 : 웅성문의 제원]
 - 웅성문해[甕城門解 : 웅성문에 대한 해설]
 - 기성포제[騎城舖製 : 기성포의 제원]
 - 기성포해[騎城舖解 : 기성포에 대한 해설]
 - 와포제[窩舖製 : 와포의 제원]
 - 와포해[窩舖解 : 와포에 대한 해설]
 - 우마장제[牛馬牆製 : 우마장의 제원]
 - 우마장해[牛馬牆解 : 우마장에 대한 해설]

34 『紀效新書』(上)

- 성하해[城河解 : 성하에 대한 해설]
- 성기해[城忌解 : 성기에 대한 해설]
- 군화기[軍火器 : 군용 화기]
- 쾌창제[快槍製 : 쾌창의 제원]
- 쾌창해[快槍解 : 쾌창에 대한 해설]
- 성면초창[城面草廠 : 성면의 움집]
- 현등제[懸燈製 : 현등의 제원]
- 현등해[懸燈解 : 현등에 대한 해설]
- 표석제[飄石製 : 표석에 대한 해설]
- 표석해[飄石解 : 표석에 대한 해설]
- 입중군해[立中軍解 : 중군을 세우는 데에 대한 해설]
- 복로해[伏路解 : 복로군에 대한 해설]
- 파수해[派守解 : 파수에 대한 해설]
- 수성호령[守城號令 : 수성의 지휘 명령 신호체계]
- 연수성[練守城 : 수성 훈련]
- 수야해[守夜解 : 야간 수비에 대한 해설]
- 수성군법[守城軍法 : 수성에 관한 군법]
- 초료법[哨瞭法 : 초계하고 적정을 살피는 방법]
- 둔후제[墩埃製 : 둔후의 제원]
- 봉후해[烽埃解 : 봉후에 대한 해설]
- 설관집[設官什 : 관용 집물의 설치]
- 칩돈관[飭墩官 : 돈관을 단속함]
- 보경호령[報警號令 : 경계경보상황의 지휘 명령 신호체계]
- 주보군법[走報軍法 : 경보 보고에 관한 군법]
- 사점법식[查點法式 : 사열과 점검의 법식]

◆ 제14권 연장편[練將篇]

- 정심술[正心術 : 심술을 바르게 함]
- 입지향[立志向 : 지향하는 바를 세움]
- 명사생[明死生 : 죽음과 삶을 명백히 함]
- 변이해[辨利害 : 이해를 분변함]
- 주호인[做好人 : 호인이 됨]
- 견조수[堅操守 : 조행을 굳게 지킴]
- 관도량[寬度量 : 도량을 넓힘]
- 상겸허[尙謙虛 : 겸허를 숭상함]
- 석관잠[惜官箴 : 관의 법규를 엄수함]
- 근직업[勤職業 : 직무에 충실함]
- 변효법[辨效法 : 효과가 뛰어난 법을 분변함]
- 정병법[精兵法 : 병법에 정통함]
- 습무예[習武藝 : 무예를 익힘]
- 정명분[正名分 : 명분을 바르게 함]
- 애사졸[愛士卒 : 사졸을 사랑함]
- 교사졸[教士卒 : 사졸을 가르침]
- 척은위[飭恩威 : 은혜와 위엄으로 단속함]
- 엄절제[嚴節制 : 절제를 엄격히 함]
- 변직수[辨職守 : 직무 수행을 분변함]
- 징성색[懲聲色 : 성색을 경계함]
- 경화리[輕貨利 : 재물의 이익을 가볍게 여김]
- 기강팍[忌剛愎 : 강팍함을 꺼림]
- 오승인[惡勝人 : 남을 이기기를 싫어함]
- 계봉영[戒逢迎 : 아첨과 영함을 경계함]
- 기위미[忌委靡 : 직무의 유기르 꺼림]
- 박공명[薄功名 : 공명을 하찮게 여김]
- 연장혹문[練將或問 : 장수의 자질 연마에 대한 어떤 이의 물음]

◆ 제15권 별집 진도편[別集陣圖篇]

- 팔진총도[八陣總圖]
- 천복진[天覆陣]
- 지재진[地載陣]
- 풍양진[風陽陣]
- 운수진[雲垂陣]
- 용비진[龍飛陣]
- 호익진[虎翼陣]
- 조상진[鳥翔陣]
- 사반진[蛇蟠陣]
- 변진전도[變陣全圖]
- 낭아진[狼牙陣]
- 뇌굉진[雷轟陣]
- 변진도해[變陣圖解 : 변진도해]
- 낭아진해[狼牙陣解 : 낭아진에 대한 해설]
- 뇌굉진해[雷轟陣解 : 뇌굉진에 대한 해설]
- 유병론[遊兵論 : 유병에 대해서 논함]
- 연금기도[演禽旗圖]
- 육정기도[六丁旗圖]
- 육갑기도[六甲旗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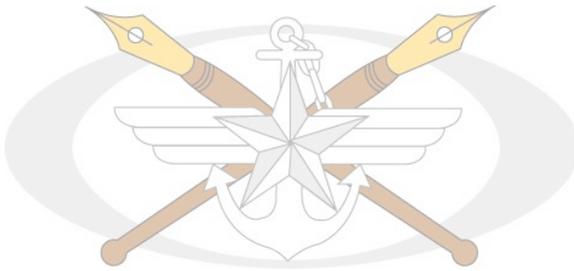
◆ 제16권 별집 거영편[別集車營篇]

- 전차도[戰車圖 : 전차의 도형]
- 거영도[車營圖 : 거영의 도형]
- 거영해[車營解 : 거영에 대한 해설]

◆ 제17권 별집 기영편[別集騎營篇]

- 마병대도{馬兵隊圖 : 마병대의 도형}
- 기영도[騎營圖 : 기병진영의 도형]
- 기영해[騎營解 : 기병진영에 대한 해설]
- 치중거도[輜重車圖 : 치중거의 도형]
- 치중영도[輜重營圖 : 치중진영의 도형]
- 치중영해[輜重營解 : 치중진영에 대한 해설]

◆ 제18권 별집 등단구수[別集登壇口授]



□ 교습차제[敎習次第：교습하는 차례]

1. 군대를 편성한 대오(隊伍)의 군졸은 어리석은 사나이들이다. 갑옷과 투구로 무장한 무사는 문자에 익숙하지 않다. 그러므로 그 언사(言辭)는 반드시 흔히 보고 들을 수 있을 만큼 알기 쉽고 약속(約束)된 조목(條目)과 가까워야 하며, 반드시 간단하고 쉬워야 한다. 완전무결하고 빈틈없이 절제(節制)된 군대(軍隊)를 만들기 위하여 이 얼마 안되는 몇권의 책에 많지는 않으나 총괄하고 요약하여 한마디로 다 갖추고자 하였으니, 꾸짖어 바로잡아주기 바란다.

1. 연습시키는 방법으로서 병사를 통솔하는 장교(將校) 이상에게는 먼저 속오편(束伍篇)을 익히게 하고, 병사(兵士)에게는 먼저 이목편(耳目篇)을 익히게 하고, 장교의 경우에는 [속오편과 이목편] 모두 다 익게 한다. 매 1기(旗) 마다 문자(文字)를 아는 사람 하나를 뽑아서 외우고 새기면서 해석하고 강론(講論)하게 하되, 그 대 전체가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기억하게 하고, 군중(軍中)에서 대포(大砲)를 놓는 호총수(號銃手)는 호수(號手)와 고수(鼓手)와 기수(旗手)를 주관한다. 한결같이 연습하는 것이 한층 더 긴요하다.

1. 다음에 수족편(手足篇)을 주어서 연습시키되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장교는 각각 한가지만을 일삼아서 전문적으로 익히고, 병사는 각각 손으로 하는 기예(技藝)를 일삼아서 자신과 관련되는 조항만을 보고, 자신에게 지급되지 않은 병기(兵器)에 관해서는 중복해서 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뜻이 있는 자는 이 책 전부가 비록 분량이 많다고는 하나 조금씩 나누어서 익히면 간편할 것이다.

1. 다음에 영진편(營陣篇)을 주어서 연습시키되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총(旗總) 이상 장령(將領)에 이르기까지 이를 익히게 한다. 대장(隊長) 이하는 장조(場操)에서 요점을 암송하되 반드시 책을 볼 필요는 없다. 대개 병사들은 어리석으니 많이 보면 도리어 스스로 두려워하고 의심한다.

1. 다음에 행영편(行營篇)과 야영편(野營篇) 두 권을 주어서 연습 시키되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온 군영(軍營)에서 다 같이 이를 익히도록 한다.

1. 다음에 실전(實戰)을 가지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온 군영에서 다 같이 이를 익혀서 알도록 하면 사졸(士卒)들이 익힐 것은 모두 끝이 난다.

1. 다음에 담기편(膽氣篇)을 가지고 장교들에게 주어서 이를 연습 시키고, 각 병사들에게는 따로이 마땅히 익혀야 할 분야를 선택하여 이를 익히게 하되, 반드시 모두 다 익힐 필요는 없다.

1. 흑문편(或問篇)과 연장편(練將篇)은 장교들에게만 주어 파총(把摠) 이상으로부터 이를 익히게 한다. 그러나 병사(兵士)·무생(武生) 및 지방의 유생(儒生)·민(民)정(丁)으로서 배우기를 바라는 자가 있으면 모두에게 이를 익히도록 한다.

1. 주사편(舟師篇) 한 권은 오로지 수병(水兵)을 위한 것이니 육병(陸兵)의 장교들에게는 반드시 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배우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제한을 두지 않는다. 수병의 장교는 다만 주사(舟師)로 전업(專業)을 삼으나 수병으로 육조(陸操)를 받을 경우에는 육병의 수족편(手足篇)과 담기편(膽氣篇) 및 영진편(營陣篇)을 모두 익히게 한다. 이 경우, 주사 훈련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그 여력으로 겸하여 익히되 각 조항의 차례에 근거한다.

1. 수초편(守哨篇)에는 각각 책임자를 두어 이를 익히게 해야 한다.

1. 항상 무예(武藝)를 비교(比較)하고 점검 사열하여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작은 과실이 있어 문책하여 다스려야 할 자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상벌(賞罰)을 시행한다. 다섯 개 조항을

암송할 수 있으면 한차례의 곤장 치는 것을 면제하는데, 이와 같이 시행하면 경계할 것도 없이 저절로 숙달될 것이다. 다만 벌로써 벌여 놓은 조목들을 돌아서서 암송하는 자는 반드시 글의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외울 필요는 없다. 다만 벌여 놓은 조목들의 내용의 대의(大義)를 이해하고 기억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돌아서서 암송하는 시험의 준례로 삼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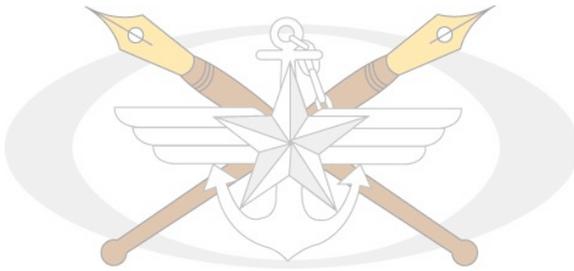
1. 병영(兵營) 안의 사람들이 각자 익히기를 기다려서 그 학습 성과를 살펴서 이를 인정하고, 학습을 하였으나 통달하지 못한 자는 그 성과에 따라서 이를 통달하게 해야 한다. 이 구절은 매우 오묘하고 빠른 방법이니 이대로 실행하면 저절로 그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

1. 장교로서 편장(偏將)이나 비장(裨將) 이상은 반드시 벌여 놓은 조목 조목들 모두를 익혀서 알고, 해당 부하 사졸들이 익히는 바의 조목들도 또한 반드시 숙달되게 익혀야 한다.

1. 사졸들에게는 매번 한 책만을 주되 매 책은 많아야 수십여 조항을 넘지 못하게 하여, 하루에 짤막한 조목에 한해서 세 조목만 암기하게 하고, 긴 조목은 하루, 이틀, 또는 사흘에 한 조목을 암기하게 하여 한 달에 한 두 책을 암기하게 한다. 한 책의 내용을 숙지하기를 기다려 다시 한 책을 주어야 한다. 지금 간행한 책의 매 1권을 하나의 대본으로 하는 것은 바로 각 대(隊)와 오(伍)에 나누어주기 편리하기 위해서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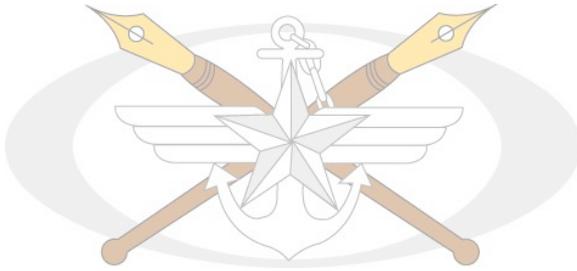
1. 이와 같이 가르치면 우매한 사졸들을 날로 거기에 끌어들여 [그들로 하여금] 그 양이 많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온 군대 거의 모두가 어리석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환하게 깨달아서 알 것이다. 대략 이와 같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싸울게 할 수 있으니, 이를 일러 빈틈없이 절제된 군대라고 할 수 있으며, 토끼그물처럼

뻑뻑하고 든든한 방패와 성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군의 대오가 거동할 때에는 모두가 병사(兵事)를 아는 장수인 것이다. 하나를 가르침으로써 열 개로 늘리어 이를 충실히 하면 일년 안에 빈틈없이 절제된 군사를 수효 10만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순차적으로 요점을 뽑아 인쇄하여 매 대마다 한 권씩 지급할 것이니 비용이 드는 것을 걱정할 것도 없다.



[紀效新書(上)]

권1 속오편[束伍篇]



■ 권1 속오편[束伍篇]

다수 인원을 다스리는 것은 소수 인원을 다스리는 것과 같으니 분수(分數)가 이와 같다. 분수란 군사를 다스리는 원칙이다. 속오(束伍 : 대오편성)는, 분수의 요점이다. 예컨대 십이진(十二辰)²¹⁾·구군(九軍)²²⁾·팔진(八陣)²³⁾·육화진(六花陣)²⁴⁾·사문(四門)²⁵⁾ 등 일체의 법은 다만 오법(伍法) 안의 변화에 달려있다. 계획을 이미 결정하고 정기(旌旗)를 더하여 뜻말을 세우고 방색(方色)²⁶⁾을 배치하여 밝히면 비록 발두령의 농부라 할지라도 복소리 한 번에 대열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속오편(束伍篇)으로 여러 편을 관통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차례를 삼기 바란다.

▣ 편오법[編伍法 : 대오를 편성하는 방법]

장수(將帥)는 교련할 관병(官兵) 몇 명을 뽑되, 전날 각기 직분을 나누어 목패(木牌) 여섯 개를 만들어 매 패마다 탁자 1장을 써서 묶어 각 대열의 한 곳에 세워 장소를 미리 정한다. 각 편오(編伍)의 관생(官生)은 성명을 써서 패의 뒷면에 채워 넣는다. 선발을 맡은 자는 그런 다음에 일을 시행하는데, 이에 앞서 파총(把摠)은 초관

21) 고대 동양에서 쓰던 간지(干支)의 옛 이름

22) 구군(九軍)은 천자(天子)의 육군(六軍)과 제후(諸侯)의 삼군(三軍) 통칭한 것, 또는 수효가 많은 대규모의 군대를 가리킨다.

23) 팔진(八陣)은 고대에 작전을 할때 운용하던 진법(陣法)의 일종

24) 육화진(六花陣)은 당(唐)나라의 이정(李靖)이 제갈량의 팔진법(八陣法)을 본떠서 창제한 진법이다.

25) 사문(四門)은 명당의 사방에 난 문, 또는 무술(武術) 명사(名詞)로서 칼로 곤봉이나 권법을 상대로 상대방을 요리하는 일종의 자세를 말한다.

26) 동, 서, 남, 북, 중(中) 다섯 방위(方位)에 따른 파랑, 하양, 빨강, 검정, 노랑 등 (等) 다섯 가지의 빛

(哨官) 5명을 직접 골라 시험하고 평가해서 좌초(左哨)·우초(右哨)·중초(中哨)·전초(前哨)·후초(後哨)로 나누고 아문(衙門) 옆 땅에 앉게 하되, 앉을 때에는 반드시 혼란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다시 제1초관으로 하여금 군중 가운데에서 기총(旗總) 3명을 뽑아내 시험하고 평가해서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대(本隊)의 초관 뒤에 앉는다. 그런 다음에 다시 제2초관으로 하여금 뽑아내 시험하고 평가해서 땅에 앉게 하는데, 이와 같이 하여 다섯 개 초(哨)의 기총 선발이 끝난다. 그런 다음에 다시 제1초관 아래의 1초장(哨長)이 그 가려 뽑은 대장(隊長) 3명을 시험하고 평가해서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땅에 앉게 하는데, 이와 같이 하여 대장의 선발이 완료된다.

또다시 앞의 제1초관의 1기총 아래의 대장이 여러 병사 가운데에서 불러 일으켜 11명을 가려 뽑아서 공좌(公座)²⁷⁾ 앞에 일렬 횡대로 세우는데, 나이가 적고 골격이 부드러우며 원기가 넉넉한 자 2명을 제1·제2로 하여 등패수(藤牌手)로 충원하고, 나이가 많고 용모가 뛰어나며 솟아오르는 힘이 있는 자 2명을 제3·제4로 하여 낭선수(狼筅手)로 충원하고, 매서운 기세가 있고 골격에 힘이 넘치며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는 자 4명을 제5·제6·제7·제8로 하여 장창수(長鎗手)로 충원하고, 매서운 기세가 있고 담기(膽氣)와 성깔이 있는 자 2명을 제9·제10으로 하여 파수(鈹手)로 충원하고, 남의 밑에 들어가는 것을 기꺼이 여기는 자 1명을 제11로 하여 화병(火兵) : 취사병)으로 충원한다.

이렇게 부서가 정해지면 제1·제2를 가로로 해서 대장(隊長)이 있는 앞에 두사람씩 늘어 세우는데, 화병은 맨 끝에 위치한다. 먼저 대장은 속오(束伍)의 요패지(腰牌紙) 1매를 사용하여 [습예(習藝)의 공란에] 영(領)·대(隊) 두 글자를 채워 넣고 이목편(耳目篇)을 대조하여 방색(方色) 대기(大旗) 1쪽을 급여한다. 거기에 영(營)·오(伍)의 처소를 채워 넣고, 먼저 영·오에 성명과 대오(隊伍)를 기록하지

27) 공무(公務)를 보는 좌석(座席)

얇은 책 1본을 급여한다. 대장과 병사 11명을 함께 패(牌) 아래로 보내어 요패지에 대(隊)를 대조하여 채워 넣는다. 그런 다음에 다시 연명패(連名牌)를 보내어 출신 현과 도도(都圖: 향촌의 구획과 사방의 지도) 및 주거지역을 요패지의 공란에 채워 넣는다. 그리고, 다시 연명패를 보내어 요패지의 공란에 나이와 용모파기의 특징을 채워 넣게 한다. 그런 다음 연명패의 요패지 공란에 신장(身長)과 기력(氣力)에 관한 사항을 채워 넣게 한다. 이와 같이 하여 파기처(庖記處: 일정한 인물의 생김새나 신체상의 특징을 적은 기록을 관리하는 부서)로 보내면 담당 장교가 이를 관리한다.

모든 병사의 신체와 용모가 차이가 나서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로지 흉터의 흔적만을 가지고 따지지 말고, 쉽사리 분별하기 어려운 단서를 공란에 너댓 글자로 적어 넣으면 충분할 것이다. 나이와 용모를 관리하는 책자를 다시 보내어 요패에 연유를 채워 넣고 책자에 채워 넣은 다음 빈터로 나아가 대오를 대조한 뒤에 앉아서 상부의 지시를 기다린다.

대오를 재편할 경우에는 제1대로부터 제3대에 이르기까지 기총의 편성이 완료되면 다시 대장을 대조하고 이목편(耳目篇)을 차례로 대조하여 채워서 해당되는 방위의 방색(方色) 대기(大旗) 1쪽을 급여하는데, 바로 먼저 편성된 본기(本旗)에 해당되는 관하(管下) 제 몇 대의 앞에 자리잡는다.

제1기로부터 제3기에 이르기까지의 편성이 완료되고 초관이 인기(認旗: 지휘기)를 급여하면 즉시 본관(本管: 소속)의 초내(哨內)로 가서 자리잡고 상부의 지시를 기다린다. 다시 1초관으로 하여금 앞의 예를 참조하여 대의 병사들을 일으켜 1사의 편성을 완료한다. 그리고 1사(司)는 해가 길면 3사를 편성할 수 있고 해가 짧으면 2사를 편성할 수 있는데, 매 1사마다 대를 편성함에 있어서 먼저 살수(殺手) 4조를 완료하고 다음으로 조총(鳥銃) 1조를 완료한다.

▣ 편오해[編伍解 : 대오 편성에 대한 해설]

대오(隊伍)의 선발과 편성에 있어서는 반드시 파(把)는 초(哨)를 뽑고, 초(哨)는 기(旗)를 뽑고, 기(旗)는 대(隊)를 뽑고, 대(隊)는 병사 등을 스스로 가려서 뽑는다.²⁸⁾ 지금 스스로 선발하여 대오를 편성 하도록 하는 것은, 이 일이 선발하는 자에게 달려 있으니, 만약 때를 당하여 전진(戰陣)에서 평시의 생사(生死)를 감당해내지 못한다면 어찌하겠는가? 원래 스스로 뽑아서 편성된 사람들이 무슨 말로 스스로의 허물을 남의 탓으로 돌릴 수 있겠는가? 모두 연좌(連坐)를 시행하더라도 상부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관부(官府)의 면전에서 일시에 선발하고 시험을 하면 해가 지나기 전에 기력을 걸치레할 뿐이니 전혀 믿을 만하지 못한 것이다.

모든 선발과 편성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쓴다. 파(把)는 초(哨)를 선발하고, 초는 기(旗)를 선발하고, 기는 대(隊)를 선발하고, 대는 병(兵)을 선발한다. 이 때 각자가 평소에 아는 바가 있거나, 혹은 선후하여 함께 군에 입대하였거나, 혹은 동향관계로 서로 알거나, 혹은 함께 머물러서 서로 이웃으로 지냈을 경우에는 그 솔직하고 참된 정황과 호소함에 따른다. 그리고 평일에 법을 지키는 것과, 일을 행하는 것과, 담력과 용감하고 비겁함, 그리고 그가 무의식중에 소홀히 함이 있거나, 지금은 매우 진실하나, 스스로 뽑도록 하여 거기에 연계되어 뽑힌 자가 만약 유사시를 당하여 전장에서 싸움을 감당해 내지 못할 경우와 평시에 일을 행하는 것을 원래 뽑은 사람이 무슨 말로 스스로 핑계를 대겠는가? 비록 연좌를 행하더라도 또한 상관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28) 속오군(東伍軍)의 편제인 속오법(東伍法)은 영장(營將) 통솔하의 영(營)을 분군(分軍) 편제상 최상의 단위 부대로 삼았고, 영(營)에는 5개 사(司)를 두고, 1사에는 5개 초(哨), 1초는 3기(旗), 1기는 3대(隊), 1대는 화병(火兵) 1명과 합쳐 11명의 병사로 조직되며, 사에는 파총(把總), 초에는 초관(哨官), 기에는 기총(旗總), 대에는 대총(隊總)을 각각 지휘관으로 두었다. 따라서 한 개의 영에는 영장(營將) 1명과 파총 5명, 초관 25명, 기총 75명, 대총 225명 및 2,475명의 병사로 편성된다.

만약 관부의 면전에서 일시에 선발해서 시험해도 나이와 용모, 기력을 전혀 증빙할 바가 없으며, 또한 군인다운 모습을 꾸미고 눈을 부릅뜨고 손뼉을 치며 입으로만 충의와 담차고 용맹스러움을 일컫고 마음에 생각하는 일은 가슴 속에 감춰두니 어찌 죽히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한층 더 관심을 두고 간접하여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거듭해서 여러 방향으로 깨우쳐 주어 그로 하여금 그가 이 군중(軍中)에서 제일인자로 뽑혔으며 제일 군사에 숙련된 주요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 명활법[明活法 : 운용하는 방법]

다섯 사람을 오(伍)로 하고, 두 개의 오를 대(隊)로 하며, 대에는 대장(隊長) 1인, 화병(火兵) 1인이 있으며, 모든 대(隊)·기(旗)·초(哨)는 일정한 숫자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요컨대, 용법(用法)에서 벗어나지 않으나, 엄매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다. 여기에서 비롯하여 부대가 가고 움직이고 주둔하고 멈추는 것 등이 이루어진다. 마치 원앙(鴛鴦)의 대열²⁹⁾이 서서히 움직이는 것과도 같으니, 어찌 시각을 불허하여 종횡(縱橫)이 착란되게 하겠는가? 오래되면 스스로 익숙해 질 것이다. 안에는 오직 12명을 1대(隊)로 하고 이를 좌·우의 오(伍)로 나누어 바꾸지 못하게 하는 법은 무엇 때문인가? 이 가운데 행군법(行軍法)은 편리하니 병법에 익숙한 자는 바로 이 이치를 체득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이를 상세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모든 대장(隊長)은 3대(隊) 내지 5대로 모두 1대(隊) 2오(伍)를 만들 수 있는데, 5인을 오로 한다. 1대 12인은 바로 10인으로 십(什)이 된다. 매 1기 아래의 3대와 5대는 모두 50으로 기(旗)가 된다.

29) 원앙진(鴛鴦陣) : 고대의 진법(陣法)으로서, 병마(兵馬)가 좌우(左右) 양익(兩翼)으로 대열을 나누어 서로 연락을 유지하면서 짝을 지어 나가는 진영을 말한다.

1초관(哨官) 아래의 3기 내지 5기는 모두 100인으로 초(哨)가 된다. 1과총(把總) 아래의 3초 내지 5초는 모두 500인으로 사가 된다. 1천총(千總) 아래의 사(司) 내지 5사는 모두 3,000인으로 영(營)이 된다. 3,000인의 1명 및 4,000인과 5,000인도 모두 1명이 될 수 있다. 3명과 5명은 모두 1사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열사람을 한 단위로 하여 서로 도울 수 있는 전투 단위의 사[司 : 5여(旅)]³⁰⁾와 여(旅 : 군사 500명)이니 정전법(井田法)³¹⁾의 남은 제도이다. 반드시 5인이라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은 후에 이를 일러 오(伍)라고 하였으니 다른 경우에도 모두 이를 본뜨는 것은 다만 인문(人文)과 토지(土地)의 이익을 따라서 시기를 가려서 이렇게 조처하였으니, 마땅히 병사를 먹여살릴 군량의 수량에 의거하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법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이지, 그 법에 얽매어서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이미 이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행동거지에 있어서 원앙대(鴛鴦隊) 대형의 차례와 순서를 함께 참조하여 이것을 생각해 봄이 어떨까? 시일이 얼마 되지 않아서는 여기저기 어지럽고 어수선할 것이나 오래되면 저절로 숙달될 것이다. 그리고, 거짓으로 속여서 꾸며대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편제 안에 오직 12명을 1대로 하고 이어서 이를 좌오(左伍)와 우오(右伍)로 나누게 하고 바꾸지 않는 법은 어째서인가? 이 가운데에서 행군(行軍)하는 법이 편리하기 때문이니, 군중(軍中)에서 늙은 자들이 바야흐로 이 요령에 숙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30) 사려(師旅)는 사(師 : 5여(旅)와 여(旅 : 군사 500명)를 아울러 이르는 말. 후세에는 뜻이 바뀌어 전쟁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31) 정전법(井田法)은 고대 중국의 주(周)나라 토지제도로써, 중국 고대 사상가 맹자(孟子)가 설(說)한 것이 가장 오는 400m)의 토지를 '정(井)'자 모양으로 9등분하여, 주위의 8구획은 8호(戶)의 집에서 각기 사전(私田)으로서 경작하고, 중심의 1구획은 공전(公田)으로서 8호가 공동으로 경작하여 정부에 바치는 조세로 할당하였다.

▣ 실복험[實復驗 : 시험과 평가를 충실히 함]

영문(營門)의 폐쇄와, 병력 선발의 완료와, 진영 출입 관리와, 재집합 기일 지정과 요패(腰牌)의 휴대는 전과 같다. 작폐(作弊)하는 자는 중법(重法)으로 연좌(連坐)하여 시행한다. 1, 2대로서 최초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이때 두 번째 통신망을 구축한 이후로는 마치 양(羊)의 무리를 모는 것같이 군사를 지휘하여, 오직 우리의 호령(號令), 이것만 들리니 이제는 훈련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절로서 연병(練兵)에 대해서는 이미 절반의 공부가 된 것이다. 마음의 정밀하고 은미(隱微)함을 이 설명에서 다하였으니 식견있는 자는 깊이 생각하라.

영문을 폐쇄(闔營)하고, 병력을 선발(選完)하며, 인원을 출발시키는 것(發放)은 아무 날 다시 집합하여 요패(腰牌)를 가지고 전과 같이 마주 서서 읽는다. 폐단을 일으키는 자는 무거운 법으로 연좌하여 시행한다. 제1대와 제2대가 첫 신호를 전하고, 이때 거듭해서 신호를 한번 더 전하면 그 뒤로는 마치 양떼를 모는 것과 같이 오직 우리의 호령이 통달되고 바야흐로 훈련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한절로 이미 병사를 훈련함에 있어서 절반은 배워서 익힌 셈이 되는 것이다. 마음의 정밀하고 은미함을 이 설명에서 다하였으니, 식견있는 이들은 이를 살피주기 바란다.

▣ 구모정[究冒頂 : 거짓으로 속여 대리 입대하는 것을 밝힘]

거짓으로 속여서 대리 입대하여 조련에 참가한 경우, 고용한 자와 고용 당한 자 모두 군법으로 불기를 치고, 고용 당한 자는 곧바로 병졸로 충원하여 조련에 참가시킨다. 공전과 식대는 고용한 사람이 절반을 분담해서 치른다.

▣ 편병패[編兵牌 : 병사들의 대오를 편성하는 패]

- 제1패-대(隊)와 오(伍)의 순서를 여기에 써 넣는다.
- 제2패-출신 현(縣)과 거주 지역을 여기에 써 넣는다.
- 제3패-나이와 용모를 여기에 써 넣는다.
- 제4패-신장과 근력을 여기에 써 넣는다.
- 제5패-흉터의 흔적을 여기에 써 넣는다.
- 제6패-무예에 관한 기록을 여기에 써 넣는다.

▣ 서사려[誓師旅 : 부대별로 맹세하는 글]

조사와 대조가 이미 끝나면 곧바로 길일(吉日)을 가려서 주장(主將)이 각 관병(官兵)을 거느리고 교장(教場)에서 피를 서로 나누어 마시고 입에 바른 다음, 각자가 문서를 손에 들고 하늘에 대하여 맹세하는데 그 문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아무 영(營)의 과총(把總) 아무개는 지금 문서를 갖추어 행오(行伍)의 편성과 선발을 위한 일로 맺어서 얻은 부하인 초관(哨官) 5명을 나 아무개가 스스로 가려서 뽑아냈으므로 마음과 뜻을 함께 하여 서로 믿고 담차고 용맹스러우며 의협심 넘치는 사나이로서 법을 준수하고 더욱 향상하고 아울러 지금이나 앞으로나 견디어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신령(天地神靈) 앞에, 피를 서로 나누어 마시고 입에 발라, 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맹세 합니다.

만약 평시에 탐욕스럽고 더러운 짓을 하거나, 형벌을 각박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지 않거나, 전진(戰陣)에 이르러 뒤로 물러나 움츠러 들거나, 제멋대로 군사를 풀어놓아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함부로 평민(平民)을 죽이거나, 거짓을 꾸며서 공로의 등급을 다투거나 하는 일이 있을 경우, 일체로 군법(軍法)에 연좌(連坐)되어 달게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 영 아무 초(哨)의 초관 아무개는 지금 아무 곳에서 문서를 갖추어 행오의 편성과 선발을 위한 일로 맺어서 얻은 본 초의 기총(旗總) 3명을 나 아무개가 스스로 가려서 뽑아냈으므로 마음과 뜻을 함께 하여 서로 믿고 담차고 용맹스러우며 의협심 넘치는 사나이로서 법을 준수하고 더욱 향상하고 아울러 지금이나 앞으로나 견디어 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신령 앞에, 피를 서로 나누어 마시고 입에 발라, 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맹세합니다.

만약 평시에 탐욕스럽고 더러운 짓을 하거나, 형벌을 각박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지 않거나, 전진에 이르러 뒤로 물러나 움츠러들거나, 제멋대로 군사를 풀어놓아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함부로 평민을 죽이거나, 거짓을 꾸며서 공로의 등급을 다투거나 하는 일이 있을 경우, 일체로 군법에 연좌되어 달게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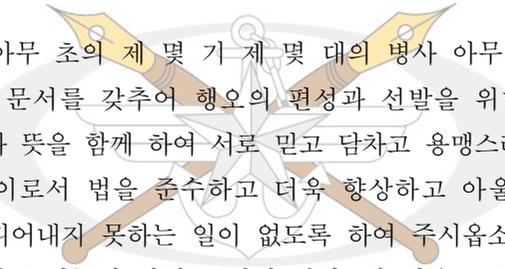
“아무 영 아무 초의 제 몇 기(旗)의 기총 아무개는 지금 아무 곳에서 문서를 갖추어 행오의 편성과 선발을 위한 일로 맺어서 얻은 본 기의 대장(隊長) 3명을 나 아무개가 스스로 가려서 뽑아냈으므로 마음과 뜻을 함께 하여 서로 믿고 담차고 용맹스러우며 의협심 넘치는 사나이로서 법을 준수하고 더욱 향상하고 아울러 지금이나 앞으로나 견디어 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신령 앞에, 피를 서로 나누어 마시고 입에 발라, 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맹세합니다.

만약 평시에 탐욕스럽고 더러운 짓을 하거나, 형벌을 각박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지 않거나, 전진에 이르러 뒤로 물러나 움츠러들거나, 제멋대로 군사를 풀어놓아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함부로 평민을 죽이거나, 거짓을 꾸며서 공로의 등급을 다투거나 하는 일이 있을 경우, 일체로 군법에 연좌되어 달게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 영 아무 초의 제 몇 대(隊)의 대장 아무개는 지금 아무 곳에서 문서를 갖추어 행오의 편성과 선발을 위한 일로 맺어서 얻은

본 대의 병사(兵士) 11명을 나 아무개가 스스로 가려서 뽑아냈으므로 마음과 뜻을 함께 하여 서로 믿고 담차고 용맹스러우며 의협심 넘치는 사나이로서 법을 준수하고 더욱 향상하고 아울러 지금이나 앞으로나 견디어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신령 앞에, 피를 서로 나누어 마시고 입에 발라, 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맹세합니다.

만약 평시에 탐욕스럽고 더러운 짓을 하거나, 형벌을 각박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지 않거나, 전진에 이르러 뒤로 물러나 움츠러들거나, 제멋대로 군사를 풀어놓아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함부로 평민을 죽이거나, 거짓을 꾸며서 공로의 등급을 다투거나 하는 일이 있을 경우, 일체로 군법에 연좌되어 달게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 영 아무 초의 제 몇 기 제 몇 대의 병사 아무개 등은 지금 아무 곳에서 문서를 갖추어 행오의 편성과 선발을 위한 일로 병사 11명이 마음과 뜻을 함께 하여 서로 믿고 담차고 용맹스러우며 의협심 넘치는 사나이로서 법을 준수하고 더욱 향상하고 아울러 지금이나 앞으로나 견디어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신령 앞에, 피를 서로 나누어 마시고 입에 발라, 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맹세합니다.

만약 평시에 군기를 지키지 않고 부덕한 짓을 하거나, 조련이나 전진에 이르러 뒤로 물러나 움츠러들거나, 제멋대로 군사를 풀어놓아 현지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함부로 평민을 죽이거나, 거짓을 꾸며서 공로의 등급을 다투거나 하는 일이 있을 경우, 일체로 군법에 연좌되어 달게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 별칭호[別稱呼 : 칭호를 구별함]

이 책에서 주장(主將)이라고 일컫는 것은 대장(大將)이 아니다. 다만 소속된 병사들의 위에서 제일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자가 그 앞에 있지 않을 경우, 현재 가장 높은 자가 주장이 된다. 가령, 대장이 부재중이면 편장(偏將)이나 비장(裨將)을 주장이라 일컫고, 편장이나 비장이 부재중이면 파총(把總)을 주장이라 일컫고, 파총이 부재중이면 초관(哨官)을 주장이라 일컫고, 아래로 기총(旗總)에 이르러서도 부재중이면 대장(隊長)을 주장이라 일컫는 것이 이것이다.

▣ 분영해[分營解 : 진영 분리에 대한 해설]

모든 대는 끈을 경우 2오(伍)로 하고, 네모질 경우 9오로 하는데, 다시 이를 나누어서 3오로 한다. 예컨대 4대(隊)를 1기(旗)로 할 경우, 그 중앙을 비워 두고 기총(旗總)이 거기에 위치한다. 예컨대 3대의 경우에는 2대를 외곽으로 삼고 1대를 내곽으로 삼는다. 어느 기총(旗總), 어느 초(哨), 어느 사(司), 어느 영(營)이던 모두 앞의 경우와 같다.

▣ 한잡류[限雜流 : 잡류³²의 수에 대한 한도를 둠]

매 사(司)의 파총(把總)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인원을 둔다. 호총수(號銃手) 1명. 장호(掌號) 1명. 고수(鼓手) 2명. 바라수(哮囉手) 1명. 나발수(喇叭手) 1명. 술발수(桴鉞手) 1명. 라수(羅手) 1명. 고초수(高招手) 1명. 독진순시기(督陣巡視旗) 4명. 의생(醫生) 1명. 서기(書記) 2명.

32) 잡류(雜流): 사류(士流) 이외의 사람을 가리킴. 예를 들면 공(工)·상(商)·의(醫)·복(卜)·성상(星相) 및 기타의 방기(方技)를 가지고 생계를 도모하는 자들.

매 초관의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인원을 둔다. 마부(馬夫) 1명. 인기(認旗) 1명.

이상은 모두 중요하니, 현재 정예롭고 건강하여 병영(兵營) 안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한다. 파총(把總)의 가정(家丁)은 8명이고, 초관의 가정은 4명이며, 의생의 가정은 1명이니, 이들은 곧 천한 일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기(旗)와 대(隊)에서는 식량을 지급하는 데에 차등을 둔다.

매 1영(營) 마다에는 예컨대 편장(偏將)과 비장(裨將)이 통어(統御)하는 자들로서 다음과 같은 인원을 둔다. 기패수(旗牌手) 3명. 호총수(號銃手) 3명. 발라수(嗙囉手) 2명. 나팔수(喇叭手) 2명. 호적수(號笛手) 2명. 솔발수(撻鉢手) 1명. 오방기수(五方旗手) 5명. 고초수(高招手) 5명. 각기수(角旗手) 4명. 인기수(認旗手) 2명. 문기수(門旗手) 2명. 순시기수(巡視旗手) 12명. 화약장(火藥匠) 1명. 목장(木匠) 1명. 철장(鐵匠) 2명. 의생(醫生) 1명. 각자 기구를 휴대한 군뢰(軍牢) 18명. 건보(健步) 12명. 당보(塘報) 12명.

3총(總)의 경우는 수비에 절반을 쓰고 장관(將官)이 그 나머지 절반을 쓴다. 4총과 5총의 경우는 수비에 그 전부를 쓴다. 이상은 모두 정예하고 건강하며 훈련에 숙달된 실력한 사람을 쓴다. 주역(廚役) 2명. 마부(馬夫) 2명.薪水(薪水) 3명. 가정(家丁) 50명. 기패마정(旗牌馬丁) 3명. 의생마정(醫生馬丁) 1명.

이상은 장관(將官)에게 증감(增減)하거나 비우고 채우는 것을 맡기되, 그러나 장교(將校)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의거해서 하고, 수비(守備)의 경우에는 각각 상황에 따라서 차례로 감소한다.

▣ 원선병[原選兵 : 병사 선발의 근본을 추구함]

병사(兵士)를 신중히 선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때로는 상황이 동일하지 않으니 병사의 선발에 있어서 오직 한가지에만 구애받기는 어렵다. 마치 천지(天地)가 처음 개벽(開闢)하던 거칠고 어두운 곳에서 손으로만 쓰다듬고 어루만지는 것과 같으니 예컨대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에 여러 나라가 무력(武力)을 사용한지 오래되어 이로부터 모두 한결같은 모습의 병사 선발 방법을 쓰던 것과 같다.

이제 바야흐로 천하(天下)가 태평하여 주체할 수 없는 많은 책들이 뒤섞여서 쌓이고, 백성은 전쟁을 잊어버렸다. 갑작스럽게 변란이 일어나도 이로부터 모두 한결같은 모습의 병사 선발 방법을 쓰던 것과 같이 한다. 큰 일의 실마리를 만들어 병사를 선발함에 있어서 그 동향과 역점을 널리 참고함에 두어, 서로 같지 아니함을 가려서 분간하고 등급과 비율을 고르게 채택하여야 한다.

천하의 일가가 나라 안팎의 변란에 있어서 장수에게는 장정(章程 : 규정과 법도)이 있고, 병사에게는 액수(額數 : 정해진 인원의 수효)가 있고, 군비(軍費)에는 공급량의 제한이 있으니, 그 법이 오직 정밀함에 있는 것이다. 가장 먼저 단연코 경계하여 채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성안 저자거리의 건달들은 다만 얼굴 생김새만 윤기나고 반지르르하여 약삭바르게 행동하는데 바로 이런 경우이다. 다음으로 단연코 경계하여 채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간교(奸巧)한 사람은 안색이 일정치 않고 관청 알기를 우습게 보아 거리낌이 없는데 바로 이런 경우이다.

가장 먼저 채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는 바로 향촌(鄉村)의 노성(老成)하고 진실한 사람의 경우이다. 이른바 향촌의 노성하고 진실한 사람이란, 검게 그을려 투박하고 건장하여 괴롭고 고생스러움을 잘 견뎌내며, 손과 얼굴 및 피부와 근육이 단단하고 실팍하여, 흙으로 빚어 놓은 것처럼 질박한 빛이 있으니, 이를 제일로 친다. 다음으로 채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는 바로 전투에 익숙한 사람으로서 일찍이 적을 보고서도 공(功)이 없는 사람이다.

그들은 전투에 익숙하여 이해(利害)를 알며, 이해를 알므로 간활(奸滑)한 마음이 생겨, 다만 전진(戰陣)의 형세를 숙지하여 번드시 공이 없는 쪽을 택하여 겁이 많으나 다만 정상(情狀)만을 살핀다. 그러므로 이 두가지 항목으로 차등을 삼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먼저 주의할 일이 있으니, 사람을 뽑는 권한을 맡은 자가 혹은 체격이 좋고 기운이 왕성한 자만을 골라 뽑거나, 혹은 무예(武藝)가 뛰어난 자만을 골라 뽑거나, 혹은 힘이 센 자만을 골라 뽑거나, 혹은 영리한 자만을 골라 뽑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어찌서인가? 체격이 좋고 기운이 왕성하나 담보가 작으면 위급할 때 몸집만 무거워서 빨리 달리지 못하여 도리어 살집이 거치장스러워지니, 이는 체격이 좋고 기운이 왕성하다는 것을 믿을 바가 못된다는 까닭이다. 무예가 뛰어나나 담보가 작으면 변고에 닥쳐서 죽음을 겁내어 손발을 미처 어찌할 사이 없이 급작스러울 때에는 화살과 창을 거꾸로 잡고 허둥대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여, 모두 그 평시의 모습을 잃고 항상 남보다 먼저 달아나니, 이는 무예가 뛰어나다는 것을 믿을 바가 못된다는 까닭이다.

눈치가 빠르고 똑똑하나 담보가 작으면 큰 일에 닥치기도 전에 제멋대로 그 때 그 때를 얼렁뚱땅 얼버무려 적과 대진(對陣)하기도 전에 미리부터 제몸이 안전할 방도만을 생각하고, 변고에 닥쳤을 때에는 자기는 먼저 달아나도 된다고 여기고 또 이익과 손해를 내세워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다른 무리들을 속이게 하여 자신이 저지를 죄를 회피할 여지를 만들려고 하니, 이는 눈치가 빠르고 똑똑하다는 것을 믿을 바가 못된다는 까닭이다.

힘이 세나 담보가 작으면 유사시에 이르러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에 불뚱 같은 것이 어른어른하여 불리도 듣지 못하고 밀어도 움직이지를 않으니 이는 힘이 세다는 것을 믿을 바가 못된다는 까닭이다.

말이 여기에까지 미치게 되면 나의 병사를 선발하는 방법이 황당한 것일까? 그렇다고 위의 네가지 경우를 버리고 따로이 이 문제를 생각할 수도 없다. 위의 네가지 경우를 버릴 수는 없으나 이것을 필수적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속담에 이렇게 말하였다.

“무예가 높은 사람은 담보가 크다.”

이는 무예가 높아서 여기에 썩썩한 기상이 더해져서 담보가 큰 사람이라. 나약하거나 담기(膽氣)가 적지 않은 사람은 진실로 한가지 기능(技能)을 익히면 바로 담대(膽大)해지는 것이다. 오직 평소에 담기가 있음을 자부하여 그로 하여금 다시 힘을 더 세어지게 하고, 체격이 좋아지게 하고 영리해지게 하고, 복습을 하게하여 무예를 향상시키니, 이는 비단 위에 꽃을 더하는 격이니, 거둬서 구해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무리는 쉽사리 얻을 수 없으니, 그 다음의 등급을 생각하면 무예는 오히려 교습(敎習)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정신과 힘을 겸하여 거두어야 할 것이다.

이 몇가지는 모두 병사 선발의 한 계책이나, 반드시 담력(膽力)을 위주로 해야 한다. 담력은 사람의 가슴과 배 안에 있어서 들여다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분간해서 뽑는단 말인가? 사람의 정신은 밖으로 노출이 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으나, 제일 먼저 사람을 뽑을 때 정신을 위주로 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관상보는 방법을 겸용하여 또한 흉하게 죽을 얼굴 모양을 경계하고 복스러운 기운을 띤 관상(觀相)을 소중히 여겨야 하니 이는 사람을 뽑는 데에 있어서 묘를 다하는 것이다. 가장 부리지 말아야 할 것은 약삭바르고 민첩하며 뻥질 뻥질하고 교활(狡猾)한 자들이니, 차라리 시골 들판의 우둔한 사람을 쓰면 관부(官府)를 두려워하고 법도(法度)를 두려워하여 엇치락 뒤치락하는 우리의 전술(戰術)을 예측하지 않고, 성실하게 믿고 감동하고, 썩썩한 기상과 곳곳한 절개로 떨어져서 일어난다.

만약 평소에 장수의 위엄(威嚴)이 서 있으면 먼저 은혜(恩惠)로써 다루고, 만약 장수의 위엄이 서 있지 않으면 먼저 위엄으로써 떨치고, 그로 하여금 우리의 영향권에 들게 해야 한다. 심중(心中)에 교묘한 수단이 있어 뜻을 돌이키게 하려고 가르치나 나를 위해 명령을 받들지 않으니, 만약 미리 앞서서 사랑을 베풀고, 나중에 이어서 위엄으로써 하면, 원망이 쌓여서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위엄은 영원히 막히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위엄을 영원히 막히고 무너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은혜와 신의(信義)이다.

저 천하의 지극히 가깝고 지극히 정답기로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효성스러운 아들에 대한 것만 같음 것이 없다.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듣는 것은 그가 나를 낳았기 때문이요 나를 길러주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반드시 아들을 죽이려 할 경우에는 비록 효자(孝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주장이 없을 수 없겠거늘, 하물며 오합지중(烏合之衆)인 행오(行伍)의 병사에 있어서라? 이는 반드시 은혜로써 돕고 그 위엄으로 부리면 위엄이 경외(敬畏)함이 되어 성취함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물건을 싣는 것은 배이지만 이로 하여금 편안히 실려 있도록 하고 뜻과 같이 들고 움직이기를 마음대로 하는 것은 키(舵)이다. 위엄은 바로 그 배이며, 은혜와 신의는 바로 그 키가 아니겠는가? 후세에 명장(名將)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나의 이 말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 조책적[造冊籍 : 책자와 문서를 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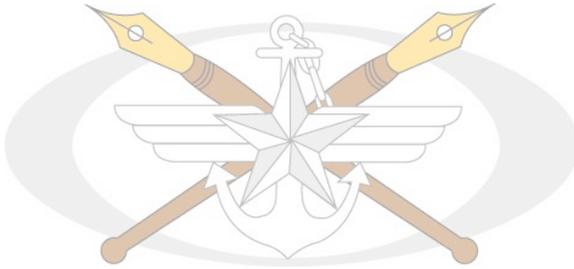
각 영(營)의 분배와 파견을 마치면 먼저 편오책(編伍冊)의 격식(格式)을 대조하여 문책(文冊) 2부를 만들어 모두 대장(隊長)에게 보내, 인(印)을 찍어서 1부는 파총(把總)에게 보내고, 1부는 대장의 처소에 보관한다.

▣ 한보결[限補缺 : 결원 보충에 관한 한계를 정함]

도망자(逃亡者)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오(伍)에서는 즉각 대장(隊長)에게 보고하고, 대장은 기총(旗總)에게 보고하고, 기총은 초관(哨官)에게 보고하고, 초관은 파총(把總)에게 보고하여, 모두 하루 안에 한다. 당일에 즉각 해당 문서를 작성하여 주장(主將)에게 보낸다.

반개월이 지나면 주장의 허락을 받아 보충할 사람을 권점(圈點)으로 선택하여 결원을 보충한다. 그 즉시 전패(填牌)를 급여하여 허리에 걸게 하고, 출납(出納)에 관해서는 일면으로 해당 대와 오에 명령을 하달한다.

유고(有故)한 자의 일체의 의복 장비와 재물을 점검 조사함과 동시에 몸에 지녔던 은량(銀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상세히 조사하여 당사자의 집안 권속(眷屬)에게 준다. 감히 빼내어서 남겨둔 자가 있으면 군법(軍法)으로 논하여 두 배로 추징금을 물려 유고한 군사의 집에 더 준다.



【그림 1】 병요패양면[兵腰牌陽面：병사의 요패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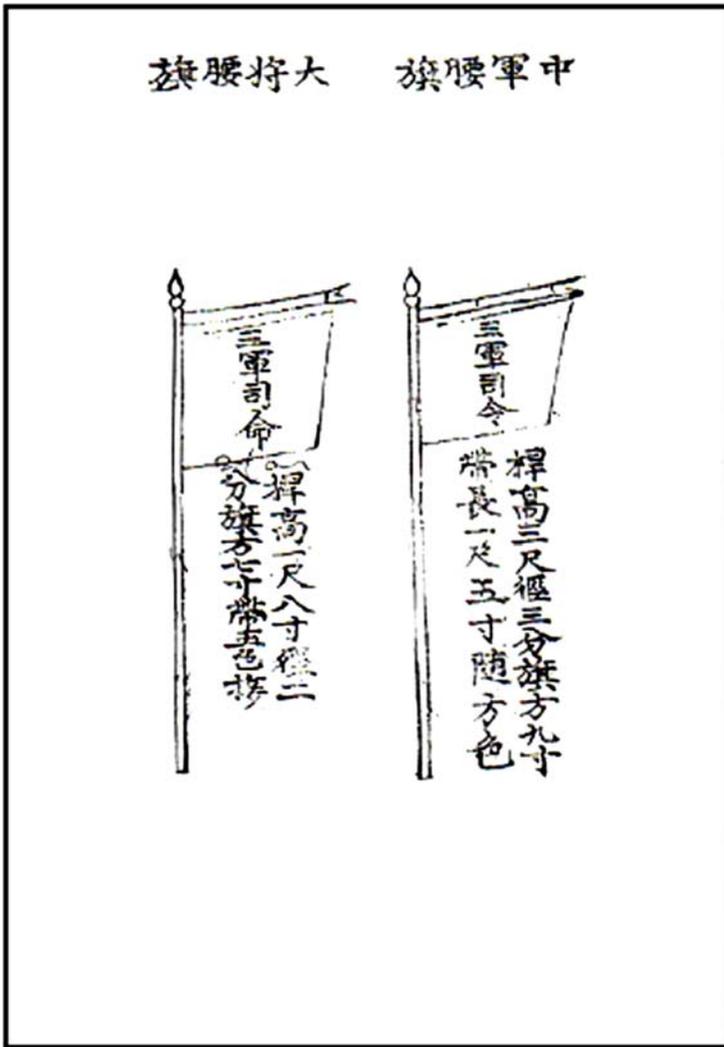
【그림 2】 대장요패양면[隊長腰牌陽面：대장의 요패 앞면]
 기총요패양면[旗總腰牌陽面：기총의 요패 앞면]



【그림 3】 초관요기[哨官腰旗 : 초관의 요기]
 파총요기[把摠腰旗 : 파총의 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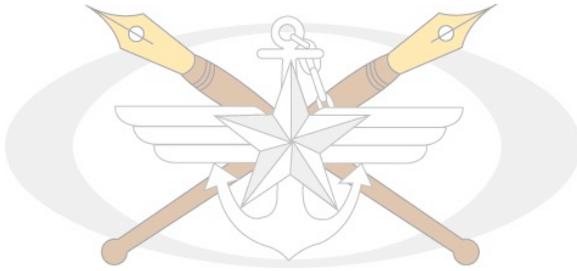


【그림4】 중군요기[中軍腰旗 : 중군의 요기]
대장요기[大將腰旗 : 대장의 요기]



[紀效新書(上)]

권2 이목편[耳目篇]



■ 권2 이목편[耳目篇]

속오(束伍)는 삼군(三軍)을 편안하게 정돈시키는 방법이다. 행오(行伍)가 이미 정해지면 호령(號令)³³⁾과 기고(旗鼓)³⁴⁾가 모두 바로 잡혀지니, 군(軍)의 근본이 여기에서 익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교련(教練)을 한다고 하겠는가?

이에 대하여 병법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형(刑)은 마음과 귀로 위엄을 떨치고, 소리와 눈으로 위엄을 떨치고, 빛깔로 위엄을 떨친다.”

“대장(大將)이 맡는 것은 오직 기고(旗鼓: 깃발과 북) 뿐이다.”

“주간 전투에는 정기(旌旗: 깃발)를 중히 여기고, 야간전투에는 화고(火鼓: 횃불과 북)를 중히 여긴다.”

그런데 지금은 오직 북을 주로 사용하며, 행군에는 나팔을 주로 사용하여 신호를 관장한다. 그 나머지는 연회에서 뒤섞어 쓰고, 정기는 다시 영접하고 전송할 때 행렬을 선도할 때 쓰는 도구가 되었다. 지금 소리를 내는 도구로서 징과 고가 있고, 빛깔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정과 기가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호령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 그러나, 사졸들은 어리석으므로, 특히 다시 모일 경우에 보기 쉽게 하고 살피기 쉽게 해서 이를 기율로 삼아야 한다. 그 밖의 번잡하고 까다로운 것은 도설(圖說)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니, 그 보고 듣는 데에 혼란을 줄까를 염려해서이다. 그러므로 이목편(耳目篇)으로써 차례를 삼은 것이다.

33) 호령(號令): 단체행동에, 어떤 동작을 일제히 하도록 하는 간단하게 규정된 말

34) 기고(旗鼓): 군대를 지휘하고 명령하는 데 쓰는 기와 북

▣ 연호포[練號砲：호포35)에 대한 훈련]

어떠한 신호(信號)를 할 때에는 먼저 포성(砲聲) 한 방을 쏘아 울려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소리와 빛깔 속에 뒤섞여 있는데 갑자기 깃발을 들어 올리면, 사람들이 만드시다 그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먼저 포성 한 방을 올리면 그 소리가 사람들의 귀에 들려 비록 깊은 실내에서도 들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귀가 눈보다 먼저라는 것이 이것이다.

◆ 승장포[升帳砲]

[대장(大將)이 군대를 지휘하기 위해 군막(軍幕)에 들어갈 때] 포성을 세 번 올리면 바람을 쳐서 울림으로써 대취타(大吹打)³⁶⁾를 연주한다.

◆ 승기포[升旗砲]

[대장기(大將旗)를 올릴 때에는] 포성을 한 번 올리면 북을 치고 자바라를 올리면서 기를 올린다.

◆ 숙정포[肅靜砲]

진중(陣中)에 들어가거나 나온 뒤에 포성을 세 번 울려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하영(下營)하도록 한다.

◆ 놀함포[呐喊砲]

포성을 한 번 울릴 때마다 나팔을 불고 천아성(天鵝聲)³⁷⁾ 소리

35) 군호(軍號)로 놓는 총이나 대포등의 신호체계

36) 취타(吹打)와 세악(細樂)을 갖춘 군악(軍樂). 최대(最大)의 편성(編成)으로는 각 하나씩의 징수(鈺收)·나수(螺手)와 여기에 대각수(大角手)·나각수(螺角手)·나팔수(喇叭手)·호적수(號笛手)·바리수(哮囉手)·고수(鼓手)·장고수(杖鼓手)·적수(笛手)·관수(管手)·해금수(奚琴手) 등의 각 다섯씩 도합 십 두 사람으로 함이 보통(普通)이었다.

37) 변사(變事)가 생겼을 때, 군사를 모으기 위하여 길게 부는 나팔 소리. 또는 임금이 대궐을 나설 때 부는 태평소 소리.

한 번에 고탈을 한번 지르되, 평상시에는 세 번을 하고, 전진(戰陣)에 임해서는 징소리에 구애됨이 없이 멈춘다.

◆ 개영포[開營砲]

[영문(營門)을 열 때에는] 포성을 한 번 울리면 즉시 한 번 또는 두세 번 씩 북을 울리고, 곧바로 영문을 연다.

◆ 분합포[分合砲]

[진영(陣營)을 분리하고 통합할 경우에는] 한 노(路)에 포성을 한 번 울린다. 몇 개의 노로 나누려면 몇 번의 포성을 울리되, 정해진 횟수는 없다. 포성을 울리는 것이 끝나면, 기치(旗幟)가 움직이는 것을 보아 그 수에 따라서 한다. 곧바로 영문을 연다. 진영을 통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폐영포[閉營砲]

[영문을 닫을 때에는] 포성을 세 번 울리면 즉시 대취타를 연주하고, 곧바로 영문을 닫는다.

◆ 정경포[定更砲]

[시각(時刻)의 변화를 알릴 경우] 밤이 되어서는 북을 치고 난 다음, 나팔을 한차례 불고 나서 천아성을 울린다.

◆ 변령포[變令砲]

바야흐로 [기존의] 호령이 시행되고 있는 동안에 따로 호령을 바꾸고자 할 경우, [깃발로 신호를 하면]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보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포성을 울려서 이전의 호령을 들려준 다음, 곧바로 멈춰서 오로지 그 일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여 새로이 어떠한 호령이 내려지는가를 들어서 시행하도록 한다. 호포(號砲)로서는 반드시 삼안총(三眼銃)³⁸을 써야 한다. 첫째로는 한 발에서

38) 삼안총(三眼銃) : 총안(銃眼)이 3개 달려있는 총포 화약무기

세 발까지 겹쳐서 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짐이 가볍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장전(裝填)과 발사(發射)가 빠르기 때문이다.

▣ 기고해[旗鼓解 : 깃발과 북에 대한 해설]

각 관병(官兵)은 귀로는 다만 징과 북소리만 듣고, 눈으로는 다만 깃발의 방색(方色 : 동·서·남·북·중의 다섯 방위에 따른 청(靑)·백(白)·적(赤)·흑(黑)·황(黃)의 다섯 가지 색깔만을 보고, 어떠한 사람이 와서 구두로 명령이나 지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들어서는 않된다. 만약에 북소리가 그치지 않으면 곧 바로 전면이 물과 불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뛰어 들어가야 한다.

만약에 징이 울리면 마땅히 멈춰서 바로 앞에 재물(財物)이 있어 금방 취할 수 있어도 움직이는 것을 불허한다. 무릇 사람을 시켜서 명령을 전달할 때에는 반드시 영기(令旗)³⁹⁾·영전(令箭)⁴⁰⁾·영표(令票)⁴¹⁾ 가운데 한가지가 있어야 그 명령을 듣는다. 출입을 허락함에도 이 세가지 물건이 없으면 주장(主將)이 몸소 와도 또한 명령을 듣지 않으며 또한 출입도 허락하지 않는다.

39) 조선(朝鮮) 시대(時代) 때 군중(軍中)에서 군령(軍令)을 전(傳)하는 데 쓰던 기. 사방(四方) 2자 가량의 푸른 비단(緋緞) 바탕에 붉은빛으로 승자를 썼다. 창인 아래에 작고 납작한 주석 방울을 끼고 비녀장을 질러 놓았으며, 기를 흔들면 찢렁찢렁 소리가 나기 때문에 찢렁기라고도 하였다.

40) 조선시대에 쓰던 화살의 한 가지로 군령(軍令)을 전(傳)하던 화살이다.

41) 각 영문(營門)에 주장(主將)의 명령(命令)을 전(傳)하는 표로 쓰던 것. 나무로 둥글고 납작하게 만들어 그 위에 영표(令票)라 썼음.

▣ 연호적[練號笛 : 호적에 대한 훈련]

쇄놀(瑣唳 : 날나리)을 불면 이것을 일러 장호적(掌號笛)이라 하는데, 요컨대 각 관(官)의 기(旗)와 군관(軍官)들을 모이게 하고 내보내는 군무(軍務)에는 반드시 이것을 불어서 정돈이 되면 곧 멈춘다.

▣ 연나팔[練喇叭 : 나팔에 대한 훈련]

대소 장령(將領)들의 영문 앞이나 교장(教場) 안, 또는 진(陣)을 치는 곳에서만 분다. 달리 음향을 내서 신호를 전달할 기구가 없을 경우에 거동(舉動)을 하도록 하니 이것이 바로 장호(掌號)다.

제1차는 바로 첫 신호이니, 사람들이 신호를 들으면 즉시 일어나서 소지품을 수습하고 밥을 짓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약 반 시진(時辰 : 1시간) 쯤 되었을 무렵에 분다.

제2차는 사람들이 밥을 먹게 한 다음, 행장(行裝)을 수습하여 영문 밖으로 나아가 진영을 주차(駐筭)시킬 구역을 물어, 정돈이 되기에 이르르면 분다.

제3차는 행동을 개시한 주장(主將)이 아문(衙門)으로부터 각개 병사들이 진영을 주차시킨 곳에 이르러 따로이 모의(模擬)행선지를 정하여, 그 병사들이 진영 안에 있거나 혹은 교장에 있거나 혹은 막 정식조련(正操)을 시행하려는 곳에 있거나, 각 병사들이 밥을 다 먹으면 다 함께 영문을 나와 밖에서 일호(一號)만을 주관하여 곧 명령을 듣게 한다. 이호(二號)를 주관하여 혹은 진을 치거나 혹은 조련을 하게 하되, 삼호(三號)는 반드시 쓸 필요가 없다. 긴 소리로 부는 신호 소리 한 번을 천아성(天鵝聲)이라고 하니, 각개 병사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고향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대오를 배열하라고 부는 신호 소리[擺隊伍]는 즉시 대오를 배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긴 소리로 [천아성] 나팔을 불고 총 1발을 놓고 깃발을 흔드는 것은 바로 몸을 돌려 방향을 바꾸게 하기 위한 것이니, 각개 병사들이 깃발이 가르키는 곳을 보면 다 함께 어떠한 곳을 향해 몸을 돌려 방향을 바꾼다.

대오 배열이 이미 정해지면 나팔소리가 잠시 그쳤다가 또다시 한 번 불어지니, 진영을 배열하여 전개하는 자는 바로 일자 모양으로 배열하고 전개하여 진을 이루어 전투에 대비한다.

▣ 연바라[練哮囉 : 바라에 대한 훈련]

긴 소리로 부는 신호 소리 세 번은 바로 병사들이 행동을 개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 불기를 한 차례 하는 것은 바로 무기를 잡고 대기하게 하려는 것이니, 말을 소유한 자는 말에 오른다.



▣ 연라[練鑼 : 징에 대한 훈련]

징(鑼)을 울리는 것은 각개 병사를 말에서 내려오게 하려는 것이요, 두 번 울리는 것은 각개 병사를 앉아서 쉬게 하려는 것이다. 만약 중간이 깃발을 놓으면 다 같이 놓인다.

▣ 연고[練鼓 : 북에 대한 훈련]

한 번 또는 두세 번 씩 북을 울리는 것은 바로 진을 칠 경우이다. 북을 한 번 울리는 것은 20보(步)를 간다는 약속이요, 빠르게 한 번 치는 북소리는 1보를 간다는 약속이다. 그리고, 북을 쉴 사이 없이 빠르게 치는 것은 바로 교전(交戰)을 하는 것이니, 병사들로 하여금 앞을 향해 나아가 적과 치고 받고 죽이며 싸우게 하려는 것이다.

진영(陣營)을 떠남에 북을 칠 사이 없이 빠르게 치는 것, 이것은 땀나무하는 일과 물 길는 일을 하는 하급 군졸이 어떠한 빛깔의 깃발을 세웠는가를 보고, 해당 영(營)은 명령을 근거로 하여 시행한다. 밤이 되어 영문을 닫은 뒤에 북을 빠르게 치는 것은 바로 밤 시각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다.

▣ 연발[練鉞 : 술발에 대한 훈련]

술발(擗鉞)⁴²⁾을 울리는 것은 병사들로 하여금 부대를 거두어 들이게 하기 위해서이니, 두 번 울리면 대대의 기치를 이루어서 중군에 통지하여 돌린다.

▣ 연정[練鉦 : 징에 대한 훈련]

군중에서 북을 치는 것과 악곡을 연주하는 것 모두가 음률이 있으니, 예컨대 호적(號笛)·바라(哮囉)·나발(喇叭)·고(鼓)·발(鉞) 등의 항목이 있다. 항상 멈추고자 하면 반드시 바라를 한 번 울린다. 명령을 변경하는 호포(號砲) 소리를 들은 뒤에는 곧바로 변경된 바의 명령과 같이 행한다. 세 번 울리거나 불거나 치면 멈춘다. 적과 맞서서 싸우기가 끝나면 세 번 울려서 병력을 물러나게 하려는 것이다. 두 번 울리는 것은 병력이 물러나기 위해서 몸을 돌리키게 하려는 것이다.

명금(鳴金) 곁에 오방기(五方旗)를 세워서 진영 안팎의 방향을 지시한다. 표지를 세움에 있어서, 진영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표지를 세우는 것은 표지를 근거로 하여 진영을 확보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진영 설치가 이루어진 가운데 표지를 세우는 것은

42) 군령(軍令)이나 경고(警告)를 발할 때에 울리는 놋쇠로 만든 종(鐘) 모양의 큰 방울. 위에 쇠 자루가 달리고, 안에 작은 쇠몽치가 달림. 요령(鑿鈴)

영문의 방위를 분별하여 출입을 편리하게 하고 식별을 편리하게 하려는 것이다. 바깥의 표지는 진영의 방어와 수비 지역의 한계를 분별하여 적이 다가오면 이 표지를 들어 원근의 긴급 상황 여부에 따라서 대응한다.

▣ 연기[練旗 : 깃발에 대한 훈련]

각 영(營)의 병사는 본대(本隊)의 장이 잡고 있는 기(旗)를 보고, 대장(隊長)은 본대의 기총(旗摠)이 잡은 기를 보고, 기총은 본대의 초관(哨官)의 인기(認旗 : 지휘기)를 보고, 초관은 본대의 파총(把摠)이 잡은 기의 방색(方色)을 본다.

대장기(大將旗)가 세워지거나 끄덕거리거나 빙빙 돌면 선영장(先營將)이 이에 응하고 파총이 먼저 응하는 것을 불허하니, 이것이 영장기(營將旗)이다. 선파총(先把摠)이 이에 응하고 초관이 먼저 응하는 것을 불허하니, 이것이 초관기(哨官旗)이다. 기총이 이에 응하고 대장(隊長)이 먼저 응하는 것을 불허하니, 이것이 기총기이다. 대장이 이에 응하고 기가 가리키는 바를 따라 가는데, 대장 이하는 구두로 전달하고 몸으로 따라서 깃발과 북을 사용하는 지휘 명령 방법을 쓰지 않는다.

무릇 기가 엎드려 일어나지 않고 눕혀져 있으면, 이 신지(信地 : 관할구역)⁴³에서는 비록 천신(天神)이 이동하라고 소리를 질러도 들어서는 않된다. 밤에는 횃불과 북소리를 보고 들어서 낮과 마찬가지로 행동한다. 명장(名將)은 기고(旗鼓 : 기와 북에 의한 명령 지휘 방법)를 우선으로 하였을 뿐이니, 만약 기(旗)에 제도와 법식이 없다면 참으로 어린아이 장난이나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혹은 가벼워서 멀리 보이지 않고, 혹은 무거워서 들고 달리기가 어렵고, 방색이 혼잡하여 분별할 수가 없다 하여, 전진(戰陣)에 임하여 부대를 분합(分合 : 분산과 합류)함에 기치를 사용하지 않는다. 병사들

13) 신지(信地) : 규정(規定)된 위치(位置) 또는 순행(巡行) 구역(區域)

에게 신호를 전함에 손으로 입술을 눌러 휘파람소리를 내어 심지어 대장(大將)이라는 명색으로 오합지졸(烏合之卒)처럼 갈팡질팡하니 병사에게 한번 명령을 전달함에 일대가 분산되어 어지러워진다. 이렇게 용병(用兵)을 자연에 맡겨서 승부를 붙이려 하니 어찌할 방도가 없구나! 아! 이 한탄스러움을!

각 진영의 병사들은 소속 부대 대장(隊長)이 지닌 깃발을 보고, 대장은 소속 부대 기총(旗總)이 지닌 깃발을 보고, 기총은 소속 부대의 초관(哨官)의 인기(認旗)⁴⁴를 보고, 초관은 소속 부대 파총(把摠)의 깃발 색깔을 보고, 파총은 소속 진영 영장(營將)의 깃발 색깔을 보고, 영장은 소속 부대 주장(主將)의 깃발 색깔을 본다. 만약 주장의 오방기(五方旗)⁴⁵가 모두 세워져서 한번 또는 두세 번 씩 끄덕거리면, [전·후·좌·우 중] 오방의 진영이 모두 함께 움직인다. 어느 특정한 방위의 한 기만 세워져서 끄덕거릴 경우, 거기에 해당하는 [소속] 기는 함께 기를 끄덕거리 [그 아래] 해당 방위를 향하여 해당하는 기가 함께 [다시 그 아래] 해당 방위를 향하도록 가리켜 보인다. 각개 병사는 깃발의 형태와 움직임에 따라서 행동한다. 다른 기는 상례에 따른다.

만약 주장의 오방기가 모두 눕혀지면, 오방의 진영은 모두 함께 깃발을 눕힌다. 어느 특정한 방위의 한 기만 눕혀졌을 경우, 거기에 해당하는 [소속] 기는 함께 기를 눕힌다. 다른 기는 상례에 따른다.

대장기(大將旗)가 세워지거나, 끄덕거리거나, 흔들릴 경우, 먼저 영장이 이에 응해야 하며 파총이 먼저 응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영장기에 대해서는 먼저 파총이 이에 응해야 하며 초관이 먼저 응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초관기에 대해서는 먼저 기총이 이에 응해야

44) 인기(認旗): 주장(主將)이 휘하(麾下)를 호령(號令)하고 지휘(指揮)하는 데 쓰던 기이다.

45) 대기치(大旗幟)의 한 가지. 대오방기(大五方旗), 중오방기(中五方旗)의 두 가지가 있는 데, 수효(數爻)는 각각(各各) 다섯씩임. 주작기(朱雀旗)·청룡기(靑龍旗)·등사기(騰蛇旗)·백호기(白虎旗)·현무기(玄武旗)의 다섯 가지로 된 대기치(大旗幟)의 하나. 진영(陣營)을 세울 때 방위(方位)를 따라서 바깥진문(陣門)의 표로 세웠다.

하며 대장이 먼저 응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기총기에 대해서는 대장(隊長) 이하는 입으로 전하면 몸으로 따르고 기고와 호령을 사용하지 않는다. 요컨대 기고와 호령이 모두 어그러져서 순서가 틀리고 앞뒤가 서로 맞지 않을 경우에는 군법으로 다스린다. 주장으로부터 좌충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오방기를 사용하고, 초관이 하는 인기를 사용한다.

기가 엎드려서 세워지지 않으면 주둔 지역에 자리를 잡는다. 그런데 다음에는 비록 천신(天神)이 와서 옮겨가라고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따르지 않는다. 밤에는 횃불을 보고 북소리를 들어 낮과 마찬가지로 행동한다. 명장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바는 깃발과 북이다. 만약 깃발에 제도와 법규가 없다면 이는 참으로 어린애 장난이나 마찬가지로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먼 곳을 보는 것이 어려움을 소홀히 여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잡고 달리는 것을 어렵게 여기고, 방색이 혼잡하여 분별을 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전진에 임하여 부대를 분산하고 통합함에 있어서는 더더욱 깃발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병사들을 지휘함에 손을 쓰고 입술을 오무려 휘파람 소리를 낸다. 심지어 대장과 명문 자손인 장령들에 이르기까지도 오합지졸이 되어 거리낌없이 이를 따르고, 병사들의 대오가 혼잡하여 한 대의 색깔이 가지 가지요, 한 진의 명령이 갈래 갈래라. 용병을 ‘될대로 되라!’에 맡기고 승부를 ‘어쩔수 없지!’에 맡기니, 아! 이 가탄할 일이다. 황기(黃旗)는 토(土)에 속하니, 모든 군에 중영(中營)을 설치하여 중군(中軍)이 쓰는 것이다. 황기를 보면 곧바로 아무 중영의 아무 중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군은] 5영에 있어서는 5영의 한 가운데에 있고, 1영에 있어서는 1영의 한 가운데에 있으며, 이하에서는 이를 본떠서 작게 5인의 경우에 이르러서는 5인의 한 가운데에 있게 된다. 모든 사람이 얼굴이 향하는 곳을 전방으로 하여 홍기(紅旗)를 쓰는 전방을 따른다. 모든 군이 배열하는 군영과 보루의 소재가 전방을 향하면 홍기를 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홍기를 보면 모두 전방을 향할 것을 생각한다.

모든 사람이 자기 왼쪽으로 나아가 이를 왼쪽으로 하여 남기(藍旗)를 가지고 왼쪽을 따른다. 모든 군이 배열하는 군영과 보루의 소재가 왼쪽을 향하면 남기를 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기를 보면 모두 왼쪽을 향할 것을 생각한다. 모든 사람이 자기 오른쪽으로 나아가 이를 오른쪽으로 하여 백기(白旗)를 가지고 오른쪽을 따른다. 모든 군이 배열하는 군영과 보루의 소재가 오른쪽을 향하면 백기를 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백기를 보면 모두 오른쪽을 향할 것을 생각한다.

모든 사람이 자기 배후로 나아가 이를 후방으로 하여 흑기(黑旗)를 가지고 후방을 따른다. 모든 군이 배열하는 군영과 보루의 소재가 후방을 향하면 흑기를 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흑기를 보면 모두 오른쪽을 향할 것을 생각한다. 아득한 들판에서 다수의 인원이 동·서·남·북에 진영을 설치하는 까닭으로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명백하지가 않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좌·우의 손과 얼굴과 등이 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알기 쉬운 것으로 이들을 가르친다. 다만 진영과 중군을 크게 좌·우·전·후로 크게 나누고, 다시 자기 몸의 전·후·좌·우를 방향으로 삼는다. 여기에 다시 동·서·남·북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 수발방[首發放 : 발방을 먼저 함]

모든 조련(操練)은 기일 하루 전에 조패(操牌)를 걸고 각 영에 전달해서 알린다. 다음날 오경(五更 : 새벽 4시 전후)에 시각에 관계 없이 주장의 허락을 받아 진영 문 앞에서 신호 나팔을 분다. 각 관의 장관(將官)은 진영 문전에서 신호 나팔을 불게 하는데, 이 때 각개 병사는 밥을 짓고 장관도 밥을 짓는데, 밥이 익을 때를 기한으로 하여 두 번 신호 나팔을 불면 각 관의 병사는 식사를 마친 다음에 말을 준비하고 군장을 수습하여 교장에 들어가 행오를 이룩한다.

세 번 신호 나팔을 불면 주장이 나와서 교장에 이르르고, 각 관의 병사는 식사를 마친 다음에 말을 준비하고 군장을 수습하여 교장에 들어가 행오를 이륙한다. 중군관이 승장포(升帳砲)를 울릴 것임을 보고한다. 원문(轅門)⁴⁶을 열고 대장기(大將旗)를 울릴 것임을 보고하고 망기(望旗: 망대에서 척후병에게 신호하는 기)도 동시에 울린다. 막료(幕僚)와 소속 관원들은 먼저 와서 참관하고 돌아간다. 중군관이 호적(號笛: 신호 또는 군호로 부는 피리)을 불어 각 관의 깃발을 모을 것임을 보고하고 처분을 청하면, 망기는 좌(左)·우(右)·전(前)·후(後)를 향하여 흔들고 휘두르기를 한차례 하고, 각 관의 기는 수기(手旗)를 써서 교장(教場) 앞으로 인도하여 몸을 돌려 위를 향해 가까이 다가간다.

다음으로 대장으로부터 그 이상의 각 관이 모두 나아간다. 만약 긴급한 일이 있거나 혹은 병력이 수만에 달하면 다만 기총 이상만 나아가고, 대장은 오(伍)를 지킨다. [그들이] 장대(將臺) 아래에 이르러 정렬이 완료되기를 기다려 호적 불기를 멈춘다. 이 때 중군이 전달해 말하기를 “관기는 지나가라!”고 하면, 각 관은 일제히 한 소리로 이에 응하여 낮추었다가 높인다. 제일 먼저 대장이, 두 번째로는 기총이, 세 번째로는 초관이, 네 번째로는 기총이 나아가 모두 꿇어 앉고, 그 다음에 영장(營將)이 장대 위에서 꿇어 앉았다가 먼저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달한다.

“관기는 들으라! 귀로는 금고(金鼓) 소리를 듣고, 눈으로는 정기(旌旗)를 보며, 손으로는 치고 찌름에 숙달하고, 발로는 나아가고 멈춤에 법도가 있으며, 만인이 한 마음이 되고, 군법에 규율이 있으니, 모두가 동일한 사람이요 반열 안의 구성원은 한사람이나 마찬가지로이니, 고상한 행동을 먼저 하고 비루한 행동을 뒤로 하라.”

이에 대하여 각 관은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한다.

46) 옛날 중국(中國)에서 전렵(田獵)할 때나 전진(戰陣)을 베풀 때에 수레로써 우리처럼 만들고, 그 드나드는 곳에는 수레를 뒤집어 놓아 수레의 끝채를 서로 향(向)하게 하여 만들었다.

“아무 관은 삼가 머리를 조아려 아뢰옵나니, 명령을 내리시면 죽어서야 멈추겠나이다.”

다음으로 기패관(旗牌官 : 작전지휘의 신호체계 전달을 담당한 군관)이 앞에 서고, 순시남기(巡視藍旗)가 뒤에 꿇어앉아 명령을 하달 받는다. 그 명령은 이러하다.

“조련에 들어감에 있어서 시끄럽게 떠들고 정숙하지 못하며, 진영을 떠남에 있어서 행오(行伍)가 정제되지 않고, 진영을 설치함에 있어서 앞을 침해하고 뒤를 짓밟으며, 전진에 임해서 거동할 때에 군령을 어기고, 적의 목을 벨 때에 남이 자른 수급(首級)을 강탈하고, 전투가 끝났을 때 항복한 사람을 함부로 죽이며, 갖가지로 간사한 짓을 하고 죄과를 저지르면 너를 잡아들여 처리하여 없애거나 죽여버린다. 만약 고의로 병사를 풀어놓아 금품을 강요하면 너의 죄를 다스린다.”

명령 하달이 끝나면 각관의 깃발이 도열한 장소에서 대취타(大吹打)와 득승고(得勝鼓)를 연주하고 각자 진영으로 돌아간다. 각 영장은 모두 신호 나팔을 불어 일제히 장대 위에서 명령을 하달하고 즉시 금고를 울려 소리를 함께 하여 서로 들리게 해서 막히는 바가 없게 한다. 영장이 명령 하달을 마치면 파총은 깃발을 사용하여 초관 이하의 각 관을 불러서 역시 장대 위에서 명령을 하달하는데, 다만 “장대에서 내리는 호령을 받들라!”고 한다. 이를 마치면 장대 위에서 받은 지시를 친히 구두로 전달하고 금고 등을 사용해서 들려주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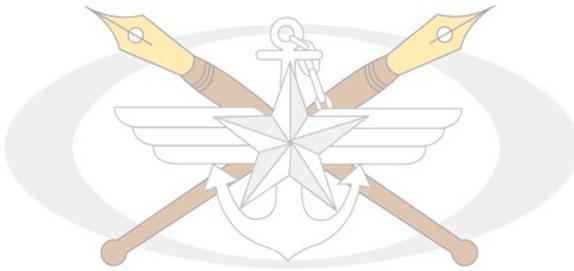
초관은 기총과 대총을 불러서 명령을 하달하는데, 자기가 들은 바 파총의 말을 하달하고 다음으로 자신의 뜻을 하달한다.

기총은 대장과 각 대의 병사들을 집합시키고 명령을 하달하는데, 또한 “장대에서 내리는 호령을 받들라!”고 한다. 그런 다음, 각 상관의 이야기를 일일이 분명하게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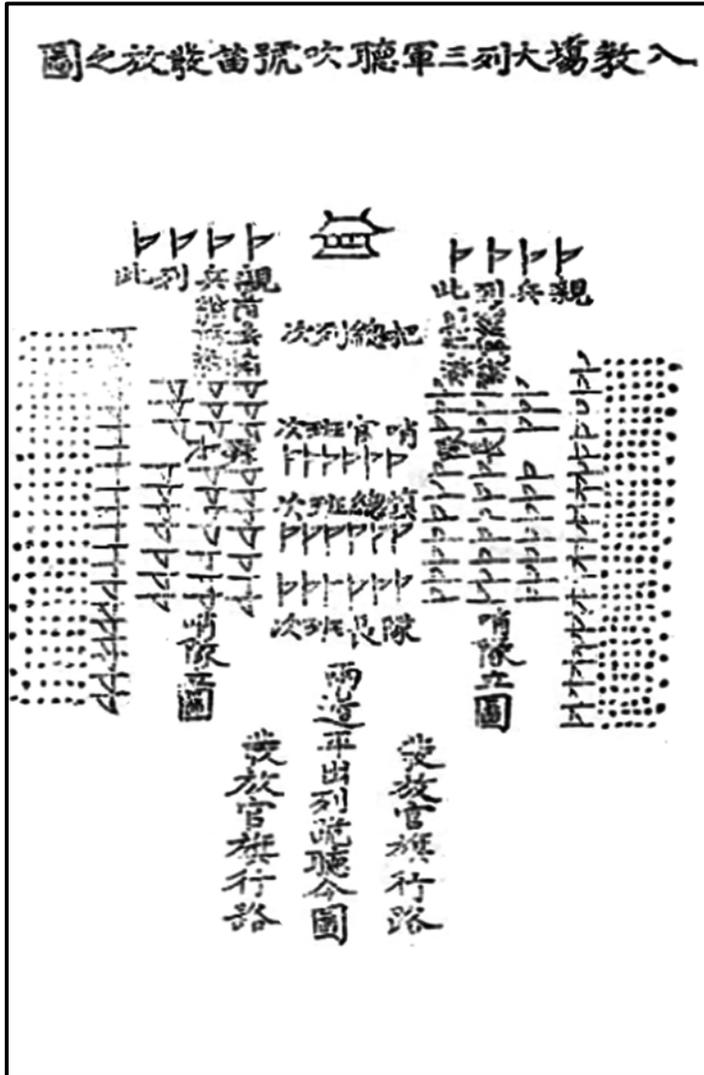
대장이 먼저 큰 소리로 “장대에서 내리는 호령을 받들라!”고 하달하면, 병사들이 즉시 꿇어 앉아 분부를 듣는다. 이렇게 명령을 하달함에 있어서 “장대에서 내리는 호령을 받들라!”는 한 구절을 [부대의 등급이] 한 등씩 낮아지면 반드시 꿇어앉아서 듣는다. 감히

여기는 자가 있으면 곧바로 순시기가 잡아서 장대 위로 보내서 달아 매어 곤장을 치고 영내(營內)에 조리를 돌린다. ‘대상(臺上)’이라는 호칭은 바로 대장(大將)과 주장(主將)을 일컫음이다.

그러므로 입으로 이 두 글자를 범하면 즉시 무릎을 꿇고 처분을 청한다. 만약 평상시 조련(操練)이라면 관계없으나, 대규모 조련이면 장대 위에서의 명령 하달로 끝이 난다. 각 영장과 파사(把司: 파총영) 등은 대규모의 명령 하달을 하지 않고 유사시에는 마땅히 알려주되, 다만 사람을 파견하여 지휘관만 불러서 오게 한다.



【그림 5】 입교장대열삼군칭취호적발방지도[入教場大列三軍聽吹號笛發放之圖：교장에 들어가 삼군을 대열하면서 호적의 연주를 듣고 발방하는 광경의 도면]



▣ 연전령[練傳令 : 전령에 대한 훈련]

명령 하달 절차가 끝난 뒤, 대소의 장령(將領)들의 명령 하달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대장(大將)은 부대에 소속된 일군(一軍)을 추첨으로 뽑아 전방을 향하도록 하고서 이렇게 묻는다.

“오늘 하달한 명령은 어떠한 일과 관련된 것인가?”

만약 그 대략을 알고 있으면 그만이지만, 만약 전혀 모르고 있으면 대장(隊長)을 불러서 이를 묻는다. 대장이 이를 잘 답변하면 군병(軍兵)을 [대장의 가르침을] 들어서 받아들이지 않은 죄로 다스린다. 대장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해당 기총(旗總)을 불러서 이를 묻는다. 기총이 이를 잘 답변하면 대장의 죄를 다스린다. 군병이 처벌을 면한 것은 바로 대장이 명령을 분명히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기총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해당 초관(哨官)을 불러서 이를 묻는다. 초관이 이를 잘 답변하면 기총을 죄로 다스린다. 초관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해당 영(營)의 파총(把總)을 불러서 이를 묻는다. 위로는 영장(營將)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다 이렇게 한다.

매 번의 명령 하달에 영장은 각 파총 휘하에서 일군을 취하고, 파총은 각 초관 휘하에서 일군을 취하고, 초관은 각 기총 휘하에서 일군을 취하여 이를 물어, 분명히 숙지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파총은 영장에게 처분을 요청하고, 초관 이하는 추첨되어 질문을 받은 자의 잘못을 말로 나무라고 그 내용을 1차로 문서에 적어 두는데, 그대로 위의 제1등급의 항목에 두고 다시 하달된 내용의 숙지 여부를 다시 살펴서 차례를 정하고 한차례 설명하고 깨우쳐 주어서 통달하게 되면 지휘소로 가서 보고하여 이렇게 말한다.

“오늘 만들은 호령에 대하여 심문해 본 결과, 각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의 기고(旗鼓)와 호령(號令)은 일단 한 번 나오면 결코 의거해서 따라야 되는 것이다. 장수(將帥)가 군중(軍中)에 있을 때에는 군주(君主)의 명령이라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장수에게는 명령을 돌이킴이 없고, 장수에게는 두 가지 명령이 없으니 바로 이를 이룸이다. 만약 하달받은 호령을 어기고 거슬렀으나 일을 그르치게까지 하지는 않은 자에게는 묶어서 곤장을 치게 하고, 만약 그로 말미암아 일을 그르치게 만든 자는 군법(軍法)으로 일을 처리한다.

▣ 변기치[辨旗幟 : 기치를 분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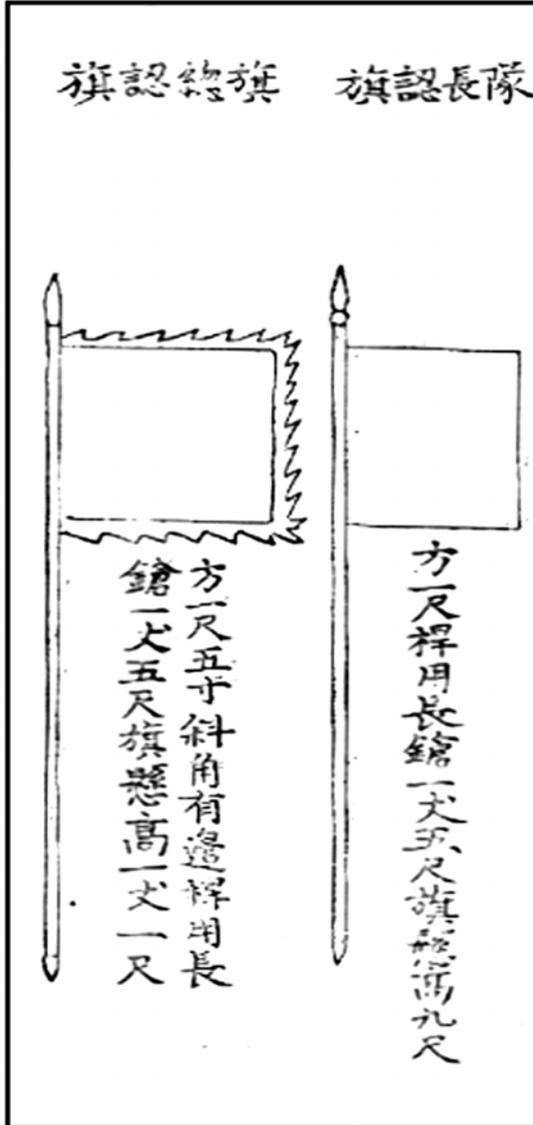
큰 진영마다에 갖추어져 있는 대장(大將)의 인기(認旗)는 납음(納音)⁴⁷에 따라서 오색(五色)의 띠를 두른다. 각 영장(營將)의 인기는 본래의 방위 색깔을 써서 테두리를 하여 주장(主將)의 기에 응하게 하며, 호대(號帶)⁴⁸를 달아 덕(德)에 응하게 한다. 파총(把總)의 인기는 중심[복판]을 본래의 방위에 자리잡게 하여 테두리를 영장기에 응하게 하고 띠를 달아 덕에 응하게 한다.

초관(哨官)의 인기는 중심[복판]을 본래의 방위에 자리잡게 하여 테두리를 파총기에 응하게 하고 띠를 달아 덕에 응하게 한다. 기총기(旗總旗)는 중심[복판]을 해당 초관기에 응하게 하여 테두리를 달아 총사(總司 : 파총의 진영)에 응하게 한다. 대장기(隊長旗)는 색깔로써 해당 기총기에 응하게 한다. 군사들은 투구에 끈이 있고 기가 없으며, 대총의 회기(盔旗)는 길이 3치(9.1cm)로 그 위에 대(隊)와 초(哨)와 분수(分數)를 쓰니, 글자 모양과 방위의 색깔은 초관기를 근거로 삼아서 한다.

47) 궁(宮)·상(商)·각(角)·치(徵)·우(羽)의 오음(五音)을 육십갑자(六十甲子)에 맞추어 오행(五行)으로 나타내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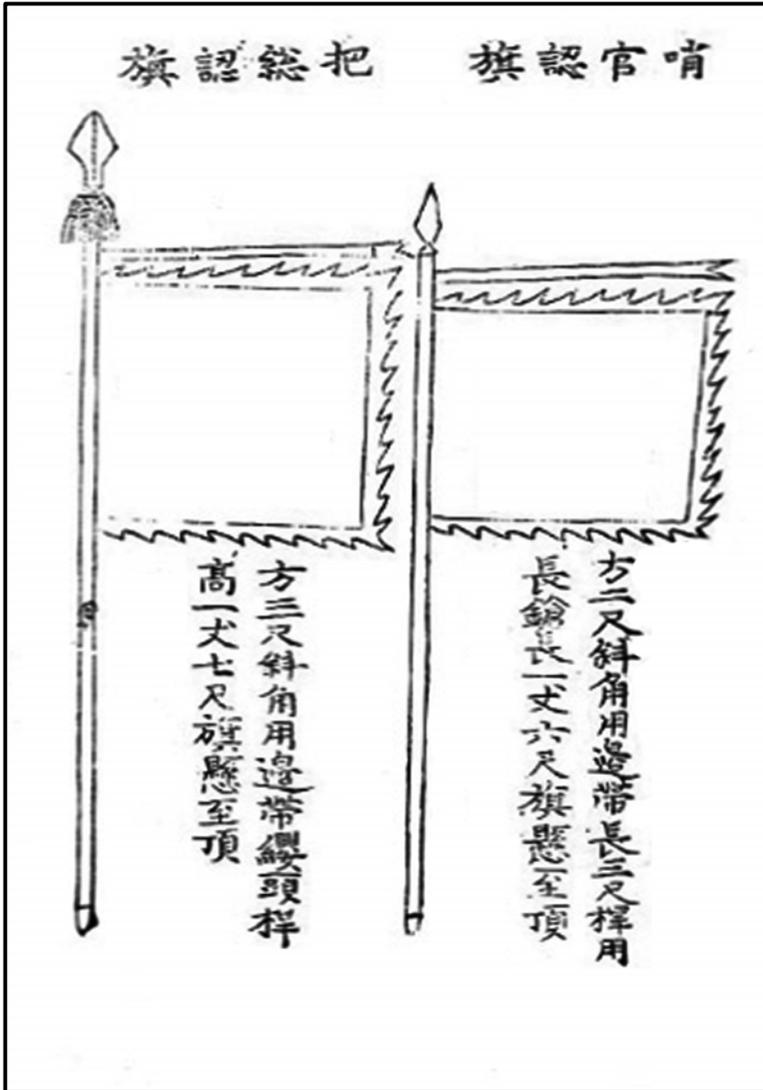
48) 깃대에 매달아 군졸(軍卒)을 부르는 긴 명주띠.

【그림 6】 대장인기[隊長認旗：대장의 인기]
기총인기[旗總認旗：기총의 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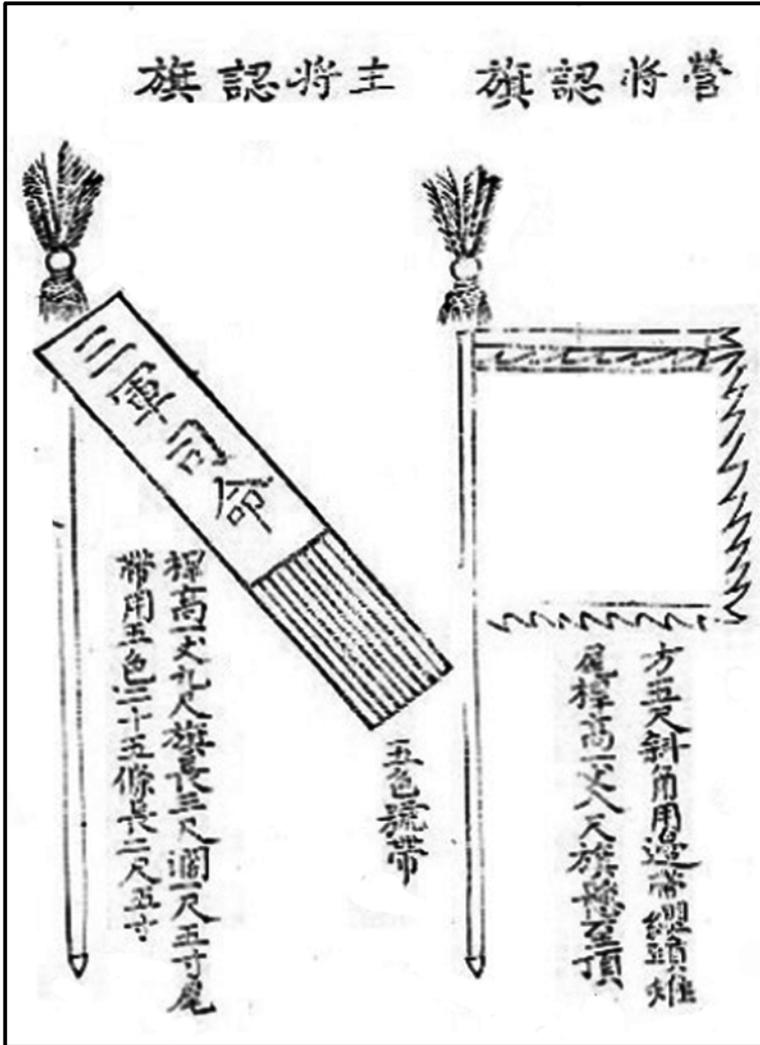


【그림 7】 초관인기[哨官認旗 : 초관의 인기]

파총인기[把摠認旗 : 파총의 인기]



【그림 8】 영장인기[營將認旗 : 영장의 인기]
주장인기[主將認旗 : 주장의 인기]



◆ 전영장관인기[前營將官認旗 : 전영 장관의 인기]

붉은색 중심[복판]에 붉은색 테와 노랑색 띠를 두르고, 구슬과 끈으로 엮은 머리 수실과 꿩 꼬리가 있으며, 깃면에는 “전군사명 [前軍司命]”이라고 쓴다. 오방기는 오색에 붉은색 테를 두른다.

◆ 전사과총기[前司把總旗 : 전사 과총의 기]

붉은색 중심[복판]에 붉은색 테와 노랑색 띠를 두른다.
오방기는 함께 붉은색 테를 두른다.

◆ 전초관기[前哨官旗 : 전초관의 기]

붉은색 중심[복판]에 붉은색 테와 노랑색 띠를 두른다.

○ 기총기[旗總旗 : 기총의 기]
붉은색 중심[복판]에 붉은색 테를 두른다.

○ 대장기[隊長旗 : 대장의 기]
붉은색 중심[복판]에 테가 없다.

◆ 좌초관기[左哨官旗 : 좌초관의 기]

남색 중심[복판]에 붉은색 테를 두르며, 나머지는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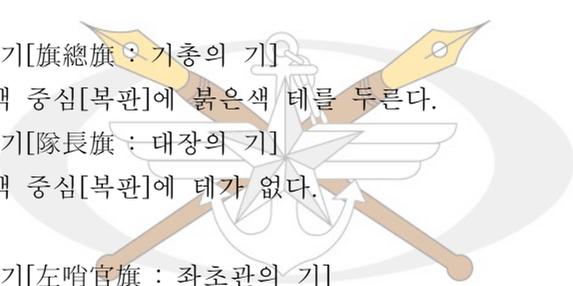
○ 기총의 기
남색 중심[복판]에 붉은색 테를 두른다.

○ 대장의 기
남색 중심[복판]에 테가 없다.

◆ 우초관기[右哨官旗 : 우초관의 기]

흰색 중심[복판]에 붉은색 테를 두르며, 나머지는 같다.

○ 기총의 기
흰색 중심[복판]에 붉은색 테를 두른다.



- 대장의 기
흰색 중심[복판]에 테가 없다.

◆ 후초관기[後哨官旗 : 후초관의 기]
검은색 중심[복판]에 붉은색 테를 두르며, 나머지는 같다.

- 기총의 기
검은색 중심[복판]에 붉은색 테를 두른다.
- 대장의 기
검은색 중심[복판]에 테가 없다.

◆ 중초관기[中哨官旗 : 중초관의 기]
노랑색 중심[복판]에 붉은색 테를 두르며, 나머지는 같다.

- 기총의 기
노랑색 중심[복판]에 붉은색 테를 두른다.
- 대장의 기
노랑색 중심[복판]에 테가 없다.



◆ 좌사파총기[左司把總旗 : 좌사 파총의 기]
남색 중심[복판]에 붉은색 테와 노랑색 띠를 두른다.
오방기는 함께 붉은색 테를 두른다.

◆ 좌·우·중·전·후초관기[左·右·中·前·後哨官旗: 좌·우·중·전·후 초관의 기]
중심[복판] 색깔은 각 방위에 따라서 하되, 모두 남색 테와 노랑색 띠를 두른다.

- 좌·우·중·전·후기총기[左·右·中·前·後旗總旗: 좌·우·중·전·후 기총의 기]
초관의 기에 따라서 하되, 남색 테를 두른다.

○ 대장의 기
초관의 기에 따라서 하되, 테가 없다.

◆ 중사 파총의 기[中司把總旗]
노랑색 중심[복판]에 붉은색 테와 노랑색 띠를 두른다.
오방기는 함께 붉은색 테를 두른다.

◆ 좌·우·중·전·후초관기[左·右·中·前·後哨官旗:좌·우·중·
전·후 초관의 기]
중심[복판] 색깔은 각 방위에 따라서 하되, 모두 노랑색 테와 노랑색 띠를 두른다.

○ 좌·우·중·전·후기총기[左·右·中·前·後旗總旗:좌·우·
중·전·후 기총의 기]
초관의 기에 따라서 하되, 노랑색 테를 두른다.
○ 대장의 기
초관의 기에 따라서 하되, 테가 없다.

◆ 우사파총기[右司把總旗 : 우사 파총의 기]
흰색 중심[복판]에 붉은색 테와 노랑색 띠를 두른다.
오방기는 함께 붉은색 테를 두른다.

◆ 좌·우·중·전·후초관기[左·右·中·前·後哨官旗:좌·우·중·
전·후 초관의 기]
중심[복판] 색깔은 각 방위에 따라서 하되, 모두 흰색 테와 노랑색 띠를 두른다.

○ 좌·우·중·전·후기총기[左·右·中·前·後旗總旗:좌·우·
중·전·후 기총의 기]
초관의 기에 따라서 하되, 흰색 테를 두른다.



○ 대장의 기

초관의 기에 따라서 하되, 테가 없다.

◆ 후사파총기[後司把總旗 : 후사 파총의 기]

검은색 중심[북판]에 붉은색 테와 노랑색 띠를 두른다.

오방기는 함께 붉은색 테를 두른다.

◆ 좌·우·중·전·후초관기[左·右·中·前·後哨官旗 : 좌·우·중·전·후 초관의 기]

중심[북판] 색깔은 각 방위에 따라서 하되, 모두 검은색 테와 노랑색 띠를 두른다.

○ 좌·우·중·전·후기총기[左·右·中·前·後旗總旗 : 좌·우·중·전·후 기총의 기]

초관의 기에 따라서 하되, 검은색 테를 두른다.

○ 대장의 기

초관의 기에 따라서 하되, 테가 없다.

◆ 영장[營將 : 영장]

매 1영(營)마다 있으며, 그 아래에 소속되는 기치는 다음과 같다.

장관인기(將官認旗) 1면(面)

금고기(金鼓旗) 2면

좌독(左纛) 1면

고초(高招) 5면

파총인기(把總認旗) 각 1면

기총창기(旗總槍旗) 각 1면

문기(門旗) 2면

오방기(五方旗) 5면

순시기(巡視旗) 10면

초관인기(哨官認旗) 각 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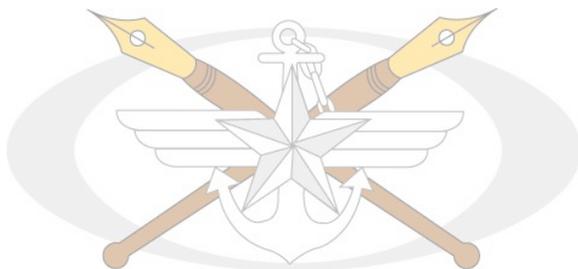
대총창기(隊總槍旗) 각 1면

위에 열거된 깃발의 색깔과 테와 띠가 상생하고 호응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연병실기(練兵實記)』나 『병학지남(兵學指南)』에서 논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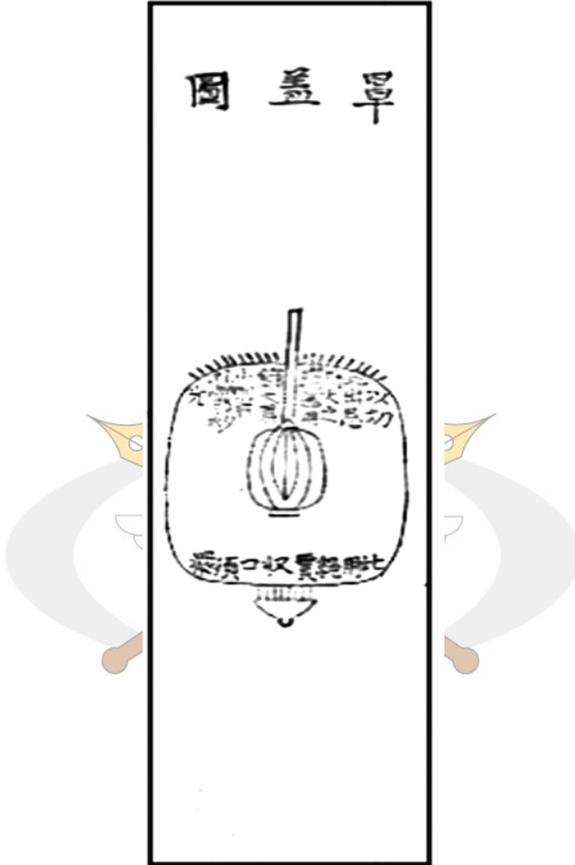
것과 같지 않으나, 개정하기가 어려워 옛날 제도를 근거로 하여 이를 그대로 두었으니, 보는 이는 살피기 바란다.

▣ 야영등제[夜營燈製 : 야간에 진영을 밝히는 등불의 제작]

조개(罩蓋 : 가리 뚜껑)는 가장 요긴한 기구이니, 혹은 일시에 감추고 숨겨서 한 치의 빛도 새어나가지 않게 하고, 혹은 진영을 밝게 하기도 하고 어두운 속에서 옮길 수도 있게 하며, 혹은 진영을 어둡게 하기도 하고 갑자기 밝게도 하여 측량할 수 없는 공교로움을 발휘한다.



【그림 9】 조개도[罩盖圖：등 가리개의 도형]



■ 야간에 진영을 밝히는 등불에 대한 해설[夜營燈解]

중군(中軍)의 기고(旗鼓) 위에는 노랑색 기름종이로 바른 철사등(鐵絲燈) 1개를 비치하는데, 둘레가 8치(24.2cm)이다. 독기(蠶旗) 위에 오색등(五色燈) 5개를 비치하는데 한 줄로 잇달아 내리 걸며,

둘레가 9치(27.3cm)이다. 각 잡류(雜流)와 관생인(官生人) 등은 각각 우두머리를 세워 등 1개씩을 휴대하게 하는데, 둘레가 6치(18.2cm)이니, 낮게 잡아 몸이 그 뒤를 따른다.

전총(前總)의 초기(哨旗) 위에는 붉은색 기름종이로 바른 철사등 1개를 비치한다. 고초등(高招燈) 2개는 대략 둘레 4치(12.1cm) 길이 7치(cm)인데, 매 1대기 위에 등 1개씩을 비치하니, 색깔은 같다. 그리고, 대략 둘레 5치(15.2cm) 길이 1자(30.3cm)의 검은 기름종이를 바른 조개(罩盖 : 가리) 1건을 비치한다.

좌총(左總)에 비치하는 등의 자와 치의 규격은 앞과 같으나, 남색 기름종이를 사용한다.

우총(右總)에 비치하는 등의 자와 치의 규격은 앞과 같으나, 흰색 기름종이를 사용한다.

후총(後總)에 비치하는 등의 자와 치의 규격은 앞과 같으나, 녹색 기름종이를 사용한다.

중총(右總)에 비치하는 당보(塘報) 및 여러 등은 모두 둥글며 노랑색이다. 높이와 둘레는 모두 7치(21cm)이다.

▣ 대장기고해[大將旗鼓解 : 대장의 기치와 금고 해설]

대저 대장(大將)이 맡는 바는 다만 이 기치(旗幟) 뿐이니, 기치를 한번 들면 백만의 무리가 들고, 기치를 휘두름에 적(敵)을 함께 하지 않음이 없고, 명령을 수행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장에게 의뢰하는 바가 중대한 것이다.

중국(中國)의 군중(軍中)에서는 오직 금고(金鼓)⁴⁹⁾의 설(說)을 일찍이 장수의 임명 행사나 장수의 진영에 사용했을 따름이었다. 그나마 귀로 듣는 가르침은 열에 다섯이나 가르칠 뿐이요 오직 눈으로 보는 가르침은 모두 폐지되어 진영 배열시에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49) 금고(金鼓) : 군중(軍中)에서 전진·정지·후퇴 등의 군령을 내리는 데 사용하는 징 모양의 신호 기구

그 뜻 또한 듣기가 어려워졌다. 대장된 자가 용맹을 믿고 앞장서거나, 혹은 가정(家丁)들을 이끌어 특별히 일대를 만들어 가지고 기고(旗鼓)와 함께 하도록 해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 평일에 가르쳐주지 않고 때에 닥쳐서 어찌 조치할 수가 있겠는가? 한탄스럽도다! 즉, 길에서 행렬을 이루고 이동할 때에 다만 변화하게 벌여만 놓고 보여주려고 치레만 할 따름이다. 또한 전혀 그 배열하는 바에 정해진 법식이 있고 깊은 뜻이 있어 십이진(十二辰)⁵⁰ · 구군(九軍)⁵¹ · 팔진(八陣)⁵² · 오행(五行)⁵³ · 사문(四門)⁵⁴ 등과 관계가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것은 죽히 구비하여 행함에 조리가 있고, 응용함에 분산과 합류가 있고 일단 무슨 영, 무슨 진으로 변화하려고만 하면 손바닥을 뒤집듯 곧바로 이룩할 수가 있다. 반드시 사졸들로 하여금 그 기(旗)를 보도록 하여 이를 명령으로 삼도록 한다. 병법(兵法)에 이르기를, ‘휘둘러 앞을 가리키니 나아가서 죽지 않는 자가 없고, 기가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 기가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기가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기가 뒤로 가라면 뒤로 간다. 진흙과 모래가 5척(尺)에 부월(斧鉞)⁵⁵이 가로막고 있더라도 기고(旗鼓)⁵⁶를 보고 들으며, 장수를 두려워하되 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대장은 기고를 잡을 줄을 알되 자신을 모르니, 이와 같아야 적과 맞닥뜨려 싸울 수 있다.

50) 십이진(十二辰) : 육십 갑자(六十甲子)의 아랫 단위를 이루는 요소(要素). 자(子) · 축(丑) · 인(寅) · 묘(卯) · 진(辰) · 사(巳) · 오(午) · 미(未) · 신(申) · 유(酉) · 술(戌) · 해(亥)를 말한다.

51) 구군(九軍) : 천자(天子)의 육군(六軍)과 제후(諸侯)의 삼군(三軍)

52) 팔진(八陣) : 종군(從軍)을 가운데에 두고 여덟 가지 모양으로 진을 배치(配置)한 진법(陣法).

53) 오행(五行) : 방진(方陣), 원진(圓陣), 곡진(曲陣), 절진, 예진(銳陣)의 다섯 가지 진법(陣法). 오행진(五行陣).

54) 사문(四門) : 네 개의 문. 동, 서, 남, 북에 있는 사방의 문

55) 부월(斧鉞) : 작은 도끼와 큰 도끼

56) 기고(旗鼓) : 싸움터에서 쓰는 기(旗)와 북. 군대(軍隊)를 지휘(指揮)하고 명령(命令)하는 데 썼다.

그러므로 장수의 임무는 단지 창을 잡고 말을 달리는 데에 있는 것만이 아니다. ‘기(旗)’와 ‘고(鼓)’ 두가지는 운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만약에 병사들이 북을 쳤는데도 나아가지 아니하고, 기치를 휘둘렀는데도 따르지 아니하고, 적을 보면 곧바로 패주할 것만을 생각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 경우에 대장은 다만 기고(旗鼓)를 구실삼아 비유하기를 ‘군사가 스스로 패하여 지휘부의 기고(명령과 지휘)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어찌 대장을 씌에 어느 누구를 시킨들 못하겠는가?

대장이 말아서 살필 바는 오직 이것이다. 이 한가지 거동에 백만의 무리가 대장기의 움직임에 따라서 함께 짝하지 않음이 없으며, 명령을 받들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대장에게 의뢰하는 바가 중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군중에는 오직 금고(金鼓)에 대한 설이 아직도 교련장과 장수의 진영에서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교(耳敎: 징과 북을 이용한 귀로 듣는 군령)는 오히려 10분지 5가 남아 있지만, 목교(目敎: 깃발을 이용한 눈으로 보는 군령)는 모두 폐지되어 버렸다. 그래서 전진에 임하여 싸울 때에 분명히 그 뜻이 채용되지 않고, 또한 들어보기조차 어려워졌다.

대장이라는 자가 혹은 용맹을 믿고 앞장을 서거나 혹은 가정(家丁)을 이끌고 나아가면서, 특히 1대를 만들어 기고(旗鼓)를 아우르게 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에 쓰는 것인지조차 알지를 못하니, 평일에 익히지 않고 유사시에 이르러 어떻게 조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통탄할 일이다! 군대행렬이 도로를 지날 때 다만 번잡하고 화려하게 떠벌려 놓아 사람들이 보고 듣기에 좋도록 꾸며대기만 할 뿐, 결코 그 배열할 바를 아지 못한다.

행진에는 정해진 법칙이 있고, 깊은 뜻이 있고, 12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군의 팔진 오행 사문 등을 풍부히 구비하면 시행에 조리가 있고 활용에 분리 통합의 묘가 있는 것이다. 한 번 변화시키고자 함에 있어서 어떤 영이던 어떤 진이던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드시 사졸들로 하여금 깃발을 보도록 하여 방법을 명하니 대장기를 휘둘러 앞을 가리키면 나아가서 죽지 않음이

없고, 기가 앞으로 가라 하면 앞으로 가고, 기가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고, 기가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기가 뒤로 가라 하면 뒤로 가고, 기가 앞으로 가라 하면 뒤로 간다. 이와 같으니 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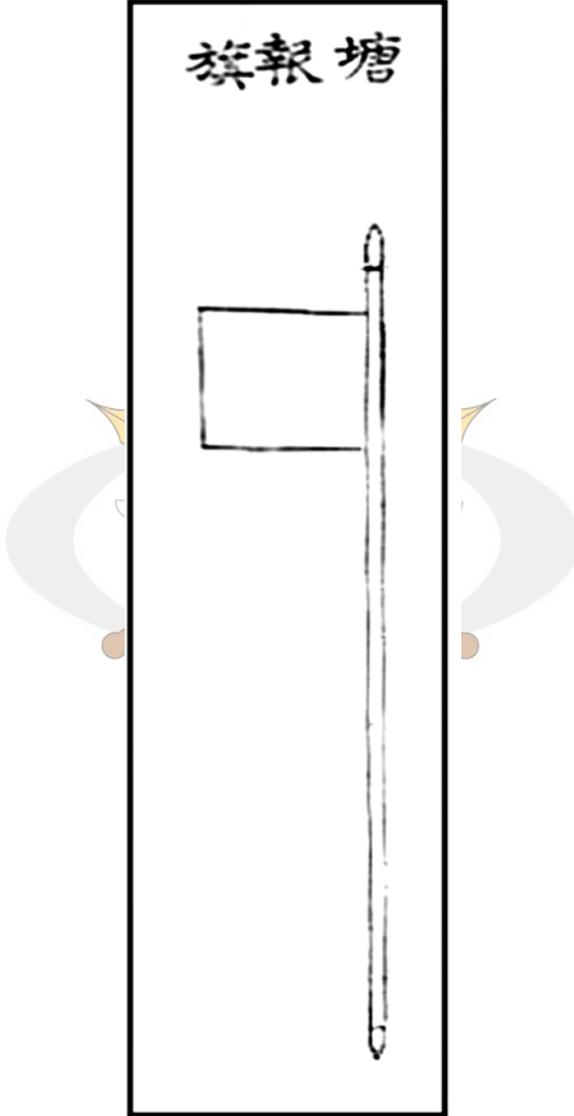
그러므로 대장이 비록 창을 휘두르고 말을 달리지 않으나 “기고(旗鼓)” 두 글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만약 북을 치는데 나아가지 않고, 깃발을 휘두르는데 따르지 않고, 적을 보고 곧 달아날 생각을 하면, 대장이 기고를 가지고 이를 유도 하면서 말하기를 “군사가 스스로 패하는 것은 상사가 하달하는 기고의 신호를 듣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니, 어떻게 부릴 수가 있겠는가? 대장이 비록 뛰어난 사람이라 하여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깃발 안에 신상(神像)을 모아 놓은 것은 여러 사람의 눈과 귀를 어리석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갑자기 일을 행하게 되어서 급박한 상황을 당하여 좋은 시일을 가릴 여가가 없으면 교장 안에서 깃발로 사문과 팔각을 만들어 그 길한 방위를 가려서 깃발에 따라 문 안에서 나아가면 바로 길함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다.

▣ 당보기제[塘報旗製 : 당보기의 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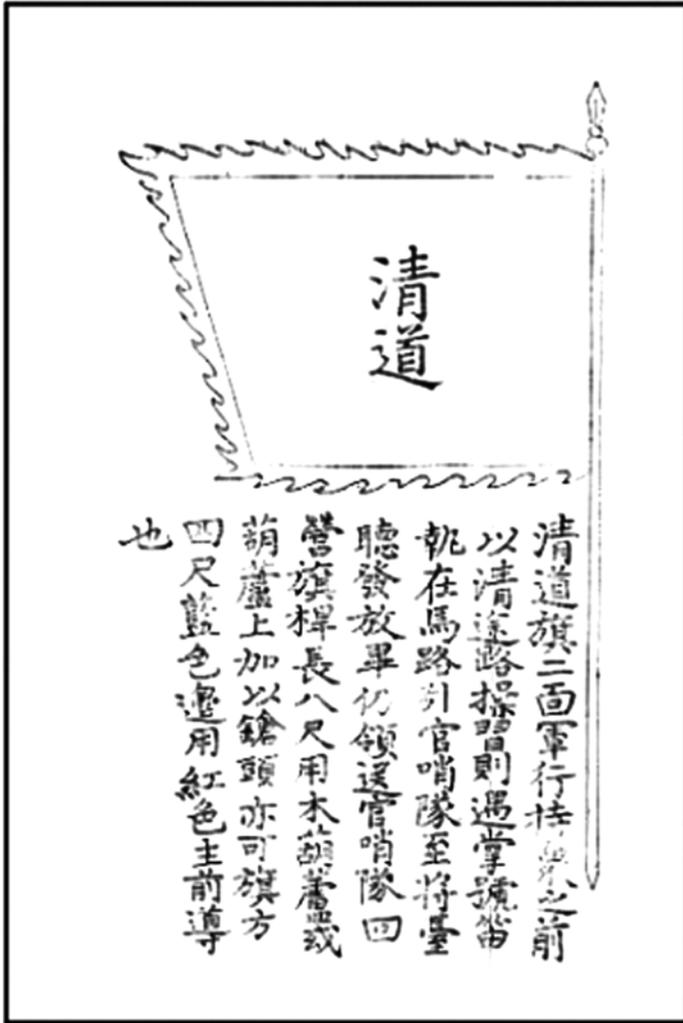
당보기는 각각 소황기(小黃旗) 1개를 잡는다. 장창을 쓰는데 길이는 9자(273cm)이다. 그 위에 깃발을 매다는데 모서리는 1자(30.3cm)이다. 행군할 때에 깃발을 [천천히] 흔들면 이는 적이 접근해 왔다는 것이고, 깃발을 빠르게 흔들면 이는 적의 수효가 많다는 것이다.

【그림 10】 당보기[塘報旗]



◆ 청도기제[淸道旗製：淸도기의 제원]

【그림 11】 청도기[淸道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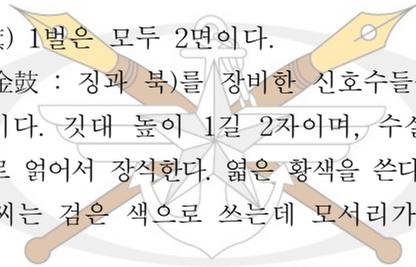


청도기 2면은 행군할 때 여러 사람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도로를 깨끗이 정리한다. 조련과 연습을 할 경우에 장호적(掌號笛) 신호인 날나리 부는 소리가 들리면, 인마의 통행로에서 각 관(官)의 초(哨)와 대(隊)를 장대(將臺)로 인도하고, 명령 하달이 끝난 뒤에는 각 관의 초와 대를 인솔하여 진영으로 귀환하게 한다. 깃대의 길이는 8자(242cm)이며 나무로 만든 호리병을 깃대 위에 붙이거나, 또는 호리병 위에 창 날을 붙여도 된다. 깃발의 모서리는 4자(121cm)이다. 남색 테를 두르고 붉은 색깔을 쓰며, 앞길을 인도하는 것을 주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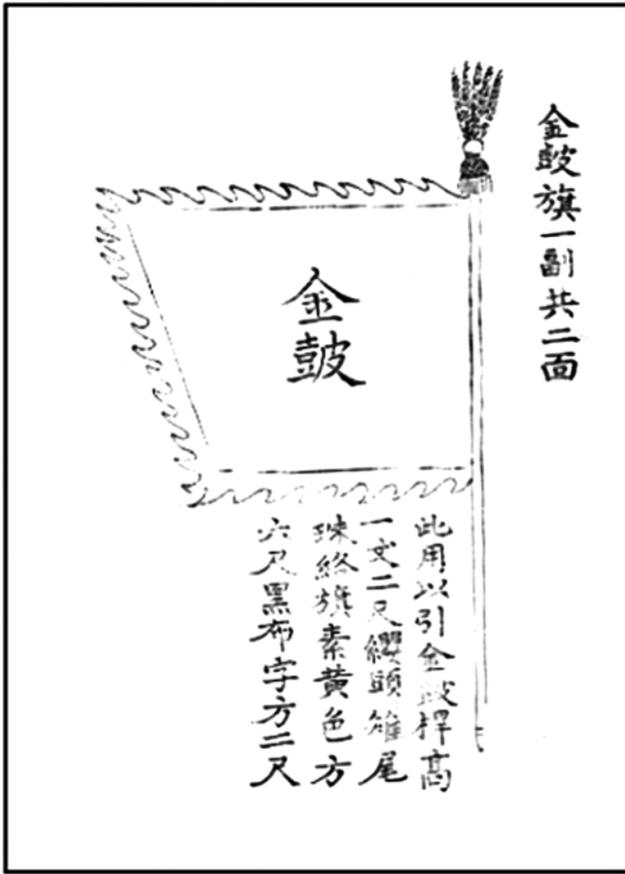
◆ 금고기제[金鼓旗製 : 금고기의 제원]

금고기(金鼓旗) 1벌은 모두 2면이다.

이것은 금고(金鼓 : 징과 북)를 장비한 신호수들을 인도하는 데에 사용하는 깃발이다. 깃대 높이 1길 2자이며, 수실로 끈 머리끈에 꿩꼬리, 붉은 줄로 엮어서 장식한다. 엷은 황색을 쓴다. 깃발의 모서리는 6자(182cm), 글씨는 검은 색으로 쓰는데 모서리가 2자(61cm)이다.



【그림 12】 금고기[金鼓旗]



■ 문기제[門旗製 : 문기의 제원]

문기(門旗)는 동·서·남·북·중 다섯 방위의 색깔을 근거로 하여 만드는데 각 방위에 2면씩으로 모두 10면이다.

【그림 13】 문기[門旗]



이것을 원문(轅門: 진영 문)에 세워서 진영을 배열한다. 다섯 방위는 각각 방위의 색깔을 근거로 한다. 깃대 높이는 1길 2자(364cm)이며

깃봉에는 대운두(大雲頭: 구름무늬 장식)를 붙이고 깃대는 명철봉(明鐵鋒: 강철봉)으로 한다. 깃발의 모서리는 5자(152cm)이며, 테에는 모두 노랑 색깔을 쓴다.

▣ 대오방기[大五方旗 : 대오방기의 제원]

대오방기(大五方旗)는 5면이다.

이 기는 5면인데, 4면을 병사들이 볼 수 있는 사방에 표로 세워서, 그들이 행동을 개시하고 좌·우·전·후로 나아가고 멈추는 것을 적절히 조정 통제한다. 깃대 높이는 1길 5자(455cm)이며, 수실로 끈 머리끈에 붉은 줄로 엮어서 장식한다. 깃발의 색깔은 방향을 근거로 하여 정하며, 테는 생기(生旗)의 빛깔로 짙지우되, 본기(本旗)의 색깔을 저축해서는 안된다. 깃발 복판의 모서리는 5자(152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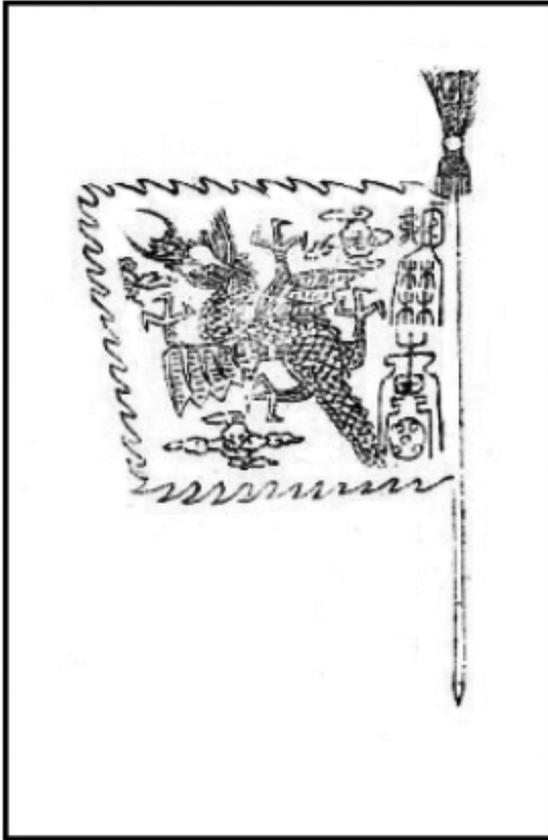


【그림 14】 대오방기[大五方旗]



【그림 15】 동방청룡기

동방의 청룡(靑陵)과 구기(九氣)⁵⁷는 십간(十干)의 갑(甲)과 을(乙)이요 십이지(十二支)의 인(寅)과 묘(卯)이며, 오행(五行)의 목(木)이니, 그 신(神)은 청룡(靑龍)이요 그 빛깔은 남색이다.



57) 구기(九氣): 사람의 아홉 가지 감정 상태. 노(怒: 노여움) · 희(喜: 기쁨) · 비(悲: 슬픔) · 공(恐: 두려움) · 경(驚: 놀라움) · 사(思: 그리움) · 노(勞: 수고로움) · 한(寒: 추움) · 경(暍: 더움)

【그림 16】 남방주작기

남방의 단릉(丹陵)과 칠기(七氣)⁵⁸는 십간의 병(丙)과 정(丁)이요 십이지의 사(巳)와 오(午)이며, 오행의 화(火)이니, 그 신은 주작(朱雀)이요 그 빛깔은 붉은 색깔이다.



58) 칠기(七氣): 사람의 일곱 가지 감정 상태. 노(怒: 노여움)·희(喜: 기쁨)·비(悲: 슬픔)·경(驚: 놀라움)·구(懼: 두려움)·애(愛: 사랑)·증(憎: 미움)

【그림 17】 서방백호기

서방의 교릉(皎陵)과 오기(五氣)⁵⁹는 십간의 경(庚)과 신(辛)이요 십이지의 신(申)과 유(酉)이며, 오행의 금(金)이니, 그 신은 백호(白虎)요 그 빛깔은 흰 색깔이다.



59) 오기(五氣): 사람의 다섯 가지 감정 상태. 노(怒: 노여움)· 희(喜: 기쁨)· 욕(欲: 욕구)· 구(懼: 두려움)· 우(憂: 근심)

【그림 18】 북방현무기

북방의 현릉(玄陵)과 삼기(三氣)⁶⁰는 십간의 임(壬)과 계(癸)요 십이지의 해(亥)와 자(子)이며, 오행의 수(水)이니, 그 신은 현무(玄武)요 그 빛깔은 검은 색깔이다.



60) 삼기(三氣) : 태초(太初)·태시(太始)·태소(太素)의 세 가지 기운

▣ 중오방기[中五方旗 : 중오방기의 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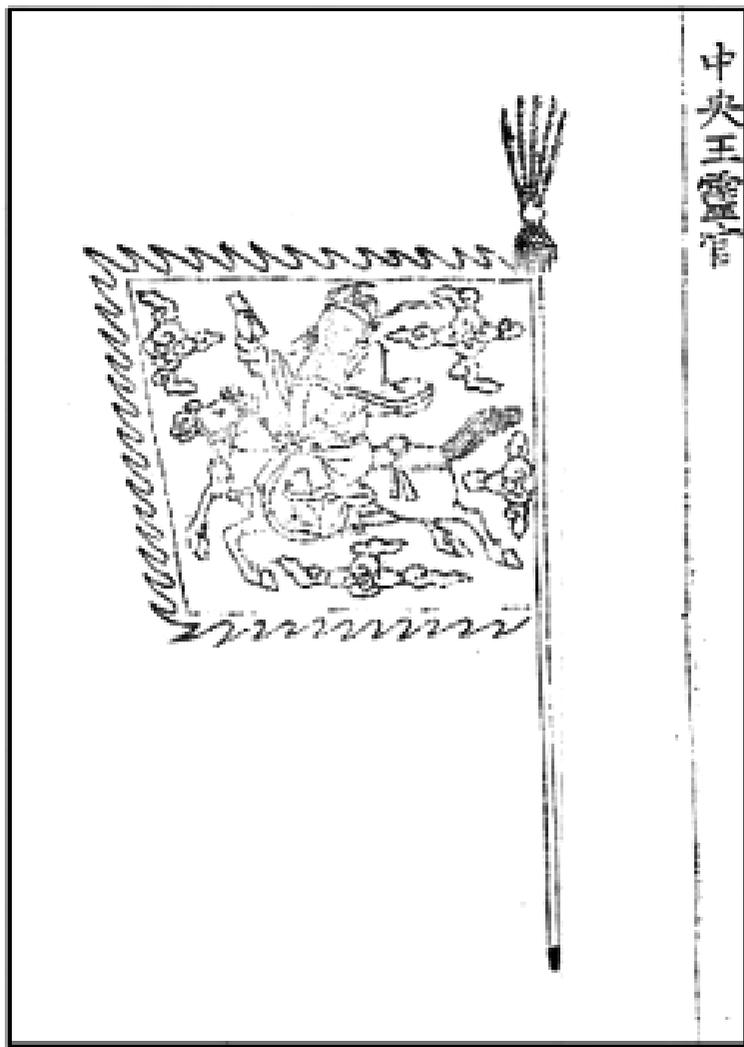
【그림 19】 동방은원수[東方溫元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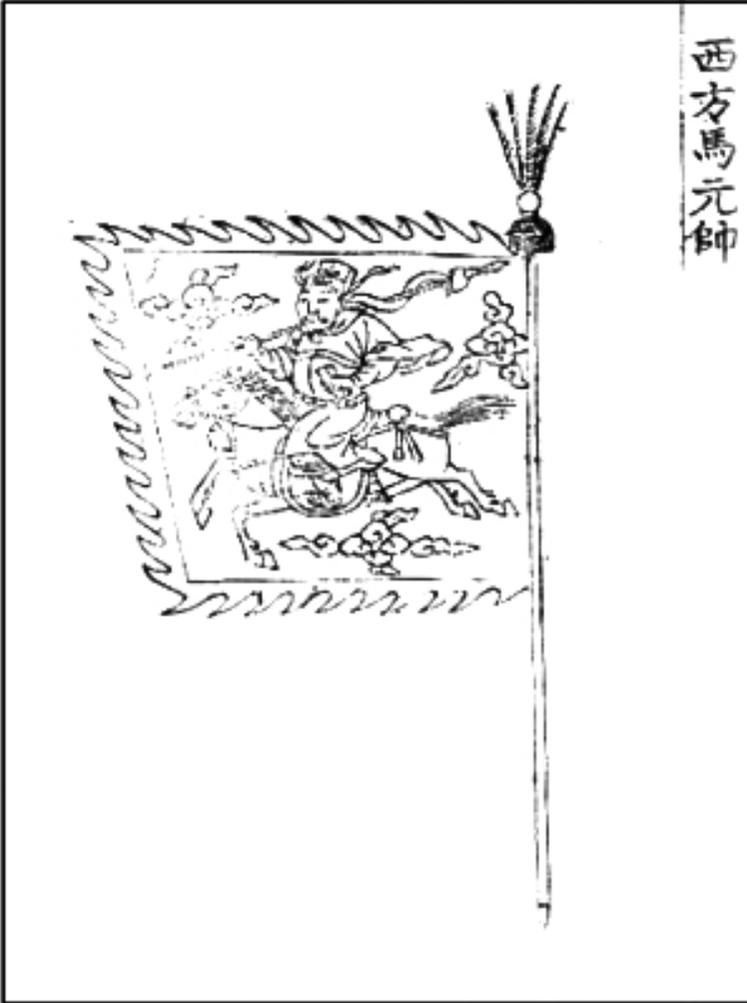
【그림 20】 남방 관원수[南方關元帥]



【그림 21】 중앙 왕영관[中央王靈官]



【그림 22】 서방 마원수[西方馬元帥]



【그림 23】 북방 조현단[北方趙玄壇]



▣고조기제[高照旗製 : 고조기의 제원]

오방고조기(五方高照旗) 5면은 각각 동·서·남·북·중 다섯 방위의 색깔을 근거로 하여 만드는데, 깃폭의 꼬리는 생기(生旗)의 빛깔을 쓰는데, 이는 대기(大旗) 테를 만드는 것과 같은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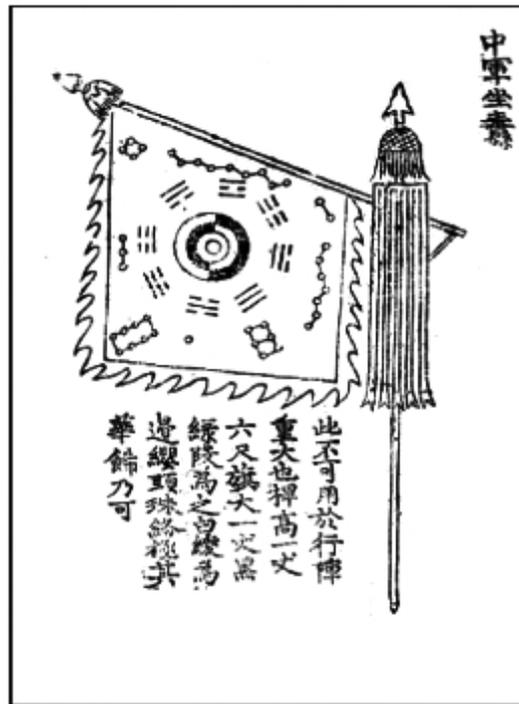
【그림 24】 오방고조기(五方高照期)



이것은 예하 전령의 주력인 기병(奇兵) 및 친병(親兵)이 모두 그 수가 된다. 야간에는 등불을 보고 다섯 방위에 호응한다. 깃대는 단단하고 좋은 대나무를 써서 붉은 빛깔로 칠한다. 길이는 1길 6자(485cm)이며 머리에는 작은 창날의 쇠를 쓰고, 나무로 만든 호리병을 깃대 위에 붙이는데, 꼭대기에 붙이는 가로장 쇠(鐵梁)는 모름지기

가볍고 간단하여 사용하기에 편하도록 해야 한다. 방위의 색깔을 근거로 하여 폭 전체 명주 천의 길이는 1길 2자(364cm)로 한다. 등불은 방위의 색깔을 근거로 하여 얇은 기름종이를 바른다. 등롱(燈籠)은 철사로 만드는데, 대략 둘레가 4치(12cm)이고 길이가 7치인데, 그 가벼운 것을 취한다.

【그림 25】 중군좌독기제[中軍坐纛旗製 : 중군좌독기의 제원]



이것은 진영을 배열하는 데에 있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깃발이다. 깃대 높이는 1길 6치(305cm)이며, 깃폭의 크기는 1길 (303cm)이다. 짙은 녹색 비단으로 깃폭을 만들고 흰 비단으로 테를 두르며, 머리에는 붉은 줄을 얹어서 장식한다. 화려하기 이를 데 없이 꾸며도 괜찮다.

【그림 26】 이십팔수(二十八宿)가 동방의 각(角)·항(亢)·저(氏)·방(房)·심(心)·미(尾)·기(箕) 등 일곱 별자리를 부리고 이끌며 운행하게 하고 거두어 들이는 참모습



이 띠는 사방의 방위 색깔을 근거로 해서 만들고, 이와 아울러 중앙의 옅은 황색 띠도 함께 좌독기(坐纛旗) 위에 걸어서 사방의 주체로 삼는다. 다만 조련에서는 쓸 수 있으나 전진에 임해서는 쓸 수가 없으니,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이다. 깃대에는 등이 없고 쇠가 없으니, 십자 모양의 시령을 꼭대기에 건다.

【그림 27】 이십팔수(二十八宿)가 남방의 정(井)·귀(鬼)·유(柳)·성(星)·장(張)·익(翼)·진(軫) 등 일곱 별자리를 부리고 이끌며 운행하게 하고 거두어 들이는 참모습



【그림 28】 이십팔수(二十八宿)가 북방의 두(斗)·우(牛)·(女)·허(虛)·위(危)·실(室)·벽(壁) 등 일곱 별자리를 부리고 이끌며 운행하게 하고 거두어 들이는 참 모습



【그림 29】 이십팔수(二十八宿)가 서방의 규(奎)·누(婁)·위(胃)·묘(昴)·필(畢)·자(觜)·삼(參)등 일곱 별자리를 부리고 이끌며 운행하게 하고 거두어 들이는 참모습



【그림 30】 표미기1면[豹尾旗一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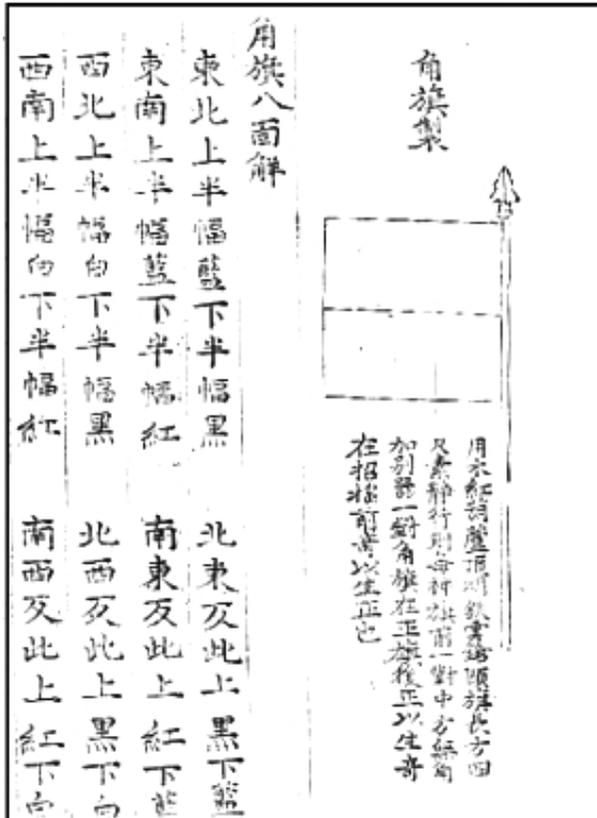


이 기를 세워둔 곳에는 한 사람이 함부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주장(主將)의 호령(號令)이나 영기(令旗)와 영전(令箭)으로 부른 바가 없는데 제멋대로 들어온 자는 관원의 대소를 막론하고 군법에 의거하여 체포하니 이것이 그 제한 규정이다. 병법에 이르기를 “위로는 하늘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고, 아래로는 땅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고, 장수가 군중에 있을 때는 군주의 명령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기약을 정하고 외방으로

나와 적을 섬멸한 뒤에야 돌아갈 것이니, 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 깃대는 단단한 나무를 쓰되, 길이는 9자(273cm)이다. 날카로운 칼날을 가지고 기에 쓸 비단을 자르는데, 거기에 매우 세밀하게 정성스러움을 다하여야 한다. 표미기의 모양은 넓은 한 폭을 한 쌍으로 나누는데 그 길이는 7자(212cm)이다.

▣ 각기제[角旗製 : 각기의 제원]

【그림 31】 각기제[角旗製]



나무를 써서 붉은 호리병을 만들어 깃대 꼭대기에 붙이고 깃봉에는 명철(明鐵 : 강철)로 된 구름무늬의 창날(雲槍頭)을 붙인다. 깃폭의 길이와 모서리는 4자(121cm)이다. 평상시에 조용히 자리하여 각 신기(神旗) 앞에 한 쌍이 나란히 위치한다. 그 가운데에 각기가 없으면 다른 기 한 쌍을 더한다. 각기가 정기(正旗)의 뒤에 위치하면 정병(正兵)은 기병(奇兵)이 되고, 초요기(招搖旗)의 앞에 있으면 기병(奇兵)은 정병(正兵)이 된다.

◆ 각기팔면해[角旗八面解 : 각기 여덟 면에 대한 해설[角旗八面解]]

동북쪽에 꽂는 각기는 상단의 넓이가 반쪽에 빛깔은 남색이며, 하단의 넓이는 반쪽에 빛깔은 흑색이다.

북동쪽에 꽂는 각기는 이와 반대로 상단의 빛깔이 흑색이며, 하단의 빛깔이 남색이다.

동남쪽에 꽂는 각기는 상단의 넓이가 반쪽에 빛깔은 남색이며, 하단의 넓이는 반쪽에 빛깔은 홍색이다.

남동쪽에 꽂는 각기는 이와 반대로 상단의 빛깔이 홍색이며, 하단의 빛깔이 남색이다.

서북쪽에 꽂는 각기는 상단의 넓이가 반쪽에 빛깔은 백색이며, 하단의 넓이는 반쪽에 빛깔은 흑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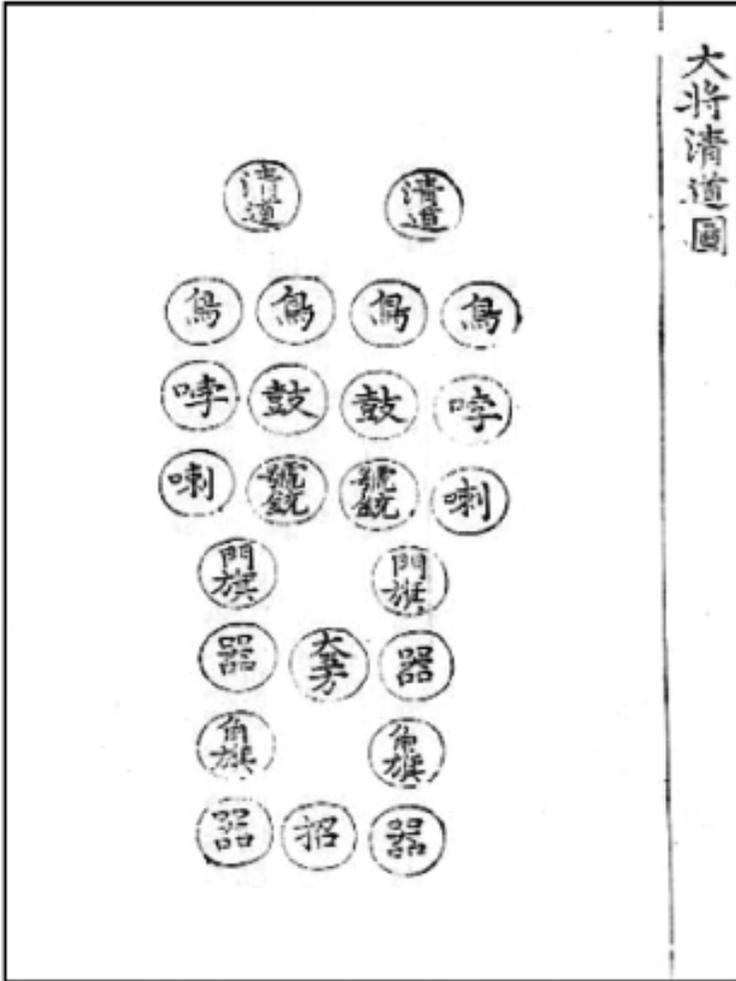
북서쪽에 꽂는 각기는 이와 반대로 상단의 빛깔이 흑색이며, 하단의 빛깔이 백색이다.

서남쪽에 꽂는 각기는 상단의 넓이가 반쪽에 빛깔은 백색이며, 하단의 넓이는 반쪽에 빛깔은 홍색이다.

남서쪽에 꽂는 각기는 이와 반대로 상단의 빛깔이 홍색이며, 하단의 빛깔이 백색이다.

▣대장청도[大將淸道：대장청도기의 도형]

【그림 32】 대장청도도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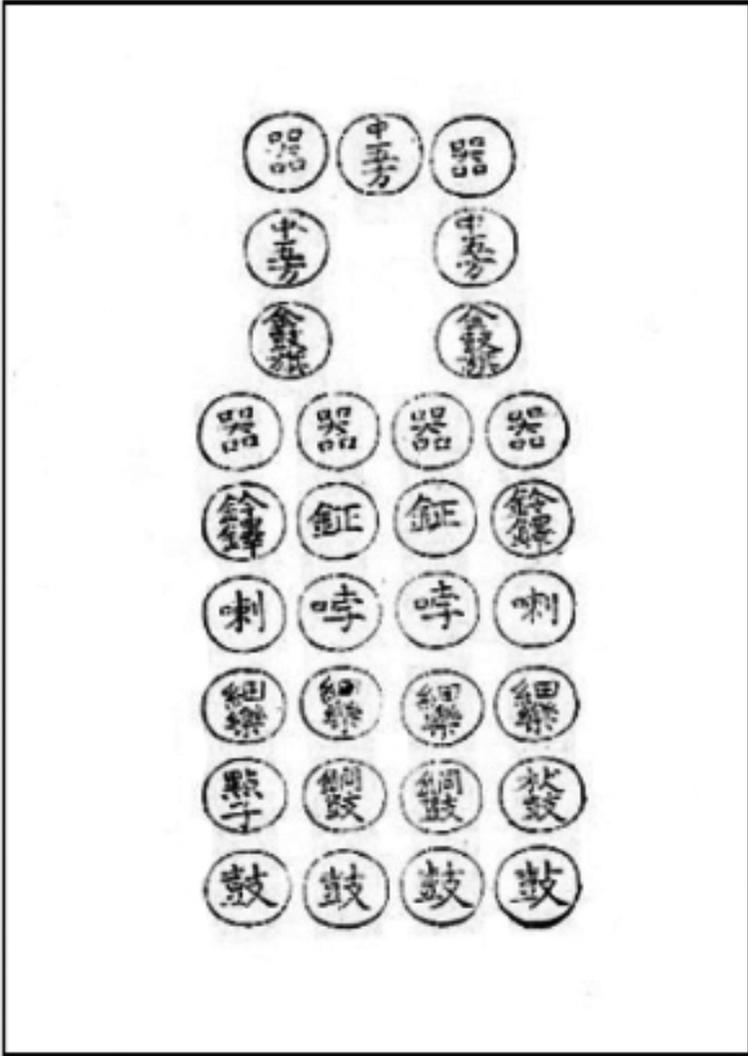
【그림 33】 대장청도도 ②



【그림 34】 대장청도도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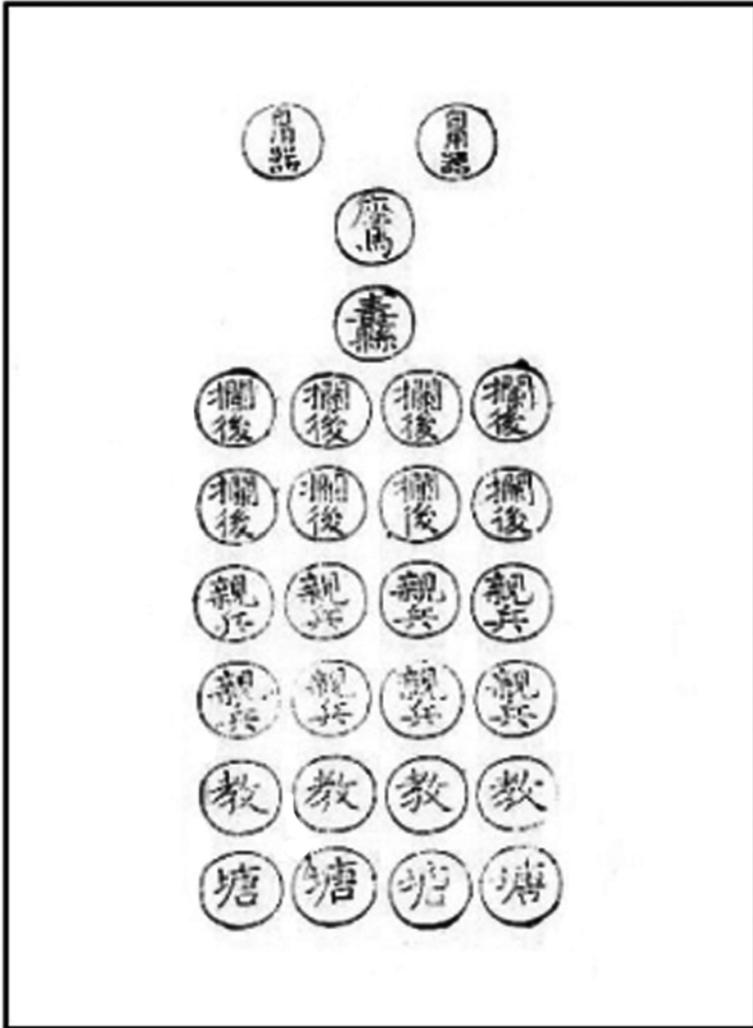
【그림 35】 대장청도도 ④



【그림 36】 대장청도도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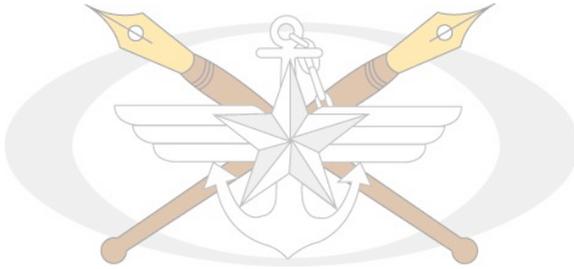


【그림 37】 대장칭도도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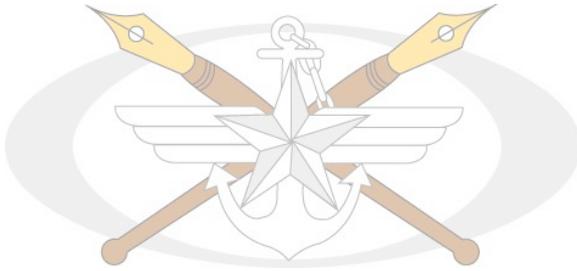
▣ 금환화[禁喧嘩：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금지함]

부대가 움직이거나 멈추려 할 때, 또는 나아가거나 물러가려 할 경우, 거기에는 기치(旗幟)와 금고(金鼓)를 통한 명령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 이에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말해도 좋다고 허용하는 명령이 없었는데도 말을 하는 자는 모두 그 행적을 드러내어 처벌한다. 야간에는 응당히 금령을 더욱 엄중하게 행하여야 한다.



[紀效新書(上)]

권3 수족편[手足篇]



■ 권3 수족편[手足篇]

수족(手足)이 빠르고 편리함은 기계(器械)의 가볍고 날카로움에 달려 있다. 옛 병법(兵法)에 이르기를, “기계가 날카롭지 않으면 갑자기 적과 맞닥뜨렸을 경우에 손으로 쳐서 죽일 방도가 없으니, 이는 한곳 사졸(士卒)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고 이들을 짓이겨서 결판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라 하였다. 기계의 사용에 숙달되고 그 기계가 날카로우나, 호령(號令)으로 그 마음을 하나로 통일하고 기고(旗鼓)로 그 귀와 눈을 하나로 통일하지 않고서는, 비록 무예가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맨손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삼군(三軍)이 이미 우리의 규칙을 상세히 알고 있으면 무예(武藝)가 정예로워지는 것이다.

무예와 법령(法令)은 당연히 병행되어 어그러지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은 날고 잠기는 것을 만들고, 손톱과 어금니, 비늘과 껍데기, 발굽과 갈기를 주는데, 사람은 이것이 없으면 오병(五兵)을 주어서 이를 대신하게 한다. 대저 하늘에는 오행(五行)이 있어서 오병에 상응하게 하여 장단(長短)이 서로 구원하게 하니, 형세가 반드시 이르는 바이다. 그러나 오병의 종류가 이미 번잡하고 인력에는 한계가 있으니 차례에 맞게 사용하면 족하다. 일부러 기이한 것을 구하여 담기(膽氣)가 적고 겁(怯)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유사시에 임하여 던진 채 내버려 두게 하니, 이것은 모두 쓸모없는 도구이다. 비록 많다고는 하나, 또한 어찌할 것인가? 그러므로 이를 수족편(手足篇)이라 하여 차례로 삼았다.

▣ 장기단용[長器短用 : 장병무기를 단병무기로 사용함]

장창가수(長鎗架手)는 지치기가 쉬우니 만약 이를 단병무기(短兵武器)로 사용하는 법을 모르면 일발에 맞추지 못한다. 혹시 맞추더라도 요긴한 부분이 아니어서, 일단 저들의 단병무기가 진입하면

미처 거두어 들여 물러나지를 못하여 곧잘 장병무기(長兵武器)의 운용이 그르쳐지는 바가 된다. 그렇게 되면 장병무기를 가진 이들은 마치 맨손으로 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 훔벌의 한자루 창을 일러 “고주(孤注), 즉, 노름꾼이 있는 돈을 다 걸고 승패를 단번에 작정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으니, 이는 양가창법(楊家鎗法)의 결함이다.

이 창법의 묘리는 몸과 발걸음이 나란히 나아가면서 손과 발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데에 있으니, 일발에 맞추지 못하더라도 느리게는 보법(步法)을 써서 물러서고, 빠르게는 수법(手法)을 써서 움츠리고 창 자루를 내밀어 적의 병기가 나의 창 몸통 안으로 얽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그렇게 하면 적이 감히 스스로 가볍게 나아오지 못할 것이다. 손에 잡은 창을 앞으로 내밀었다가 1자(30cm) 가량을 뒤로 물리니, 오히려 사람을 찌를 수가 있다.

공력(功力)과 효과가 단병과 비교해서 동등한 이것은 장병무기를 단병무기로 사용하는 비결이다. 예컨대, 궁전(弓箭)과 화기(火器)는 모두 장병무기이다. 힘은 100보(步)에 이를 수 있으나 50보에 이른 뒤에 발사하니, 이것도 또한 장병무기를 단병무기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장병은 이를 일러 세험(勢險 : 형세가 험함)이라 하고 단병은 이를 일러 절단(節短 : 마디가 짧음)이라 하니 모든 것이 여러 가지로 다르나 이치는 한가지이다.

3천명의 적을 죽이고 자신은 8백명을 손실하면 이를 일러 “형세가 비슷한데 적과 힘써서 싸웠다.”고 말한다. 3천명의 적을 죽이고 아군은 1명도 손실하지 않으면 이를 일러 “수단이다.”라고 한다. 비유컨대, 저들이 어떠한 무기를 쓰는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내어 우리의 무기가 저들의 것보다 낫게 하여 그들의 무기로 하여금 우리 몸에 미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무기를 들어 먼저 그들의 신상에 들이닥치면 그들이 제 아무리 신묘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단 1치(3cm)라도 우리보다 모자라면 또한 쓸모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군은 1명도 손실하지 않았는데, 저들은 항상 우수함에 있어서 편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무리를 부리는 방법이다. 만약 무리를 부림에 있어서 승부를 가려서 끝까지 패하지

않는 자는 무리를 부림에 있어 나아감은 있으되 물러남은 없고, 승리는 있으되 패배는 없으며, 1보라도 움직임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완전무결하게 만 번 싸워서 만 번을 이기는 것으로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병서에 이르기를 “1치가 길고 1치가 강하다. [一寸長, 一寸強]” 이 여섯 글자가 그 비결인가 하노라!

■ 신기해[神器解 : 신기에 대한 해설]

오병(五兵)⁶¹ 가운데 오직 화기(火器)가 가장 강렬하여 고급의 수전(水戰)과 육전(陸戰)에서 화공(火攻)으로 성공한 자가 매우 많다. 방법에 이르기를 “화공으로 공격을 돕는다.” 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화기의 예리함이 전진(戰陣)에서 이용된 것이 오래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만들어지는 화기는 그 종류가 더욱 많으나, 오히려 실용됨이 없고, 화기를 사용하는 자가 더욱 그 법을 잃어서 늘 자신을 그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정교(精巧)한 무기(武器)는 있고 정예(精銳)한 군사(軍士)가 없이 이를 쓰면 이를 일러 ‘도비(徒費: 헛되이 물자를 낭비함)’라 하고, 정예한 군사는 있고 정교한 무기가 없이 이를 도우면 이를 일러 ‘도강(徒強: 헛되이 군사력을 낭비함)’이라 한다. 모름지기 병사가 근거지를 확보하면 쉴을 끝어다가 가시나무를 무너뜨릴 수도 있거늘, 하물며 정교한 무기에 있어서이겠는가?

세간에 전해져 내려오기를 ‘원래 바람이 있고 우리가 모이니, 화기와 기계 등에 속하는 것들은 그 종류가 매우 많으며, 혹은 번잡한 가운데에 상처를 입고, 혹은 공교로운 가운데에 상처를 입으며, 혹은 적을 맞추지 못하고, 혹은 서로 적합하지 못하여, 반드시 넓은 것만 힘쓰고, 정교함을 폐해서야 되겠는가? 남방의 진흙밭과 수령지역에서는 보병(步兵)이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고 중기(重器)는 행군하기가 어렵다.

8) 오병(五兵) : 궁(弓)·시(矢)·창(鎗)·검(劍)·화포(火砲) 등 다섯 가지 병기

그러므로 오직 조총(鳥銃)이 제일이고, 화전(火箭)이 그 다음이다. 남방에서 궁시(弓矢)를 경시하고 화기(火器)를 으뜸으로 여기는 것은, 멀리까지 모든 것을 명중시킴이 모두 궁시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기는 족히 궁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를 연습함이 정예롭지 못하면 이미 궁시를 잃고 또다시 쓸모없는 화기와 장병무기마저 잃게 하여, 우리의 사졸을 궁시 아래에서 곤궁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간사한 병사들은 적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없으며, 평상시의 조련에 납 탄알을 쓰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사격을 한다. 이때문에 유사시에 임하여 마음과 손이 모두 제멋대로가 되어서 적이 멀리에 있으면 우레처럼 소리만 지르되 탄알은 적이 있는 곳까지 미치지 못한다. 적이 가까이 오면 탄알과 화약 없이 발사를 하고, 다만 먼저 달아날 생각만 한다. 심지어는 다 쓰지 않은 화약과 탄알을 발 가운데에다가 내던져버리고 두 손으로 검정을 발라 온 낮에 화약 색깔이 가득하게 하고서는 고성으로 소리질러 ‘탄알이 다하고 화약이 떨어졌다.’고 호들갑을 떨어대니 적이 이 소리를 듣고 일거에 몰려들어 패전을 하고 마는 것이다.

그 폐단은 다음과 같은 데에 있다. 교련장(教練場)에서의 조련(操練) 때 전진(戰陣)에 임하였을 때와 같은 실연(實演) 및 적과 대진(對陣)할 때에 준하여 지휘관이 전열(前列)에 있지 아니한다. 화기를 소지한 병사는 다만 살수(殺手 : 鎗手)에 불과하여 근거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중군(中軍)은 화기의 발사와 중지를 주관하는 군령(軍令)이 없다.

장자(長者)는 장병무기를 단병무기로 쓰는 것을 업으로 하여 지성으로 타일러서 오직 교련장에서 전진에 임하였을 때에 준해서 발사하여 타격을 가하게 한다. 그러므로, 거리를 재는 걸음의 수효는 실제와 똑같아서 실제로 적을 마주하고 있는 것과 같다. 반드시 중군이 주관하는 군령에 의하여 시행하여 추호라도 함부로 사격하거나 먼저 사격하는 자는 처벌하며, 하늘을 향해 사격하는 자는 처벌하여야 한다. 화기가 가지런히 정제되어 있으면 화살과 더불어 나란히 일컬을 수 있다.

▣ 수기해[授器解 : 병기 지급에 대한 해설]

병졸(兵卒)은 이미 선발과 편성이 이루어지면 영(營)·오(伍)의 제도에 따라 반드시 기계(器械: 병기)를 지급받아 무기로 삼는다. 대개 두 가지가 있으니 원거리병기인가 근거리병기인가의 구분에 불과하다. 뿔(원거리무기-장병무기)이 많고 가까움(근거리무기-단병무기)이 적은 자는 근접전(近接戰)을 하면 패전하고, 가까움(근거리무기-단병무기)이 많고 뿔(원거리무기-장병무기)이 적은 자는 접전을 시작하지도 않고 예기(銳氣)가 상실되어 원거리무기와 근거리무기를 겸해서 아울러서 주지 않으면 비록 병력 수가 많으나 또한 적은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대개 각 병사에게 반드시 원거리무기를 주어서 백보 밖에서 적을 막도록 하는 한편으로, 반드시 근거리무기를 주어서 손발이 손쉽게 미칠 수 있는 곳에 휴대하게 한다.

첫째, 도수(刀手)와 패수(牌手)는 모두 근거리 무기이다. 각각 표창(鏢鎗) 1자루를 지급하니, 도수와 패수가 모두 단병 무기라 곧바로 나아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낭선(狼筈: 쇠도리끼)을 장병무기로 삼고 표창(鏢槍)을 선봉으로 내세우면 명중 여부와는 관계없이, 저들이 반드시 이에 대응해 올 것이니, 대응해 오면 등패(藤牌: 등껍질방패)가 진입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낭선수(狼筈手)는 낭선으로 장병무기를 삼고 각각 요도(腰刀)를 한가지로 단병무기를 삼아 낭선이 위태로워지면 요도가 충분히 위태로움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등패도 또한 낭선수의 단병무기이다. 모든 창수(鎗手)는 창으로 단병무기를 삼고 겸하여 궁시(弓矢)를 익혀서 장병무기를 삼는다. 남방에서는 독노(毒弩: 독을 바른 쇠뇌)로 궁시를 대신한다. 파수(鈹手)는 당과(鎧鈹: 삼지창)를 단병무기를 삼고 겸하여 화전(火箭: 불화살)을 주어서 이를 장병무기로 삼게 하는데, 당과 끝부분의 옆 가닥은 걸어 당기기도 하고 밀쳐내기도 할 수 있다. 화병(火兵: 취사병)은 담가도(擔架刀: 들것에 달려 있는

취사용 칼)로 단병무기를 삼아 의외의 사태에 대비할 뿐, 장병무기는 쓰지 않는다.

조총수(鳥銃手)는 총을 장병무기로 삼는데, 다만 총에 딸린 화약, 탄환, 화승(火繩) 등의 무게가 20여 근(약 12kg)이나 된다. 그러므로 따로이 단병무기를 지급하기가 어려워서 각각 쌍수도(雙手刀)⁶²⁾를 지급하여 단병무기로 삼게 하여, 혹은 적이 가까이로 접근하면 원거리무기인 총을 버리고 근거리무기인 칼을 사용하게 하니, 이는 군사 훈련의 큰 순서이다.

◆ 조총전제[鳥銃全製 : 조총의 전체 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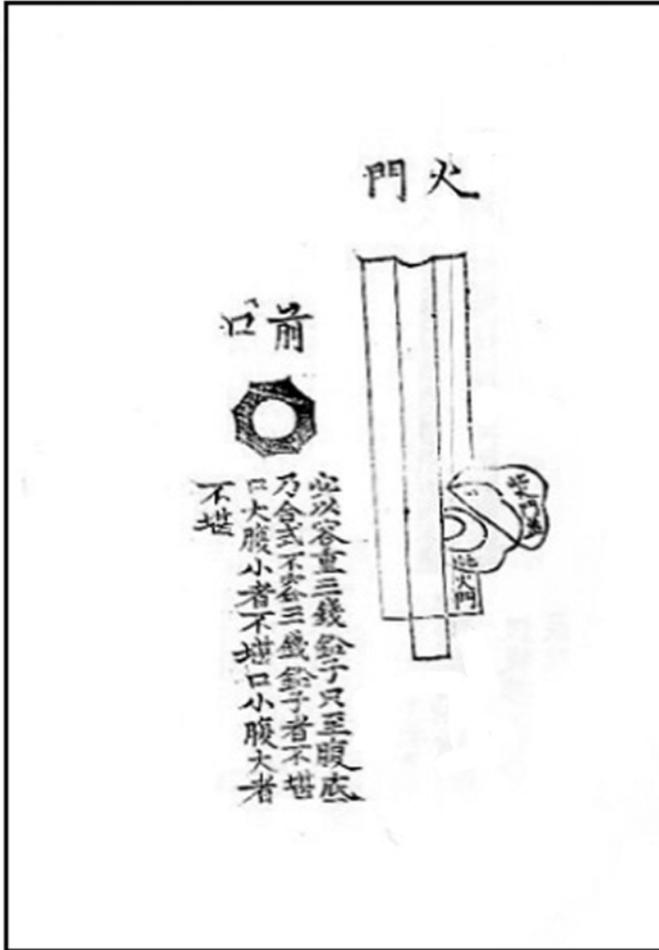
- 무게가 6근(3.6kg) 내지 5근(3.0kg)이니 더욱 묘하다. 삭장(槩杖 : 화약 다지는 조총 구경에 맞는 나무)은 쉼마다 무게 3냥(112.5g), 화승(火繩)은 쉼마다 길이 2걸(606cm), 무게 5냥
- 총복(銃腹 : 총의 배통)이 길어서 만약 연자(鉛子 : 납탄알)가 안에 있거나, 화문(火門 : 화기의 아가리)을 막았을 경우에는 뒷총구를 연 뒤에 돌리는 나사로 편리하게 수정(修整)한다.

62) 무예육기(武藝六技)중의 하나. 장창(長槍)·당과(鎗鈹)·낭선(狼筈)·쌍수도(雙手刀)·등패(藤牌)·곤봉(棍棒)을 여러 방법으로 사용하는 기술. 임진왜란 직후인 선조 27년(1594), 훈련도감(訓練都監)을 설치하고 명군(明軍)의 협조를 얻어 종래의 몇가지에 불과한 무예를 크게 정비하고 새로운 6기를 군병(軍兵)들에게 가르쳤음. 군기(軍器)의 한 가지. 두 손으로 쥐고 검술(劍術)을 익히는 칼. 호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자루 길이 1자(30cm), 날 길이 3자(99cm)임. 칼을 가지고 하는 십팔기(十八技)의 무예(武藝). 여러 가지 방법(方法)이 있음.

【그림 38】 조총분형[鳥銃分形 : 조총 및 분해도]



【그림 39】 화문(火門 : 화기의 아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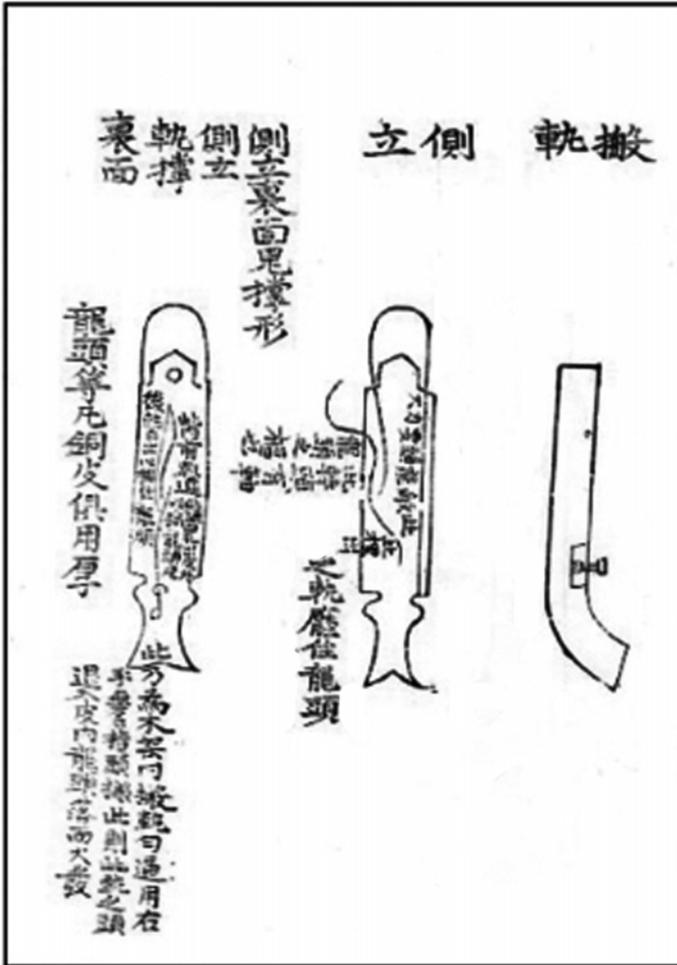
반드시 3돈(11.25g)의 납 탄환이 들어가 총복(銃腹 : 총의 배통) 바닥에 이르러야 범식(法式)에 맞는 것이다. 3돈의 납 탄환이 들어가지 못하면 안된다. 총구(銃口)가 크고 총복(銃腹)이 작으면 안된다. 총구가 작고 총복이 커도 안된다.

【그림 40】 총가(銃架: 개머리판)와 용두(龍頭: 화승을 무는 갈고리)



삭장(擲杖: 꼬질대)은 총가에 꽂는 것이 옳다. 삭장 머리 부분에 찌가 있다. 총을 발사하고 나서 밤을 새우면 총구 안의 화약 찌꺼기가 습기로 변하므로 밤에 돌아가면 끓인 물로 형겼을 적셔서 삭장 끝의 찌가 있는 곳에 동전 모양으로 얹어 매어서 총복 안으로 함께 밀어 넣어서 총을 닦는다. 화약을 다져 넣는 데에도 반드시 이 삭장을 사용한다.

【그림 41】 반궤(搬軌: 운반용 바퀴 굴대)와 측립(側立: 측면도)



나무로 된 총가 안의 반궤의 갈구리는 오른손 약손가락으로 조여서 그 끝을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 바로 이 반궤의 끝이 구리판 안으로 움츠러들고 용두가 떨어지면서 화약이 폭발한다.

【그림 42】 연자대(鉛子袋: 탄알주머니)와 선약기(線藥器: 화약 그릇)



- 이 물건은 짐승의 뿔을 사용해서 만드는데, 왜인이 만든 제품의 정교함을 죽관(竹管)에서 볼 수 있으며, [뿔로 만든 제품이] 죽관의 편리함을 따를 수 없다.
- 이 기구는 한 손가락으로는 총구를 막고 한 손가락으로는 화문을 확대면서 화약이 들어가 가득차면 ○○○ 머리가 나오고 ○○ 적지 않으니, 다만 하나의 총에 적합하다.⁶³⁾

63) 이 대목의 문장 중 ○표 표시가 된 부분은 원문의 판독불가함: 此機也 一指抵口 一指撥門 藥入顆滿 ○○○ 出頭是 ○○○ 不少只合一銃.

【그림 43】 연자모[鉛子模：탄환 거푸집]



▣ 조총해[鳥銃解 : 조총에 대한 해설]

조총(鳥銃)이 소중한 것은 쇠를 단련하는 것이니, 두 개의 통을 정교하게 단련하여 서로 감싸게 한다. 원래의 구멍은 아주 작아서 강철(鋼鐵)로 이를 계속 뚫어 하루에 겨우 한치(3cm)쯤 씩을 뚫어 맨 밑바닥에 이르는데 한 달이 되어서야 끝이 난다. 뚫은 구멍에 광채가 나는 것을 상등(上等)으로 친다.

근래에는 이 가운데에 병통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책임과 본질은 따지지 않은채 모든 것을 공장(工匠)에게만 맡겨서 그가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철통(鐵筒)의 거칠고 정밀함, 두껍고 얇음 등이 균등하지를 얹아 거의 3~4돈(11.25~15g)의 납 탄알이 들어갈 정도이다.

또한 중심 부분에는 강철을 쓰지 않고 계속 구멍을 뚫어 빛이 나게 하는데, 납 탄알이 구멍으로 빠져나가지 못한다. 출구(出口)가 똑바르지 못하고 두꺼운 곳은 탄알이 들어가지 않고 얇은 곳은 불에 닿으면 폭발해서 파열되어 버린다. 심치어는 단통(單筒)이 뒤틀려서 들자마자 폭발하여 사람의 손을 잃게 하니 어찌 감히 앞에서 떠받힐 수가 있겠는가?

관(官)에서 지급하는 납 탄알은 크고 작음이 일정치 않다. 그래서 탄알이 크고 총구가 작으면 탄알이 깊이 들어가지를 얹아 총구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떨어져버린다. 탄알이 작고 총의 중심 내부가 크면 화약(火藥)이 납 탄알보다 먼저 새어나와서 납 탄알에 힘이 없으니, 어떻게 멀리 날아갈 수가 있겠는가?

혹은 납 탄알의 녹은 액(液)이 총의 중심 내부에 있으면 헛 발사가 된다. 그 해결 방법은 매 총구마다 3돈(11.25g)의 납 탄알을 기준으로 하여 화약도 3돈을 내리고, 탄알이 가벼우면 화약도 줄이고 탄알이 무거우면 화약도 늘리어 화약의 수량이 탄알과 같게 해야 한다. 탄알 무게가 총구에 맞으면 총구의 절반쯤에 내려서 억지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다.

만약 다시 총구에 큰 탄알을 더하면 반드시 무거워지리니 탄알이 무거워지고 화약이 더해지면 손이 능히 안정을 유지하지 못하며, 총구가 작아 탄알이 작고 화약의 양이 적으면 힘이 없어 멀리까지 쏠 수가 없다. 이 화기는 중국에는 본래 전해지지 않았는데, 왜놈 오랑캐로부터 비로소 이를 얻었으니, 기타 여러 가지 화기들과는 다르다.

날카로움이 갑옷을 관통하고 쏘면 능히 명중한다. 오히려 동전의 구멍을 맞출 수 있고 버들잎을 뚫을 뿐만 아니라, 두꺼운 겹 갑옷을 뚫을 수 있는 날카로움은 중심부의 내부가 길기 때문이다. 중심부의 내부가 길면 화기(火氣)가 새어나가지 않고 내보내는 형세가 멀어서 힘이 있어, 발사하면 능히 명중을 시키며, 출구에서 곧바로 나가고, 손으로 화약을 밀기 전에 화약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손으로 총의 중심부에 붙잡을 수 있는 나무가 있어 그것을 잡으면 총의 중심부가 폭발해서 터져도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못한다. 나무에 손을 대 총신을 나무에 의탁하면 그 반동의 힘이 스스로 감해져서 약해진다. 비유컨대, 사람과 말의 경우에 사람이 손으로 말의 갈기를 잡고서 끌어당기면 비록 힘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힘으로 말과 다룰 수가 없는 것과 같다.

이때 후수(後手)가 튕겨나지 않고 짐화를 하면 요동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열 발에 여덟 아홉 발이 명중하고, 즉 나르는 새가 숲에 있음에도 모두 쏘아서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다. 이 조총이 날카롭고 정예로운 무기인 까닭은 이 조총의 명중률에 비교하면 비록 궁시(弓矢)라 할지라도 그만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조총은 겹 갑옷을 관통하여 갑옷의 견고함으로써도 막을 수가 없다.

마상전(馬上戰)이나 도보전(徒步戰)에서는 오직 조총이 가장 정예로운 병기가 된다. 그런데, 북방 병사들은 복잡하게 무더기로 모여들어 번거롭고 복잡함을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조총의 정예로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쾌창(快鎗 : 화포)만을 고집하는 미혹에 사로잡혀 있다.

조총의 정밀함은 비록 교장에서 다른 무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조총이 고니를 명중시킴이 쾌창보다는 10배가 더 낮고, 궁시(弓矢) 보다는 5배가 더 나은 것이다. 그러나 끝내 수궁하고 따르지 않으니 참으로 이상하구나!

◆ 조총(鳥銃)⁶⁴ 1문(門)마다 소용되는 물건들

- 삭장(槩杖 : 화약 다지는 조총 구경에 맞는 나무) 1컬레
- 석별(錫鑿 : 화약통) 1개
- 약관(藥管 : 화약 넣는 통) 30개
- 피대(皮袋 : 가죽 주머니) 1개
- 총투(銃套 : 조총집) 1벌
- 조총 100문마다 돌로 만든 탄환 거푸집 1벌
- 출정에 대비해서는 화약(火藥) 300근(180kg) 가량, 가는 화약(細火藥) 6근(3.6kg)
- 연자(鉛子 : 납탄알) 3돈(11.25g) 300개
- 피대(皮袋 : 가죽 주머니) 1개
- 화승(火繩) 5가닥(條)

■ 화약제[火藥製 : 화약을 제조하는 방법]

- 염초(焰硝) 1냥(37.5g)
- 유황(硫黃) 1돈 4푼(5.25g)
- 유탄(柳炭) 5냥(187.5g)

64) 조총(鳥銃) : 조선시대의 휴대용 소화기(小火器). 1589년(선조 22)에 황윤길(黃允吉)이 일본에 통신사(通信使)로 갔다 오면서 쓰시마도주[對馬島主]로부터 조총을 진상 받은 것을 가지고 오갔으나,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왜란(倭亂) 발발 이후에야 비로소 대량으로 생산하여 보급하였다. 나중에 화승식(火繩式)으로 점화방식이 바뀌면서 화승총(火繩銃)이라 불렀다.

모두 염초 40냥(1,500g), 유황 5냥 6돈(210g), 유탄 7냥 2돈(270g), 물 2중(鍾)⁶⁵이며, 장(樁 : 절구공이)은 아주 가늘수록 좋다.

비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염초와 유황, 유탄을 각각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수량에 맞추어 볶아서 한꺼번에 혼합하고, 물 1대접(碗)을 부어서 나무 절구에 넣고 나무 절구공이로 뺑는다. 돌 절구를 쓰지 않는 것은 불이 날까 염려해서이다.

매 1절구마다 절구질 1만번 째을 하여 만약 마르면 물 1대접을 더 붓고 다시 가늘게 뺑아서 반쯤 마를 정도가 되면 집어 내어서 햇볕에 쪼여 말린 다음에 때려 부셔서 콩알만한 크기의 덩어리로 만든다. 이 화약의 묘함은 다만 수 만번에 달하는 여러 차례의 절구질에 달려 있는 것이다. 깨끗하고 맑은 물을 부어 절구질을 하면 염초 속의 짠 기운이 뺏혀 나온다.

물을 더 붓고 수십 차례 절구질을 더하여 사람의 손바닥에 화약 1돈(3.75g)을 올려놓고 이를 태우되, 손바닥이 뜨겁지 않으면 곧 총에 넣고 불을 당기는데, 거기에는 흑성(黑星 : 검은 알갱이)과 백점(白點 : 흰 점)이 있을 것이다. 손바닥에 놓고 태워서 뜨거운 것은 좋지 못한 것이다. 다시 물을 더 부어 절구질을 하여 법식과 같이 한 다음에야 마친다.

▣ 조총습법[鳥銃習法 : 조총 연습 방법]

총구(銃口)에 쓸 수 있는 납 탄알은 몇 돈(錢)이며, 사용할 화약은 몇 돈인가. 대나무를 잘라서 통을 만들되, 화약을 다하여 장단을 정함에 미리 먼저 비교하고 시험하여 결정한다. 30개의 관(管)에 장전(裝填)하여, 가죽자루 안에 넣어 허리에 묶어두고 화약 심지와 화약을 사용한다. 총통(銃筒)의 화약을 더욱 급히 써야 할 경우에는 석별(錫鑿 : 화약통) 안에 넣어서 노끈으로 묶어서 납 탄알

65) 예전의 양의 한 단위. 곡식 따위를 되는 용기로 8개를 단위로 이르는 물 8곡(八斛)들이

주머니와 함께 허리에 묶되, 납 탄알은 미리 만들어 광택이 나고 둥글게 한 다음 다시 다듬어서 총구에 맞게 한다.

탄알을 총구의 중간 부분에 걸치고 미미하게 힘을 주어, 총의 중심부분 내부에 넣으면 새어나오지 않는다. 총가(銃歌)를 근거로 하여 장전하되, 먼저 입으로 불어서 총의 중심 부분 안쪽을 정결히 하고 한 통의 약을 총 안에 넣고 삭장(槩杖)을 써서 힘껏 다져서 납 탄알 1알을 내려보낸다. 다시 삭장을 아래로 내려보내어 화약 부분에 이르렀을 때에 종이 한 조각으로 둥글게 덩어리를 만들어 들여보내어 납 탄알을 막아서 멈추게 한다.

그런 다음, 화문(火門 : 화기의 아가리)을 열고 따로이 간직한 석별(錫鑿 : 화약통) 안의 고운 화약을 화문(火門) 안에 기울여 부어 넣고 위를 향하여, 화약 심지가 들어가는 입구를 흔들여 준다. 화문을 닫고 화승(火繩)을 용두(龍頭: 갈고리쇠)에 집어 넣고, 전수(前手)⁶⁶를 총가(銃架: 개머리판)의 가운데 허리 부분에 의탁한 뒤에 후수(後手)로 화기 아가리를 열고 곧 총가의 후미를 잡는다. 사람은 얼굴을 총가 후미의 상부에 대고 한쪽 눈으로 뒷 가늠자와 앞 가늠자를 수평으로 본 다음, 사격할 사람(목표물)에 맞추어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써서 굴대를 튕긴다. 그런 다음 뒷 굴대를 향하여 용두를 넣어 용두가 화문에 떨어지면 약에 불이 당겨져 발사가 된다.

66) 전수(前手)와 후수(後手): 여기에서 말하는 전수(前手)는 조총이나 창검 등의 무기를 잡을 때에 무기의 앞 부분을 잡은 손을 말한 것 같으며, 후수(後手)는 뒷 부분을 잡은 손을 말한 것 같다. 그렇다면 오른손잡이일 경우에는 왼손(左手)이 전수가 되고, 오른손(右手)이 후수가 되는 것이다.

■ 총가(銃歌)

- ① 총 닦고
- ② 화약 내리고
- ③ 화약 넣어 다지고
- ④ 납 탄알 내리고
- ⑤ 납 탄알 넣어 다지고
- ⑥ 덮개종이 내리고
- ⑦ 덮개종이 넣어 다지고
- ⑧ 화기 아가리 열고
- ⑨ 화약심지 내리고
- ⑩ 화기 아가리 닫은 다음, 화승 붙이고
- ⑪ 명에 따라 화포 아가리 열고, 적을 조준하여 발사



■ 호준포제[虎蹲砲製 : 호준포⁶⁷⁾의 제원]

- 수전(水戰)과 육전(陸戰)에 모두 적합하며, 수전에 더욱 적합하다.
- 길이 2자(60.6cm) 무게 36근(21.6kg) 큰 못(大釘)은 1켈레(根)마다 길이 1자 2치(33.3cm) 무게 3근(1.8kg) 쇠 올라가미 1켈레

67) 호준포(虎蹲砲) : 명나라 장군 적계광(戚繼光)이 발명한 대포. 앞부분의 다리 두개에 포신이 끼어 있는 모습이 호랑이가 앉아 있는 모습과 닮았다 하여 ‘호준포’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왜구와 싸울 때 조총에 대항하기 위해 작고 가벼우면서도 사정거리가 긴 화기로 개발된 것으로서, 1회 포격으로 조총 100발 분량을 발사할 수 있고 사정거리가 2km에 이르는 것도 있었다 한다. 명군의 주요 무기로 기병 부대에도 배치되었다.

마다 길이 1자 2치(33.3cm) 무게 3근(1.8kg) 화승 1결레마다
 길이 2길 5자(7.6m) 무게 4냥 철추(鐵錘: 쇠몽치) 1자루마다
 3근(1.8kg)

【그림 44】 호준포 및 분해도



- ◆ 호준포 1위(位)마다 소용되는 물건들
- 철꿩(鐵鑊: 구덩이 파는 쇠꿩이) 1자루
 - 철추(鐵錘: 격목 다지는 쇠몽둥이) 1자루
 - 철전(鐵剪: 약선(藥線) 자르는 가위) 1자루

- 칠추(鐵鎚 : 쇠파치) 1벌
- 약선함(藥線盒 : 화약심지 넣는 그릇) 1개
- 약승(藥升 : 화약 되는 뒷박) 1개
- 목송(木送 : 화약 다지는 포(砲)의 구경에 맞는 나무) 1컬레
- 목랑두(木榔頭 : 나무메) 1개
- 피루(皮簍 : 가죽 채롱) 2개
- 목마자(木馬子 : 격목) 30개
- 석자(石子 : 돌 탄알) 15알
- 화약(火藥) 15근(9kg)
- 대연자(大鉛子 : 큰 납탄알) 15알[1알마다 약 30냥(1.1kg)]
- 생철자(生鐵子 : 무쇠탄알) 1,500알[1알마다 무게 5돈(18.8g)]
- 약선(藥線 : 화약심지) 15벌
- 화승(火繩 : 불심지) 3벌
- 태가(馱架 : 짐시렁) 1벌 반



▣ 호준포해[虎蹲砲解 : 호준포에 대한 해설]

이 화기는 그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이름을 얻었다. 명(明)나라 건국 초기에 변방에 나누어 비치하게 하였던 이른바 ‘삼장군루자포(三將軍縷子砲)’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즈음에는 이른바 독호포(毒虎砲)와 백자포(百子砲)라는 것이 있어서, 참으로 정예로운 화기로서 모두 몸통이 가벼우나, 쉽게 불꽃이 튀긴다.

그러므로 발사할 때마다 반드시 20~30보(步) 뒤로 물러나 몸을 피해야 한다. 아군은 이 화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진영 방벽에 안치한다. 진영 담장 안에서는 대소 규모의 포화(砲火)를 함부로 발사할 수 없으니, 이를 발사하면 불길이 솟구쳐나와 이 포를 쏘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포가 커서 여러 개의 포를 다량으로 보유하기가 어려워서 적을 물리칠 수가 없다. 그리고 여러 개의 포가 그 뒤에 배치되거나 나란히 정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아군을 손상시킨다.

그러므로 전포(前砲)를 방벽이나 보루의 사이에 배치하면 화기를 발사할 때 불꽃이 튀기 쉬워 반드시 아군 진영 후방의 인원에게 상처를 준다. 그러므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이 도리어 해로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게가 30근(18kg)이나 되어 보병(歩兵)이 수전(水田)지대를 행군할 경우에는 더욱 그 무게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 경우 조총(鳥銃)이 비록 빠르나 호준포(虎蹲砲)에 비해 힘이 약하여 대부대의 공격을 방어하기가 어렵고, 지세가 높고 가파르며 험하여 막히고 끊어져 있는 곳을 지키기 어려울 뿐 아니라, 무력으로 위세를 떨치기가 어렵다. 불랑기(佛狼機)는 더욱 무겁고 메고 다니기가 어렵다. 이제 이 호준포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화기 안에 100개의 탄알을 내장(內裝)하고 있다.

또한, 이 탄알은 각기 무게가 5돈(18.8g)이다. 탄알이 이보다 더 작으면 그 크기에 비해 포구(砲口)가 더 커서 탄환이 나가서 퍼지는 힘이 약하여 거기에 큰 돌 탄알 1개, 또는 납 탄알 1개를 쓰게 하였으니, 무게는 30냥(1.2kg)이다. 돌이나 납으로 된 탄환을 무거운 것으로 쓰지 않았을 경우, 돌 탄알의 무게가 가벼우면 작은 탄알은 납 탄알과 같은 수로 하고, 무게가 무거우면 작은 탄알은 절반으로 감량한다.

대개 화약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화포(火砲)는 불랑기에 비하면 가볍고, 조총에 비하면 일당백(一當百)의 위력을 지니고 있다. 남방 군사 5백명을 단위로 이 화포 3위(位)씩을 끌고가게 하여 요해처(要害處)를 지키고 험준한 지역을 차단하는 데에 대비하게 하니 매우 오묘하다.

■ 습법[習法 : 연습하는 방법]

먼저 약선(藥線 : 불심지)을 사용하되, 이것을 형겅으로 묶는다. 다음에는 화약 7~8냥(263~300g)을 쓰되, 거기에 목마(木馬 : 격목)를 써서 포의 구경에 맞게 하되, 제2잡(籜)⁶⁸⁾으로 내려 보내 평평하게 고르고 거기에 약간의 흙을 쓰고 쇠 탄알 1층(層)을 넣고 다시 흙 약간을 써서 조금 다지고 다시 쇠탄알 1층을 까는데, 탄알은 19알을 한도로 하고, 포의 구경(口徑)에 맞는 큰 납 탄알 1알을 포구 안으로 반쯤 내려보내어 천천히 다져 넣어 평평하게 고른 다음에 멈춘다.

후미에서 철괘(鐵鑊 : 구덩이 파는 쇠팡이)를 가지고 살살 3~4치(9.1~12.1cm) 째 흙을 긁어서 높고 낮음이 서로 다름을 바로잡아 준다. 앞부분에 2개의 조정(爪釘 : 깎지못)을 내려보낸 뒤에 깎지못의 끝을 한쌍으로 묶고 제4잡으로 내려보낸 뒤에 앞부분 깎지못 위의 활잡(活籜)과 뒷 판(後判)으로 포신(砲身)을 막고 잡을 채우면 어깨가 거의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 화포는 사람으로부터 5치(15.2cm)만 거리를 두면 염려될 것이 없다.

그리고 모든 불꽃은 크고 작은 화포를 다루는 사람들이 반드시 피할 필요는 없다. 이 화포가 적을 물리칠 수 있으면 그만이지만, 혹시라도 이 화포가 장전된 탄약을 다 발사해 버렸을 경우를 당하면 다른 여러 종류의 총포들이 일제히 함께 발사를 하면 된다. 그러는 사이에 화포는 탄약을 장전해서 여전하게 전투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왜적(倭敵)과 맞닥뜨릴 경우, 그 수는 적어도 300~500명을 한 단위로 편성하여 다수의 무리가 떼를 지어서 몰려와서 사면을 두 번 다시 돌아보지도 않고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부닥쳐 들어오기 때문에 소수의 병력으로는 막아낼 수가 없다. 다만, 부닥쳐 온 곳이 지름길일 경우에는 적군의 포위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 이 화포 1문만 보유할 수 있으면 매우 오묘하다! 매우 오묘하다!

68) 잡(籜): 대나무로 된 용기로 추정됨.

■ 총가(銃歌)69

- ① 총 닦고[洗銃]
- ② 약선(藥線 : 화약심지) 넣고[入藥線]
- ③ 화약 내리고[下藥]
- ④ 복지(覆紙 : 덮개종이) 내리고[下覆紙]
- ⑤ 송자(送子 : 화약 다지는 나무 쪽) 가벼운 것 내리고[下送子輕]
- ⑥ 목마(木馬 : 격목) 내리고[下木馬]
- ⑦ 송자 내려 힘껏 다져 화약 앞 제1잡(箍)까지 밀고 멈춤[下送子用力打之藥前第一箍乃止]
- ⑧ 탄알 1겹 내리고, 흙 내리고, 송자 내리고[下子一層下土下送子]
- ⑨ 탄알 1겹 내리고, 흙 내리고, 송자 내리고[下子一層下土下送子]
- ⑩ 탄알 1겹 내리고, 흙 내리고, 송자 내리고[下子一層下土下送子]
- ⑪ 탄알 1겹 내리고, 흙 내리고, 송자 내리고[下子一層下土下送子]
- ⑫ 탄알 1겹 내리고, 흙 내리고, 송자 내리고[下子一層下土下送子]
- ⑬ 큰탄알 1겹 내리고, 송자 내리고, 힘껏 다져넣어 포구(砲口)가 평평해지면 총을 완전히 하고 명령을 기다린다.[下送子用力打入藥口平銃完候令]

69) 총가(銃歌): '총기취급요령구호'. 병사들에게 총기 취급 요령과 사격 순서를 쉽게 외워서 숙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보급시켰기 때문에 '총가(銃歌)'라는 명칭을 붙인 것 같음.

▣ 자모총제[子母銃製 : 자총과 모총의 제원]

안에는 나무를 새겨서 신표(信標)를 만들어 약선(藥線)으로 이것을 묶고, 밖으로는 종이를 배접하여 단단하게 말아서 포구(砲口)에 맞도록 한다.

【그림 45】 자모총제



▣ 자모총해[子母銃解 : 자총과 모총에 대한 해설]

1개의 나무 굴대로 나사(羅絲)를 깎아서 도랑물이 구불 구불 흐르는 것 같은 모양을 만든다. 그런 다음, 그 도랑 모양의 홈을 따라 약선(藥線 : 화약심지)을 묶고, 발아래에는 1마디의 약선을 드러내 놓아 약선 밖에 배지(襟紙)를 발라 단단히 감아서 자총의 총구와 꼭 맞게 한다. 이어서 병에다가 폭약 8할 정도를 넣고 이것을 입구에 넣은 다음 곧바로 병을 뒤집어 아래로 향해 천천히 흔들어서 눌러 넣는다. 만약 자총에 장착된 굴대를 위로 쳐들면 굴대 밑부분에 폭약이 남아 있게 되어 발사시에 폭약병이 터지지 않는다. 그 굴대를 엮어서 장착하여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해야 바닥에 폭약이 남아 있지 않게 된다. 약이 주위에 있으면 축선(軸線)이 타들어감에 약이 곧바로 자병(子瓶)을 파괴한다. 그러므로 그 발사시에 먼저 목마(木馬)를 사용하여 대총(大銃)의 장전(裝填)을 끝내고 병을 위의 대구에 넣고 먼저 자선(子線)에 점화하면 불길이 목축(木軸)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으면 모선(母線)에 점화하여 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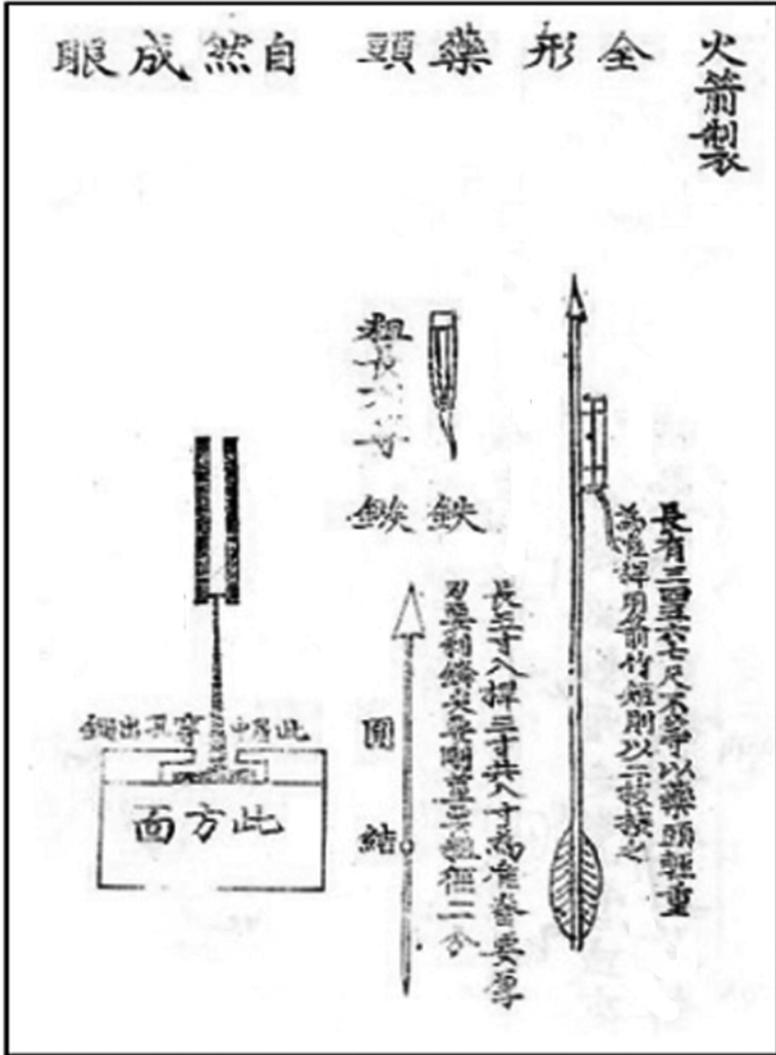
만약 자선이 빨리 타고 모선이 너무 길면 병이 포구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터진다. 만약 자선이 느리게 타서 불길이 닿기 전에 사격하면 섬광과 바람만 일었다가 사라질 뿐이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 약선(藥線) 한가닥을 함께 잡아매어 중간에서 불길을 당기면 끝내 한꺼번에 터지지 않고 따로 따로 터지니, 바로 이 두 갈래의 불길이 매우 오묘한 운용방법이다. 이를 운용하여 적의 진영을 놀라게 할 수 있으니,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에 적의 보루 안으로 진입해서 적의 보루 안에서 화포를 발사하면 절제(節制)되지 않은 군대와 오합지졸(烏合之卒)들이 그 기세를 빼앗길 것이니 적의 형세가 반드시 놀라고 황급해질 것이다.

그러면 아군은 이러한 승세를 타서 유리한 형세를 얻을 것이니 이 화기(火器)가 가장 오묘하다.

□ 화전제[火箭製 : 불화살의 제원]

【그림 46】 화전제



◆ 화진제[火箭製 : 불화살의 제원]

- ① 전체 모양(全形)
- ② 길이는 3자(91cm), 5자(152cm), 6자(182cm), 7자(212cm)로 일정치 않으며, 화약이 장전된 통(藥頭)의 가볍고 무거움을 기준으로 한다. 화살대는 전죽(箭竹)을 쓰되, 짧으면 두 개의 가지를 잇는다.
- ③ 화약이 장전된 통(藥頭)
- ④ 대략적인 길이로서 일정하지 않다.(粗長不等)
- ⑤ 쇠 화살촉(鐵鏃)
- ⑥ 길이는 5치(15.2cm)인데, 화살대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3치(9.1cm)까지 모두 8치(24.3cm)를 기준으로 한다. 화살촉 칼날 가운데의 ○척[脊:등줄기]⁷⁰⁾은 두터워야 하며, 화살촉 칼날은 날카로워야 하며, 칼날 끝은 곧세어야 하며, 화살대는 거칠어야 한다. 지름이 2푼(0.6cm)이다.
- ⑦ 둥근모양(圓)
- ⑧ 매듭(結)
- ⑨ 자연성안(自然成眼)
- ⑩ 이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추(鎚)를 내놓는다.
- ⑪ 이것은 네모진 표면이다.

70) 척(脊) : 이 글자의 모양이 원전에는 눈목[目]변의 [척(脊)]자로 되어 있으나, 사전에는 이러한 형체의 글자가 없다.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는 육달[月]변의 [脊]자로 되어 있다. 창이나 활촉의 칼 날 중심부에 마치 등뼈 [脊]와 비슷한 줄이 있고, 이 줄을 중심으로 비스듬하게 하향해서 두 개의 날이 서있는데, 바로 이것이 ○[脊]이다.

▣ 화전해[火箭解 : 불화살에 대한 해설]

이 화살은 세 가지의 날으는 무기(三飛)⁷¹⁾ 가운데 가장 작은 것으로 적의 대열 후방으로 날아들면 그것이 어디로 향해 날아들 것인지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사람마다 스스로가 위태롭다고 여긴다.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다. 배지(楫紙)를 말아 통을 만들어서 거기에 힘껏 화약을 다져 넣는다.

이 때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이때 끝 구멍을 뚫는 일이니, 구멍은 곧으면서도 비스듬하여야 하며, 놓아둘 경우에도 또한 끝 끝을 비스듬히 하고 항상 물을 충분히 적셔주어야 한다. 장인(匠人)들은 끝 10줄을 준비해 두고서 끝 5~6개를 채 쓰지 못하고서 따로이 1개의 끝을 바꾸니, 대개 끝의 열기로 말미암아 화약이 불붙을 염려가 있어서이다.

쇠 화살촉은 중간에 모가 나고 뾰족하게 솟아나와야 하며, 칼날은 날카로워야 한다. 척(脊)으로부터 활촉의 양쪽 날 목부분까지가 사이가 넓으면 당겨지지를 앓고, 뒷부분이 길면 중심을 벗어나지를 앓아서 힘이 있다. 화살 가운데의 매듭이 크면 죽간(竹桿)에 집어 넣을 수가 없다. 죽간은 곧아야 하니, 화약이 장전된 통(藥頭)의 약선(藥線) 어귀와는 1치의 거리를 두고 손가락과 수평을 이루는 것이 법칙에 맞은 것이다.

탄약통은 항시 폭팔하는 경우가 많으니 취약한 부분을 종이로 얇고 느슨하게 감아놓아야 한다. 반드시 가장 단단하고 두꺼운 종이를 가지고 좋은 풀로 그 표면을 배접하여 말린 다음 두꺼운 돌로 눌러서 말려서 화약통을 감아야 하는데, 항상 튼튼하게 묶는 것, 이 한가지 방법에 힘써야 한다.

철신(鐵信)⁷²⁾과 철투(鐵套)를 쓰고 끝(鑽)을 쓰지 않은 것은 보는 바가 올바른 것인데, 요셋 사람들은 끝을 쓰기를 편하게 여기니

71) 삼비(三飛)는 강노(弓弩)·궁시(弓矢)·화전(火箭)을 말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72) 쇠로 만든 탄환(彈丸)을 보는 신포(信砲). 소리가 크게 나므로, 북방 변경(邊境)에서 적의 침입을 주민에게 알리는 데 사용하였음.

그 이유는 일하기가 빠르기 때문이다. 철신은 일하는 공인(工人)을 뽑기가 어려워서 도리어 만들기가 지체되며, 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석실(石室), 또는 비어있는 들판의 시골집에서 각종의 화약을 이미 만들어 본 자를 불시에 따로 한군데로 보내서 별실(別室)과 별원(別院)에 두어 그 거리가 반드시 멀리 떨어져야 하니, 만일에 뜨거운 불길에 일어나더라도 거의 불타버리는 것을 면할 수 있다.

약선(藥線)이나 응급용 화약은 통 안에 10분의 7을 넣어두고, 약선은 반드시 세 가닥을 합쳐서 외부의 입구에 두니, 새고막 조개 껍질과 기름종이로 싸서 물과 습기가 스미지 않게 한다. 후미(後尾)의 입구가 넓은 부분에는 독약(毒藥)을 쓰는데, 다 썼을 경우에는 독을 쓰는 화살 머리에 호약(虎藥: 맹독성 약품)을 쓰니 더욱 오묘하다. 더욱이 멀리까지 쏠 수 있으니 이 병기의 정예로움은 총포(銃砲)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1치(30cm) 두께의 나무가 곧장 철갑(鐵甲)을 관통(貫通)하여 깊이 약두(藥頭)에 이르러서야 멈추니, 힘이 강할 경우에는 지통(紙筒)을 쏘아제쳐 버리고 그대로 깊이 꽂혀 들어간다. 그러나, 이 병기는 성질이 일정치가 않아서 반드시 사람을 명중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다중(多衆)의 적과 맞닥뜨렸을 경우에 무심결에 쏘았는데도 혹은 그 앞에 맞기도 하고, 혹은 그 뒤에 맞기도 하고, 혹은 그 좌우에 맞기도 하여, 모두 우리가 바라던 바가 아니고, 또한 적도 이를 막아낼 수가 없다. 가장 오묘하다고 할 것은 열사람 혹은 백사람이 한사람 혹은 두 사람의 거물(巨物)을 지향하여 이를 명중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전(水戰)에 더욱 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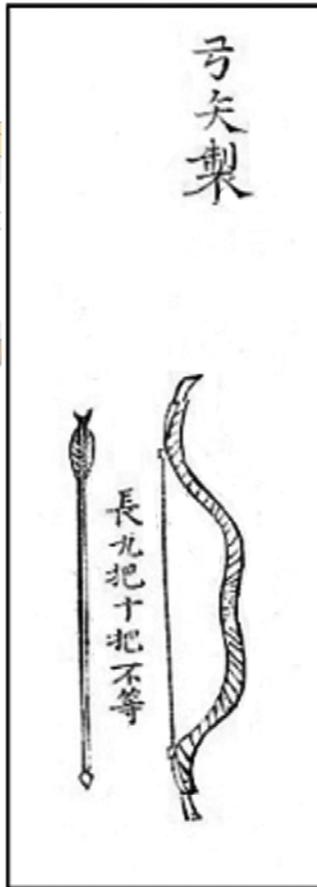
▣ 화전습법[火箭習法 : 불화살 쏘기 연습 방법]

불화살을 쏠 때에는 기댈 수 있는 시렁이 있으니, 모두가 사용이 가능하다. 가장 적합한 것은 파수선상(鈹手船上)에서다. 바로 뱃전에서 쉽게 할 수 있다. 손으로 후미를 잡고 배의 높낮이가 서로 비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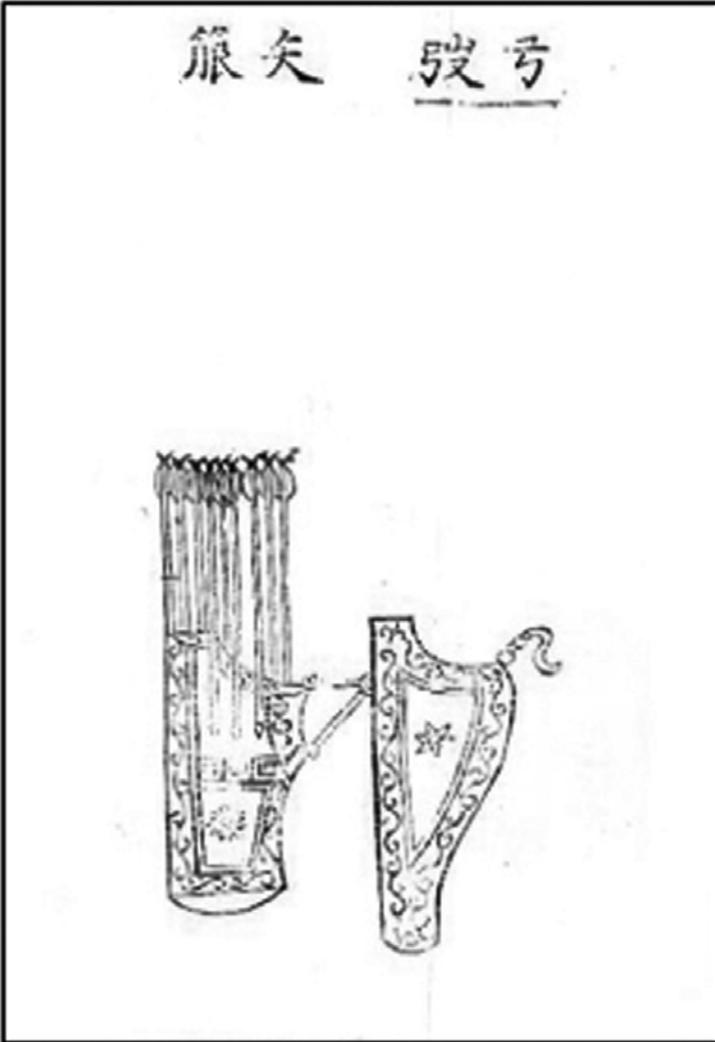
하니, 물의 흐름에 맡겨 멀고 가까움의 대략을 짐작하여 적을 조준하고 쏜다. 차라리 각도(角度)를 높이 하여 적의 후대(後隊)를 맞출지언정, 각도를 낮게 하여 화살이 진흙물 속으로 떨어져 들어가게는 하지 말라.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궁시제[弓矢製 : 궁시의 제원]

【그림 47】 궁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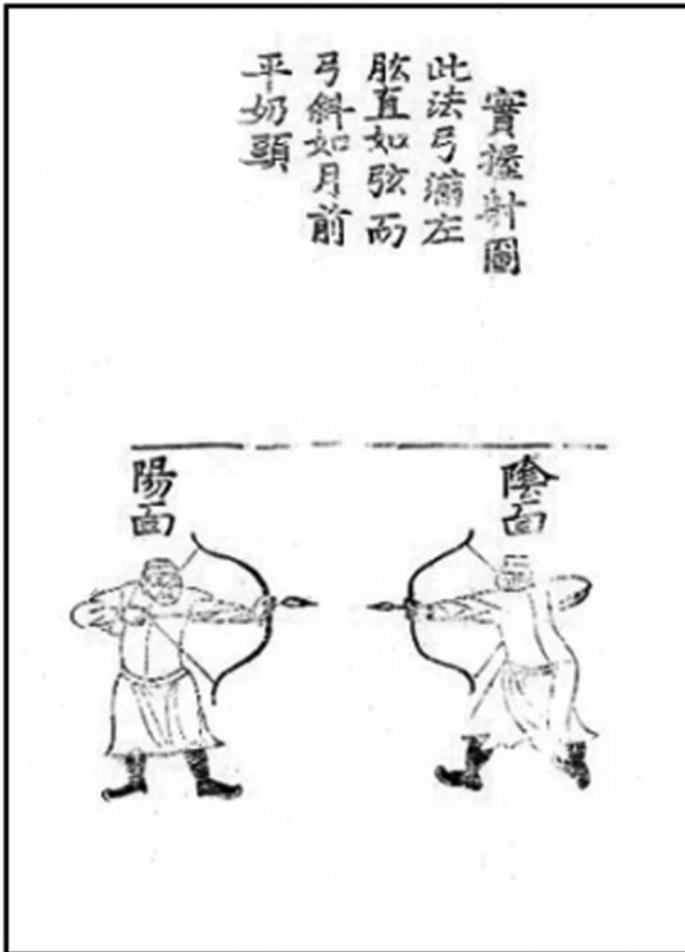
【그림 48】 활 전대(弓鞍)와 화살 집(矢箠)



◆ 실악사도[實握射圖 : 실제로 활을 쥐고 쏘는 도형]

이 법은 활이 왼 팔에서 완전히 당겨져서, 끈기가 활시위와 같으며, 활의 기울기가 달과 같아서 앞이 평평하고 젓무덤 모양과 같다.

【그림 49】 실악사도(實握射圖)



◆ 장심추사도[掌心推射圖 : 장심으로 밀어 쏘는 도형]

이 법은 활이 완전히 당겨지면, 팔의 굽혀진 중심이 아래 팔꿈치를 마주하여, 평평(平平)하기가 마치 저울대와 같으며, 아울러 활은 반드시 8할 썸의 평평한 자세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림 50】 장심추사도(掌心推射圖)



▣ 궁시해[弓矢解 : 궁시에 대한 해설]

궁시(弓矢)는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옛날에는 활을 쏘 적에 행하는 의식인 사례(射禮)가 있었으니, 종묘(宗廟)나 사당(祠堂)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선비도 또한 활쏘기를 익혔다.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동·서·남·북 사방의 네 오랑캐(東夷·西戎·南蠻·北狄)가 궁시(弓矢)를 중요시하여 힘쓰지 않은 바가 없었다. 그러므로 인과 관계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북방은 바람이 건조하여 활이 단단하고 힘이 강하며 화살이 무거워 맞은 자는 죽는 경우가 많다. 남방은 기후가 무더워 아교(阿膠)가 풀어져서 활이 무르고 화살이 가벼워 맞은 자는 사는 경우가 많다. 왜놈 오랑캐가 아군이 쏜 화살에 맞아도 항상 자기 불기짝을 두드리며 아군을 놀려댄다.

그 사용 방법에 두 가지가 있으니, 그 병기는 사용하는 습관이 서로 다르다. 비교해보면 화살(箭)을 사용할 경우 가볍고 가늘며, 활(弓)을 사용할 경우 가볍고 무르며, 활촉은 무게가 불과 3돈(11.25g)이며, 화살은 한냥(3.75g)에 지나지 않으니, 바로 이 때문이다. 이것을 써서 적과 맞닥뜨리는 것은 모두 옳지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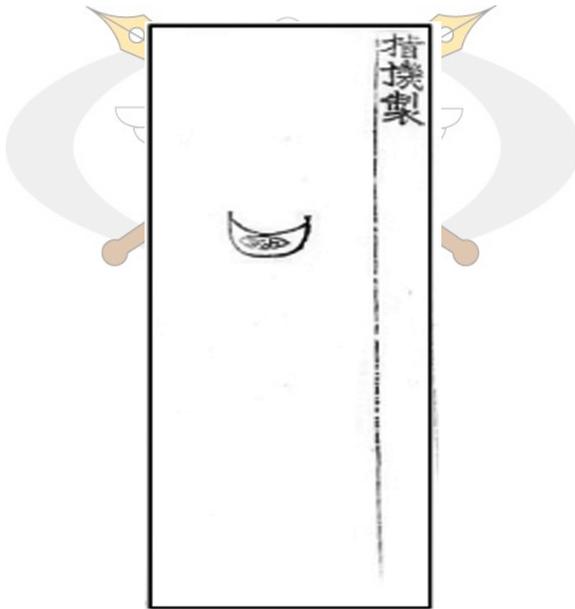
활은 반드시 적절한 힘이 있어야 하며, 화살은 반드시 무거워야 하며, 화살대는 길어야 깊이 들어가니, 대나무 3치~5치(9.1~15cm)가 더욱 좋다. 그러나, 화살대가 거칠고 무거우니 쏘아서 멀리 날아가지 못한다. 장거리무기를 단거리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원래 목표를 먼거리에 둔 것이 아니며, 멀면 맞지 않으며 맞아도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른바 “강한 쇠뇌의 끝이 얇은 노(魯)나라 비단을 뚫지 못한다[硬弩之末, 不穿魯縞].” 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대규모의 왜놈 오랑캐가 화살이 모두 무겁고, 활이 모두 단단하고, 발사함에 있어서는 모두 멀지 않고 가볍게 발사하지 않으나 발사하면 반드시 명중하고, 맞은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를 두려워한다. 지금 마땅히 그 설(說)을 알아야 할 것이다. 활을 만들 때에는 화피(樺皮 : 벗나무 껍질)를 쓰고, 마디에다가는 기름을 칠한다. 그리고 활시위 끈으로 잡아 맨다.

그런데 남방은 비가 자주 오고 습기가 많아 활의 아교(阿膠)가 풀어지까 염려된다. 활촉은 반드시 갑옷을 뚫어야 하니 담금질한 강철(鋼鐵)을 망치로 두드려 만든 활촉을 쏘면 활촉이 말리지 않고 가장 깊이 들어간다. 그러나, 예두(鑿頭: 검은 옥의 꼭지)·연미(燕尾: 제비꼬리)·우내(牛奶: 소 젖통) 등과 같은 따위는 모두 단단한 것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니, 또한 깊이 들어가지도 못한다.

▣ 지기제[指機製 : 활각지의 제원]

【그림 51】 지기[指機 : 활각지]



▣ 지기해[指機解 : 활각지에 대한 해설]

근래에 공작하는 사람들이 식견들이 넓어서 손가락에 골편(骨扁)을

끼운다. 그런데, 구멍이 둥글면 반드시 저포(楮布)로 막아서 피가 안통해 손가락이 검어지고 현두(絃菴 : 활시위 각지)는 다 쓸려서 없어지기에 이르러서 식지가 구멍이 나려고 하니 전후가 자못 길어서 제멋대로 파고 들어온다.

그러나 방법을 바르게 전환하면 활각지가 자유자재로 고르게 자리를 잡아, 심기(心機)가 일전(一轉)되어 기분이 가벼워지니 뒤쳐지지 아니하고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서 일이 거침 없이 잘 되어 손가락 마디가 닳아빠지지 않고, 화살에 물리지 않고, 살가죽이 쓸리지 않는다. 이 법을 깨닫는 자가 드문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병궁(兵弓 : 전투용 활) 1벌을 무르고 단단함에 관계없이 사용하는 사람의 힘에 맞게 함을 기준으로 삼으며, 차라리 힘이 남는 경우가 있을지언정, 활로 하여금 억지로 활줄의 힘을 빌리게 하지 말라.
2. 줄어드는 물품들을 예비하여야 하니, 다음과 같다.
 큰 화살(大箭) 30개비(枝)
 연습용 화살(習演箭) 30개비
 단병무기(短器) 1벌
 활집(弓箝)과 화살통(矢箠)

이것들은 모두 가벼움을 제일로 친다. 그리고 활각지는 2벌을 준비하는데, 하나는 결손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 궁시습법[弓矢習法 : 궁시의 연습 방법]

『열녀전(列女傳)⁷³』에 이르기를, “화가 났을 때에는 활을 당기고 화가 가라앉았을 때에는 화살을 날린다.” 하였다. 화가 났을 때에 활을 당기는 것은 힘이 뛰어나고 시위를 끝까지 당길수 있기 때문

73) 중국 한(漢)나라의 유향(劉向)이 지은 책. 고대로부터 한대(漢代)에 이르는 중국의 현모·열녀들의 약전(略傳), 송(頌), 도설(圖說)을 엮었다.

이며, 화가 가라앉았을 때에 화살을 날리는 것은 마음이 안정되어 두루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힘을 헤아려야 활을 조절하고, 활을 헤아려 화살을 통제(統制) 하니, 이것이 지극한 요체(要諦)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순자(荀子)가 이르기를 “활과 화살이 조절되지 않으면 활 잘쏘는 예(羿)라 할지라도 반드시 맞출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맹자(孟子)는 이르기를 “예(羿)가 사람에게 활쏘기를 가르칠 적에 반드시 구(穀 : 활을 가득히 당김)에 뜻을 두게 하니, 활쏘기를 배우는 자 역시 반드시 구에 뜻을 둔다.” 하였으니, 이것이 활 쏘는 이의 중요한 법도이다.
- 활과 화살을 잡음에 살피고(審) 굳게하라(固) 하였는데, 심(審)은 자세히 살피는 것이고, 고(固)는 궁시(弓矢)를 단단하고 굳게 잡으라는 것이다.
- 옷소매가 스친 것은 모두 움켜잡은 자세가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서이다.
- 화살이 흔들리고 힘이 약한 것은 모두 활축이 손가락 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 사법(射法)에 이르기를 “활축이 손가락 위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맞을 리가 없다. 손가락이 활축을 모르는 것은 마치 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다. 이 ‘지(指)’자는 바로 왼손의 가운데 손가락 끝이 활축을 안다는 것은, 손가락 끝이 스스로 화살축이 이르른 것을 알고 눈을 빌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드시 손가락 끝이 화살축을 안 이후에야 활 시위를 끝까지 당길 수 있는 것이니, 반드시 모든 화살이 다 활축을 알아야 바야흐로 사법(射法)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살핀다(審)는 것은 활시위를 가득 당기고 화살을 날릴 즈음을 자세히 살피는 것이다. 요셋 사람들은 대부분이 화살을 날릴 적에만 살피니 이 또한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 살핀다(審)는 것을 요셋 사람들은 모두 ‘살핀다’고만 여기고 그 가운데에 가장 먼저 살피야 할 한가지 일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 활시위를 완전히 당겼을 때 정신이 이미 다하고 손과 발이 허약해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화살을 날리면 화살은 곧게 나가는 듯 하나 곧게 나가지 않으며, 맞는 듯 하나 맞지 않으니, 모두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드시 이 살핌(審)을 더하여, 정신을 평온(平穩)하고 안이(安易)하게 가져서 손과 발이 안정된 상태가 된 뒤에 화살을 날려야 하는 것이니, 그것이 어찌서 곧게 나가지 않으며, 맞지 않겠는가?
- 사법(射法)에 말하는 심(審)자는 『대학(大學)』에 나오는 “생각(慮)한 뒤에 능히 얻는다.”의 여(慮)자와 같다. 군자(君子)가 지극한 선(善)에서 멈추고, 이미 그칠 바를 알고 정(定)한 뒤에 정(靜)하고, 다시 안(安)하며, 그리고서도 또다시 반드시 생각한 뒤에 능히 얻는다. 군자가 활을 쏘는 데에 있어서, 활시위를 완전히 당기고 나서 화살을 날릴 적에 반드시 다시 이 살핌(審)을 더한 뒤에야 맞춤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니, 심(審)자를 공부해서 알고자 한다면 여(慮)자를 함께 공부하여 뜻을 잘 생각하면서 음미해야 그 묘리를 체득할 수 있다.
- 엄지손가락으로 가운데손가락을 눌러 활을 잡는 것, 이것은 지극히 오묘한 옛 법이니, 결코 이를 따르지 않아서는 안된다.
- 마상(馬上) 궁술(弓術)에 있어서는 반드시 활시위가 9할에 이를 때까지 가득 당겨야 한다. 이를 기억하라! 이를 기억하라! 만약 7~8할만 당기면 또한 맞추기 어렵다.

- 마상에서 활을 쏠 때 화살을 잡음은 모름지기 화살 2대를 활준통(弓肥 : 활의 한가운데의 손으로 쥐는 부분)에 잇대어 잡고, 다시 1대를 시위에 걸치는 것이 편리하다. 옷깃이나 허리춤에 꽂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불편하다. 반드시 내 말을 따르기 바란다.
- 화살을 날림에 있어서, 차라리 각도(角度)를 높이 하여 지나치게 할망정 각도를 낮게 하여 미치지 못하게 하지 말도록 조심하라. 이는 모든 사람들이 저지르는 좋지 않은 버릇이니, 이를 기억하라! 이를 기억하라!
- 교장(敎場) 안에서 활을 쏠 경우에는 모름지기 항상 조심하고 삼가하면서 맞지 않을까 염려하므로 결코 털끝만큼도 제멋대로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 활쏘는 것을 감독하는 상관(上官)이 없다 할지라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알아서 쏘되, 느긋하게 한 대 한 대를 쏠 때마다 손가락 끝이 화살촉을 알고, 한 대 한 대를 쏠 때마다 살피고 생각하면 어찌 맞추지 못하겠는가?
- 표적을 맞추기 전에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 있으니, 모두 느긋하고 침착하게 덤비지 않아야만이 반드시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조금하게 서둘러 허둥지둥하면서 반드시 맞출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조금하게 서둘러 허둥지둥하면서 맞추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또한 요행일 뿐이다.
- 활을 쏘는 데에 있어서 다섯 대까지 화살을 쏘았는데도 오히려 표적을 맞추지 못하였을 경우, 다시금 침착하게 살피고 생각한 뒤에 결정해야 한다. 맞추지 못했다고 하여 스스로 침착성을 잃고 허둥지둥해서는 안된다. 만약 침착성을 잃고 허둥지둥하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의 화살도 맞을 리가 없는 것이다.

- 『교기사진법(教騎射箭法)』에 이르기를, “형세는 바람을 쫓는 듯이, 눈초리는 번개가 흐르듯이, 활시위를 가득 당긴 다음, 빠르게 화살을 날린다.”라고 하였다. 눈을 깜빡거리지 말며 자세를 엉거주춤히 하지 말고, 활을 꺼내기를 마치 가슴속에서 달을 토해 내듯, 화살의 수평을 유지하기를 마치 활줄 위에 저울 추를 걸어 놓은 듯이 하여야 한다.
- 『보사전법(步射箭法)』에 이르기를, “화살은 백보 밖에서 사람을 죽이는 도구다.”라고 하였다. 활을 쏘는 자가 반드시 그 활을 헤아리고, 활은 그 힘을 헤아려, 거동과 모양새가 얼굴에 나타나지 않고 그 팔다리와 몸을 온화하게 하고 내고 들이마시는 숨을 고르게 하며 그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활이 무른 것을 염려하지 말고 쥐기를 마땅히 멀리서부터 하며, 힘이 넘치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끌기를 힘차게 하라.” 하였다. 그러나 힘이 그 활을 이길 수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충분히 당기고 나서 화살을 날려야 하는 것이니, 이는 가까운 것을 먼저하고 먼 것을 뒤에 함이다. 이것은 바꾸어서는 안되는 사법(射法)이다. 대개 활쏘기를 배움에 있어서 충분히 당기고 멀리 쏘려고 하는데, 도달한 연후에 가까운 것으로부터 기준을 구하려 하니 틀린 것이다. 예컨대, 한 사람이 아직 활시위를 다 당기지도 않고서 곧 멈추어 30~20보(步)를 쏘아 한바탕을 삼으니, 어떻게 멀리 나갈 수가 있겠는가?
- 활을 쏘면서 적을 마주함에 있어서, 적은 멍하게 서있거나 수수깡 울타리처럼 움직이지 않고 서서 아군으로 하여금 바라보고 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눈을 조금이라도 깜박이면 그들이 숨어버리는 것을 따라잡지 못하고 그들에게 제압을 당해 버린다. 이것이 안법(眼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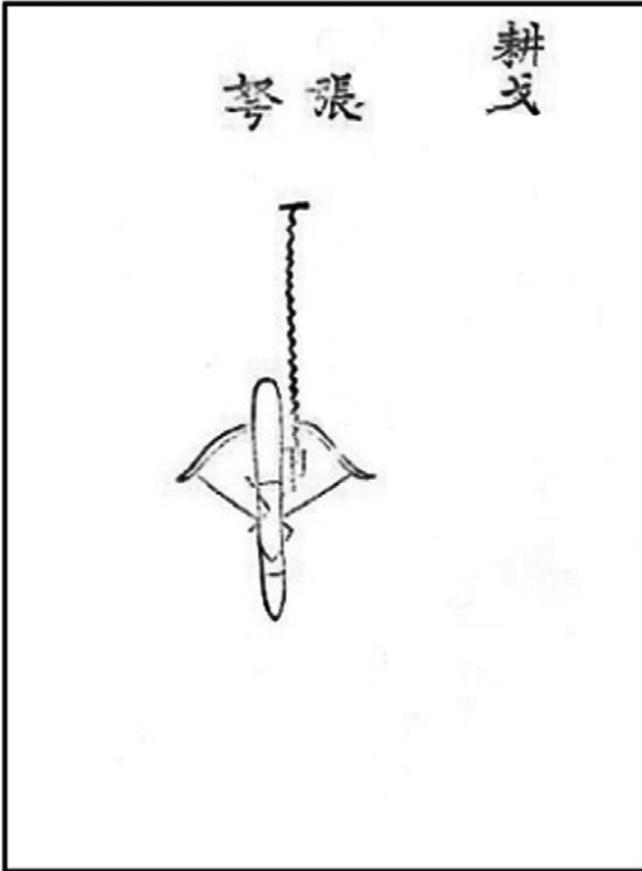
- 활을 쏘면서 앞다리는 말뚝 같고, 뒷다리는 절름발이 다리 같아야 한다. 오른손잡이가 활을 쏠 때 뒷 다리의 경우, 왼쪽 눈썹 끝이 곧바로 오른발 끝을 마주하여, 정(丁)자도 이루지 않고 팔(八)자도 이루지 않고, 오른쪽을 쏠 때는 왼쪽으로 바꾸고, 왼쪽을 쏠 때는 오른쪽으로 바꾼다.[이 두 구절은 그야말로 표적을 맞추는 오묘한 이치이니, 이는 사법(射法)에 함당하다.]
- 활을 쏘면서 앞 손은 태산(泰山)을 미는 것 같고, 뒷손은 호랑이 꼬리를 쥐는 것 같아야 한다. 왼손과 오른손, 둘 중 어느 한 손을 전수(前手) 또는 후수(後手)로 결정하면 곧고 바르게, 그리고 느긋하게 활시위를 당긴 다음, 빠르게 화살을 날린다. 활쏘기에서는 큰 것이 작은 것을 존(存:누름)하고 작은 것은 큰 것을 가(加:들음)한다.[존(尊)은 그 전수를 누르는 것이고, 가(加)는 그 전수를 드는 것이다.] 수평(水平)을 유지하기에 힘쓰되, 전수는 문지르듯이 하고 후수는 끊는듯이 한다. [이 두 구절은 활쏘는 방법의 깊고 오묘한 이치이니, 하나는 문지르듯이 하고 하나는 끊는듯이 하는 것은, 바로 서로 맞아 어울리는 오묘함이다. 둘이 한꺼번에 힘을 기울여 팔과 어깨를 펼치고 모으면 화살의 바르기가 보통보다 몇 배는 더 할 것이니, 이것이 수법(手法)이다.]
- 활을 쏘에 있어서 턱은 옆으로 당겨짐을 싫어하고, 머리는 아래로 늘어지는 것을 싫어하고, 가슴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싫어하고, 등은 뒤로 눕혀지는 것을 싫어한다. [이는 바로 몸가지는 버릇의 결함이니, 이것은 신법(身法)이다.]
- 활을 쏘에 있어서 화살이 날아가면서 머리가 흔들리는 것은, 바로 오른손 집게 손가락이 활시위를 너무 팽팽하게 당겨서 무명지와 새끼손가락이 느슨하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활쏘기를 배우는 자에게는 이 버릇이 있다. 활을 쏠 때 아끼풀 줄기 1치를 무명지와 새끼손가락 사이 중심에 함께 집게 하여, 화살이 날아갔는데도 풀이 떨어지지 않으면 화살이 날아가면서 머리가 흔들리지 않은 것이다.

- 적과 맞닥뜨려 활을 쏘에 있어서, 겁을 먹지 않고 용기있게 힘을 안정시킨 다음, 형세(形勢)가 준엄(峻嚴)해지고 기개(氣概)가 간결(簡潔)해지면 명중되지 않는 사람이 없고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단한 궁술(弓術)이나 활 다루는 방법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우선 너무 지나치게 잔뜩 당기지 말고, 우선 너무 지나치게 빨리 화살을 날리지 말며, 다만 사지(四肢)의 자세(姿勢)를 편안히 하여 손을 시렁에 얹은듯이 안정시키면 형세가 준엄해진다.

반드시 적이 수십보 안까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려 내가 일발로써 반드시 적을 맞추겠다고 기약하면, 반드시 적을 쏘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적장이나 적의 선봉을 목표로 하여 일발필중(一發必中)으로 열배의 이익을 거두려 한다면, 기개가 저절로 간결해진다.馬上(馬上)의 적은 마땅히 큰 것을 보고 쏘아야 하니, 사람을 쏘아서는 안된다. 속담에 이르기를, “사람을 쏘기 전에 먼저 말을 쏘아 적을 사로잡되, 반드시 적의 우두머리를 잡아야 한다.” 하였으니, 바로 이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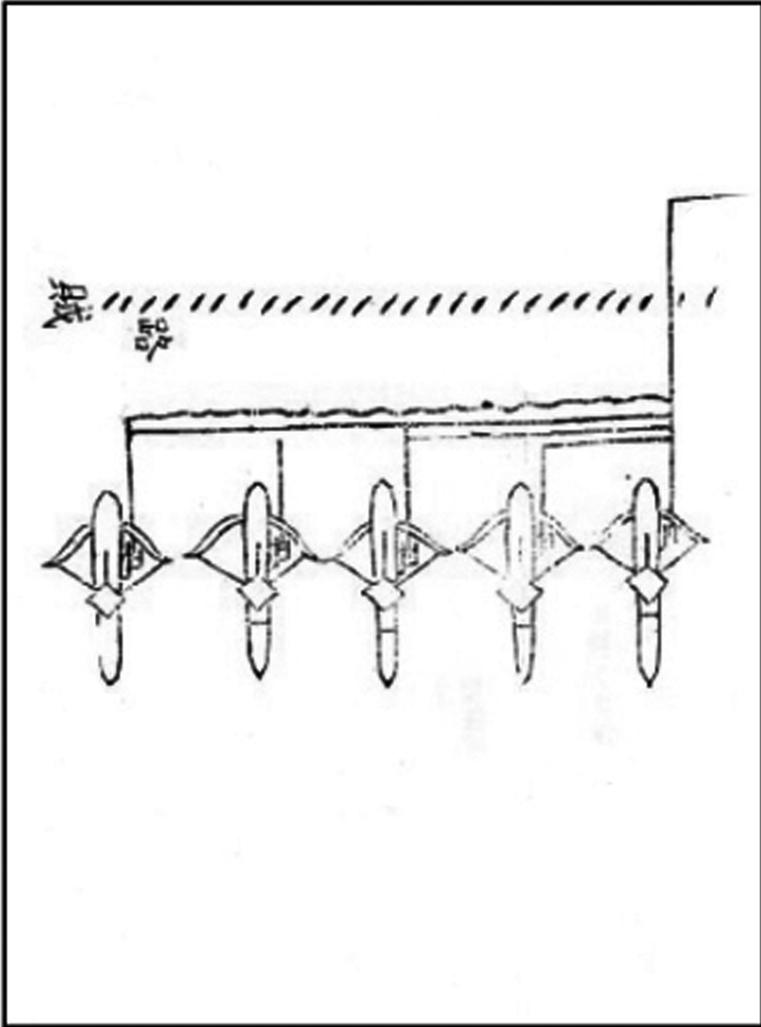
▣ 궁노제[弓弩製 : 궁노의 제원]

【그림 52】 경과[耕戈 : 매복용 쇠뇌]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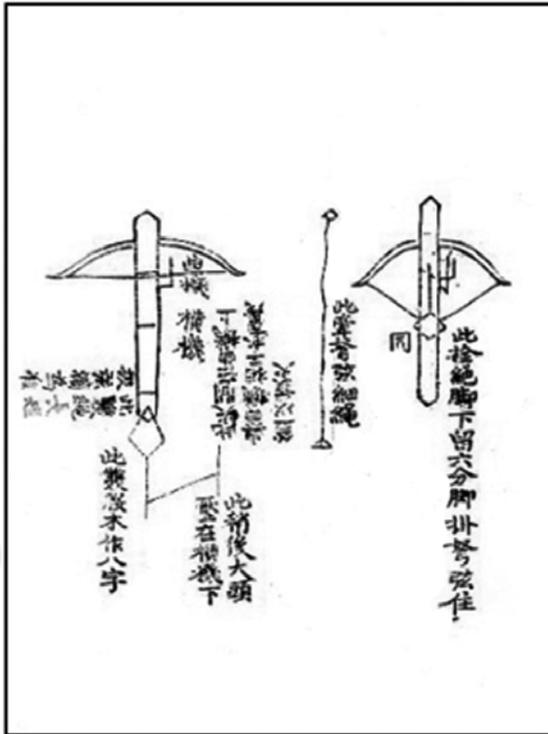


74) 쇠뇌와 같은 종류의 틀. 중량이 가벼운 화살에 초오(草烏)와 독약(毒藥)을 발라 끈으로 30보 떨어진 말뚝에 연결해서 도로에 가로질러 놓는다. 풀을 덮어서 그 형체를 숨기는데, 끈을 건드리면 틀이 발사되어 화살이 날아간다. 우군(友軍)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험준한 요로(要路)에만 설치한다.

【그림 53】 장노[張弩 : 다발식 연쇄 쇠뇌]



【그림 54】 화전제



■ 노해[弩解 : 쇠뇌에 대한 해설]

쇠뇌(弩)도 또한 진영 안에서 운용되는 정예로운 무기이다. 쇠뇌 가운데 상노(床弩)와 같은 종류는 사거리가 수백보에 이를 수 있으며, 갑옷도 뚫을 수 있다고 『무경총요(武經總要)』⁷⁵⁾에 기록되어

75) 중국 송(宋)나라 인종(仁宗)이 1040년에 명하여 만들게 한 병서(兵書). 북송(北宋)의 증공량(曾公亮)·정도(丁度) 등이 찬술하여 1044년에 완성한 군사상의 기술서(技術書)로, 40권으로 되어 있다. 당시 서하(西夏)의 반란이 일어난 뒤 인종은 병법에 뛰어난 인재들을 구하여 작전·군사기술 등의 지식을 정리시키고, 병기류의 그림을 그리도록 하였다. 전집(前集)·후집(後集)으로 나누어 전집은

있다. 그러므로 상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듭해서 논의하지 않는다.

쇠뇌는 그 형세가 자못 복잡하고, 그 힘의 용도가 아주 많다. 그런데, 남방의 발두렁이나 진흙탕물 속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으며, 육로(陸路)에서도 메거나 끌고 다니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선대의 왕조에 서는 화기(火器)가 없었던 관계로 쇠뇌를 믿을만한 무기로 여겼다.

지금은 대장군포(大將軍砲)·불랑기(佛狼機)·조총(鳥銃) 등 여러 가지 총포(銃砲)가 있어, 쇠뇌나 궁시(弓矢)에 비하여 그 위력이 백배나 된다. 그러므로 마침내 쇠뇌에 대해서 말하지 않게 되었으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그 제법(製法)을 잃어버린 것들이다. 오직 손 쇠뇌(手弩)가 있어 활을 쏘아 하는 사냥을 할 적에 쓰고, 경과(耕戈 : 매복용 쇠뇌)를 가지고 들짐승을 덮쳐서 잡는다. 그러나, 이 무기들은 아직도 군사 작전에 쓸모가 있다.

북방은 바람이 세어서 쇠뇌 받침과 대나무가 모두 건조하여 잡아 당겨 활시위에 뭉 수 없어서 화살을 날려도 힘이 없다. 남방은 바람 기운에 습기가 많고 질척거리 손 쇠뇌(手弩)가 가볍고 편리하다. 그러나, 손 쇠뇌의 화살은 사거리가 멀지 않으며 활촉이 얇고 무겁지를 않아서 사람을 맞추어도 겨우 1치(3cm)쯤 밖에 들어가지 못한다. 만약 두터운 옷이나 단단한 갑옷을 입었을 경우에는 뚫고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

이 손 쇠뇌가 믿을 바는 오직 독약 뿐이니, 약재의 성질이 깊이 들어감에 이롭지 않고, 다만 쏘아서 가죽 속 살 밖으로 들어가면 곧바로 피가 흐르는 부분에서 이 약이 피를 물로 변하게 만들 수 있으니, 사람이건 짐승이건 맞은 자는 그 자리에서 죽는다. 그러나, 약에 맞은 자는 비록 그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또한 마침내 한 때가 지나고 나면 오히려 우리가 순식간에 패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험한 지형에서 적을 막아 활을 쏘에, 혹 방벽(防壁)과 보루(堡壘)가 있으면 적이 곧바로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니 수성

(守城)에 가장 정예로운 병기는 경과(耕戈)이다.

경과는 진영(陣營) 수비와 성곽(城郭) 수비와 진입로에 대한 매복(埋伏)과, 보루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을 때, 야간(夜間)에 적의 진영 기습을 방어할 때 등, 그 용도가 적지 않을 것 같다.

▣ 경과해[耕戈解 : 매복용 쇠뇌에 대한 해설]

쇠뇌(弓弩)의 화살을 가지고 초오(草烏)⁷⁶와 독약(毒藥)을 발라 끈으로 30보 떨어진 말뚝에 연결해서 도로에 가로질러 놓는다. 풀을 덮어서 그 형체를 숨기는데, 끈을 건드리면 틀이 발사되어 화살이 날아간다. 우군(友軍)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험준한 요로에만 설치한다. 그리고 아군에게만 설치 장소를 암기하게 하고 적들이 알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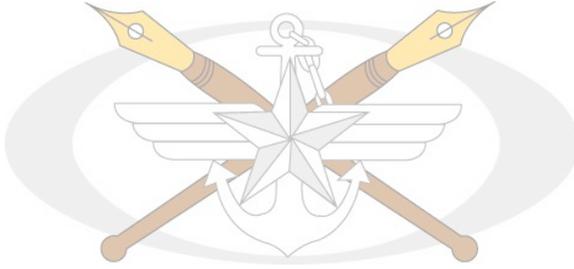
근래에는 적이 긴 장대를 가지고 먼저 후려갈겨보고 행군을 하니, 쇠뇌가 사람의 발길보다 먼저 발사되어 쇠뇌가 쓸모없이 되어버렸다. 이제 마땅히 100여 개의 쇠뇌를 여러 길(丈)로 이어서 대량으로 운용하되, 쇠뇌들의 하나는 아군측으로 향해 놓고서, 쇠뇌의 머리부분을 적이 오는 방향으로 놓아 그들이 달려오기를 기다리다가, 쇠뇌의 머리부분을 지나칠 때 긴 장대로 그 쇠뇌들을 먼저 발사되게 한다. 그러면 그들은 몇 길 밖에 못 물러날 것이다.

이 때 그들은 미리 나누어 장치해 놓은 3~4개의 쇠뇌들 가운데에서 그 중 한개를 때려서 발사되게 하고서는 쇠뇌가 모두 발사되었다고 생각 할 것이다. 그러나 불의에 다시 발사되지 않은 쇠뇌들이 있으니, 더욱 오묘하다. 만약 3~4개의 쇠뇌를 가지고 한 길 남짓의 구역에 벌여놓는다면 쓸모가 없으니, 또한 반드시 개개의 화살 수를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

76) 초오(草烏) : 바꽃의 덩이뿌리를 한방에서 이르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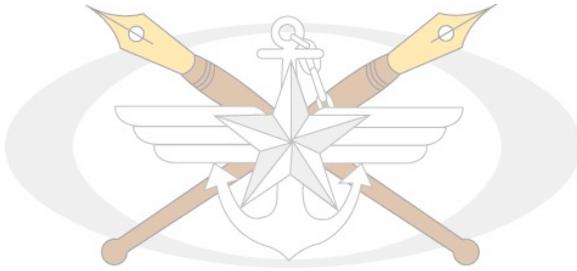
▣ 습법[習法 : 연습하는 방법]

쇠뇌의 연습 방법은 활쏘기 연습 방법과 같으니, 이를 통하여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다.



[紀效新書(上)]

권4 수족편[手足篇]



■ 권4 수족편[手足篇]

이에 대한 설명은 제3편 안에 보인다.

▣ 단기장용해[短器長用解 : 단병무기를 장병무기로 사용하는 방법의 해설]

등패(藤牌)·요도(腰刀)·장도(長刀)·언월도(偃月刀)·과곤(鈹棍)·구검(鈎鎌)·편간(鞭簡)·과추(搗錘)는 모두 단병무기이다. 이것으로 장창(長鎗)을 대적하니, 저들이 가진 무기의 길이는 1길 7자~1길 8자(515.1~545.5cm)인데, 아군(我軍)은 7자~8자(212.1~242.4cm) 내지 2자~3자(60.6~90.9cm)에 불과하다.

옛 법에 “과(鈹)·곤(棍)과 대도(大刀)는 모두 손으로 자루 한 가운데를 잡으면 그 손과 창날 끝의 거리는 2자(60.6cm) 길이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도리어 다시 두 개를 거꾸로 잡고 써서 몸을 멀리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인다.” 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사방을 주유(周遊)하면서 무술(武術)을 가르치는 전문 기능 보유자가 일대일로 대적하여 보는 이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며대는 연기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저들의 장창(長鎗)이 번쩍 번쩍 다가들어와 별똥처럼 빠르게 움직이는데, 길이가 짧은 단병무기(短兵武器)를 정예하게 익혀서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면 저들의 장창과 겨루어 내 몸으로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겠거니와, 내가 나아가려 하면 저들의 장창은 나의 중심부로 들어와 나를 멈칫거리게 하고 다시 외곽으로 빠져나가니,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저들의 장창이 반격의 손을 쓸수 없게 하니 어찌 감히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처럼 중일토록 싸워도 우리는 이길 도리가 없다. 단병무기의 이점(利點)은 신속히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 장시간 동안 장병무기(長兵武器)와 지구전(持久戰)을 하게 되면 적에게 유리한 틈만 제공해 주는 것이 된다. 지금 모든 장병무기에 따로이 1자 1치(33cm)쯤의 길이를 더 늘려서 손으로 그 밑동을 잡게 해야 하니 잠시라도 지체할 수 없다.

모두 7~8자(210~240cm)의 병기(兵器)를 가지고 있으니, 외곽에서 팔과 다리를 나란히 하여 걸어 나가면 1길(300cm)의 거리가 되니 적이 만약 장창으로 닥쳐오면 아측의 무기 5자(150cm) 사이까지 들어오기를 기다려서 한번 휘둘러 쳐서 쓰러지게 한다. 이때 곤봉의 통달 범위 안에서 연속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방법을 써서 저들의 장병무기 위에 내리쳐서 마치 흐르는 물이 바위를 꿰뚫듯이 밀고 나아가는 것이다.

적이 먼저 5자(150cm)를 나아가면 나는 한번 나아가고, 그리고 또 5자의 거리가 있으니, 이는 바로 1길(300cm)의 형세를 얻는 것이다. 적은 나의 연속 타격을 가하는 형세를 당하여 일어서지 못하고 몸을 빼쳐서 달아날 것이니, 어찌 능히 단병무기로 1길의 장병무기를 격파할 수 있겠는가? 일단 적의 장병무기에 말려들어가게 되면 아군의 단병무기는 장병무기와 겨루는 것이 마치 맨손으로 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등패(籐牌)와 요도(腰刀)는 원래 단병무기 중에서도 단병무기이다. 그러나 반드시 표창(鏢槍)을 운용하면서 낭선(狼筈)에 의지하여야 하니, 이는 바로 단병무기를 장병무기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곤(棍)을 사용하는 것은 마치 사서(四書)를 읽는 것과 같으며, 구(鉤)·요(腰)·창(鎗)·파(鈚)를 사용하는 것은 각각 한 가지씩의 경서(經書)나 사서를 읽는 것과 같다.

이미 경서의 이치에 통달하면 육경(六經)에 통달하고, 또한 사서에도 통달하게 된다. 만약 곤(棍)을 사용하는 방법에 능통해지면

다른 여러 가지 이기(利器)를 사용하는 법도 이에 따라서 체득될 것이다. 그러나 모두 다수의 군사로 편성된 대규모의 진영(陣營)에서는 적합하지 않음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일찍이 보았다. 변방(邊方)의 군법(軍法)이 엄격하여 싸움에 이기지 못함이 없고 처음에 동원되어서는 왜적(倭賊)을 죽여서 매양 한차례 승리를 거두고서는 얼마 안되어서는 곧 패전을 하니 어째서인가?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모두 장패(長牌)와 단도(短刀)이나 왜구(倭寇)가 사용하는 무기는 장창(長鎗)과 중시(重矢)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른바 ‘단병무기가 장병무기와 접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도끼리 서로 접전함에 미쳐서도 칼 쓰는 법이 동떨어지게 차이나서 왜구와 같지 못하니, 이것이 이른바 ‘능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능한 것과 싸운다.’는 것이다.

조총(鳥銃)은 참으로 화살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그런데, 총이 정밀하면 화살을 사용하는 것보다 나으나, 총이 법식대로 구비되지 않고 그 연습이 정예롭지 않으면 도리어 화살만 못하다. 그래서 장병무기인 총을 적이 쓰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 보병전(步兵戰)에 있어서의 단병무기로서는 양가창법(楊家鎗法)이 있는데, 손으로 창(鎗)의 밑둥을 쥐고서 왜구(倭寇)와 맞닥뜨려 중간을 자르는 창법이니, 오직 적보다 1치만 길면 반드시 이긴다.

왜적의 무기와 비교하여 5자나 기니 저들의 왜창(倭鎗)은 우리의 창을 대적할 수가 없다. 사용할 때 반드시 신법(身法), 보법(步法)과 수법(手法)을 병행시켜가면서 손으로는 창(鎗)의 밑둥을 잡으면 키(舵)를 잡고 배를 부리면서도 할 수 있다. 파곤(鈹棍)·대도(大刀)·장도(長刀)도 사용법은 다 마찬가지다.

모든 병사(兵士)는 평일(平日)에 교장(教場)에서 조련(操練)할 때에는 이를 충분히 익힌 듯 하여 이미 정예롭고 이미 숙달된 경지에 이르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적과 맞닥뜨렸을 때에는 교장에서 훈련받은 대로 침착하게 대응하여 교장 안에서처럼 무예(武藝)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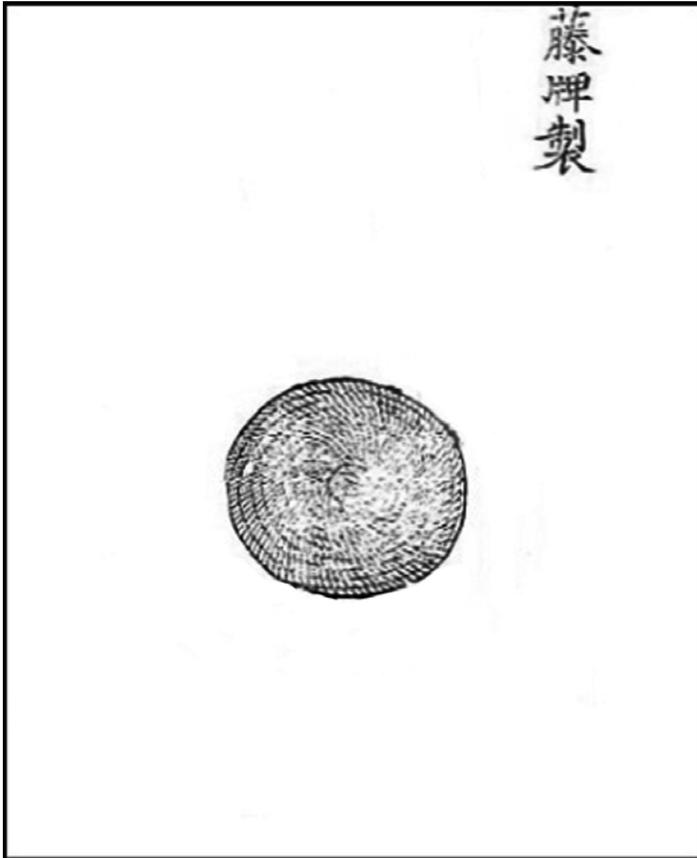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 배워서 체득한 삼분(三分)만이라도 발휘하면 또한 대적할 자가 없겠으나, 어찌하여 적을 볼 때마다 죽고 삶이 한 순간에 달려 있거늘 얼굴이 노래지고 입이 마르고 손이 덜덜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려 사법(射法)과 타법(打法)을 모두 잊어버려 손이 노골노골해지고 몸이 떨리어 거동조차 온전하지를 못한다?

그리하여 다만 서로 어지러이 칠 뿐이니, 평일의 배운 바는 추호도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다. 어찌 한낱 그 뿐이겠는가? 화기(火器)는 더욱 그릇되게 다루어져, 혹은 하늘을 향해 쏘고 혹은 손이 앞을 향하여 총을 쏘기는 하나 머리는 이미 뒤를 돌아보며 달아날 길을 돌아본다. 혹은 탄알을 총구(銃口)에 장전(裝填)함에 황망하고 산란하여 납탄알을 넣는 것을 잊거나, 먼저 납탄알을 넣고 나중에 화약(火藥)을 넣거나, 혹은 탄알이 작고 총구가 큰데 조준하여 쏠 때에 총구가 낮게 기울어져 납탄알이 흘러나오기도 한다.

혹은 장전을 마쳤는데 화승(火繩)이 땅에 떨어져 습기에 젖어 못쓰게 되기도 하고, 혹은 화약심지를 잡은 채로 저 혼자 그 약이다 타버리거나 한다. 그리하여 10개의 총 가운데 겨우 6~7개의 총이 발사되고 6~7개의 총 가운데 겨우 2~3개의 총이 명중할 뿐이니, 이는 대개 여러 차례의 전투에서 직접 보고 익숙히 시험하고서 안 것이다. 그러니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는 장수된 자가 그 폐해를 돌이켜서 교육 훈련을 엄히 하여 그러지 못하게 전이(轉移)시키는 데에 달려 있을 뿐이다.

▣ 등패제[籐牌製 : 등패의 제원]

【그림 55】 등패



▣ 등패해[籐牌解 : 등패에 대한 해설]

오래되고 거친 등나무 덩굴은 마치 손가락처럼 쓸 수 있는데,

등나무 덩굴을 골격으로 삼고 그 중심에 대나무껍질을 얹어서 연결시키는데, 바깥으로는 불쑥 튀어나오고 안은 비어서 거의 모든 화살이 뚫고 들어가지 못해서 손목을 다치게 하지 못한다. 둘레에 차양처럼 덮여 사방으로 늘어진 드리개가 높게 솟아나와 있어서 비록 화살을 맞아도 미끄러져 튕겨져 나가 사람을 맞히는 일이 없다. 등나무 덩굴로 위 아래에 손과 팔뚝이 들어갈 수 있는 두 개의 고리를 만들어 잡을 수 있게 한다.

옛날에는 원형(圓形)과 장방형(長方形) 두 종류가 있었는데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자기 방어를 위주로 하되 공격을 위주로 하지 않는다. 명(明)나라 건국 초기에는 나무에 가죽을 덧대어서 방패를 만들었기 때문에 무거워서 보행에 불편하였다. 그래서 등나무 덩굴로 방패를 만들게 되었는데, 근래에 복건(福建) 지방에서 생산된 등패(籐牌)가 비록 총알은 막을 수 없으나 시석(矢石)이나 창검(槍劍)은 모두 다 막을 수 있어서 갑주(甲冑)를 대신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각 병사는 등패(籐牌) 1개를 잡고, 요도(腰刀) 1자루를 차고, 손에 표창(鏢槍) 1개를 휴대한다. 적은 장병무기이고 아군은 단병무기이기 때문에 멈칫거릴 틈이 없다. 표창을 던져 날리면 그것이 맞거나 말거나 적은 반드시 반응을 보이고 주춤거릴 것이니, 아군은 그 틈을 타서 재빨리 칼을 손에 잡고 등패를 앞세우고 달려들어 간다. 일단 저들의 창 몸통 안까지 접근하면 창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니, 아군은 반드시 이긴다.

그러나 표창을 던진 뒤에 번번이 허둥지둥하다가 칼을 손에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것이 가장 큰 결함이다. 이 병기 등패는 단병무기를 방어하는데에 있어서 더욱 편리하다. 특히, 남방의 발두령이나 진흙탕물 속에서는 자못 편리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몸을 위 아래와 사방으로 가려막고 덮어주는 데에 쓰도록 되어 있다. 거기에 달려있는 이른바 표창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시선을 빼앗을 수 있는 것으로 적의 눈을 속이는 나의 가짜 군사가 되어 적을 이기는 데에 도움이 된다.

등패에 표창이 따르지 않으면 방어는 할 수 있으나 죽일 수는 없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마음먹은 뒤에 표창을 쓰되, 함부로 던져서는 안된다. 이것은 바로 송(宋)나라의 악무목(岳武穆)⁷⁷⁾이 사용한 방패(防牌)와 마찰도(麻扎刀)의 제도이다. 군사들로 하여금 머리를 낮추고 다만 적의 말 다리를 찍어넘어뜨리는 적만으로 올출(兀朮)⁷⁸⁾을 격파 하였으니 괴자마(拐子馬)가 이것이다. 진중을 드나들고 나아가고 물러남에 편리하고 방어와 공격에 있어서 남북에 공통으로 운용되는 정예로운 병기이다. 제원은 비록 약간씩 다르나, 이것을 행군 대열 선두에 배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낭선(狼筈)의 뒤에 두었다가 돌진 하여 움츠러든 기세를 만회하게 한다. 들고 나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만약 낭선이 없으면 등패수들이 휴대한 패도(牌刀)가 모두 짧아서 단독으로 나아가고 들어올 수가 없으므로 적의 장병무기에 의해 제압을 당하게 된다.



77) 악비 [岳飛, 1103~1141] : 중국 남송(南宋) 초기의 무장(武將)이자 학자이며 서예가. 북송이 멸망할 무렵 의용군에 참전하여 전공을 쌓았으며, 남송 때 후베이[湖北] 일대를 영유하는 대군벌(大軍閥)이 되었지만 무능한 고종과 재상 진회에 의해 살해되었다. 자는 봉거(鵬舉)이며 상주 탕음현의 가난한 농민 출신이지만 금(金)나라 군사의 침입으로 북송(北宋)이 멸망할 무렵 의용군에 참전하여 전공을 쌓았다. 북송이 망하고 남송 때가 되자 무한(武漢)과 양양(襄陽)을 거점으로 후베이[湖北] 일대를 영유하는 대군벌(大軍閥)이 되었다. 그의 군대는 악가군(岳家軍)이라는 정병(精兵)으로, 유광세(劉光世)·한세충(韓世忠)·장준(張俊) 등 군벌의 병력과 협력하여 금나라 군대의 침공을 화이허강[淮河], 친링[秦嶺] 선상(線上)에서 저지하는 전공을 올렸다.

78) 금(金)태조의 넷째 아들, 완안종필(完顏宗弼). 일명 알철올출(斡啜兀朮), 기사(騎射)를 잘하여 여러차례 송나라를 침범. 악비와 주선진(朱仙鎮)에서 서로 대치 패전하고 회군하려 하는데 마침 악비가 소환되어 남으로 돌아가자 송과 화약을 맺었다.

▣ 등패습법[藤牌習法 : 등패 연습 방법]

【그림 56】 등패 연습법 ①



◆ 손을 일으키는 자세[起手勢]

위를 살피면서 아래를 다스리며 가로 세로 자유자재로 움직이니, 여러 자세로 변화할 수 있으며, 재빠르게 몸을 피할 수 있는 오묘함이 있다.

◆ 비스듬히 나아가는 자세[斜行勢]

이는 바로 곧바로 다가가서 적의 무기를 빗겨 받는 방법이니,

동작을 함에 한쪽으로 치우쳐 걸으며 등패 상부를 단단히 하면서 용을 탄 것과 같은 자세로 적의 왼쪽으로 나아간다.

【그림 57】 등패 연습법 ②



- ◆ 신선이 길을 가리키는 자세[仙人指路勢]
이는 바로 살피면서 다스리는 방법으로 비틀걸음으로 곧바로 나아가고 곧바로 물러나니, 여러 가지 자세로 변화할 수 있다.
- ◆ 등패를 회전시키는 자세[滾牌勢]
이 자세는 등패의 회전을 따라서 적의 오른쪽을 공격하되, 먼저

칼이 앞으로 나아간 뒤에 등패가 나아간다. 빠르기가 바람처럼 빠른 속도를 오묘함으로 한다.

【그림 57】 등패 연습법 ③



◆ 뛰어가는 자세[躍步勢]

이는 바로 용을 타고 말을 잡는 것과 같은 자세로, 칼을 앞에 하고 등패를 뒤로 하여 적을 유인하여 다가오게 한 다음, 등패를 회전시키는데, 칼은 뒤로 하고, 아래의 낮고 평평한 자세(低平勢)를 취하여 내려 앉아 기대면서 밀쳐버린다.

◆ 낮고 평평한 자세[低平勢]

이것은 완전히 평평한 자세로 적과 마주하는 동작이다. 발걸음의 정도를 헤아려 반드시 등패 안에 표창(鏢槍) 한자루를 지니고서 표창과 발걸음이 동시에 나아가면 백발백중(百發百中)이 된다.

【그림 58】 등패 연습법 ④



◆ 금계가 머리를 돌리는 자세[金鷄畔頭勢]

머리를 돌리는 자세가 가장 좋다. 창이 위에서 공격하면 등패 아래에 몸을 숨기고 바람처럼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니, 적이 이에 대응하여 도전(刀鎗)과 패갑(牌闌)을 당적해 내기가 어렵다.

◆ 몰래 숨어 있는 자세[埋伏勢]

이 자세는 나아가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조금 나아가서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만일 적이 창으로 등패를 찍어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급히 칼끝을 이용하여 등패에 힘을 주어 여기에서 벗어나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니 매우 오묘하다.

- 명(明)나라 건국 초기에 시패(試牌)와 도패(跳牌)가 있었다. 옛법에서는 정소리를 듣고 이를 법도로 삼았다. 침패(覷牌)는 진영의 방벽과 같고, 섬패(閃牌)는 번개와도 같아서, 일어남과 내리 앉음이 적절하고, 몸을 한 번에 뒤집어 몸을 드러내고, 등패를 한번 회전시켜서 발을 드러낸다.



■ 대칠성패가[大七星牌歌]

참패(覷牌)는 칼로 찍고 앞으로 나아간다. 다시 참패는 칼로 찍고 방패를 굽어지고 칼을 들어올려, 실가닥이 얽히듯이 땀돌아 꽃을 뿌리고 이마를 덮어 끝마치니, 방패(防牌)를 내밀고 칼을 뺄침에, 몸을 뒤쳐어 올리고 가볍게 뛰어 몸을 뒤쳐어 내린다.

방패를 내밀고 칼로 찌름에 몸을 뒤쳐어 올리고 가볍게 뛰어 몸을 뒤쳐어 내린다. 또 한번 칼로 찍고, 다시 한번 칼을, 또 한번 칼로 찍고, 다시 한번 칼을, 몸을 뒤쳐어 올리고 가볍게 뛰어 몸을 뒤쳐어 내린다.

■ 일섬마패가[日閃馬牌歌]

해가 방패를 찌르면, 다시 방패를 찌르면 한번 칼로 찍고, 다시 한번 칼로 찍고, 몸을 뒤쳐어 올리고 가볍게 뛰어 몸을 뒤쳐어 내린다.

다시 한번 칼로 찍고, 또다시 한번 칼로 찍고, 몸을 뒤쳐어 올리고 가볍게 뛰어 몸을 뒤쳐어 내린다.

▣ 요도제[腰刀製 : 요도의 제원]

【그림 59】 요도제[腰刀製 : 요도의 제원]



▣ 요도해[腰刀解 : 요도에 대한 해설]

요도를 만드는 방법은, 쇠를 충분히 단련(鍛鍊)하여야 하며, 칼날

에는 순도(純度) 높은 강철(鋼鐵)을 써야 한다. 칼등으로부터 평평하게 깎아내고 평평하게 도려내어 칼날에 이르러야 한다. 칼날은 평평하게 갈아서 어깨뼈처럼 튀어나온 곳이 없어야 날카로우니, 그 오묘함은 칼 끝에 있다. 근래에 기술자들이 칼날을 두껍게 두드려서, 공력(功力)을 들여 평평하게 갈려고 들지를 않는다.

그래서 측면으로는 꺾어진 자죽이 빗나가고 칼날 양쪽 끝에 어깨뼈처럼 튀어나온 곳이 있어서 베어도 깊이 들어가지 않고 칼날은 단번에 이지러져 무딘 쇳덩어리가 되어버린다. 이를 마땅히 바로 잡아야 한다. 칼은 반드시 손에 맞게 가벼워야 하며, 자루는 반드시 짧아야 하며, 모양은 반드시 손에 맞게 가벼워야 하며, 휘우듬하게 굽어야 한다. 이처럼 균색한 데가 없이 순탄하고 원활하게 조건을 갖추어야 등패(籐牌)와 함께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등패의 형세를 이룩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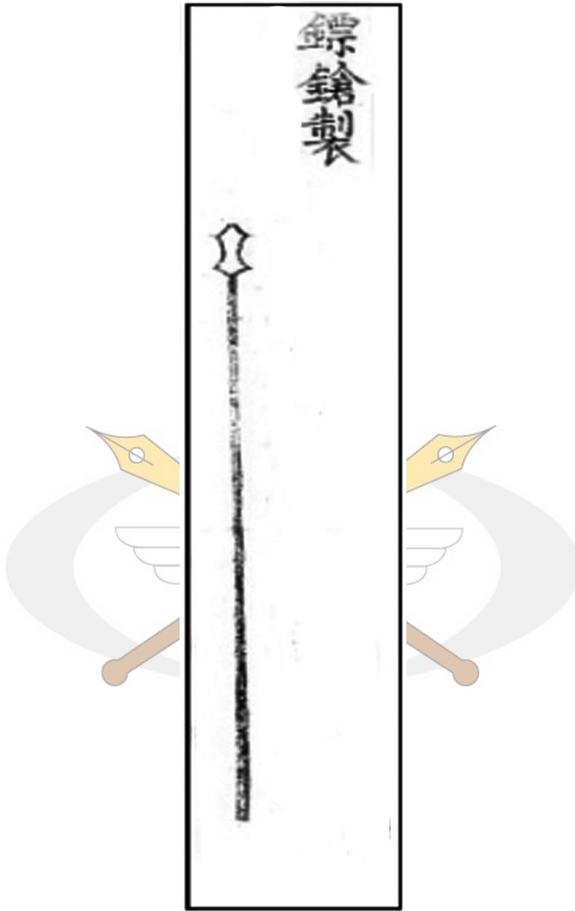
▣ 습법[習法 : 연습방법]

등패(籐牌)가 갖추어져야 한다. 등패가 없으면 칼이 짧아서 전진(戰陣)에 투입할 수 없고, 오직 마상(馬上)에서만 쓸 수 있다.

▣ 표창제[鏢鎗製 : 표창의 제원]

다음의 표창은 단단한 나무, 또는 가는 대나무를 써서 만드는데, 둘 다 쇠로 만든 칼날을 붙일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무게와 크기인데, 자루는 앞이 무겁고 뒤가 가벼우며, 앞이 굵고 뒤가 가늘어야 격식에 맞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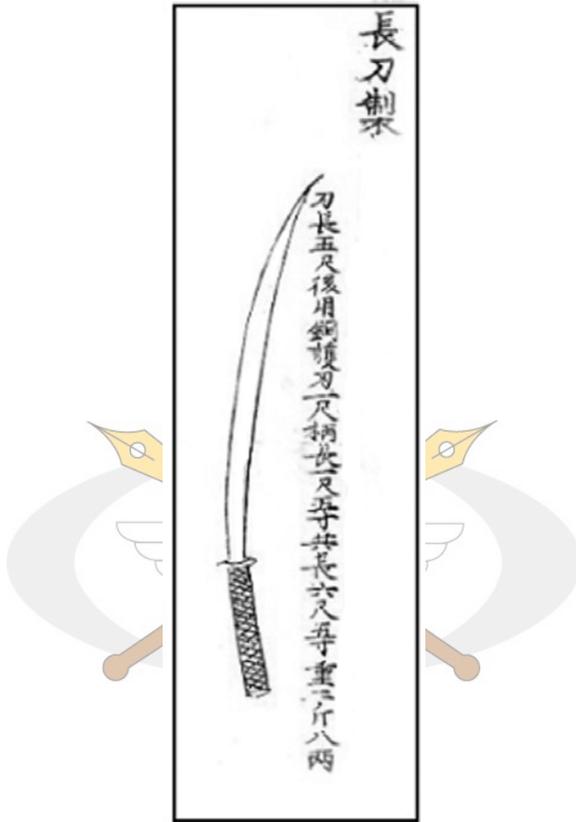
【그림 60】 표창



▣ 장도제[長刀製 : 장도의 제원]

칼날 길이 5자(150cm)인데, 뒤에 동호(銅護 : 구리 가리개)를 써서, 칼날 길이 1자(90cm) 자루 길이 1자 5치(45cm) 전체길이 1자 5치(45cm) 무게 2근 8냥(300g)이다.

【그림 61】 장도[長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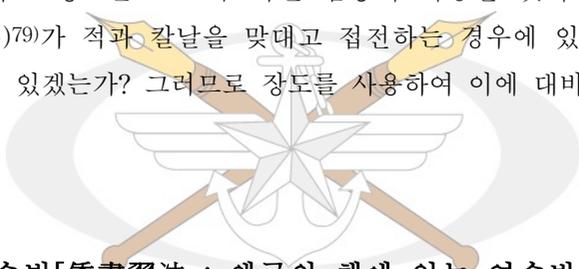
■ 장도해[長刀解 : 장도에 대한 해설]

이 장검(長劍)은 왜구(倭寇)가 중국을 침범하면서부터 처음으로 갖게 되었다. 저들이 장검을 가지고 뛰면서 춤추고 섬광처럼 번뜩이며 닥쳐오면 아군은 낮이 빠져버린다. 왜구는 뛰어오르기를 잘 하여 받을 구르면 1길(3m)이 넘게 솟구쳐 오르니, 칼 길이가 5자(1.5m)라면 전체 길이는 1길 5자(4.5m)가 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아군은 단병무기이기 때문에 그들의 장병무기와 민첩하게 접전하기가 어려워, 그들과 맞닥뜨리는 자들은 대부분 몸이 두동강이 난다. 그 날카로움을 장점으로 삼고 있으나, 두 손으로 잡고 사용하는 것은 무게가 무겁기 때문이다. 지금 만약 단독으로 이 장검만을 사용한다면 지킬 수가 없다.

그런데 조총수(鳥銃手)의 경우에는 적이 멀리 있으면 총을 발사하지만, 적이 몸 가까이 다가오면 이를 공격하고 찌를만한 다른 무기가 없다. 만약 조총수가 다른 공격용 무기를 겸해서 휴대한다면 총이 무겁고 탄알도 많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오직 이 칼이 가볍고 길어서 적이 가까이 다가왔을 경우에 총을 버리고 장도를 쓰도록 하면 검용이 가능할 것이니, 하물며 살수(殺手)⁷⁹⁾가 적과 칼날을 맞대고 접전하는 경우에 있어서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장도를 사용하여 이에 대비하게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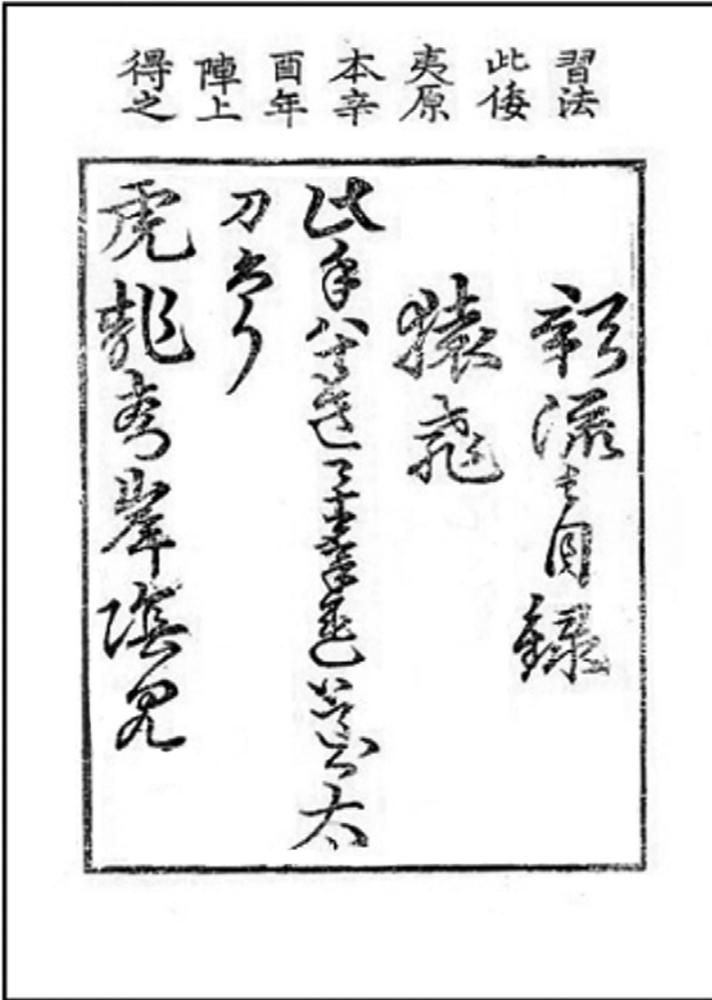


▣ 왜서습법[倭書習法 : 왜구의 책에 있는 연습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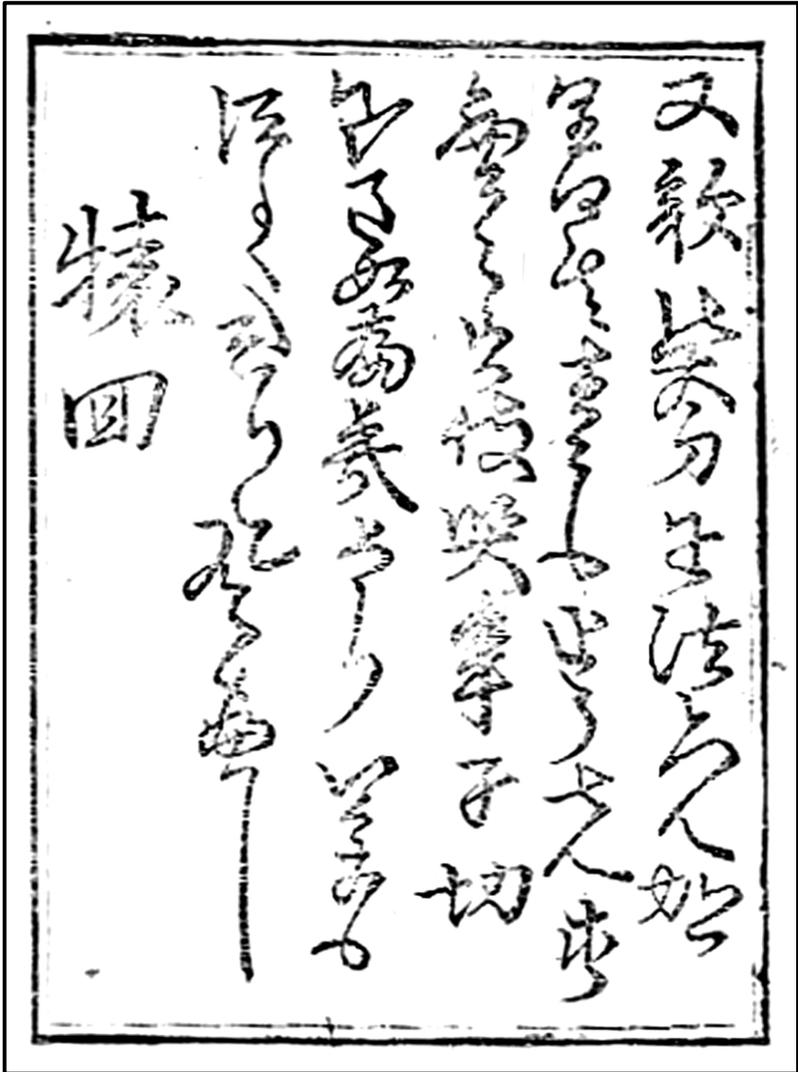
이것은 왜놈 오랑캐의 원본(原本)으로 신유년[辛酉年 : 1561년, 명(明) 세종(世宗) 가정(嘉靖) 40년]에 진영에서 얻은 것이다.

79) 주로 칼·창·권법 등으로 적과 싸우는 군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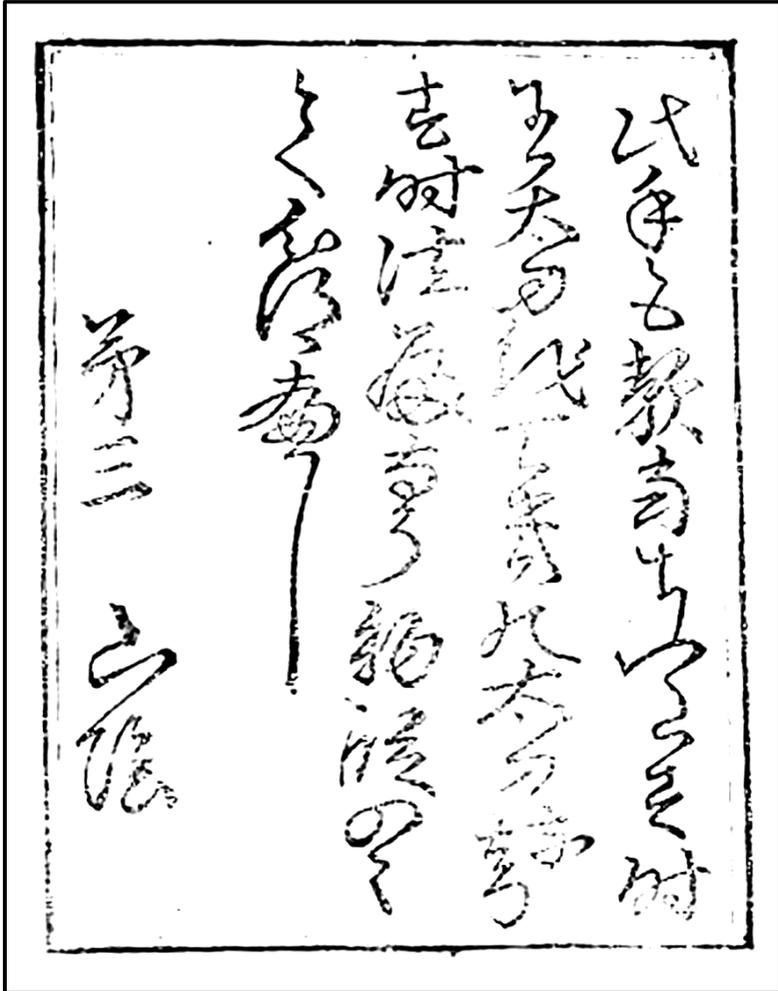
【그림 62】 왜서습법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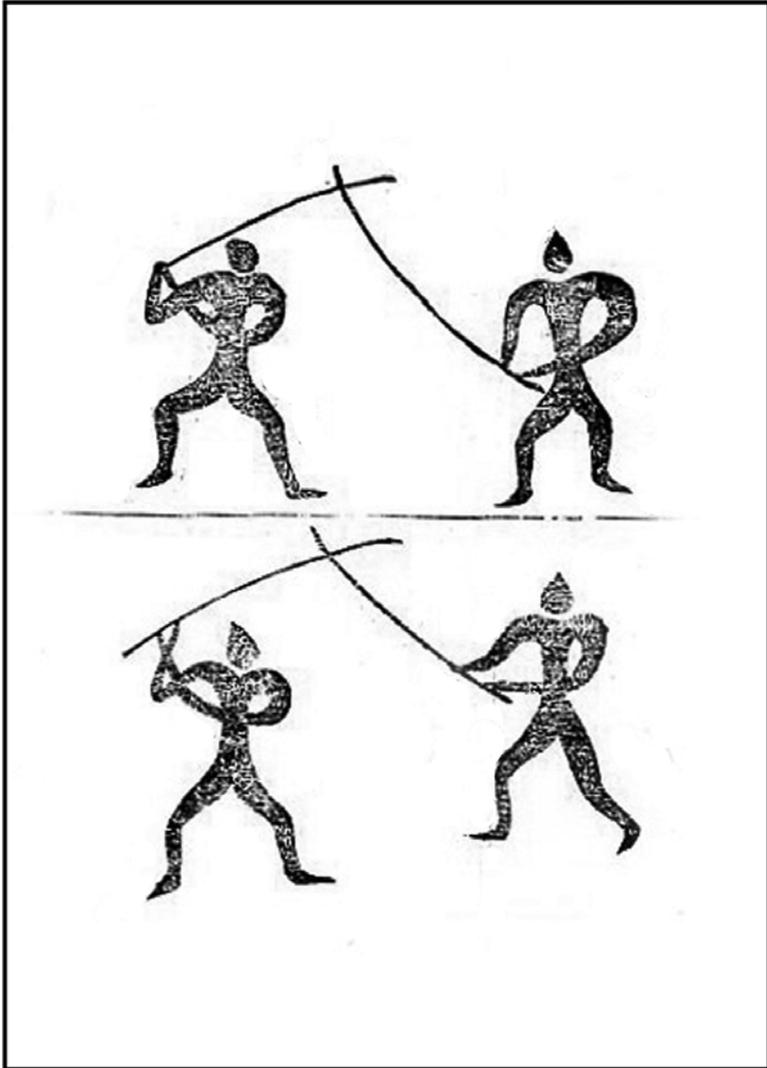
【그림 63】 왜서습법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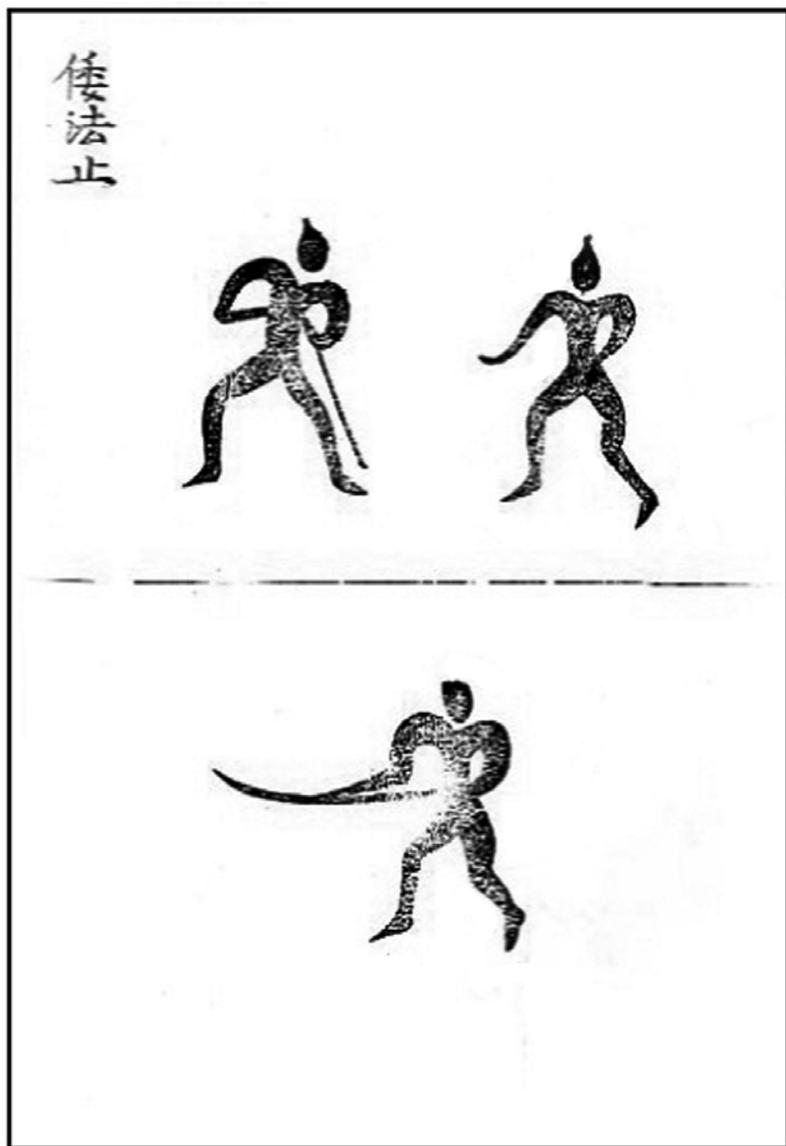
【그림 64】 왜서습법 ③



【그림 65】 왜서습법 ④



【그림 66】 왜서습법 ⑤



■ 습법[習法]

【그림 67】 연습법 ①



【그림 68】 연습법 ②



【그림 69】 연습법 ③



【그림 70】 연습법 ④



▣ 당파제[鎧鈹製 : 당파의 제원]

길이 7자 6치(228cm) 무게 5근(3kg)인데, 자루 끝은 당파 구멍에 맞아야 한다. 밑동은 대략 1치(3cm)로 끝에 이르면서 점점 가늘어진다. 너무 가늘면 힘주어서 칠 때에 쇠로 된 머릿부분이 땅에 떨어질 수 있다.

【그림 71】 당파제[鎧鉞製 : 당파의 제원]



■ 당파해[鎧鉞解 : 당파에 대한 해설]

윗부분에는 날카로운 칼날을 사용하는데 가로로 휘어진 가지가 있다. 칼날은 양날로 되어 있어 그 가운데에 하나의 ○척[脊]⁸⁰⁾이

80) 척(脊) : 이 글자의 모양이 원전에는 눈목[目]변의 [脊]자로 되어 있으나, 사전에는 이러한 형체의 글자가 없다. 전후관계로 보아서 육달[月]변의 [脊]자로 추정된다. 창이나 활촉의 칼 날 중심부에 마치 등뼈[脊]와 비슷한 줄이 있고, 이 줄을 중심으로 비스듬하게 하향해서 두 개의 날이 서있는데, 바로 이것이 ○[脊]이다.

있다.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다. 반드시 ○척[脊]을 나누어 평평하게 가는데 칼 가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한다. 양날은 ○척[脊]으로부터 날 끝에 이르기까지 평평하게 줄어들어서 얇아져야 그 날 끝이 날카로워져 오래되어도 이지러들지 않는다.

휘어진 가지는 네 개의 서슬이 있는데 이 서슬을 장점으로 삼는다. 이 네 면의 서슬을 모가 반듯하게 깎으면 또한 오래되어도 그 면이 이지러들지 않는다. 한 가운데의 칼날 머리 아래에 있는 홈은 호두나무 열매가 들어갈만한 정도가 되어야 나무자루 끝이 거기에 꼭 맞아 부서지거나 부러지지 않는다. 거기에 다시 못을 하나 박아서 고정시킨다. 횡고(橫股 : 가로로 휘어진 곁가지)는 튼튼하여야 하며, 정봉(正鋒 : 중심부의 창날)이 나무자루 끝을 가늘고 알개 썩워주면 부딪칠 때마다 훼손되는 경우가 많으니, 유사시에 창날이 훼손되면 이는 한 병사를 잃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정봉을 새로 만들되, 횡고와 합쳐서 하나로 하여 자루의 나무 끝이 쇠로 된 홈 안으로 깊이 들어가니 횡고의 홈이 더욱 두터워져서 마음대로 쳐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무기는 왜구가 침범하면 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원래 민(閩:복건)·월(粵:광둥)·천(川:사천)·귀(貴:귀주)·운(雲:운남)·호(湖:호남) 등 각지에 옛날부터 이 무기가 있어 그 제도는 서로 달랐으나, 군중에서 가장 정예로운 무기이다. 병법에 五兵과 五當이 있고 장병무기로 단병무기를 구원하고 단병무기로 장병무기를 구원한다.

단병무기의 종류는 매우 많으나 오직 이 한가지만은 공격도 할 수 있고 방어도 할 수 있으며 창과 방패 두 가지로 겸용할 수 있는 무기이다. 만약 중봉(中鋒:가운데 날)이 너무 길고 횡고(橫股:양쪽 가지)가 너무 짧으면 적의 무기를 엮어서 잡아채지를 못한다. 만약 중봉과 횡고가 가지런하면 깊이 찌르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만약 중봉은 반드시 높이가 2치(60cm)이어야 하며, 양쪽의 횡고는 평평하여 화전(火箭:불화살)을 걸칠 수 있게 하여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화살걸이로 사용하게 한다.

이 무기를 잡는 병사 2명마다에게는 화전 30대를 주어서 적이 멀리에 있으면 여기에 화살을 걸어서 불을 붙여 발사하게 하고, 적이 가까이 다가오면 화살을 버리고 본래의 무기를 사용하게 한다. 이와 같이 완전하고 빈틈이 없어서 싸우면 늘 이길 수 있는 계책인 것이다.

▣ 당파습법[鎗鈹習法 : 당파의 연습 방법]

당파가 칼과 대적할 경우, 적이 나의 네 모퉁이, 또는 네 모퉁이 아래쪽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얽혀매이지 말고 후수(後手, 전수와 후수: 무기의 뒷 부분을 잡은 손. 무기를 잡은 자가 오른손잡이 일 경우에는 왼손이 전수가 되고 오른손이 후수가 되며, 무기를 잡은 자가 왼손잡이일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될 것임)를 높이 들어 올려 죽이 되[스스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온 몸으로 중심을 차단하면서 죽인다.[정(丁)자 걸음은 죽이기 위한 것이다.]

적이 높이 들어 올릴 경우, 나는 곧 쫓아 나아가서 그 위를 벤다. [온 몸으로 중심을 차단하면서 죽이되, 후수는 높고 평평하게 하여 앞으로 나아간다.] 내가 나아가 당파로 중심을 차단할 때 적이 곧 바로 이를 쳐서 떨어면 나는 당파를 가지고 대문(大門)⁸¹⁾을 부수면서 위로 들어올렸다가 눌러서 떨어뜨린다. 만약 내가 곤봉을 들고 갈 경우, 적으로 하여금 치고들지 못하도록 하라.

81) 대문(大門) : 인체의 혈위(穴位) 명칭. 앞가슴 바깥 윗부분으로서, 빗장뼈 바깥 끝임.

▣ 습과보법[習鈹步法 : 당과의 걸음걸이 연습방법]

보법(步法)에는 십진(十進)의 걸음걸이가 있으니, 마치 고리와 같아서 끝이 없다.

- ① 한 발 나아가면 중평(中平)으로 대압(大壓)에 해당
- ② 한 발 더 나아가면 압사(壓死)
- ③ 한 발 더 나아가면 소압(小壓)에 해당
- ④ 한 발 더 나아가면 압사(壓死)
- ⑤ 한 발 더 나아가면 고대당(高大當)에 해당
- ⑥ 한 발 더 나아가면 대압사(大壓死)
- ⑦ 한 발 더 나아가면 고소당(高小當)에 해당
- ⑧ 한 발 더 나아가면 소압사(小壓死)
- ⑨ 한 발 더 나아가면 고대당
- ⑩ 한 발을 더 나아가면 대압사

○ 대문(大門 : 흉곽 상부)을 붙잡으면서 짐짓 갈고리를 내리고 갈고리를 끄니 매우 오묘하며, 물 흐르듯이 내려가니 갈고리는 적을 베지는 않는다.

○ 무릇 당과(鎗鈹)가 약한 상대를 만나 이들을 죽일 경우에는 반드시 아군의 대기(大旗)의 깃대를 보이면서 기세를 올리면 쉽게 저들을 굴복시킬 수가 있다.

무릇 격과할 적을 만나 앞으로 나아갈 경우에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들어가야 할 것이니, 반드시 한 푼 한 치라도 떨어저서는 안된다. 지금 만든 ‘과보(鈹譜 : 당과 연습방법)’로 그들을 공략하여 확실히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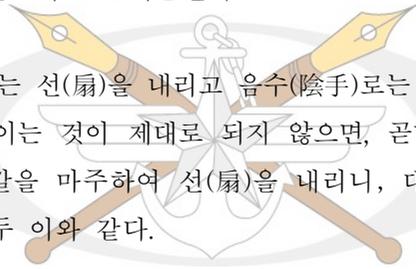
○ 적과 대적할 경우에는 곧바로 일어서서 적의 몸을 때려서 넘어뜨려야 하니, 이와 같이 하면 달아나더라도 거의 나란히 곧장 가게 되니 이는 아주 좋은 것이다.

- 적이 칼을 내리쳐 올 때 나는 대문으로 물이 흘러들어가듯이 추격하거나, 소문(小門)으로 물이 흘러들어가듯이 모두 다 배지 않는다.

적의 칼이 곤봉처럼 쓰여지면 반드시 계속하여 대적해서 상대방을 불러 일으킨다.(또 특히 자세를 시작할 때 손을 씌에 마치 대문으로 물이 흘러들어가듯이 가도 또한 괜찮다.)

- 적의 칼이 가운데를 막고 곧바로 다가오면 나는 곧바로 위로 나아가 아래를 누르고 가운데를 막으면서 발을 빼고, 형세에 따르고, 걸음의 각도를 전환하면서, 다시 당파로 적의 몸을 지나쳐 적의 몸을 갈고리로 끌어들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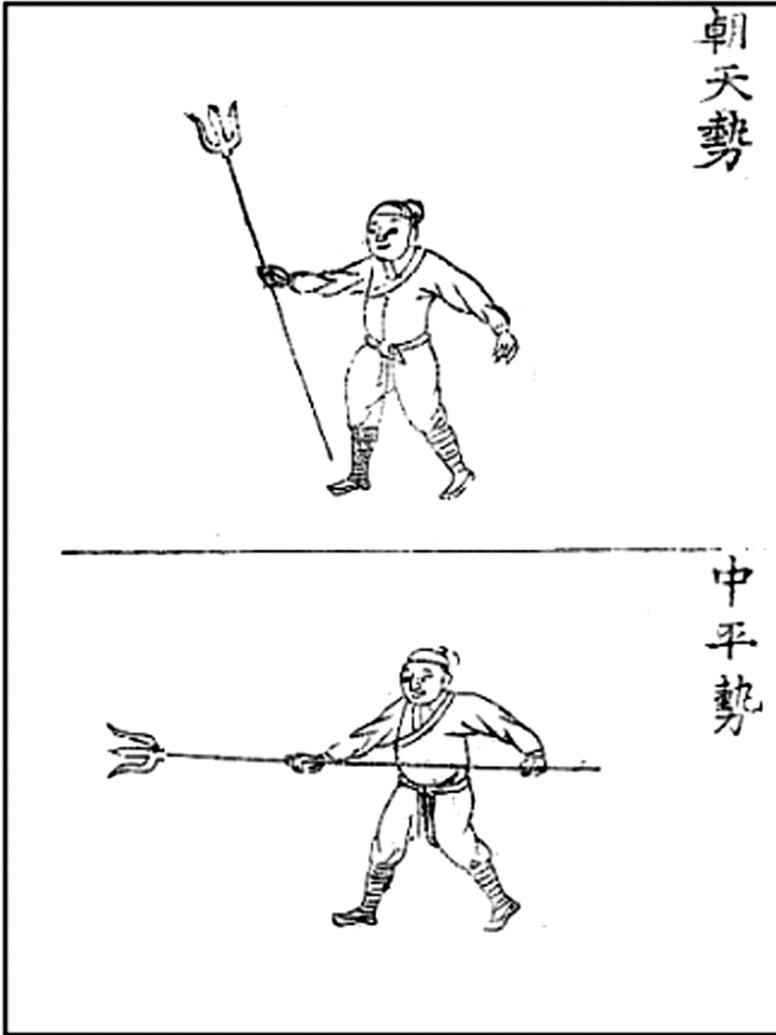
- 양수(陽手)로는 선(扇)을 내리고 음수(陰手)로는 적을 끌어들이니, 적을 끌어들이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곧바로 빠르게 적의 몸과 적의 칼을 마주하여 선(扇)을 내리니, 대문(大門)과 소문(小門)이 모두 이와 같다.



- 무릇 당파(鎗鈹)를 시작함에 있어서 적이 거꾸로 닥쳐오면, 반드시 적의 형세를 따라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하여 떨어뜨리는데, 무릇 당파를 내림과 올림도 이와 같으니, 반드시 이를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디라.
- 무릇 적의 칼이 나의 각도(角度) 안으로 들어오려 하면 곧바로 무릎을 굽히며 물러난 뒤에 다리를 저울처럼 일으키라.[이는 곧 천균(千鈞)⁸²을 움직이는 것이다.]

82) 천균(千鈞: 3만근) 1만8천kg. 1균(鈞) = 30근(斤) × 1,000 = 30,000근 × 0.6kg = 18,000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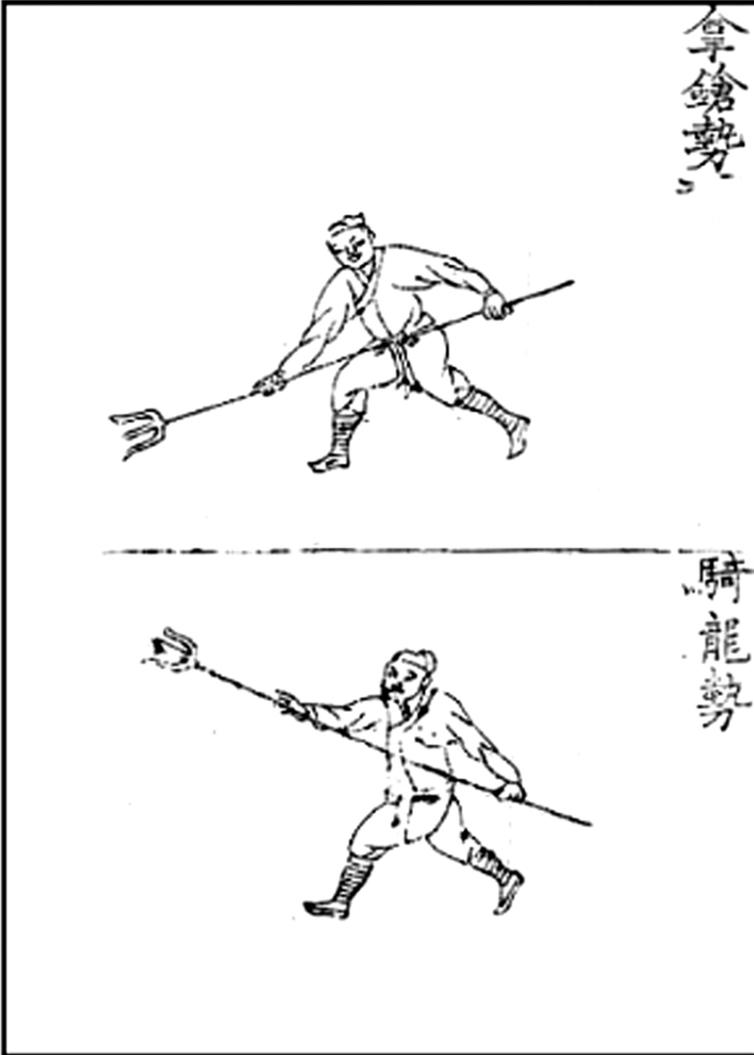
【그림 72】 조천세(朝天勢 :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세)
중평세(中平勢 : 중심이 잡히고 평평한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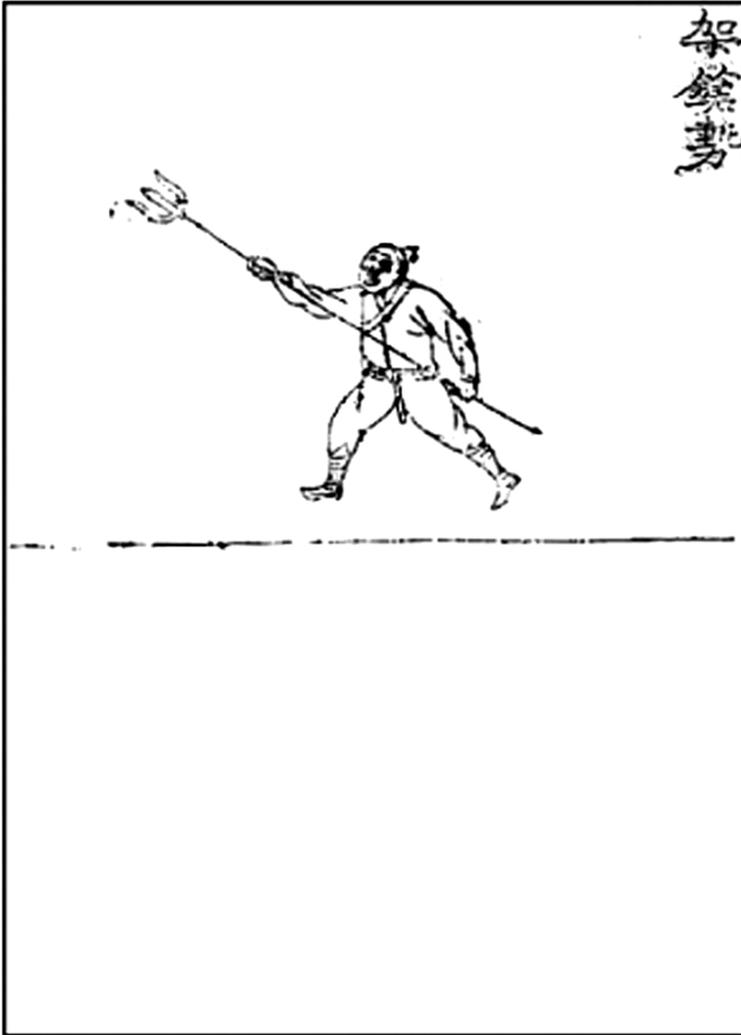
【그림 73】 진보세(進步勢 :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
복호세(伏虎勢 : 엎드린 호랑이의 자세)



【그림 74】 나창세(拿鎗勢 : 창을 붙잡은 자세)
기룡세(騎龍勢 : 용을 탄 자세)



【그림 75】 가쟁세(架鎗勢 : 시렁에 창을 건너지르는 자세)



▣ 낭선제[狼筍製 : 낭선의 제원]

길이 1길 5자(150cm) 무게 7근(4.2kg)으로, 대나무와 쇠 두가지 종류가 있다. 붙여진 가지의 수는 9겹, 10겹, 11겹 등 여러 가지가 있어 더욱 오묘하다.

【그림 76】 낭선제[狼筍製 : 낭선의 제원]



▣ 낭선해[狼筴解 : 낭선에 대한 해설]

이 무기(武器)는 형체가 무겁고 굵아서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몹시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다른 전투기술처럼 들고 나기에 편리하거나 빠르지를 못하여 정예(精銳)로운 무기가 아닌것 처럼 여겨진다. 특히 행군(行軍) 대열의 울타리나 한 부대의 문호(門戶), 예컨대 사람이 사는 집에 문빋장과 자물쇠가 없는 것과 같다. 비록 그렇다고는 하나, 적임자를 얻어 이를 운용하면 충분히 적을 제어(制御)할 수 있을 것이니, 적임자를 얻지 못하면 적에게 제어를 당하는 것이다. 간장(干將)과 태아(太阿) 같은 보검의 날카로움을 코흘리개 동자(童子)에게 내맡겨서 도성문(都城門) 밖에 세워두면 반드시 옷통을 벗어던지고서 이를 빼앗을 자가 있을 것이니, 그 까닭은 어째서인가?

그 능한 바가 그 부리는 바와 어긋나기 때문인 것이다. 무릇 낭선(狼筴)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마디가 뻑뻑하고 가지가 튼튼해야 하며, 가는 가지에는 날카로운 칼날을 붙여야 하니, 힘이 세어서 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물건의 부림을 받게 해서는 안된다. 그런 다음에 방패(防牌)로 그 앞을 가리고 장창(長槍)으로 그 좌우를 돕게 해야 한다.

당과(鎗鈹)와 대도(大刀)가 뒤에서 날개를 부딪침에 낭선(狼筴)은 방어는 할 수 있되 죽일 수는 없으니, 여러 가지 날카로운 무기들이 서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겨서 성공하는 경우가 드물 것이다. 진중(陣中)에서 반드시 이 무기를 써야 하는 이유는 군사들의 마음이 적을 마주하여 두려워함으로 동요되기 때문인 것이다. 다른 병기(兵器)는 단순하고 알팍하니, 사람들의 배짱이 흔들리고 없어져서 비록 평일에 충분하고 정성스럽게 익혔다고는 하나, 곤잘 너무 급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옛 모습을 잊어버리고 만다. 그러나, 오직 낭선만은 가지와 휘추리가 무성하고, 한 몸을 가려 막아 덮기에 넉넉하다. 이와 같이 당장 눈앞의 믿을만한 병기이니, 씩씩한 담력

(膽力)과 기운을 돕기에 충분하여 많은 사람들을 안정시켜주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다.

예컨대 적이 대기(大旗)를 사용하면 다만 갈고리가 있는 가지고기와 맞서서 전개하여 오되, 더불어 싸우지 않으며, 다만 낭선(狼筍) 3~4대를 아주 가지런하고 질서있게 비스듬히 빗겨 세워서 적의 대기(大旗) 깃면 위로 보내니, 기(旗)가 낭선 갈고리에 맞아 떨어지고 다시 치켜올려지지 못하니 곧바로 아군(我軍)의 장창(長槍)이 짝어서 제거해버리니 이는 반드시 격파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낭선의 가지에 겹수가 부족하면 다른 가지를 갖다가 겹수를 늘려 묶어 등나무 덩굴로 그 수를 채운 뒤에 멈춘다. 만약 밑동이 가벼우면 다른 나무를 여기에 이어서 낭선의 칼날을 무겁게 하여 반근(300g) 이상 무겁게 하고 또 가지를 붙일 수 있으니 손에 가까운 두 겹 이외의 나머지는 모두 갈고리를 뒤집어 그 가는 가지의 밑동을 씌운 뒤에 두텁고 무겁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손으로 한 가운데를 잡게 하여 앞과 뒤가 서로 대응하여 균형이 잡혀야 하니, 뒤가 무거울지언정 앞이 무겁지 말아야 할 것이니, 붙여놓은 가지가 부드러우면 칼이 이를 자르지 못하고 겹이 깊으면 장창이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스스로 담대해져서 선두의 대열에 선다. 남방의 날카로운 무기인 낭선의 대나무는 절민지역(浙閩: 절강성과 복건성)이 양광지역(兩廣: 광둥성과 광서성)만 못하다. 절민지역에서는 모죽(茅竹)을 쓰고 양광지역에서는 늑죽(籐竹)을 쓴다. 옛날에 절강 등지의 병사들이 훈련이 되지 않고 담력이 없어 낭선을 잡고 대열 앞에 서서 적과 맞닥뜨리게 되면 번번히 낭선을 팽개쳐 버려 적이 그것을 손에 넣어 도리어 아군을 막고 찌르니, 아군은 거의 낭선을 버리고 운용하지 않았다. 병사들의 훈련이 이루어진 것을 계기로 하여 남고 다른 의견을 말하노니, 반드시 낭선을 전열에 세워서 마침내 백전백승(百戰百勝)을 이룩한다면 비로소 이의가 없게 될 것이다.

▣ 낭선습법[狼筍習法 : 낭선의 연습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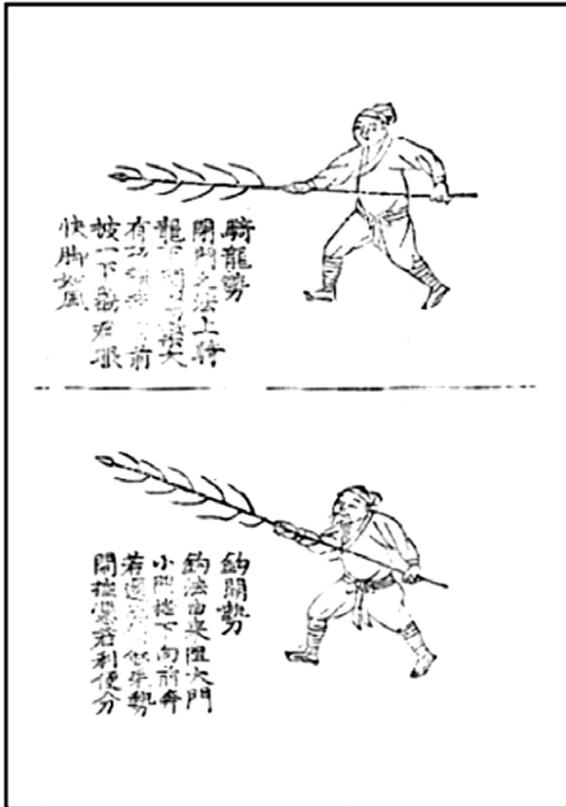
【그림 77】 추보퇴세(拗步退勢 : 비틀걸음으로 물러나는 자세)
중평세(中平勢 : 가운데에 중심을 잡은 평평한 자세)



◆ 곧바로 나아가고 곧바로 물리나라. 그대는 반드시 기억하라. 멈춰서면 곧바로 중심이 잡히고 평평한 자세(中平勢)를 취하여 고저좌우를 그대의 행동에 맡겨 절대로 적의 구갑(鉤闌 : 낭선을 제압하기 위한 갈구리)을 쥐기를 경솔히 하지 말아라.

- ◆ 이 자세는 활을 앞으로 하고 화살을 뒤로 하듯이 음과 양이 전환 되어야 하니, 두 손을 굳게 하고 밀고 나아가기를 바람처럼 빠르게 하면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다.

【그림 78】 기룡세(騎龍勢 : 용을 탄 자세)
구개세(鉤開勢 : 갈구리를 펼친 자세)



- ◆ 폐문법(閉門法)에 용을 타고 굳게 닫힌 갑문(闢門)에 내리니 공을 이룸이 많으리라고 하였으니, 만약 상황에 닥치면 용을 탄 자세(騎龍勢)를 한 번 펼쳐 볼 것을 그대에게 권한다. 눈이 상쾌하고 다리가 바람처럼 빠를 것이다.

- ◆ 갈구리 쓰는 법은 대문(大門)과 소문(小門)을 막는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 아래를 꺾고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 만약 적이 갑자기 승세를 타고 몰려오면 그대의 이롭고 편함에 의거해서 분별하라.

【그림 79】 구개세(鉤開勢 : 갈구리를 펼친 자세)

갑하세(闞下勢 : 굳게 닫힌 갑문 아래에서의 자세)



◆ 적이 장창을 휘두르며 달려오면 반드시 시령에 창을 건너지르는 자세(架鎗勢)를 취해야 하는데, 이 자세를 쓸 때 위를 단속하고, 또 아래를 단속하여 음과 양이 뒤바뀌니 다리가 바람처럼 빠르다. 철주(鐵柱)는 매우 단단하여 결코 파괴되지 않으니, 찌르면 두려워한다.

◆ 갑하세(開下勢 : 굳게 닫힌 갑문 아래에서의 자세)

갑문 아래에서의 자세는 어디에서 연유된 것인가? 설각(挈脚 : 다리를 끄는 것)이다. 설각은 바로 보법(步法)을 시작하는 것이니, 연속하여 몸을 멈추다가 아래로 향해 나아가되 위쪽을 치지 않고 아래쪽을 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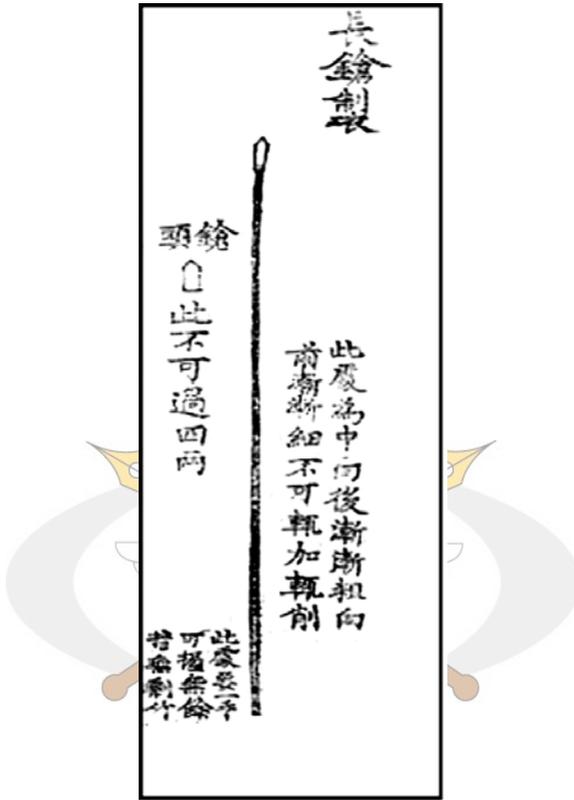
■ 장창제[長槍製 : 장창의 제원]

○ 이 부분은 가운데가 되니, 뒤로 가면서 점점 굽어지고, 앞뒤로 가면서 향해 점점 가늘어져야 한다. 갑자기 굽어지거나 갑자기 가늘어지면 안된다.

○ 창두[鎗頭 : 창머리] : 이것은 4냥(18.75g)이 넘으면 안된다.

○ 이 부분은 한 손으로 쥘 수 있어야 하며, 손가락이 남아서도 안되고 대나무가 남아서도 안된다.

【그림 80】 장창제[長槍製 : 장창의 제원]



▣ 장창해[長槍解 : 장창에 대한 해설]

창 자루는 단단한 나무가 가장 적합하니 나무는 가볍고 약간은 부드러워야 한다. 다음으로는 쪼개고 가르는데 있어서 잘라서 펼쳐 놓은 모습이 아름답다해도 나무결이 빳빳하게 엮나가고 부러지거나 꺾여지기 쉽고 대나무로서 밑동이 휘청휘청하는 것은 결코 쓸 수가 없다. 북부지방은 기후가 건조하여 대나무는 쓸 수가 없고 나무로 자루를 만들어야 쓸 수가 있으며, 동남지방은 대나무와 나

무를 다 통용할 수 있으니, 창을 만드는 기술자들은 창을 운용하는 대의를 알고 안 연후에야 바야흐로 법식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가르친 지 십일에 곧바로 그 핵심(背繁)을 깨달아 후수(後手: 창자루의 뒷부분)가 가늘면 손아귀에 쥐는 것이 든든하지 못하니, 후수는 반드시 두툼하여 꼭 쥘수 있게 하여야 한다. 창자루 밑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가늘고 곧게 나아가서 맨 윗부분에 이르러서 멈춘다. 가운데 허리부분이 두툼하면 너무 단단하여 창을 잡을 수가 없고, 이 부분이 가늘면 휘청휘청하고 힘이 없어 비록 창을 다루는 솜씨가 절묘하다 할지라도 적의 창과 맞닥뜨려서 이를 몰아부칠 수가 없다. 창자루를 만들기 시작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자루가 너무 굵고 가운데 허리부분이 너무 단단한 것이니 (이는) 모두 쓸모가 없으니, 이는 버려야 할 창들이다. 창법(槍法)이 전해진 것은 양씨(楊氏)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이를 일러 '이화창법(梨花槍法)'이라 하였다.

천하(天下)사람들이 모두 이를 숭상하니 그 오묘함은 오로지 이에 숙달하는 데에 있을 뿐이었다. 숙달하면 마음은 손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손은 창이 있음을 잊어버려 정신이 회탕해져 거칠 바가 없어진다. 또 고요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으니, 고요하면 마음이 함부로 동요하지 않고 이를 대처함에 넉넉함이 있으니, 별안간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여 종잡을 수 없이 빠른 변화를 헤아릴 수가 없으며, 신기한 조화가 끝이 없다. 후세(後世)에 그 오묘한 이치를 체득한 자가 드물며, 더러는 있었다 하나 비밀스레 간직하여 전하지 않거나, 전했다고는 하나 그 참 모습을 잃어버렸다. 이로써 세상에는 마침내 사가(沙家)와 마가(馬家)의 창법(槍法)이 유포되었다.

대개 사사(沙家)의 간자(竿子)⁸³와 마가(馬家)의 장창(長槍)이 각

83) 간자(竿子) : 나라의 잔치 때에 여러 가지 춤을 추는 데 쓰던 제구의 하나. 길이 2~3m 되는 붉은 칠을 한 나무자루 위에 가는 대 100개를 꽂고, 붉은 실로 엮은 다음, 대끝 3cm 가량 아래로부터 금박한 종이에 수정 구슬을 달아서 장식(裝飾)하였음.

각 그 오묘함을 갖추고 있으나 장점과 단점이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운용에 있어서는 오직 양가창법(楊家槍法)에 허실(虛實), 기정(奇正), 허허실실(虛虛實實), 기기정정(奇奇正正)이 있고, 그 날카로운 나아감, 그 빠른 물러남, 그 험한 형세(形勢), 그 짧은 절도(節度)는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산과 같고, 움직일 때에는 천둥이 울고 벼락이 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이십년 이화창(梨花槍)이 천하(天下)에 적수(敵手)가 없다.”고 하였으니, 참으로 그렇구나!

그런데 부대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이는 어째서인가? 법식(法式)은 간략(簡略)해야 하고 동작은 분명해야 하니, 간략하지 않으면 얼기설기 뒤엎혀서 혼란함을 풀지 못하고, 분명하지 않으면 나아감과 물러남에 있어서 힘차게 달리고 움직일 수가 없다. 좌우에서 반드시 단병무기(短兵武器)로 도와, 장병무기(長兵武器)와 단병무기가 서로 호위(護衛)하여, 적과 야군으로 하여금 서로 의지하는 형세를 유지하여야 그 기세(氣勢)를 드러낼 수 있고, 그 기능(技能)을 펼칠 수 있게 되어 패함에 이르지 않는 것이다.

▣ 장창습법[長鎗習法 : 장창을 연습하는 방법]

- ◆ 야차탐해세(夜叉探海勢 : 두억시니가 바다를 헤집고 다니는 자세)
이 자세는 지창행립간수지법(持鎗行立看守之法 : 창을 잡고 서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적을 만나면 자세를 변화시켜 때에 따라 응용하니, 절도에 맞지 않음이 없다.
- ◆ 사이빈복세(四夷賓服勢 : 사방의 오랑캐가 와서 따르는 자세)
이 자세는 중평창법(中平鎗法 : 가운데에 중심을 잡고 평평한 자세로 창을 쓰는 법)으로, 육합창(六合鎗)이 이십사세(二十四勢)의

원기를 주관하여 부리니, 오묘한 변화가 무궁하여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무기가 그 여러 가지 자세를 당적해내는 경우가 드물어서 그 빠름을 따를 수가 없다.

【그림 81】 야차탐해세(夜叉探海勢)
사이빈복세(四夷賓服勢)



【그림 82】 지남침세(指南針勢)
십면매복세(十面埋伏勢)



◆ 지남침세(指南針勢 : 나침판 바늘과 같은 자세)

이 자세는 상평창법(上平鎗法 : 위로 창을 평평하게 하는 방법)과 비슷하다. 한 적을 만나면 자세를 변화시켜 때에 따라 응용하니, 절도에 맞지 않음이 없다. 가까운쪽의 손을 써서 중심이 잡힌 평평한 자세를 취하면서 친다. 그 규칙이 육합창(六合鎗)의 변화를 벗어나지 않으니 마음속에 깨달아 넓혀지는 바가 있어 이십사세(二十四勢) 가운데 절반을 격파할 수 있다.

◆ 십면매복세(十面埋伏勢 : 열 곳에 몰래 숨어있는 자세)

이 자세는 하평창법(下平鎗法 : 아래로 창을 평평하게 하는 방법)이다. 문호(門戶)의 윗쪽이 긴박할 경우에는 상평창법(上平鎗法 : 위로 창을 평평하게 하는 法)으로 전환하니, 공교로운 숨씨가 중평법(中平法 : 가운데에 중심을 잡고 평평한 자세로 창을 쓰는 법)의 정묘함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 자세는 여러 가지 자세를 굴복시킬 수 있다.

【그림 83】 청룡헌조세(靑龍獻爪勢)

변란세(邊攔勢)



◆ 청룡헌조세(靑龍獻爪勢 : 청룡이 발톱을 내미는 자세)

이 자세는 고안출군창법(孤雁出群鎗法 : 외로운 기러기가 무리에서 빠져나오는 창법)이니, 갖가지 자세로 치는 가운데에, 창을 휘둘러 사람을 찌름에 이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 변란세(邊攔勢 : 측면을 차단하는 자세)

이 자세는 이과문봉폐쟁법(裡把門封閉鎗法 : 안으로 휘어잡아 문을 닫아 걸고 창을 감추는 방법)이니, 문호를 지킴에 있어서 엮어서 쥐고 뒤집어 잡아당기며, 재빨리 되먹이치는가 하면, 위로 찌르고, 손과 발을 곧추 세우는 방법 등이 있다. 적이 말을 타고 나오기를 기다려 한 창으로 맞이하되, 마치 비파를 껴안고 있는 듯이 몰래 숨어 있으라.

**【그림 84】 철번간세(鐵翻竿勢)
과검세(跨劍勢)**



◆ 철번간세(鐵翻竿勢 : 쇧덩이가 날아가 장대를 뒤집는 자세)

이 자세는 외과문황룡점간창법(外把門黃龍點竿鎗法 : 밖으로 휘어잡아 문을 닫아 걸고 황룡이 장대를 끄덕이는 창법)이니, 한번 찌르고 두 번 나아가 뱀이 바람을 희롱하며 메추리를 낚아채듯이 호락호락하게 놓치지 않는다.

◆ 과검세(跨劍勢 : 칼을 타고 넘어가는 자세)

이 자세는 군란창법(拮攔鎗法 : 주으면서 막는 창법)이니, 문호를 열어놓고 적을 유인하여 나를 뒤쫓게 하다가, 중도에 잡아채서 베어 버리니, 이것은 적의 약점(虛)이요 아군의 강점(實)이다. 그러나, 요화창(搖花鎗)은 적의 강점이 되고 아군의 허점이므로, 봉퇴구호지법(棚退救護之法)을 쓴다.



【그림 85】 포지금세(鋪地錦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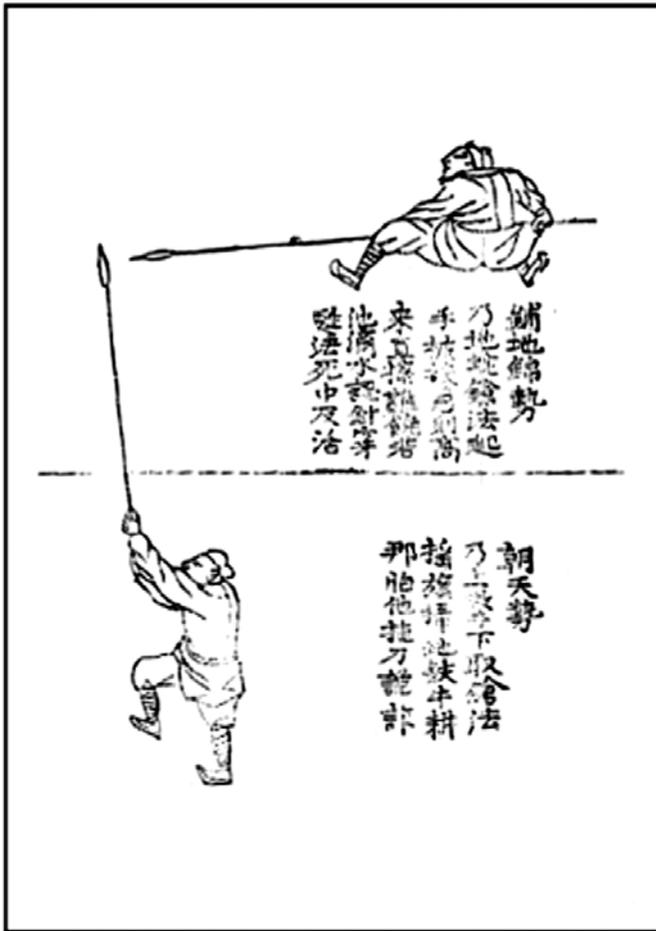
조천세(朝天勢)

◆ 포지금세(鋪地錦勢) : 비단을 땅바닥에 깔아놓은 듯 한 자세)

이 자세는 지사창법(地蛇鎗法 : 땅바닥에 있는 뱀모양의 창법) 이니, 손으로 들쳐서 밀어부치기를 급히 하면 몰려와서 밀어낼 것이니 해쳐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만약 적이 적수인침천소법(滴水認針穿甍法 : 물방울이 바늘귀를 꿰고 살길을 뚫는 법)을 쓰면 죽는 가운데에도 도리어 살아난다.

◆ 조천세(朝天勢 :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세)

이 자세는 상경하취창법(上擎下取鎗法 : 위로 떠받들어 올리고 아래로 의지하는 창법)이니, 깃발을 흔들며 땅을 쓸고, 무쇠로 지어부은 소가 쟁기질을 하는 것과 같으나, 적의 속임수인 타도계(拖刀計 : 거짓으로 패하는 체 하며 칼을 끌며 달아나는 계책)에 빠질까 염려된다.



【그림 86】 철우경지세(鐵牛耕地勢)
적수세(滴水勢)



◆ 철우경지세(鐵牛耕地勢) : 무쇠로 지어부은 소가 쟁기질을 하는 것과 같은 자세)

이 자세는 급도대창법(急搗確鎗法 : 빠르게 방아찡는 창법)이니, 힘있게 나아가고 힘있게 돌아와, 무르면 안된다. 오직 이 창은 적이 낮게 엎드려서 야군의 창을 피할 빈틈이 없을 뿐이니 마치 흑룡(黑龍)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

◆ 적수세(滴水勢 :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자세)

이 자세는 당겨서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순수봉점두피박중교진세(順手鳳點頭披撲中巧進勢 : 손을 따라 봉황이 머리를 끄덕이며 잡아채는 가운데에서 공교롭게 나아가는 자세)이다. 기룡세(騎龍勢 : 용을 탄 자세)를 써서 나아가면 봉퇴구호지법(棚退救護之法)을 쓴다. 만약 낮은 자세를 흐트러뜨리면 함께 땅바닥에 엎드릴 수가 없으므로 창이 백발백중할 것이다.

【그림 87】 기룡세(騎龍勢)

백원타도세(白猿拖刀勢)



◆ 기룡세(騎龍勢 : 용을 탄 자세)

이 자세는 요보창법(搖步鎗法 : 비틀걸음 창법)이니, 나아갈 때에는 풀밭을 휘저어 뱀을 찾는 발초심사(撥草尋蛇)의 자세가 있고, 물러날 때에는 측면을 차단하는 변란(邊攔)의 자세가 있고, 이화창(梨花槍)을 구호하는 구호이화(救護梨花)의 자세가 있다. 배틀의 바디를 회전하여 실꾸리 넣는 북을 뚫듯이, 창검이 빗발과 무지개처럼 교차한다.

◆ 백원타도세(白猿拖刀勢 : 흰 원숭이가 칼을 끄는 자세)

이 자세는 양수사회창법(佯輸詐回鎗法 : 거짓으로 패하는체 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속이는 창법)이니, 거꾸로 돌아서 완강하게 전진하면 기룡세(騎龍勢 : 용을 탄 자세)를 써서 발걸음을 따라 엮어서 막고, 의지할 바를 무너뜨리고, 맞이하 막으며, 농화창(弄花鎗)에 대응하여 나아가면 중심이 잡히고 평평한 자세(中平勢)도 격파된다.

【그림 88】 비파세(琵琶勢)
영묘착서세(靈猫捉鼠勢)

◆ 비파세(琵琶勢 : 비파를 타는 자세)

이 자세는 백우전각창법(白牛轉角鎗法 : 흰소가 뿔을 돌리는 자세의 창법)이다. 위에서는 갈고랑이가 나아가서 꺾고, 가운데에서는 회전하고 자르며 밀쳐 당기고, 아래에서는 노를 저어 배틀북을 움직이는 것처럼 빠르게 하니, 청룡이 발톱을 내미는 자세(靑龍獻爪勢)와 같다.

◆ 영묘착서세(靈猫捉鼠勢 : 신령스런 고양이가 쥐를 잡는 자세)

이 자세는 무중생유창법(無中生有鎗法 :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삶이 있는 창법)이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짐짓 아래로 엎드려 구르는 체하는 속임수로 적의 창을 움직이면 이화창(梨花鎗)으로

맞아서 누르되, 하늘을 후벼 찌르고 때리는 자세(挑天冲打勢)와 같다.



【그림 89】 태산압란세(太山壓卵勢 : 큰 산이 알을 누르는 자세)

이 자세는 응착토지법세(鷹捉兔之法勢 : 매가 토끼를 잡는 법의 자세)이다. 몸을 높이 일으킨 가운데 변하여 바깥이 있으니, 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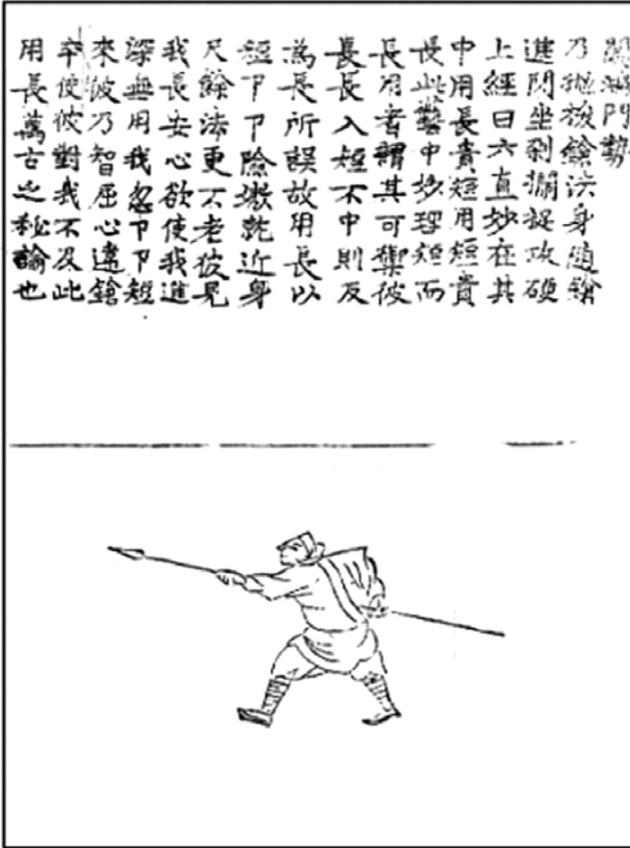
바닥에 기는 뱀처럼 매복한 적이 아군을 치도록 내버려둔 다음,
다시 깃발을 끄덕거리려 흔적없이 쓸어버린다.



【그림 90】 미인인침세(美人認針勢)
창룡과미세(蒼龍擺尾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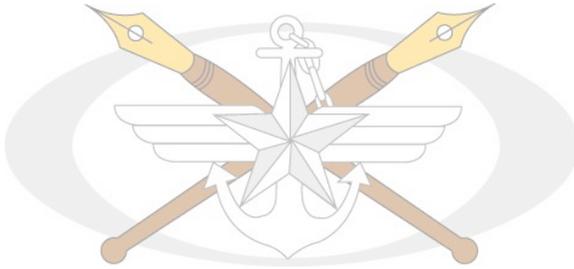


【그림 91】 틈홍문세(闖鴻門勢 : 홍문으로 밀고 들어가는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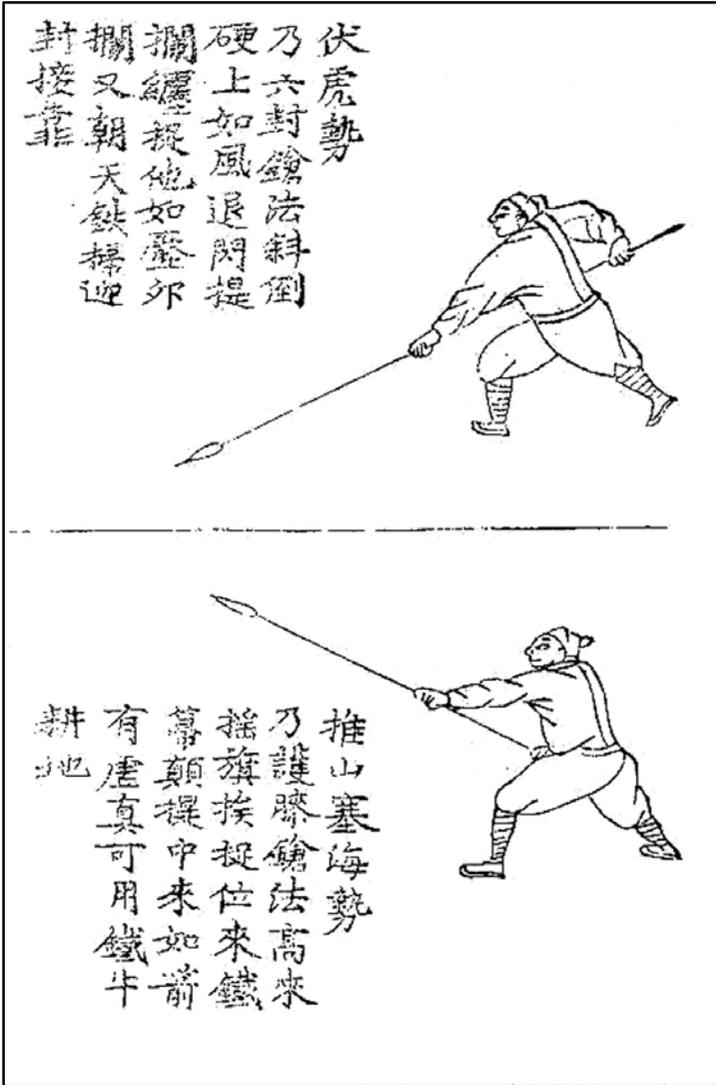
이 자세는 포사창법(拋梭鎗法 : 베틀 북을 던지는 창법)이다. 몸을 따라 창이 나아가 재빨리 몸을 낮추어 자르고 막아 잡아 치면서 힘차게 위로 올린다. 경(經)에 말하기를, “육직(六直)은 오묘함이 그 안에 있다. 긴 것(長)을 씬에 짧은 것(短)을 귀히 여기고, 짧은 것을 씬에 긴 것을 귀히 여긴다.”하였다. 이는 기예(技藝)에 있어서의 오묘한 이치이다. 단병무기(短兵武器)를 장병무기(長兵武器)로 써서 저들의 장병무기를 막는 것은 가능

하다 할 것이나, 장병무기가 단병무기를 공격하여 적중하지 않으면 도리어 장병무기가 그르쳐지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장병무기를 단병무기로 써서 각부대가 험난하거나 순탄한 길을 거쳐서 1차 남짓하게 가까이 나아가니 오래 지체할 수가 없다. 적은 아군이 장병무기를 믿어 안심하는 것을 보고 아군을 깊이 들어오게 하여 아군의 장병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들고자 한다. 아군의 각 부대가 갑자기 단병으로 다가오니 적은 짐짓 저주는 체하는 꾀를 부려 창을 떨어뜨려 적군으로 하여금 아군과 대적케 하니, 이 경우에는 장병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다.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 내려온 심오한 견해이다.



【그림 92】 복호세(伏虎勢)

추산색해세(推山塞海勢)



◆ 복호세(伏虎勢 : 엎드린 호랑이의 자세)

이 자세는 육봉창법(六封鎗法)이다. 창을 비스듬이 거꾸로 기울여 굳세게 치켜 올리는데, 마치 바람이 물러가는 것과 같아서, 빠르게 적을 끊어서 막고 엮어서 잡으니, 마치 태산압란세(太山壓卵勢 : 큰 산이 알을 누르는 자세)와 같다. 또 조천(朝天 :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세), 영봉(迎封), 접고(接靠)의 자세가 있다.

◆ 추산색해세(推山塞海勢 : 산을 밀고 바다를 막는 자세)

이 자세는 호슬창법(護膝鎗法 : 무릎을 가리는 창법)이다. 높은 곳에서 와서 깃발을 흔들며 밀쳐서 자리를 잡아 쇠빛자루로 쓸어 엮어서 끌 듯이 한다. 중간으로 와서 만약 화살이 있으면 허와 실을 막론하고 철우경지세(鐵牛耕地勢 : 무쇠로 지어부은 소가 쟁기질을 하는 것과 같은 자세)를 쓸 수 있다.

【그림 93】 요자박암순세(鶴子撲鵝鶉勢)

태공조어세(太公釣魚勢)

◆ 요자박암순세(鶴子撲鵝鶉勢 : 새매가 메추라기를 치는 자세)

이 자세는 발초심사창법(撥草尋蛇鎗法 : 풀밭을 휘저어 뱀을 찾는 창법)이다. 높은 곳에서 접전하여 비록 엮어서 잡아당기는 방법을 쓰나, 적이 뭉개고 곧바로 지나치면, 봉퇴구호지법(棚退救護之法)을 쓴다. 창을 잡고 손을 휘둘러 중평세(中平勢 : 중심이 잡히고 평평한 자세)로 한번 자른다.

◆ 태공조어세(太公釣魚勢)

이 자세는 마기창법(磨旗鎗法 : 깃발을 휘두르는 창법)이다. 여러 자세가 적을 가볍게 여길 수 있으니, 밀치면서 느슨하게 잡아서

적을 따라 끌어잡아 당기니 그 나아가고 물러남이 바람과 같으며
굳세고 부드러움이 격시에 도달하였다.

兩子撲鶴勢
乃撥車尋蛇鎗法
高接雖用纏拳逢
中彼擦直過倘他
棚退把鎗還滾手
中平一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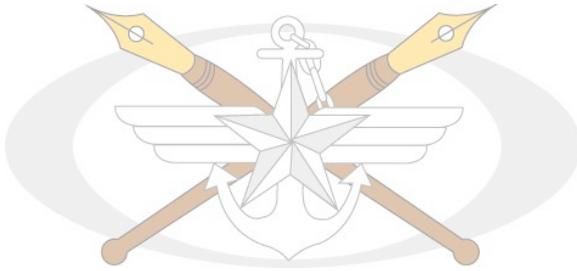


太公釣魚勢
乃磨旗鎗法諸
勢可敵輕挨緩
挺順敵提擊進
退如風剛柔得
體



[紀效新書(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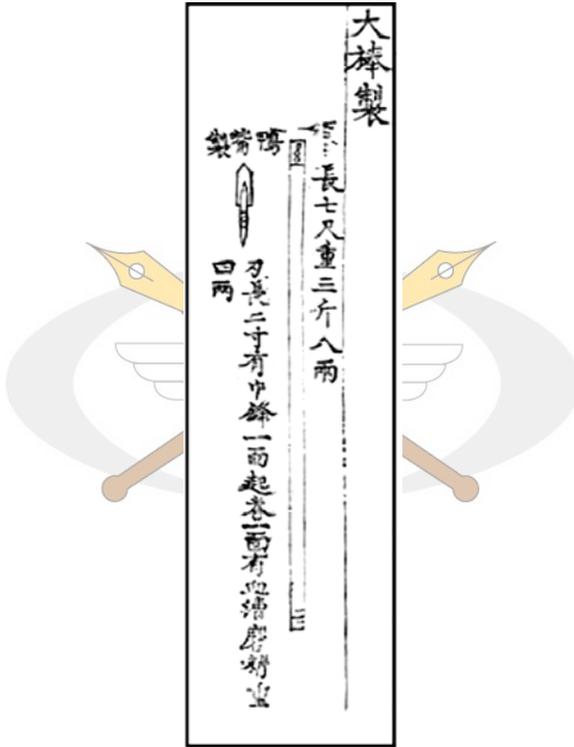
권5 수족편[手足篇]



■ 권5 수족편[手足篇]

▣ 대봉제[大棒製 : 대봉의 제원]

【그림 94】 대봉제



길이 7자(cm) 무게 3근 8냥(g)

날길이 2치(cm)

가운데 날(中鋒)이 있어 그 한면에는 척(脊 : 등뼈)⁸⁴이 솟아나와

84) 척(脊) : 이 글자의 모양이 원전에는 육달[月]변이 아닌 눈목[目]변의 [脊]자로 되어 있으나, 자전에는 이러한 형체의 글자가 없다. 전후관계로 보아서 육달 [月]변의 [脊]자로 추정된다. 창이나 활촉의 칼 날 중심부에 마치 등뼈[脊]와

있고 다른 한면에는 혈조(血槽 : 피가 흘러내리도록 되어 있는 홈)가 있는데, 정밀하게 연마되어야 한다. 무게 4냥(g)

▣ 대봉해[大棒解 : 대봉에 대한 해설]

이 병기는 형태가 단병무기(短兵武器)로서 보졸(步卒)들이 익혀서 사용하나, 끝내 단병무기로 장병무기(長兵武器)와 맞닥뜨릴 수가 없다. 사용법에는 모두 한 번 때리고 한 번 찌르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봉(棒)에 날이 없으니 어떻게 찌를 수 있겠는가? 이제 칼날 1개를 붙인다. 그러나, 날이 길면 봉의 끝부분에 힘이 없을 것이니 적의 봉을 누를 수가 없다.

그래서 봉에다가 다만 2치(6cm) 길이의 칼날을 더한 것이다. 모양이 오리주둥이(鴨嘴)와 같다. 때릴 경우에는 봉(棒)보다 편리하고 찌를 경우에는 인(刃)보다 편리해서 양자가 서로 서로 조화를 이룬다. 일명 ‘곤(棍)’이라고도 하니 이것은 남방 말이다. 일명 ‘백봉(白棒)’이라고도 하니 이것은 북방 말이다.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몽둥이(梃)를 잡고 진(秦)나라와 초(楚)나라의 견고한 갑옷과 예리한 병기를 매질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몽둥이인 정(梃), 또는 봉(棒)을 편리한 무기로 여긴 것이다. 여기에서의 맹자의 말은 인화(人和)를 얻으면 비록 몽둥이를 가지고서도 견고한 갑옷과 예리한 병기를 매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르게 말하자면 몽둥이는 견고한 갑옷과 예리한 병기와 같지 않으나, 견고한 갑옷과 예리한 병기를 매질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맹자가 이른바 인화는 없이 몽둥이를 이기로 삼으려고 하니, 어찌 그 생각하지 않음이 이다지도 심할 수 있단 말인가? 마침내는 이기(利器)로서 적합하지 않을 것이니 잘못된 바가 더욱 심하다.

비슷한 줄이 있고, 이 줄을 중심으로 비스듬하게 하향해서 두 개의 날이 서 있는데, 바로 이것이 ○[脊]이다.

▣ 연습법(習法)

◆ 총결가(總訣歌 : 비결을 총괄한 노래)

음(陰)과 양(陽)을 회전시키며 두 손은 곧바르게 한다.
 앞다리는 굽히고 뒷다리는 곧게 편다.
 한 번 쥐고 한 번 뚫어 온몸에 힘을 쏟는다.
 한 발 한 발 나아가니 천하에 대적할 자 없도다.

◆ 총결가(總訣歌 : 비결을 총괄한 노래)

가운데로 곧바르게 나아가되, 여덟 번은 굳세게 열두 번은 부드럽게.
 위로 베고 아래로 뒤편치면서 좌우를 나눈다.
 위 아래를 때려 없애며 좌우와 접한다.
 손이 움직이고 발이 나아가며 함께 전진한다.

◆ 이렇게 해설한다.

굳셈은 적의 힘 앞에 있으며, 부드러움은 적의 힘 뒤에 있다.
 적이 어수선하면 나는 고요히 기다리며 싸움을 걸어 오기를 기다린다.

◆ 총결가(總訣歌 : 비결을 총괄한 노래)

능치 못함이 능함이니, 서투름에는 적과 맞섬이 제일이라.
 후수(後手)에는 모름지기 공력을 집중하고 온 몸에 함께 힘을 실는다.
 움직일 때는 굳게 쥐고 첫 움직임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치고 자르며 빠르게 나아가 파헤쳐 나중의 움직임이 선점한 자를 이긴다.
 한 발 한 발 함께 나아가고 시시각각 끝음을 취한다.
 또 음양(陰陽)의 비결(秘訣)이 있으니 그대는 익히 잘 알아 두어야 할지니라.

◆ 총보목(總步目 : 보법의 총목록)

당직과타채대두좌대전(當直破打剃大頭坐大剪)

게도소획좌채소전(揭挑小頭坐剃小剪)

주마회두정자보(走馬回頭丁字步)

직부송서살(直符送書殺)

하기천수상(下起穿手上)

적수헌화(滴水獻花)

마전참초(馬前斬草)

철우입석(鐵牛入石)

고란흉곤(高攔胸棍)

희작과지(喜鵲過枝)

이룡쟁주(二龍爭珠)

정사보행(定四步行)

철문발(鐵門鉞)

하기접(下起接)

단편압(單鞭壓)

추곤주(趨棍走)

섬요전(閃腰剪)

삼각치(三脚峙)

계뢰곡(鷄喙谷)

상봉착(上棒鑿)

순세타(順勢打)

반산탁(盤山托)

제미살(齊眉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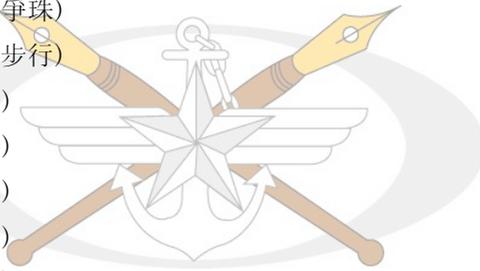
직기개(直起磕)

적전(吊剪)

대벽(大辟)

자오(子午)

도두(倒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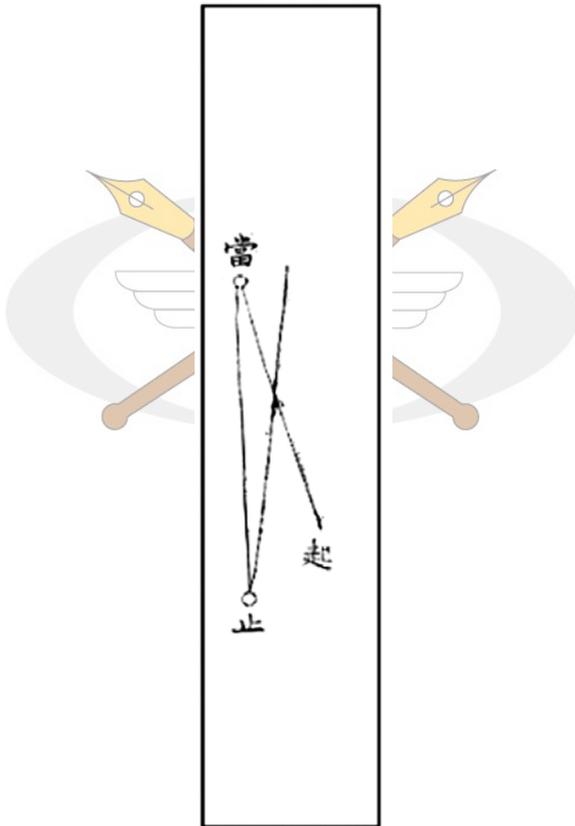
추견(推牽)

곤고(滾鼓)

채세(採洗)

편신중란살(遍身中攔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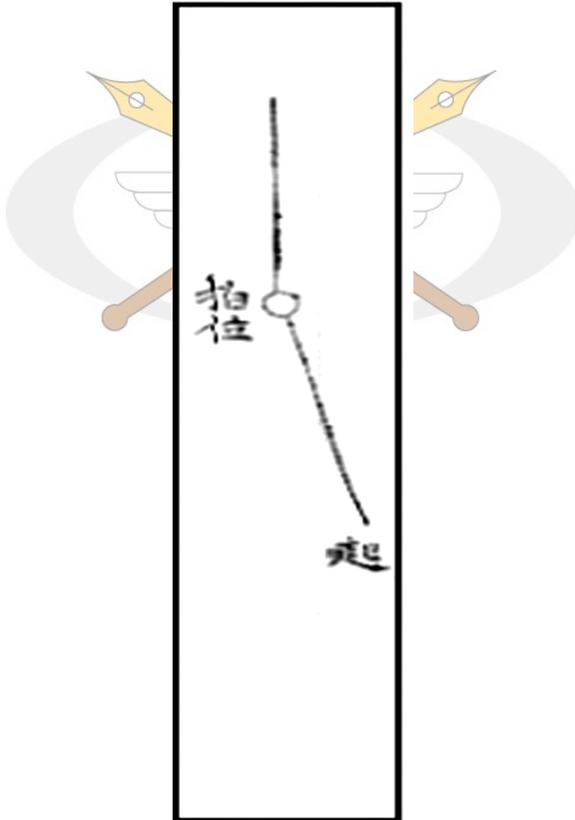
【그림 95】 기(起)-당(當)-지(止)



위의 보법(步法)은 이양흠(李良欽)이 전수(傳授)해서 내려온 가르침이다. 여기에서의 ‘당(當)’자는 악곡(樂曲)에서의 박위(拍位 : 박

자치는 위치)와 같으니, 그 오묘함을 말로는 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를 기려서 말하기를 “내가 적의 측면을 약하게 하려면 전수(前手)를 곧게 하여 마주 대하고 후수(後手)를 곧게 더하여 공략하니 신묘함이 그 안에 있다. 배움이 여기에 이르르면 일만 가지 보법(步法)이 다 여기에 일관될 것인저!”라고 하였다.

【그림 96】 기(起)-박위(拍位)



위의 보법(步法)은 유방협(劉邦協)이 전수(傳授)해서 내려온 가르침이다. 중간에 박위(拍位 : 박자치는 위치)가 있고 발체(拔刺)와 세락(洗落)의 방법을 쓰지 않고, 다만 손을 풀고 달려가되 더욱 바짝 뒤쫓는다.

【그림 97】 박위(拍位)



▣ 교사(教師)

임염(林琰)이라는 이의 시(詩)에 이렇게 말하였다.

장사가 금창(金槍)을 잡음이여!	壯士執金槍
아홉치 길이의 것을 쓰도다.	只用九寸長
날이면 날마다 치고 돌아드니,	日日打一轉
사나이 대장부 염라대왕을 만나보리!	好漢見閻王

- 위의 세가지 가르침은 원래 하나의 학과이다. 이들은 모두 “남을 다루되, 남에게 다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남보다 늦게 떠나되 남보다 먼저 도달한다.”는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 곤봉(棍棒)을 잡고 몸을 낮추면서 상대방의 곤봉 아랫부분을 찌르면서 들어간다. 혹은 왼쪽으로 한 번 곤을 일으켜 한 번 치거나, 혹은 오른쪽으로 한 번 곤을 일으켜 한 번 치되, 곤을 일으킴에 소리의 울림을 기준으로 삼아서 따르라. 소리가 한 번 울리면 곧 머물러서 전진을 중지하라.
- 곤봉을 끌어 세워 손을 양(陽)으로 하고 달려가 상대방의 곤을 침에 이르러서, 손을 음(陰)으로 바꾸니, 음과 양을 가장 뚜렷이 알아야 한다.
- 음과 양을 바꾸는 것은 너무 빠르면 안된다. 적시에 단번에 실시하여 쓸데 없이 힘을 낭비하지 말아야 하니, 이를 확실히 하라! 이를 확실히 하라! 다리를 굽히는 것은 끈게 하고 들어가는 것만 못하다.
- 허리의 힘이 맨 첫째요, 후수(後手)의 힘이 다음이요, 전수(前手)의 힘은 그 다음이 된다. 대문(大門)이 크게 밀고 들어가 칠 경우, 소문(小門)은 크게 밀고 들어가 싸움을 돋구면 안된다. 대문이 크게 밀고 들어가 칠 경우, 상대방은 죽음을 각오하여 두려워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문이 만약 크게 밀고 들어가 돋구면, 상대가 힘이 강하여 돋구어도 일어나지 않으면, 구하기 어려울까 염려된다. 만약 돋구어서 소리가 한번 울리면 그 뒤에 크게 밀고 들어가 쳐라.
 대저 소문은 다만 위협을 가하는 체하면서,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접근하여 그를 칠 것까지는 없다.

대당대돈좌세(大當大頓坐勢)와 소당소획좌세(小當小口坐勢)를 쓸 때에 있어서, 상대방이 대압세(大壓勢)로 맞서면 나는 소당소획좌세로 이를 헤쳐 넘기고, 상대방이 소압세(小壓勢)로 맞서면 나는 대당대돈좌세로 이를 헤쳐 넘겨야 한다. 천보에 있어서나 만보에 있어서나 이 대목을 극진히 명심하라.

▣ 해설하여 말하기를

- 획(劃)은 바로 발이 가고 손이 가는 것이요, 체(剃)는 바로 발이 가고 손이 돌아오는 것이다. 바로 이 발이 가고 손이 가는 것을 따르라. 바로 발이 가고 손이 돌아오는 것을 끊으라.
- 칠 때 곤(棍)을 염두에 두고 칠 것이며, 발이 가고 손이 갈 때에는 곤을 염두에 두고 발이 가고 손이 갈 것이며, 발이 가고 손이 돌아올 때에도 곤을 염두에 두고 발이 가고 손이 돌아와야 한다. 들어갈 때에도 곤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며, 싸움을 돌굴 때에도 곤을 염두에 두고 싸움을 돌구어야 한다.
- 무릇 손을 움직임에 있어서 반드시 상대방의 곤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상대방을 염두에 두되, 상대방의 곤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말, 이는 상대방의 곤이 이미 패해버렸는데 다만 상대방의 가고 머뭇음을 보고만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곧바로 부딪쳐서 한 소리에 밀고 나가되, 발체세(拔剃勢)를 취하지 않는다. 이 또한 매우 급히 다그쳐서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칠 다른 곤법(棍法)이 없음을 중히 여기라. 대개 발체세를 이와 같이 한다.
- 철우입석세(鐵牛入石勢)는 내가 치고 나아가면 상대방이 곤을 높이 들어 세우고, 내가 곤의 끝을 잡아 떨어뜨리지 않고, 나아가 곤의 끝을 잡아 막대기 윗부분을 거꾸로 잡아 한 번 내리

쳐서 크게 상대방의 손을 끊는다. 상대방이 치며 다가오면, 나는 끈을 높이 들어 세우고, 곧바로 상대방의 소문(小門)으로 달려 들어가니, 매우 오묘하고 매우 오묘하다.

- 무릇 곧바로 맞닥뜨린 뒤에 아래로 내려 치는데, 진각돈좌하세(進脚頓坐下勢)를 쓰는 것만 못하다. 곧바로 맞닥뜨린 뒤에 아래로 내려 치면, 스스로 기세가 소진될 것이니, 상대방이 도리어 나를 대적하여 진각돈좌하세를 써서 넉넉한 기세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만약 상대방이 다시 일어나면 다시 이와 대적하라. 대문(大門)과 소문이 다 마찬가지이다.
- 무릇 소문이 한 번 들어 한 번 치고, 마주하여 높이들어 마주하여 치고, 반드시 높이 든 기세를 타고 소전세(小剪勢)를 취하다가 대전세(大剪勢)로 변화하라.[철문(鐵門)에 붙인 송곳과 같다.] 혹은 몸을 뽑아서 물러났다가, 상대방이 치면서 다가오면, 내가 대문으로 나아가 하기접세(下起接勢)로 상대방을 끊으며 달려간다. 변환할 때 상대방이 나의 끈을 걸어당기지 못하게 하라. 걸어 당기면 미치지 못한다.
- 처음에 손을 소용돌이쳐서 곧바로 들어가게 하고, 다음에 매우 거칠게 쳐서 걸치게 하니, 또한 곧바로 들어감을 중요히 여긴다. 그 다음에 가볍게 끌어 상대방의 형세를 따르게 하고, 상대방이 몸을 두 세 치 가까운 거리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절각법(折脚法)을 온전히 다 쓰라. 또 섬퇴법(閃退法)을 쓰라. 그리고 또 도퇴법(跳退法)이 있는데, 앞 발을 먼저 일으키거나 또는 두 발을 나란히 한꺼번에 일으키라. 그리고 채(採 : 캐냄)와 견(牽 : 이끄는)이 같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알라. 그 요체는 허세를 부려 상대방을 위협하는 데에 있으니, 상대방으로 하여금 허점을 드러내게 하여, 그 틈을 타라.
- 몸을 구부려 걸치라. 상대방의 형세를 따라 발이 가고 손이 돌

아오는 체세(荆勢)를 취하라. 그리고 급히 상대방의 곤을 맞아 치라. 삼각치타세(三脚峙打勢)는 네 번 치도록 정해져 있으니, 모두 익숙하게 익혀야 한다.

- 상란대소문체(上攔大小門剃)와 하란대소문체(下攔大小門剃)와 하란소문체(下攔小門剃)는 자못 어려우니 반드시 공을 들여 익혀야 한다.
- 무릇 날마다 곤을 가지고 한 번 치고 한 번 들어 올리는 것을 스스로 익히라. 치고 들어 올림에 있어서는 모두 소리가 있어야 한다. 오래 익히면 스스로 힘이 생겨서 높아도 눈 높이를 지나치지 않고, 낮아도 무릎 아래를 지나지 않는다.
- 대문에 흉곤(凶棍)을 접하는 경우가 다섯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편신중란접(扁身中攔接)이 그 첫 번째요, 고접봉(高捧接)이 그 두 번째요, 하기개(下起磕)가 그 세 번째이다. 나의 곤이 옆으로 빗나가서 전수(前手)에서 1차 떨어져서 상대방이 한 번 내려침을 받는 것이 그 네 번째이며, 상대방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려 전수에서 1차 떨어져서 상대방이 부수면서 한 번 내려침을 받는 것이 그 다섯 번째이다. 위의 각 자세를 접한 뒤에는 반드시 급히 대전세(大剪勢)를 취하고 곧 이어서 달려나가라.
- 고란(高攔)을 접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취개(脆磕)가 그 하나요, 발후수(拔後手)가 그 하나이며, 척척(尺剃)가 그 하나이니, 다만 밀고 나아가 낮게 접하여 치고 나가는 것이 또한 옳다.
- 상대방이 높이 막는 고란세(高攔勢)를 일으키면 나는 곧바로 쫓아서 상대방을 위로 쳐서 밀고 들어가는 형세를 취하고, 만약 상대방이 아래로 내려치면 받아 올리고, 상황에 따라 다른

자세를 써도 되니 곤을 빼고 양보해도 된다. [빼고 양보하는 경우도 있고, 빼지 않고서 양보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양보하는 것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급히 받을 구부려 상대방의 형세에 따르고 상대방의 끊음이 만약 긴박하고 가까우면 곧바로 상대방의 가슴과 인후부(咽喉部)를 향하여 달려드니 다 오묘하다.

- 상대방이 곤을 높이 들면 나는 앞으로 나아가 상대방이 크게 꺾고 대문을 지나쳐 오기를 기다려서 상대방을 쳐서 곤을 반쯤 아래로 쳐 내리면서 밀고 나간다.[정(丁)자로 머리를 돌리는 것도 좋으니, 반드시 상대방의 형세를 따라야 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라.]
- 상대방의 곤이 쳐서 떨어짐과 쳐서 떨어지지 않음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나는 모두 이와 같이 한다.]
- 상대방이 높이 들어 막으면서 치면, 나는 돌아서 대문으로 나아가 상대방의 곤 끝을 잡거나 혹은 곤의 중간 부분으로 내려쳐서 제미살(齊眉殺)의 자세를 취한다.[상대방의 형세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반드시 알라. 곤의 중간 부분으로 내려칠 때에 제물에 곤이 얽혀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 무릇 높이 치켜든 곤을 접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상대방의 반산탁세(盤山托勢)를 막아야 하니, 나아가면서 자세를 소전세(小剪勢)로 낮추라. 상대방이 곤을 높이 들어 막으며 내려치면, 나는 대문으로 나아가면서 상대방의 곤을 걸어 올린다. 음수(陰手)와 양수(陽手)를 쓰지 않고, 다만 곧바로 일어서면 내가 위에 위치하고 상대방이 아래에 위치한다. 상대방이 만약 곤을 들어 내리치는 척하면서 내리치지 않으면, 당연히 나는 상대방의 곤을 걸어 올린다. 상대방이 곤을 내리치면 나는 패체하고 물러선다. 한 마디로 곤이 깊이 들어가 위에 위치했을 경우에는 승리를 취해야 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 만약 나의 곤

이 깊이 내리쳐졌을 때 상대방이 쳐오면, 나는 다른 동작을 취할 것이니 모두 미치지 못하고, 다만 곧바로 곧게 세울 것이니, 오묘하다.

- 파직살세(破直殺勢)는 일곱 걸음 걸이로 하니, 섬요타(閃要打)의 자세로 한 걸음을 걷고, 타각(打脚)의 자세로 두 걸음을 걷고, 곤(滾)의 자세로 두 걸음을 걷고, 유수(流水)의 자세로 두 걸음, 도합 일곱 걸음을 걷는다.

- 희작과지(喜鵲過枝)의 자세에는 네 가지가 있으니, 다음과 같다. 상대방이 곧고 높게 쳐내려오면, 나는 곤을 뽑아 대문을 지나쳐 상대방에게 양보하여 곤을 내리고, 상대방의 형세에 따라 대전세(大剪勢)를 취하니, 그 첫 번째 자세이다.

상대방이 곧고 높게 쳐내려오면, 나는 곤을 뽑아 소문을 지나쳐 상대방에게 양보하여 곤을 내리고, 상대방의 가슴을 향하여 달려들어가니, 그 두 번째 자세이다.

상대방이 곧고 평평하게 쳐내려오면, 나는 다리를 낮추어 희작과지(喜鵲過枝)의 자세를 취하고 소문으로 나아가 상대방에게로 달려가니, 그 세 번째 자세이다.

상대방이 곧고 평평하게 달려오거나 쳐내려오면, 나는 뒷다리를 굽히어[바로 상대방의 형세를 따르는 것이다.] 끊으며 대문으로 달려가니, 그 네 번째 자세이다.

이상의 희작과지의 자세는 모두 아래쪽으로 지나쳐가려는 데에 있으니, 상대방 곤의 2자 안으로 들어가서 지나친다.

- 곤체(滾剌)의 자세를 취한 뒤에, 반드시 다시 위로 치켜올려서 쫓아 올라가, 상대방의 곤을 끊어 없앤 뒤에 달려간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대문과 소문의 경우가 다 그러하다.

■ 해설하여 말하기를

- 곤(滾)은 상대방이 낮고 평평하고 곧게 달려오면, 나의 곤은 높이가 위치하여 있으니, 낮게 내려 앉혀서 손 앞 1자 썸의 거리로 때는 것으로 가늠하여 헤아리고, 상대방의 곤의 끝부분과 서로 마주쳐서 곤의 형세에 따라 상대방의 손이 상대방 몸을 해침에 이르기까지 기다린다.

체(剗)는 상대방이 높게 쳐 오거나 높은 위치로부터 몰려오거나, 상대방이 비록 공격자세를 취하였음에도 아직 움직이지 않을 경우 나는 다만 곤의 끝부분을 높게 십자로 유지하고, 곤의 끝 부분으로 1자 썸의 거리로 때는 것으로 가늠하여 헤아리고, 상대방의 곤의 끝부분 또는 곤의 중간 부분과 몸을 해치게 한다. 이 곤(滾)과 체(剗)는 서로 다르다. 그러나 시작부터 부딪쳐서 튕기거나 어찌 곤(滾)과 체(剗)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부딪쳐서 나는 한 소리에 아마도 상대방의 곤(棍)이 열리거나 막히거나,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없을까 염려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쳐서 끊은 뒤에 달려 나간다.

- 이룡쟁주살(二龍爭珠殺)의 자세는, 나아가서 아래를 캐되 곤을 잡아 일으키지 않으니 이 점이 오묘하다. 이 모든 수법(手法)은 전수(前手)와 후수(後手)에 모두 방법이 있으니, 바로 교사(教師) 동염보(童琰父)가 말한 바의 ‘때에 따라 상대방의 힘을 취하는 것’이다. 내가 취약한 상태로 상대방의 곁에 있는 것도 또한 때에 따라 상대방의 힘을 취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으니, 상대방이 때에 따라 나의 힘을 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입에서 때놓을 수 없는 비결이다.
- 다만, 치고 두드림과 캐고 가다듬음에는 모두 후수를 쓰는 법에 공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곤은 높게 잡아 세우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오늘날 힘을 들여 상대방을 치려고 하는 자들은 오직 곤을 잡아 세움에 높지 못한 것과 곤

으로 침에 무겁지 않을까를 염려하니, 이는 단지 전수(前手)의 힘만 있을 뿐이요, 후수(後手)의 공력이 없기 때문일 따름이다. 무릇 상대방이 좌우의 문호를 치고 들어오면 다 손 앞 1자 거리에서 손을 써서 상대방의 곤 끝부분을 바뀌게 한다.

- 무릇 상대방이 좌우의 문호로 몰려들어오면 다 손 앞 1자 거리에서 손을 써서 상대방의 곤 끝부분을 바뀌게 한다. 상대방이 치고 들어오는 형세가 무거우면 반드시 나의 손 앞 1자 거리에서 막 상대방의 곤을 접하여 걸어서 상대방을 멈추게 한다. 상대방이 치고 들어오는 형세가 가벼우면 다시 희작과지세를 취하여 반드시 곤의 끝부분을 써서 상대방 곤의 방향을 손 앞 1자 거리에서 바뀌게 한다.
- 치고 들어오는 중간에 상대방이 내려치면 나는 이를 맞아 곤을 세우되, 나는 내려치지 않으나, 상대방은 반드시 다시 곤을 세워 곧바로 급하게 다시 곧바로 맞닥뜨려올 것이니,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스스로 패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상대방을 치면서 맞되, 나는 반드시 상대방의 곤이 나의 곤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하여 다만 이를 덮어두고 상대방을 끌어당겨 내려쳐서 접하면 나는 나중에 떠나서 먼저 도달하는 셈이 된다.
- 상대방이 치고 들어오면 나는 쳐서 물리치고, 상대방이 에우면 나는 맞서서 손으로 뚫고 소문으로 들어가니, 두 손으로 높이 들어 올림에 따른다. 손이 움직일 때 정사보행(定四步行)의 보법으로 마디 마디마다 쳐 올리면서 상대방이 소문살세(小門殺勢)를 취하면 나는 소문압세(小門壓勢)를 취하고, 상대방이 대문살세(大門殺勢)를 취하면 나는 대문압세(大門壓勢)를 취한다. 상대방이 매우 높게 세운 자세를 취하면 나는 상체세(上刺勢)를 취하여 쫓아 달려가 먼저 맞은 다음에 싸운다. 상대방이 약간 높게 세운 자세를 취하면 나는 대접세(大接勢)를 취하여 상대방의 곤에 걸치거나 소체세(小刺勢)를 취한다.

- 상대방이 내려치면 나는 걸쳐서 세우고, 나는 상대방에게 짐짓 위협을 가하면서 내리치려는 듯 하면서 실제로는 내리치지 않고 상대방이 힘을 다하여 걸치고 세워 힘이 빠지기를 기다린다. 상대방의 끈이 체하세(剃下勢)로 들어가면 체(剃)한 뒤에 상대방이 끈을 세우고 나와서 곧바로 부닥쳐오기를 기다린다.
- 상대방이 치면서 다가오면, 소문에서는 쫓아 달려가 한 번 치고, 대문에서는 주마회두세(走馬回頭勢)를 취하여 정자보법(丁字步法)으로 한 번 치고, 윗부분을 따라 한 번 밀고 들어가고, 다시 대저세(大剪勢)를 취한 다음, 편신중란살세(扁身中攔殺勢)를 취한다.
- 대문에서는 상대방의 끈 아랫부분을 가볍게 치고, 상대방이 칼을 가지고 와서 대적할 경우에는 정자보법(丁字步法)으로 크게 나아가서 치면 상대방이 스스로 굴복할 것이다.
- 소문은 다시 곧바로 파헤치지 말고 단지 상대방을 짐짓 위협하는 체만 하다가 끈을 세우고 나아가 대문을 지나 곧바로 맞닥뜨려 체타(剃打)한다.
- 상대방과 1자 떨어진 거리까지 엄습하여[상란살(上攔殺)의 형상과 같음] 곧바로 낮게 치고 낮게 걸쳐 잇달아 몇차례 아래로 치고, 상대방이 어수선해지기를 기다려 앞으로 나아가 끈을 크게 세워 소문을 따라 상대방의 손을 친다. 그런 다음, 맞거나 맞지 않음을 논하지 말고 반드시 빠르게 주마회두정자보(走馬回頭丁字步)의 보법으로 물러선다. 상대방의 끈을 쳐서 깨뜨리고[상대방이 유수(流水)의 세나 소전(小剪)의 세로 끈을 세우면 나는 끈을 걸침] 크게 나아가 상대방과 맞닥뜨려 뚫고 들어가거나, 다시 크게 나아가 상대방의 끈 끝부분에 의지하여 상대방의 손이나 머리를 체하(剃下)하면서 편신중란살(扁身中攔殺)의 세로 급변한다.

- 상대방과 2자 떨어진 거리까지 엄습하여 낮게 치고 낮게 걸쳐 잇달아 몇차례 아래로 치고, 상대방이 어수선히지기를 기다려 앞으로 나아가 곤을 크게 세워 소문을 따라 상대방의 손을 친다. 그런 다음, 맞거나 맞지 않음을 논하지 말고 반드시 빠르게 주마회두정자보(走馬回頭丁字步)의 보법으로 물러선다. 상대방이 나의 소문으로 와서 나를 상하게 하면, 이때 나는 한 번 걸치고 한 번 나아가 비스듬히 체(剗)하면서 상대방의 손을 쳐서 떨어뜨리면 반드시 맞을 것이다.
- 상대방과 3자 떨어진 거리까지 엄습하여 곧바로 상대방의 곤을 치면 상대방이 소문을 향하여 와서 나를 상하게 하면, 나는 적수(滴水)의 세로 급변하여 크게 나아가 상대방의 곤을 맞받는다. 만약 상대방이 곤을 세우지 않으면 나는 소문으로 나아가 [만약 상대방의 무기가 갈고리나 칼이라면 베이면서 다가올 것임] 편신중란살(扁身中攔殺)의 세로 뚫고 들어간다. 만약 상대방이 곤을 세우면 나의 곤은 상대방을 고착시켜 헌화(獻花)의 세로 곧바로 쳐서 떨어뜨리고, 이룡쟁주대문수두살(二龍爭珠大門手苑殺)의 세로 급변한다.
- 먼저 상대방과 2~3자 떨어진 거리까지 엄습하여 몸을 낮게 하고 곤의 끝부분을 낮추면 상대방이 반드시 다가와서 공격할 것이니, 나는 아래로 나아가 부딪쳐 그 소리에 맞춰서 크게 앞으로 나아가 쳐서 끊거나 주마회두정자보(走馬回頭丁字步)의 세로 취하여 치고 끊는다. 그런 다음 편신중란살(扁身中攔殺)의 세로 상대방을 공격한다. 이에 대하여 교교사(喬教師)가 말하기를, “적의 창을 두드릴 적에는 아랫 부분의 가로 막대를 쳐야 하는데, 이것 또한 부딪기를 시작하는 방법이다. 아랫 부분의 가로막대를 칠 경우에 소리가 없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라 하였다. 그리고 동교사(童教師)는 말하기를, “한 소리 음향이 들리는 곳에 천금(千金)의 가치가 있으니, 상대방은 방어할 대책을 잃고 나는 승리를 얻게 되니 바로 이것이다.”라 하였다. 교

교사(喬教師)의 말에 의하면, 곧 되돌려 공격해 올 창을 숨겨 두었음을 알 수 있으니, 다 이것이다. 짐짓 나를 위협하는 체 하면서 공격하려 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곧 일어나 나를 공격할 것이다. 이를 기억하라. 이를 기억하라.

- 상대방이 아주 길고 유연한 창, 또는 죽창(竹槍)을 사용할 경우, 나는 반드시 몸을 낮추고 곤의 머리 부분을 높이 들어 올려 느긋하게 위로 치면서 상대방이 아래쪽으로 공격해 오기를 기다려서 곧 자세를 변환하여 한 번 막아 고착시킨 다음, 황룡전미(黃龍轉尾)의 보법(步法)을 이용하여 쫓으면 만에 하나도 실수가 없을 것이다.

- 상대방과 내가 대문의 나란히 높은 위치에서 맞닥뜨려서 칠 경우, 나는 곤을 잡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다리를 잇달아 조금씩 조금씩 빼면서 돈다.] 상대방을 지체시키면서 나아가 내리치면서 곧바로 편신중란살(扁身中攔殺)의 세로 나아가간다. 만약 내가 치고 나아가갈 적에 상대방의 곤이 나에게 양보하여 물러서면 나는 반드시 곤의 끝부분으로 내리치지 말고 다만 앞으로 나아가 상대방의 가슴과 인후부를 향하여 곧바로 공격해 들어간다.

상대방과 내가 대문에서 맞닥뜨려서 칠 적에, 상대방하면 나는 강하게 공격하고, 상대방이 강하면 나는 약하게 물러난다. 상대방과 내가 높은 위치에서 맞닥뜨리면, 상대방에게 양보하되, 먼저 내리치면 나는 곧 나아가 누른다. 상대방과 내가 낮은 위치에서 맞닥뜨리면, 상대방에게 양보하되, 먼저 잡아 세우면 나는 곧 나아가 맞아 잇달아 쳐서 공격한다.

- 상대방과 내가 대문에서 맞닥뜨려서 치고 두드릴 적에, 홀연히 대벽흉맹(大僻兇猛)의 세로 변화하여 내려 치니 매우 오묘하다! 매우 오묘하다! 상대방과 내가 계뢰곡(鷄喙谷)의 세로 맞닥뜨렸을 경우에도 또한 이 변화와 마찬가지로이다.

- 상대방과 내가 계훼곡(鷄喙谷)의 세로 맞닥뜨렸을 경우, 크게 앞으로 쫓아 들어가 상대방 곤의 끝부분에 맞서서 체(剃)하고, 다시 곤을 세워서 나아가 공격하고, 상대방이 일어나기를 기다려 곧바로 맞닥뜨려 나아간다.

- 상대방이 계훼곡(鷄喙谷)의 세를 취할 적에 나는 반드시 흉곤(凶棍)으로 입전(入剪)하여 상대방의 손 앞 2~3자 거리까지 들어가 끊고, 상대방이 잇달아 세우면, 나는 잇달아 끊는다.
 상대방이 계훼곡(鷄喙谷)의 세를 취할 적에 상대방이 흉곤(凶棍)을 세우면, 나는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물러나서 먼저 곤을 세워 상대방 소문의 손 위를 찌른다. [내가 상대방의 흉곤을 맞는 보법을 써도 괜찮다.]

- 상대방이 곧바로 공격해 오면 반드시 소문을 향해 나아가 끊거나, 상대방 곤의 끝부분의 소문을 향하여 대전(大剪)의 세로 변화하거나, 혹은 섬요전(閃腰剪)의 세로 곧바로 끝을 끊는다. 무릇 끊은 뒤에는 반드시 나아가서 공격하는데, 이 모두가 정사보행(定四步行)의 세로 곧바로 쫓아 올라가는 것만은 못하다.

- 상대방이 손을 모두 동원하여 공격해 오면 나는 곧 돌아서 나아가 앞발은 대문을 지나 상대방의 손과 대적하여 공격해 들어간다. 그러나 상대방의 곤을 고착시키는 것만은 같지 못하다. 혹은 소문을 돌아 지나가는 것도 이 법이다. 대문에서 짐짓 위협을 가하는 체하면 상대방이 나를 누르고, 나는 소문을 지나 거깃으로 패한 체하면, 상대방은 반드시 공격해 올 것이니, 내가 한 번 걸치고 나아가 공격하거나 친다.

- 상대방이 곧바로 공격해 오면 나도 곧바로 공격해 간다. 나는 공격해 들어가되, 나는 발을 굽히고 세밀하게 나누어서, 손음과 양으로 바꾸면서 공격해 나아간다. 이것이 바로 뒤에 떠나서 먼저 도달한다는 뜻이 아닌가?

- 상대방이 소문으로 급히 공격해 오면 나는 자세를 낮추고 나아가 전각(前脚)으로 상대방의 곧 중앙부분으로 몸을 솟구쳐서 들어가 잇달아 2~3차례 끊어 내리고, 그 뒤에 공격한다.
- 무릇 소문을 지나쳐 공격해 오면 나는 곧 나아가 소문을 지나 상대방 곧 끝부분으로 나아가 손을 마주하여 곧바로 쳐내린다. 만약 상대방이 자세를 변화하여 대문을 지나 공격해 오면 나는 바로 나아가서 대문을 지나 상대방 곧 끝부분으로 가서 손을 마주하여 곧바로 쳐 내리니 오묘하고도 오묘하다!
- 직부송서상(直赴送書上)의 세는 반산탁(盤山託)의 세에 걸기 어려우니 크게 굽혀서 소문을 지난다. 짐짓 위협을 가하는 체하면서 소문을 지나 상대방이 오기를 기다려 소압세(小壓勢)를 취하고 급히 대전세(大剪勢)로 공격하라.
- 대개 짐짓 위협을 가하는 척 함이 많으면 용이하다. 끊은 뒤에 공격하면 후환이 없다. 중간에 상대방의 형세를 따라야 할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 무릇 곧을 잡고 곧바로 지향하여 느릿느릿 밀고 들어가 상대방이 움직여 나를 치려고 하기를 기다린다. 내가 나아가 상대방을 공격하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려 할 것이니 나는 나아가서 상대방의 손을 친다. 아래로 내려치며 위협을 가하는 체하면서 상대방이 위를 향하여 끊어오기를 기다려서 직부송서살(直符送書殺)의 자세로 대문을 향해 올라거나 상대방의 손을 치고 다리를 굽히고 소문으로 앞드려 내려가 공격하거나 상대방이 오기를 기다려, 한 번 걸쳐서 공격하니 또한 오묘하다.
- 삽지금창변좌각살(插地金槍變坐脚殺)의 자세에서는 대문으로 육박하여 상대방이 압저세(壓低勢)를 취하면 나는 뽑아 내리고 소문을 지나 공격할 형상을 드러내면 상대방이 반드시 힘을 다

하여 올 것이니 소압세(小壓勢)로 아주 빠르게 뽑아서 대문을 지나 끊고 공격하니. 이 보법이 매우 오묘하다. 위의 이 보법(步法)은 높이 쳐서 오는 것이니 또한 이와 같다. 위협하고 허세를 부리는 형세가 급박하게 바뀌어 끊고 공격하여 철우입석세(鐵牛入石勢)가 되면 나는 곤을 걸어세워 내리치고 상대방은 막 걸어 세우고 나는 나아가 뽑아 상대방을 지나치면서 크게 체타(剃打)의 세를 취한다.

- 상대방이 대문을 막으면 나는 뒷다리를 굽히고 곧 아래로 세워 상대방의 대문을 공격한다. [대략 끊는다는 뜻임] 상대방이 소문을 막으면 나는 앞으로 나아가 앞 다리로 곧 아래로 걸쳐 세워 곧 상대방의 소문을 뚫는다.
- 나는 유수세(流水歲)의 보법을 일으켜 점차 앞으로 나아가고 상대방은 와서 나의 손을 친다. 나는 발을 낮추고 곧바로 상대방의 손에 대하여 일봉(一捧)을 가하거나 공격을 해도 좋다.
또 상대방이 와서 나의 손을 치면 나는 소문을 따라 한 번 걸쳐서 접하거나 대문에 한 번 세워서 접한다. 요체(要諦)는 나의 오른손 앞 7~8치(21~24cm) 사이에서 상대방 곤의 끝부분과 서로 부딪쳐서 소리가 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데에 있다. 대문과 소문 두 문을 다 잇달아 끊고는 급히 편신중란살(扁身中攔殺)의 세로 변환한다.
- 상대방이 대전세(大剪勢)로 나오면 나는 대압세(大壓勢)로 막고 상대방이 적수세(滴水勢)로 봉(棒)을 쓰면 나는 나아가 곤을 가지고 곧장 상대방을 건 다음에 도두세(倒頭勢)를 취한다.
- 상대방과 나 두 사람이 침입할 즈음에, 상대방이 적수세의 봉법을 쓰면 나는 급히 도두세를 취한다.
- 내가 적수세로 상대방의 소문으로 들어가면 상대방은 도두세를 취하니, 나는 뒷다리를 낮추고 급히 공격해 들어가 상대방의 가슴을 목표로 삼는다.

- 끊고 치다가 급히 부딪치고, 부딪치다가 다시 급히 끊고 치며, 끊고 치다가 다시 급히 부딪침을 서로 잇달아 반복하면서 나아가니 상대방이 어디로부터 공격해 올 수 있겠는가? 은미하도다! 신묘하도다. 이는 금창을 격파하는 제일가는 방법이다. 확고히 해두면 이길 수 있으니, 이를 익히고 익히라!
- 내가 단편(單鞭)으로 누르면 상대방이 마전참초(馬前斬草)의 세로 변화할 것이니, 나는 다시 일보를 크게 나아가 손의 힘을 굳게 쓰면 상대방의 곤은 스스로 패해서 달아날 것이다.
- 내가 단편으로 올려 치면 상대방이 소문을 지나쳐 만약 깊이 들어가면 직부송서살세(直符送書殺勢)를 쓰고 만약 상대방이 얇게 들어가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상대방이 걸어세워 위로 쫓아 나와 곧바로 칠 것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무릇 대문과 소문을 공격해 오는 것은 모두 이 예와 같다.
- 쌍방의 곤이 서로 어우러졌을 적에 상대방이 추회복지(抽回伏地)의 세를 취하고 소문을 열면 나는 곤을 끈게 하고 느릿느릿 앞으로 나아가면서 상대방이 공격해 오기를 기다린다. 그런 다음에 걸어서 잡아당기거나 끊으면서 나아가 상대방을 공격한다.
- 옆드린 자세의 복곤(伏棍)과 낮은 자세의 저곤(低棍)을 다루는 데에는 반드시 소전(小剪)의 세를 써서 상대방 손 앞 1자 사이를 떼어서, 상대방이 급히 대문을 지나치면 나는 걸치거나 나아가서 쳐도 되며, [풍전(風箭)을 날려도 좋다.] 급히 변환하여 대전살세(大剪殺勢)를 취해도 좋다. [또 내가 소전의 세로 상대방을 공격하며 상대방이 빠고 달아나면 내가 급히 나아가 곤을 높이 세워 상대방을 치는데는 반드시 2보를 돌아 소문을 지나야 한다.]

- 소전은 바로 곤법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사람마다 의심하는 이가 없다. 만약 내가 편신중란(扁身中攔)의 세로 깊이 들어가면 이 때는 생명을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다만 두 눈으로 상대방의 가슴앞의 곤을 상공에서는 급히 아래로 내리 쫓아야 하며 하공(下空)에서는 급히 위로 올려 쫓아야 한다.
- 내가 곤으로 친 뒤에 잇달아 공격하고 공격한 후에 대문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분간하고 가다듬어야 하니, 가다듬은 뒤에 소문을 공격한다. [반드시 소견(小牽)의 세로 해야 한다.]
- 쌍방의 곤이 서로 걸고 칠 적에 나는 송을 돌리어 이를 피하면서 상대방이 침입하여 치는 형세를 따르되, [칠 때에 나의 곤을 낮추지 말라.] 상대방의 곤이 걸칠 수 있게 하지 말라. 반드시 후수(後手)를 전수(前手)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두면 상대방이 걸치는 것이 불가할 것이니, 직부(直赴)의 세로서도 걸치기가 어렵다.
- 상대방이 낮은 자세를 취하면 내가 소문을 돌아서 치기에는 아주 좋다.
- 칠 때에는 반드시 기억해두고 나아가 공격하라. 백만 천만의 대병(大兵)이라 할지라도 염두에 두지 말라.
-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상대방을 칠 적에 [소리질러] 허세를 과시하지 말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곤이 다가와서 나를 치려 하거나 내가 상대방의 곤을 칠 적에 한 소리가 나면 곧 이 때에 공격해나가는 것도 좋은 것이다.
-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공격할 적에 [소리질러] 허세를 과시하지 말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곤이 공격을 시작하여 하여 왔을 적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엉거불거 하지 말라 하였는데, 깊

이 공격해 들어간 후에는 대문에서는 가다듬고 소문에선 끌어 당긴다. 이는 이른바 사람을 다루고 사람에게 다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무릇 손을 일으킴에 치고 죽임이 상대방 문 안 1자 사이에서 있는 것이니 손의 형세를 모두 발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상대방이 쫓아와서 달려와서 나를 해치기를 기다려 상대방이 손의 기세가 이미 쇠진하기를 기다려 이때에 혹은 크게 혹은 작게 혹은 끊고 혹은 걸치고 혹은 스스로 크게[혹은 대전세(大剪勢) 혹은 소전세(小剪勢) 혹은 자대세(自對勢)] 혹은 하기 접세(下起接勢)로 각기 상대방의 곤을 공격한다. 그런 다음에 나아가 편신중란살세(扁身中攔殺勢)로 하면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

방법에 이르기를 “남보다 늦게 떠나고서 남보다 앞서 도달한다.” 하였으니, 이것을 알면 결코 한번 말하여 사람을 상하게 하고 한날 스스로 기세를 쇠진시켜 타인이 도리어 나를 해치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니, 이를 경계하라! 이를 경계하라!

- ‘상대방의 형세를 따르면서 상대방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매우 유쾌하고 편리한 방법이다. 또 ‘나아가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물러나는 척하다가 나중에 나아가면 크게 이긴다.’ 혹자가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어떠한 것입니까? 이 ‘상대방의 형세를 따르면서 상대방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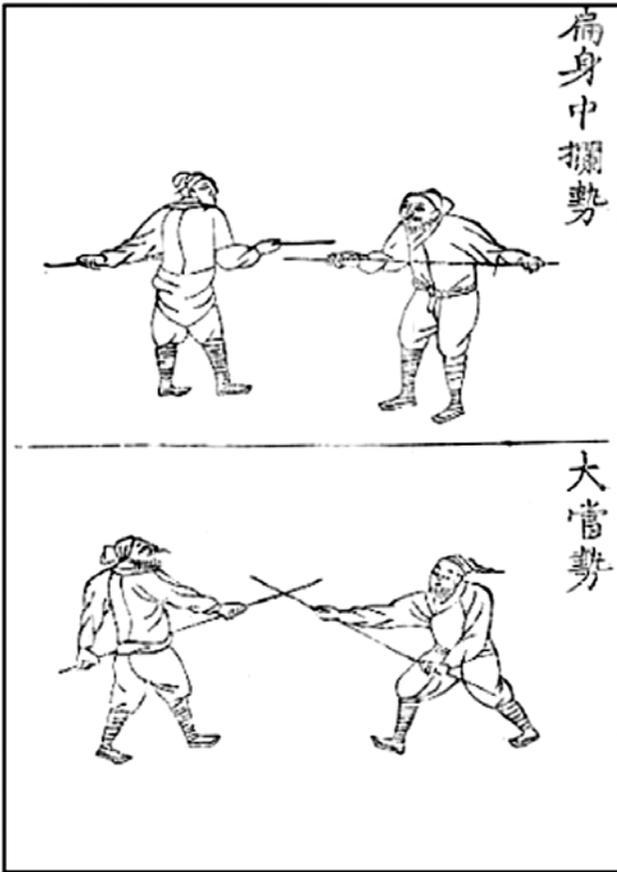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것을 확실히 깨달으면 그 지극히 오묘하고 오묘한 비결을 얻는 것이다. 반드시 상대방이 어디에서 힘을 쏟는가를 알고 나는 여기에서 힘을 쏟지 않으면서 상대방과 싸움에 싸우는 힘을 그대로 두고 견디면서 상대방이 ‘묵은 힘이 거의 다하고 새 힘이 솟아오르지 않음[舊力略過, 新力未發],’ 즉 새 힘이 솟아오르지 않기를 기다려서 그런 다음에 이를 틈타는 것이니, 이것이 ‘상대방의 형세를 따르면서 상대방의 힘을 빌린다.’는 것이다.” 이밖에 상승 낙하 승기(乘起) 등의

기법도 있으니 다 쓰기가 어렵다. 앞에 말한 바위(拍位)도 모두 이러한 이치이다.

- 배움이 이에 이르면 상하, 고저, 경연(硬軟), 직파(直破) 순세타(順勢打), 상하접(上下接)이 모두 한 가지 방법이니 이는 쉽게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직파와 순세타는 한 범위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이니 초학자로서는 쉽게 말할 수 없다. 후수(後手)는 처음에는 굽고 나중에는 곧아야 하니 단단한 곳에서 반드시 깨우쳐 알아야 한다. 전수(前手)는 취약하니 반드시 깨우쳐 알아야 한다. 배움이 이에 이르면 몸과 손발이 마음을 따라서 온통 서로 저촉됨이 없게 되는 것이다.
- 배움이 이에 이르면 온통 상대방의 창과 칼이 보이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손과 맞닥뜨렸음만을 염두에 두고 나아가 상대방을 공격할 뿐인 것이다.
- 모든 방법의 총체적인 요점은 다만 이뿐이니, ‘구력약과(舊力略過) 신력미발(新力未發)’ 즉, 상대방의 ‘묵은 힘이 거의 다하고 새 힘이 솟아오르지 않음’을 틈탄다는 이 여덟자뿐이니, 지극히 오묘하도다! 지극히 오묘하도다! 다만 이 ‘아취타방(我脆他旁)’ 즉, ‘내가 취약한 상태로 상대방의 곁에 있다.’는 비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마디도 덧붙일 수가 없다.
- ‘향이후진(響而後進) 진이후향(進而後響)’ 즉, ‘소리가 울린 뒤에 나아가고 나아가면 뒤에 소리가 울린다.’고 서로 분명히 구별을 지어 가르는 것은 말의 재간이라 하겠다.

▣ 곤봉습법[棍棒習法 : 곤봉을 연습하는 방법]

【그림 98】 편신중란세(扁身中攔勢)
대당세(大當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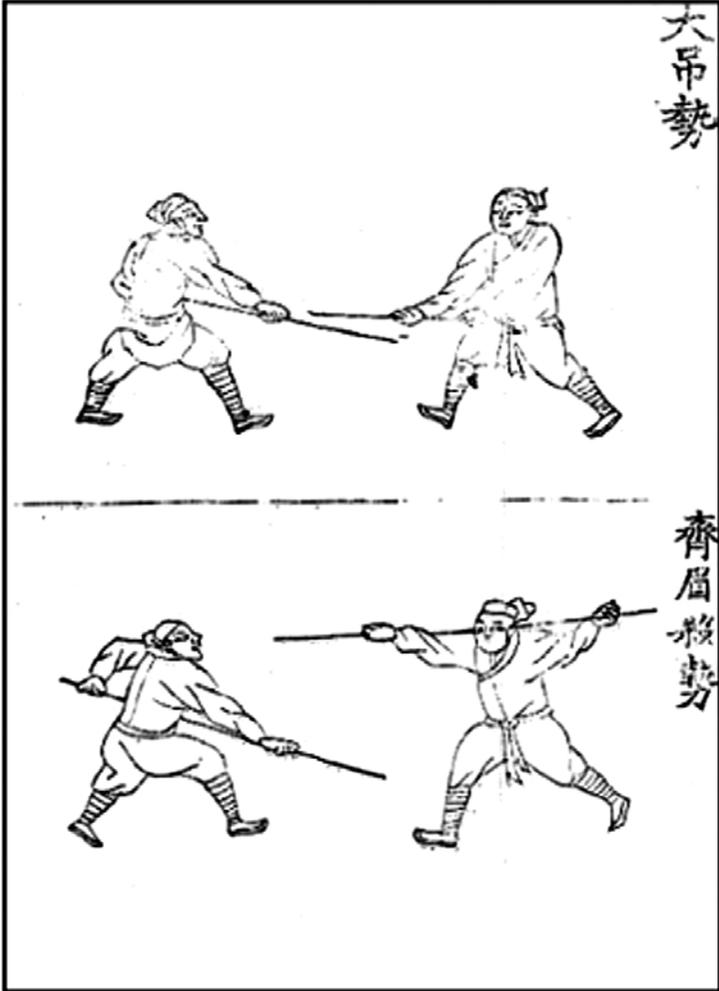
- ◆ 편신중란세(扁身中攔勢): 몸을 납작하게 웅크리고 가운데를 막는 자세)
- ◆ 대당세(大當勢): 정면으로 맞서는 자세

【그림 99】 대전세(大剪勢 : 크게 자르는 자세)

선인봉반세(僊人捧盤勢 : 신선이 쟁반을 받드는 자세)



【그림 100】 대적세(大吊勢 : 크게 매어다는 자세)
제미살세(齊眉殺勢 : 눈썹과 가지런한 공격자세)



【그림 101】 도두세(倒頭勢 : 머리를 뒤집은 자세)
하천세(下穿勢 : 아래를 찌는 자세)



【그림 102】 섬요전세(閃腰剪勢 : 빠르게 허리를 움직여 자르는 자세)
하접세(下接勢 : 아래로 잇는 자세)



【그림 103】 적수세(滴水勢 : 물방을 떨어지는 듯한 자세)
직부송서세(直符送書勢)



【그림 104】 주마회두세(走馬回頭勢 : 달리는 말이 고개를 돌리는 자세)

상제세(上剗勢 : 위로 깎아 올리는 자세)



□ 권법해[拳法解 : 권법에 대한 해설]

권법(拳法)은 큰 싸움의 기예(技藝)와는 상관(상관)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나, 수족(手足)의 활동과 지체(肢體)를 부지런히 움직이는 습관은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무예(武藝)에 입문하는 길이 된다. 그러므로 후세까지 이 권법이 남아 있어서 두 계통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권법을 배움에 있어서 중요시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다. 신법(身法)은 활발하고 간편하여야 한다. 수법(手法)은 편안하고 예리하여야 한다. 각법(脚法)은 경쾌하고 견고하여야 한다. 진퇴(進退)는 적시 적절하여야 한다. 퇴(腿 : 넓적다리)는 날렵하게 공중으로 치솟아 오를 수 있어야 한다. 그 오묘함은 얹어지고 일어남과 거꾸러지고 처박힘에 있고, 그 용맹함은 헤쳐서 가르고 주먹을 자유자재로 휘두름에 있으며, 그 경쾌함은 활기를 지탱하여 하늘을 우러러 봄에 있고, 그 유연함은 맞부딪칠 시기를 깨달아 재빠르게 움직임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권법 가운데 뛰어난 것 삼십이세(三十二勢)를 선택하니, 그 세와 세가 서로 이어져서, 적을 만나 승리를 판가름함에 있어서 변화가 무궁하고 은미(隱微)하고 오묘함을 헤아릴 수 없으며, 심원하고 아득하여, 사람들이 엿볼 수가 없으니, 이를 일러 ‘신묘(神妙)하다.’고 하는 것이다. 속세에서 이르기를, ‘주먹으로 치는 것을 알지 못하겠다.’ 하였으니, 이는 빠르기가 우레와 같아서 귀를 막을 겨를도 없기 때문인 것이다.

이른바 “ ‘불초불가(不招不架)’ 즉, ‘막지 않고 피하지 않으면’ 다만 한 번의 내려침이 있을 것이나, ‘초가(招架)’ 즉, ‘막고 피하면’ 연속해서 열 번 내려침이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널리 기억하고 많이 배우고 깊이 헤아리면 이길 것이다. 고금의 권법으로서, 송(宋)나라 태조(太祖)의 삼십이세장권(三十二勢長拳)이 있고, 다시 육보권(六步拳), 후권(猴拳), 와권(匍拳)이 있다. 각 세마다 각각 장점이 있으나, 실제로는 대동소이하다. 지금의 온가칠십이행권(溫家七十二行拳), 삼십륙합쇄(三十六合鎖), 이십사기탐마(二十

四棄探馬), 입섬번(入閃番), 십이단(十二短), 이것들도 또한 가장 뛰어난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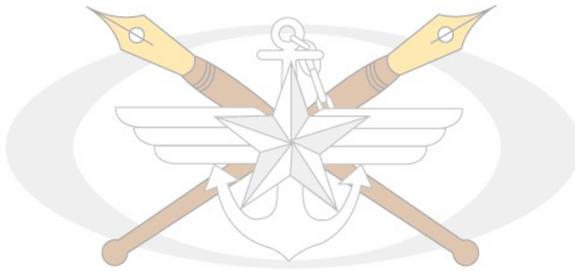
여홍팔하(呂紅八下)는 비록 굳세다고는 하나, 면장단타(綿張短打)의 권법에는 미치지 못한다. 산둥(山東) 이반천(李半天)의 퇴법(腿法), 응조왕(鷹爪王)의 나법(拿法), 천질잔(千跌張)의 질법(跌法)과 장백경(張伯敬)의 타법(打法), 소림사곤법(少林寺棍法)과 청전곤법(靑田棍法)은 서로 같으며, 양씨창법(楊氏鎗法)과 파자권법(巴子拳棍)은 모두 오늘날까지 유명한 것들이다. 비록 각각 장점들이 있으나, 지금까지 전해 오기를, 상은 있으나 하는 없고, 하는 있으나 상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아가 상대방으로부터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한쪽에만 편중된 데에 불과한 것이다.

만약 이 각 가(家)의 권법을 겸하여 익히게 한다면, 이는 바로 상산(常山)의 장사진법(長蛇陣法)과 같아서, 머리를 치면 꼬리가 응하고, 꼬리를 치면 머리가 응하며, 그 몸을 치면 머리와 꼬리가 서로 응할 것이다. 이를 일러, “상하가 두루 온전하니, 승리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한 것이다. 대저 권(拳), 곤(棍), 도(刀), 창(鎗), 파(耙), 검(劍), 극(戟), 궁(弓), 시(矢), 구겸(鈎鎌), 애패(挨牌) 등의 종류는 권법보다 먼저 시작된 것이 없으니, 몸과 손을 움직임에 있어서는 권법이 무예(武藝)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이제 자세를 그리고, 비결(秘訣)에 주를 달아 후학(後學)을 깨우쳐서 기예를 터득하면, 반드시 적과 겨루어 시험하되, 일절 승부를 가지고서 부끄러이 여기거나 새삼스러이 여겨서는 안되며, 마땅히 어떻게 하면 이기고 어떻게 하면 패하는가를 생각하여 부지런히 힘쓰고 오랫동안 훈련하여야 한다.

적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무예가 미숙하기 때문이니,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잘 싸우려면 반드시 정예롭게 갖추어져야 한다. 옛 병서(兵書)에 이르기를, “무예가 높은 사람은 겁이 없이 용기가 많다.”고 하였으니, 참으로 잘못된 말이 아니로다.

내가 주산(舟山)⁸⁵의 관아에서 참장 유초당(劉草堂)⁸⁶의 권법 연마기술을 얻었는데, 이른바 ‘초가(招架)’ 즉, ‘막고 피하는 것’은 ‘십하(十下)’ 즉 ‘연속해서 열 번 내려침’을 이름이었으니, 이것이 가장 오묘한 것으로, 곧 곤법(棍法)에서 연속해서 치고 연속해서 끊는 동작과 같은 것이다.



-
- 85) 주산(舟山) : 항주만(杭州灣) 동쪽에 있는 섬 이름. 절강성(浙江省) 정해현(定海縣)의 치소. 일설에는 배를 모아두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며, 일설에는 그 모양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고도 한다. 명(明)나라 때 이곳에 천호소(千戶所)를 설치하였으며, 청(淸)나라 강희(康熙) 연간에는 정해도(定海島)로 개명하였다. 그 부근 일대에 도서들이 나열되어 있어 주산군도(舟山群島)라고 한다.
- 86) 유초당(劉草堂) : 명(明)나라 양화(陽和) 사람 유문(劉文). 시호는 무양(武襄). 가정(嘉靖) 연간에 총병관(總兵官)으로 섬서(陝西)를 지키고 도독동지(都督同知)에 이르렀다.

□ 권법도[拳法圖：권법에 대한 도형]

【그림 105】 탐마세(探馬勢)

요단편(拗單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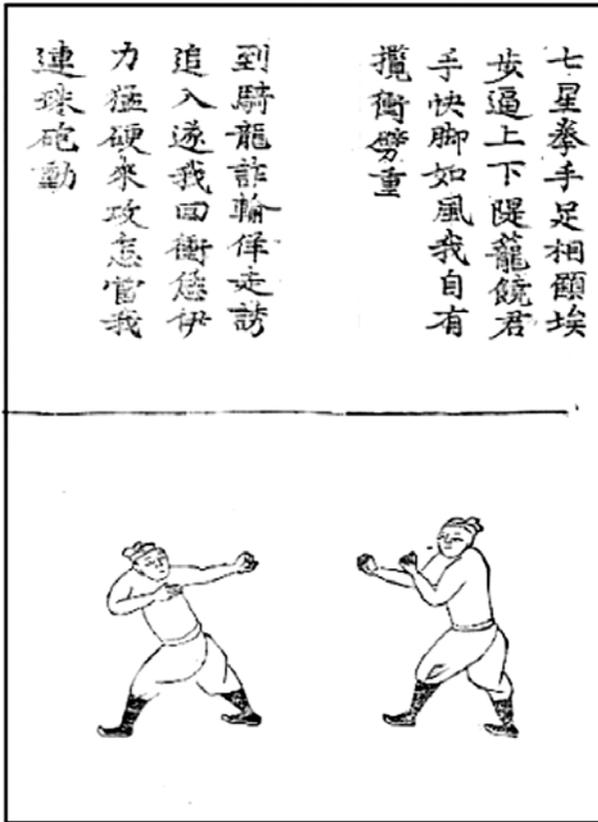


- ◆ 탐마세(探馬勢)는 송(宋)나라 태조(太祖 : 조광윤)로부터 전해졌다. 여러 자세가 내려갈 수도 있고 변화할 수도 있어, 진공(進攻)하고 재빨리 물러남에 있어서 약함이 강함을 낳아, 맨주먹으로 대결하는 데에는 가장 뛰어난 무예이다.
- ◆ 요단편(拗單鞭 : 훔 채찍을 비뚤)의 자세는, 훔 채찍을 비트니 국화꽃이 엷혀져 나오는 듯하며, 넓적다리를 펴서 좌우로 튕기니 막기가 어렵고, 빠르게 달려가 주먹을 치켜 올리면서 잇달아 쪼개고 걸치니, 침향(沉香) 같은 장중한 형세가 마치 태산(泰山)을 밀어 엷는 것과 같다.

【그림 106】 칠성권(七星拳)

도기룡(倒騎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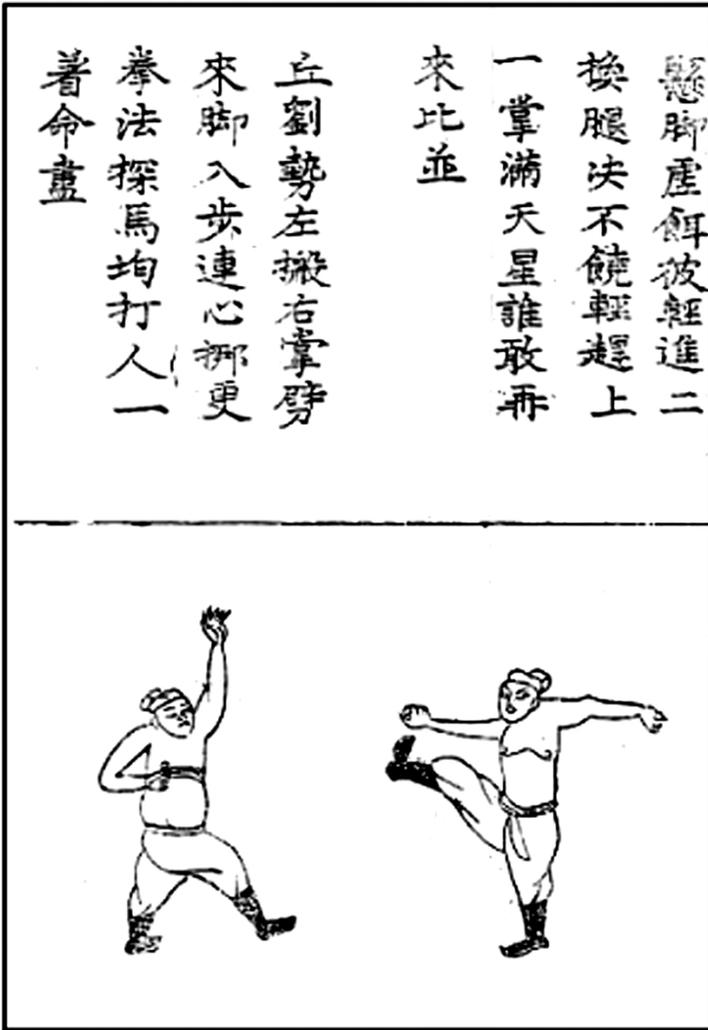
- ◆ 칠성권(七星拳 : 북두칠성의 별자리와 같은 움직임의 권법)의 자세는, 손과 발이 서로 돌아보면서 가까이 다가가서, 위 아래를 바짝 조이고 끌어당겨 덮어 씌우면서 손을 느슨하게 풀어주니 발의 빠름이 마치 바람과 같다. 나는 그 가운데서 스스로 상대방의 요소를 당기고 긴요한 부분을 깨뜨린다.
- ◆ 도기룡(倒騎龍 : 용을 거꾸로 탄 것과 같은 자세)의 자세는, 거짓으로 짐짓 패하는 체하고 거짓으로 달아나는 자세로서, 적이 쫓아 들어오도록 유인하고 나서 내가 돌아서서 치는 것이니, 상대방의 힘을 헤아려 매섭고 강하게 공격하면 설사이 없이 쏘아대는 연주포(連珠砲)처럼 빠른 나의 움직임을 상대방이 어떻게 당해내겠는가?



【그림 107】 현각(懸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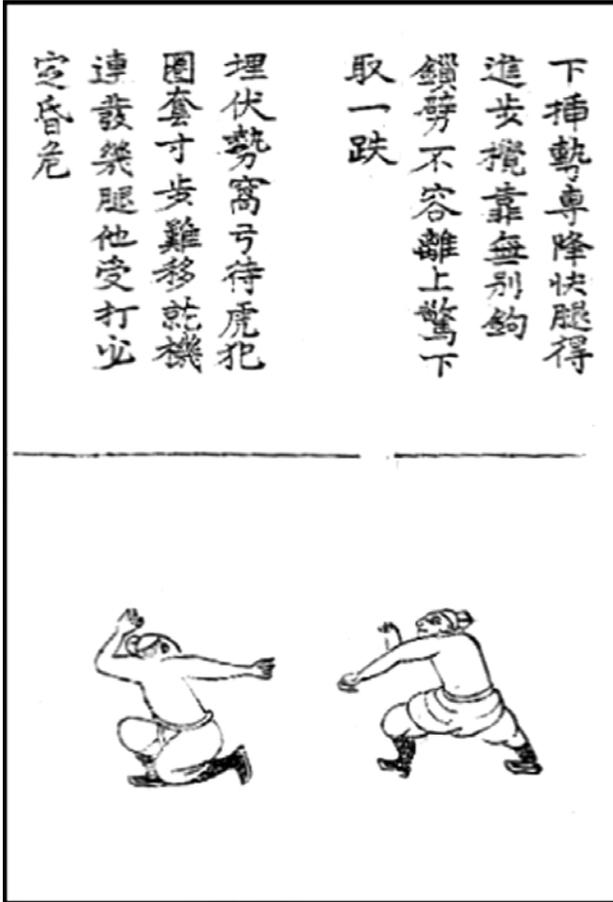
구유세(邱劉勢)

- ◆ 현각(懸脚 : 헛발길질)의 자세는 거짓으로 미끼를 던져 상대방이 선뜻 덤벼들도록 유인하는 것이니, 두 번 넓적다리를 바꾸면서 절대로 느슨하게 풀어주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위로 쫓으며 일장(一掌)을 가하니 온 하늘에 별이 가득하다. 그 누가 감히 다시 와서 대적하겠는가?



- ◆ 구유세(邱劉勢 : 언덕에 도끼를 벌여 놓은 모양)는 왼쪽으로 옮겨진 오른쪽 손바닥으로 찌개어 나가면서 다리가 들어가는 데 발길이 중심부에 닿으니, 옮겨서 바꾸면 권법(拳法)이 탐마세(探馬勢)와 같다. 상대방을 치면 한 번에 목숨이 다한다.

【그림 108】 하삽세(下插勢)
매복세(埋伏勢)



- ◆ 하삽세(下插勢 : 아래로 내리 꽂는 자세)는 오로지 내려감에 있어서 넓적다리가 빠르게 나아가서 상대방이 의지하는 자세를 휘저어 흐트러 놓아야 한다. 다리를 걸건, 팔뚝을 엮건, 이 모두를 무시하고 떠날 겨를을 주지 않는 가운데 위를 놀라게 하면서 아래를 취하여 단번에 거꾸러뜨린다.

- ◆ 매복세(埋伏勢 : 숨어서 엎드려있는 자세)는 활을 간직하고 호랑이를 기다리는 것과 같으니, 테두리를 벗어나 단 몇 발자국의 걸음도 옮겨서는 안된다. 기미를 포착하여 넓적다리를 몇 차례 잇달아 내지르니, 상대방이 맞으면 반드시 까무러쳐서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림 109】 포가자(拋架子)
 염주세(拈肘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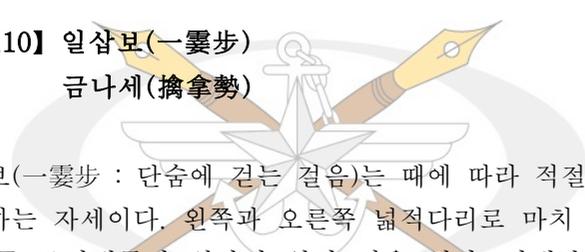


- ◆ 포가자(拋架子 : 시령을 집어 던짐)의 자세는 빠르게 달려가 헤치면서 넓적다리를 걸치는 것이니, 어찌 상대방이 아는 것을 두려워 하겠는가? 오른쪽으로 가로지르고 왼쪽으로 캐고 들어가니, 그 빠르기가 나는 듯하여, 이 포가자(拋架子) 일장(一掌)에 천지를 분간하지 못한다.
- ◆ 염주세(拈肘勢 : 팔꿈치를 집어드는 자세)는 상대방이 넓적다리를 노는 것을 막기 위한 자세이다. 나는 이를 짧게 꿇되, 반드시 그 높고 낮음을 파악하여 쪼개면서 치고 밀어서 누른다. 이 동작 모두 손과 손바닥을 조금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110】 일삼보(一霎步)

금나세(擒拿勢)

- ◆ 일삼보(一霎步 : 단숨에 걷는 걸음)는 때에 따라 적절히 사태에 대응하는 자세이다. 왼쪽과 오른쪽 넓적다리로 마치 연주포(聯珠砲)를 쏘아대듯이 쉴사이 없이 적을 친다. 상대방의 형세를 헤아려 손을 굳힘이 마치 바람과 우레처럼 빠르니, 네가 나의 재빠르게 놀래킴과 공교하게 취함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 ◆ 금나세(擒拿勢 : 잡아서 낚아채는 자세)는 발길질을 막기 위한 것이니, 왼쪽과 오른쪽으로 누르기를 한결같이 평평하게 하고, 곧 바로 들어오는 주먹이 있으면 나는 빠르게 넓적다리로 그것이 통해서 연결되지 못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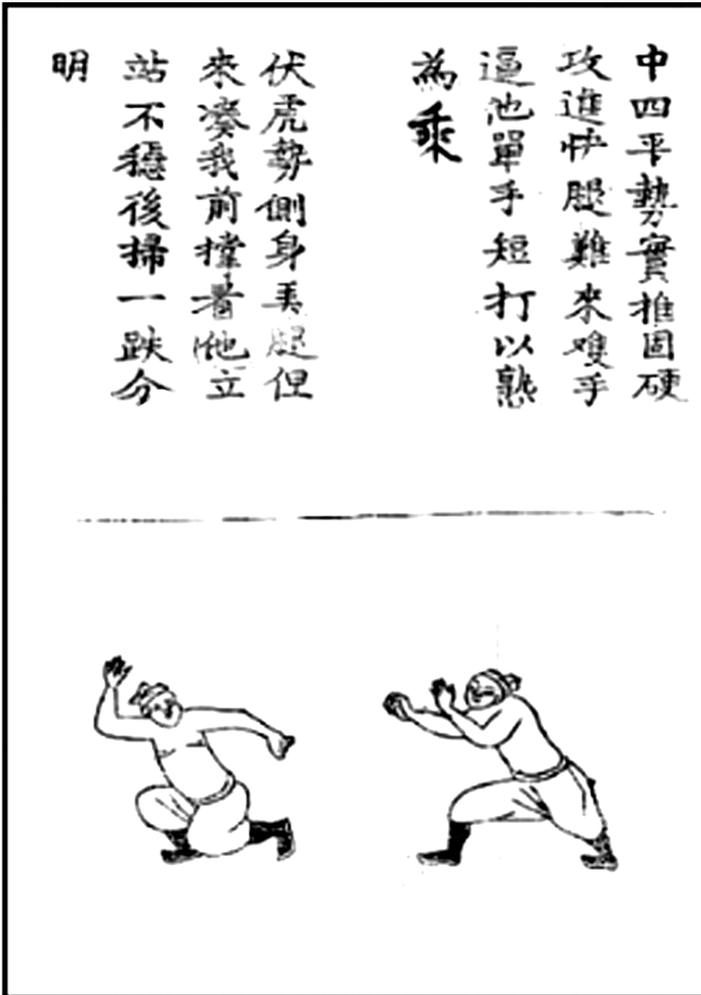




【그림 111】 중사평세(中四平勢)
복호세(伏虎勢)

- ◆ 중사평세(中四平勢 : 중간 높이로 사방을 평평하게 유지하는 자세) 실한 것으로 단단한 것을 밀고, 편리한 것으로 공격하여 나아가고, 상대방의 빠른 다리를 오기 어렵게 하며, 두 손으로 상대방의 한 손을 꺾으며, 상대방의 익숙함을 짧게 쳐서 어긋나게 하는 것이다.

- ◆ 복호세(伏虎勢 : 호랑이가 엎드린 자세)는 몸을 비스듬히 하여 넓적다리를 놀리는 것인데, 상대방이 나의 앞으로 다가와서 버티고 서면, 그 멈추어 선 것이 안정되지 못한 것을 본 다음에 쓸고 들어가 단숨에 분명하게 거꾸러뜨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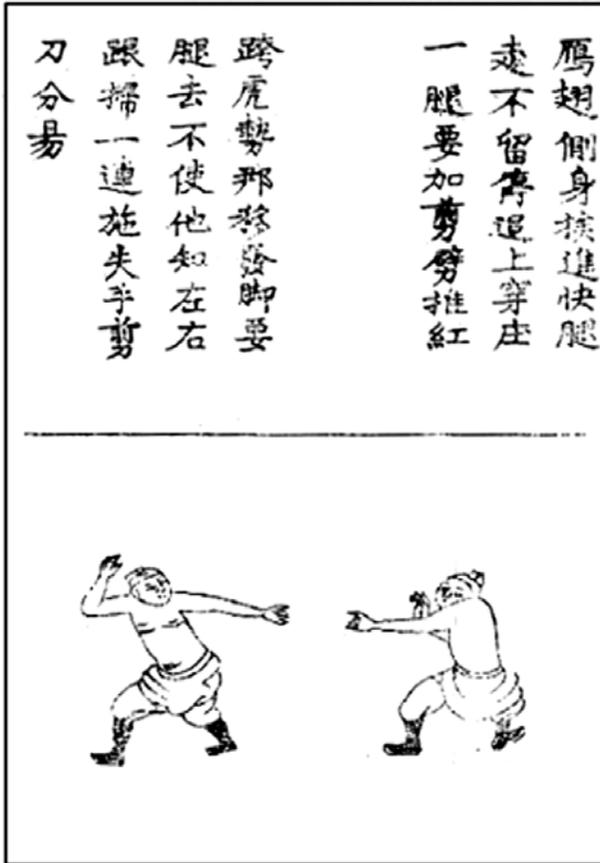
【그림 112】 고사평신법(高四平身法)
도삽세(倒插勢)



- ◆ 고사평신법(高四平身法 : 높은 자세로 사방을 평평하게 유지하는 신법)은 살아나는 변화이니, 왼쪽과 오른쪽으로 짧게 들고 나니, 마치 나는 듯하다. 적의 손과 발을 킁박하면 손을 쓸 방도가 없으니, 나의 편의에 따라 발로 차고 손으로 친다.

- ◆ 도삽세(倒插勢 : 거꾸로 쳐박히는 자세)는 더불어서 막고 피하지 않는다. 의지하는 넓적다리가 빠르니, 상대방의 넘치는 부분을 공격한다. 활을 메고 나아가니 지체하거나 멈추지 않는다. 때리면 그 소리가 마치 빈 골짜기에 메아리 소리 퍼지듯 하여 서로 응답한다.

【그림 113】 안시측신(鴈翅側身)
과호세(跨虎勢)



- ◆ 안시측신(鴈翅側身 : 기러기가 날개를 펴고 몸을 비스듬히 하고 있음)의 자세는, 밀치고 나와서 빠른 발걸음으로 달려서 멈추지 않고 쫓아 올라가 한 발에 뚫고 들어가 끊어서 깨뜨리고 순조롭게 밀고 가는데에 중점을 둔다.
- ◆ 과호세(跨虎勢 : 호랑이 등에 걸터앉은 자세)는, 발을 움직여서, 넓적다리가 가는 것을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니, 왼쪽과 오른쪽 발 뒷꿈치가 한꺼번에 쏘고 들어가게 해야 하니, 자칫 실수하기 쉽다.

【그림 114】 요란주(拗鸞肘)

당두포세(當頭砲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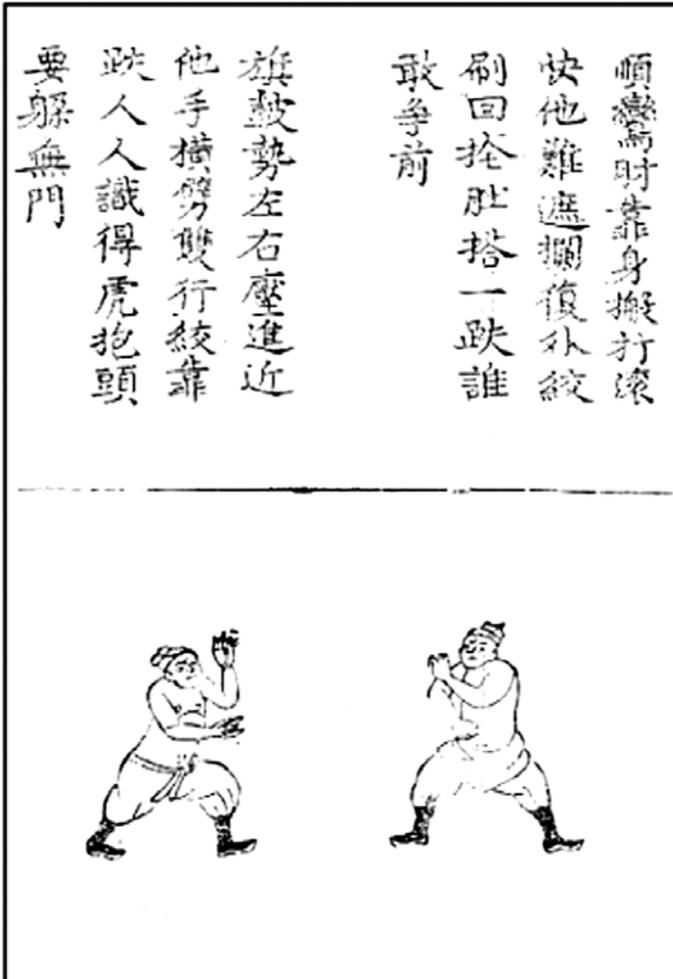
- ◆ 요란주(拗鸞肘 : 난봉새의 팔꿈치를 비튼)의 자세는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몸을 뒤집으면서 손바닥을 옮겨 그 복판을 짚어서 치는데, 마치 굳센 활을 당겨 매와 토끼를 잡는 것과 같다. 반드시 손과 발이 서로 호응해야 한다.
- ◆ 당두포세(當頭砲勢 : 머리에 화포를 올려놓은 듯한 자세)는 충인 파진보(衝人怕進步 : 상대방을 쳐서 전진을 두려워하게 함)와 호직찬(虎直竄 : 호랑이가 곧바로 숨어버림)의 두 가지 권법(拳法)인데, 상대방이 재빨리 물러서면 내가 다시 몸을 뒤집어 발을 구르는데도 거꾸로 넘어지지 않으니, 상대방도 어이가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림 115】 순란주(順鸞肘)
 기고세(旗鼓勢)

- ◆ 순란주(順鸞肘 : 난봉새의 팔꿈치 움직임에 따름)는, 몸을 의지하여 옮기되, 때릴 적에 빠르게 곤두박질치니 상대방이 가로막기가 어렵다. 다시 밖으로 조르고 털며 돌려서 엮어매고 복부를 쳐서 일거에 넘어뜨리니, 누가 감히 앞서기를 다투겠는가?

- ◆ 기고세(旗鼓勢 : 깃발과 북의 형세)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누르면서 나아가, 가로로 나누어 두 줄로 나아가 상대방을 엮어매어 넘어뜨리니, 상대방이 알았던들 마치 호랑이가 머리를 감싸안고 허둥지둥 달아날 길을 찾으나, 달아날 구멍이 없음과 마찬가지로이다.



▣ 서기계[書器械 : 병장기에 대한 기록을 유지함]

마땅히 병기군사(兵器軍士)를 배정하여 따르게 하되, 한 개의 활, 한 대의 화살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기록하도록 한다. 각 부대가 행군(行軍)함에 있어서 병기(兵器)를 유실(遺失)하는 경우가 있으면 조사하여 교체해서 지급하고, 조련(操練)할 적에 유실한 것은 변상하도록 한다. 관용(官用) 병기에는 다만 영(營)·초(哨)·기(旗)·대(隊)만 쓰고 이름은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교대할 경우의 편의를 위해서이다.

▣ 존교사[尊教師 : 교사를 존중하도록 함]

병기(兵器) 사용 기술을 익히지 않으면 마치 맨손이나 마찬가지로이다. 가르치고 익히는 방법은 반드시 먼저 스승을 섬기는 예를 중히 여김에 있다. 옛 말에 이르기를, “사도(師道)가 서야 훌륭한 사람이 많아진다.”고 하였다. 교사(教師)의 무리는 지위가 매우 낮다. 그러나 병졸들 사이에서는 사부(師父)로서의 높음이 있다.

병졸이 평소에 일찍이 무예(武藝)를 익히지 않은 자는 무예가 좋다는 것을 모른다. 대략만을 듣고서 겉으로만 익힌 자는 마음 속으로는 생각함이 있으나 교화(教化)되지 못하여 스스로 옛 버릇만을 믿어 이를 훌륭하다고 여기니, 사도가 서지 않으면 말이 미덥지 않고,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배움에 따르지 않고, 익힘에 기뻐하지 않으니 사도가 무너지고 가르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모름지기 병졸들 사이에 스승에 대한 예(禮)를 높이고, 여기에 편의를 부여하여 병사로서 가르침을 듣지 않는 자는 즉시 문책하여 다스릴 수 있도록 하고 장관에게 보고하면 군법(軍法)으로 알리게 한다.

장교(將校)들이 모두 그 학업(學業)을 익히면 계급 낮은 졸병들은 서로 보면서 말하기를 “저 높은 사람들이 믿기를 이와 같이 하니, 우리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교

사의 도가 행해지면 익혀서 복종하는 것이 빨라질 것이다. 그러나 교사의 무리는 거의가 도량이 좁은 소인(小人)으로, 한 가지 기능이 자신에게 있으면 이것을 대단한 보물처럼 간직하여 그 법을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는다.

또 공양(供養)을 요구하여, 그 후(厚)하고 박(薄)함을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하는 틀거리를 잡으니, 이와 같이 하면 병졸들의 마음이 복종하지 않을 것이요, 무예를 익힘도 도리어 걸만 꾸미는 쓸데없는 예의(禮義)나 법제(法制)가 될 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에게 권한을 주지 않으면 교습(教習)이 행해지지 않는다. 만약 교사에게 권한을 주면 그 분수(分數) 밖으로 성과가 나타날 것이니, 우리가 조련을 훌륭히 하는 데에는 교사가 병사들을 마음대로 다루어 부릴 수 있는 권한에 달려 있을 뿐이다.

▣ 기화법[忌花法 : 화법을 꺼려함]

어떤 사람이 물었다.

“평시(平時)에 관부(官府)의 면전에서 사용하는 창도(槍刀), 곤차(棍叉)의 법이 적과 맞서서 싸울 때에도 적용이 가능합니까? 선생께서 가르친 것도 또한 이리합니까?”

척계광(戚繼光)이 말하였다.

“대진(大陣)을 열고 대적(大敵)과 맞닥뜨리는 경우와, 교장(教場)에서 무예(武藝)를 겨루고 소규모의 도적을 잡는 경우를 비교하면, 이는 서로 다르다. 위엄(威嚴)이 넘치는 그럴듯한 진영(陣營)에서 천 수백명의 군사가 대열을 이루어 전진함에는 용감한 자를 선두에 세우지 않고, 겁이 많은 자를 후미에 세우지 않는다. 마치 수풀처럼 뻗뻗이 어우러진 창끝이 찢러 들어오고, 마치 수풀처럼 뻗뻗이 어우러진 창끝이 찢러 나간다.

어지러이 휘두르는 칼날이 베어 들어오고, 어지러이 휘두르는 칼날이 베어나아가 적을 죽인다. 다만 일제히 보조를 함께 하여 나아갈 뿐이니, 손을 돌리기도 어렵거늘, 어찌 좌우로 움직이고 펼 수가 있겠는가? 한 사람이 머리를 돌리면 여러 사람이 함께 머뭇거릴 것이요, 한 사람이 단 몇 발자국이라도 방향을 바꾸면 여러 사람들 또한 사기가 떨어질 것이니, 어찌 나아가고 물러나기를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평일에 충분히 익힌 무예가 유사시에 이르러서 절반인 오할만 발휘된다고 하면 이 또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평소에 익힌 무예의 발휘를 발휘할 수 있다면 이는 천하무적(天下無敵)의 군대가 될 것이다. 전진(戰陣)에 임하여 평일에 익힌 무예의 심할 전부를 침착하고 원활(圓滑)하게 발휘한 경우는 없는 것이다. 속담에 이르기를, “적이 와서 치려고 할 적에 잡는 법을 잊어버리니 병법(兵法)을 어찌 쉽다고 말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장창(長槍)은 한 사람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병기이니, 경계선을 뚫음에는 수법(手法)을 배우고 나아가고 물러남에는 보법(步法)과 신법(身法)을 배운다. 이를 제외하고도 또 있으니, 이른바 ‘단인도무(單人跳舞)’ 즉, ‘한 사람이 뛰면서 춤을 춘다.’는 것인데, 이것은 화법(花法 : 걸치레로 꾸며대는 허울좋은 동작)으로 배울 것이 없다.

모름지기 두 사람이 창을 가지고 맞서 겨룸에 있어서는 오직 여섯 가지 창법이 있다. 창을 일자로 배열하여 맞닥뜨려 일창을 찌르는데, 매 일자를 지나칠 적마다 일만 가지를 두루 잃지 않으니, 한자 한자가 격식에 맞으면 무예(武藝)가 이루어졌다 할 수 있다. 후방(後方)에 대해서도 가히 뜻에 따라 대응해야 하니, 이것이 적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등패(籐牌)는 ‘단인도무(單人跳舞)’ 즉, ‘한 사람이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이 불가피하다. 바로 여기에서 이 화법이 필요하여 배워지게 된 것이다. 이 안에는 ‘섬(閃 : 뒤채이는 자세)’ 곧(滾 : 곧두박질치

는 자세) 등이 있으니, 이 또한 화법이다. 반드시 표창(鏢槍)을 가지고 장창과 맞닥뜨려 싸워야 한다. 먼저 표창을 날려보내는데, 또한 너무 빨라서도 안되고 너무 늦어서도 안된다. 표창이 이미 손에서 벗어나면 빠른 속도로 나아가 재빨리 칼을 뽑아야 비로소 무예가 이루어졌다 할 수 있다.

구(鉤: 갈고리)·겸(鎌: 낫)·차(叉: 작살)·과(鈹: 삼지창) 등은 몸을 돌려 뛰면서 적을 치는 종류의 무기들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모두 화법이 무익하지 않아서, 익숙하게 배우면 상대방을 제압하는 데에는 제일가는 무예이다. 차(叉: 작살)와 과(鈹: 삼지창)에 따르는 화법도 매우 많으나, 생략하고 다 설명하지 않는다.

▣ 논향병[論鄉兵: 지방병으로 편성된 군대에 대한 논의]

어떤 사람이 물었다.

“오늘날 지방 사람들로 편성된 향병(鄉兵)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그들이 익힌 무예도 또한 실전(實戰)에 운용이 가능합니까?”

척계광이 말하였다.

“평소에 익힌 바 무예의 폐단은 스승의 가르침을 믿지 않기 때문이니, 마침내 대사를 그르침이 매우 많다. 그 이유는 어찌서인가? 예를 들면, 그들이 소지한 무기는 당차(鑣叉), 파로(鈹鑿)라는 이름의 것들로서, 횡두(橫頭: 가로 머릿쇠)에는 날이 없는 철량(鐵梁: 쇠가룟장)을 쓰고, 병두(柄頭: 자루 끝)에는 평정철잡(平頂鐵箍: 꼭대기가 평평한 쇠테)를 쓰니, 길이는 눈썹을 넘지 못한다. 그 익힌 바의 방법이 또한 전후 좌우로 머리를 돌리면서, 뛰면서 춤추고, 두 손으로 평평하게 양쪽 끝을 잡으니, 남은 길이는 불과 1자뿐이다. 그들이 대체로 이렇게 익혔으니, 평일에 향당(鄉黨)에서 겨루

어 싸울 적에, 늘 치고 받으면 받드시 이기니, 마침내 스스로 무적(無敵)이라 여긴다.

그러니 비록 다른 스승이 있어 다른 방법을 가르쳐주어도 모두 듣고 따르지를 않는다. 대개 그들이 이를 편리하게 여기는 것은 이를 익힌 것이 습관이 되어서, 이를 너무 깊이 믿는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무기와 이 습관이 시골에서 서로 싸우는 데에나 유용하다는 것을 모른다. 너나 나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러하니, 다만 이 무기를 사용하여 쳐서 다치게 하고 더러는 죽게 하더라도 마침내는 죽일 뜻이 없었는데도 또한 칼날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무거운 죄를 얻을까 두렵다.

적이 다가오면 날카롭고 긴 창이 길이가 두 길이 넘어서 몸 가까이 한치 남짓 가까이에 이르러 칼날과 닿으면 곧 죽어 나자빠진다. 한 자 밖에 안되는 날도 없는 무기를 가지고 한 길 내지 두 길이나 되는 날카롭고 기다란 칼날과 맞서면, 오로지 살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을 뿐이니, 적이 내지른 창이 내 몸에 미치지 않는 것이 다행일 뿐이다. 중일토록 맞서 겨룬다 해도 어찌 능히 한 길 내지 두 길의 먼 공간을 뛰어 나아가 적을 맞출 수 있겠는가?

실사 맞춘다 하더라도 일격을 가하는 것에 불과하니, 머리나 이마를 맞추지 못하면 적을 죽게 할 수 있겠는가? 적이 또한 나에게 칼날을 돌릴 경우에는 되잡힐 것이니 도리어 적에게 제압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차(鎗叉:삼지창)나 파로(鈹鏹:작살)가 쓸모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무예를 익히고서도 유익함이 없으니 이러한 이치도 있는가?

그리고 장창(長槍)의 경우는, 근래에 절강(浙江) 지역의 각 주에서 이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낭선(狼筈)의 제도는 중간에서 그 반을 나누어 잡는 것이니, 관군(官軍)이 전수받은 사용법에는 또한 회전하는 동작이 있으니, 대적(大敵)과 칼날을 교봉(交鋒)할 경우를 당해서는 평일에 교장(教場)에서 상대하는 것과는 달라서, 수천 수백 사람이 뻑뻑이 둘러싸고 무리를 지어서 나아감에, 복잡하게 얽히고 설김이 마치 삼나무와 쭉대가 어우러진 것과 같으니, 그 안에서 어떻게 한 길이 넘는 긴 장대를 가지고

회전하고, 달리고, 뛰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겠는가? 만약 이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한 길이나 두 길은 겨우 할 수 있으려니와, 오직 한 사람에게만 배풀어질 뿐이니, 이러한 진법(陣法)이 있는지 모르겠다.

중간에서 그 반을 나누어 잡기에 이르면, 후미가 띠처럼 늘어질 것이니, 일단 좌우에서 밀치면 어떻게 들어가고 나갈 수가 있겠는가? 결국 적과 맞닥뜨리면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무예(武藝)를 익힘에 있어서의 잘못은 무기(武器)를 만듦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또 말하기를 “창(槍)을 믿을 수 없는 탓을 어찌 창에게 돌리리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당차(鎗叉: 삼지창)나 파로(鈹鏞: 작살), 또는 구겸(鈎鎌: 갈고리 낫) 등의 무기를 사용함도 반드시 이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내가 이 책에 기록해 놓은 ‘단병장용설편(短兵長用說篇: 단병무기를 장병무기로 쓰는 방법을 설명한 편)’ 안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 그에 따라 이것을 만들고, 이것을 익히라.

장창(長槍)에 속하는 무기를 사용함도 반드시 이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내가 이 책에 기록해 놓은 <장창단용설편(長槍短用說篇: 장창을 단병무기로 쓰는 방법을 설명한 편)> 안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 그에 따라 이것을 만들고, 이것을 익히라.

병사를 교련시키는 책임을 맡은 자는 반드시 먼저 일일이 그 지방에 토착(土着)되어 익혀지고 숭상되어지는 무기(武器)와 무예(武藝)에 따라, 뛰어난 것은 이를 받아들여 그 좋은 점을 채택하고, 만약 대적(大敵)과 싸우는 데 적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그들이 미혹에 사로잡혀 있는 병폐(病弊)를 일일이 밝혀, 납득(納得)하도록 설명해 주라. 그런 다음에 새로운 제도의 이로움을 설명해 주어 그들이 옛날에 익힌 것이 이롭지 못한 것임을 분명히 이해하기를 기다리라. 그리하여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이 이로움을 소중히 여기게 다음에 그 익힘을 독려하라.

이와 같이 하여 이미 그 익힘이 성취되면 사람마다 스스로 깨달아 이 무기가 족히 믿을만 하다 여기고 전진하여 허약한 병사는 용감한 병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거의 이루어졌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익힌 바의 무예가 꺼져서 내려앉지 않을 것이니,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양전마[養戰馬 : 전투용 군마를 기름]

국가(國家)의 대사(大事)는 국방(國防)에 그 안위(安危)가 달려 있다. 그리고 병사(兵事) 수행에 있어서의 빠른 기동력(馳騁)의 유지는 군마(軍馬)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마병(馬兵)에게는 오직 말이 기세가 굳세고 잘 따르며, 담기(膽氣)가 넘치고 씩씩하여야만이 믿을 바가 있어서 위태롭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말은 굶주림과 배부름, 피로함과 편안함, 눅눅함과 고슬고슬함, 병이 들어 아픈 것 등에 대해서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스스로 알릴 수 없으니, 이 모든 책임은 말을 거느리는 영마관군(領馬官軍)에게 달려 있다.

영마관군은 말에게 물과 풀을 때맞춰서 주고, 그 성질(性質)과 심정(心情)을 알맞게 조화시켜 주고, 배고픔과 배부름, 피로함과 편안함을 조절해 주어야 한다. 마음을 베풀어 호흡을 조절시키고, 그 발굽과 귀를 단도리해 주고, 그 달리고 쫓음을 익히게 하고, 그 나아가고 멈춤을 법도에 맞도록 하게 하여 사람과 말이 서로 친근해져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안장과 고삐를 매고 재갈을 물려서 만드시 그 장점을 온전히 발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말에게 필요한 것들이 떨어지거나 모자라면 곧바로 보충하고, 겨울이 되면 마굿간을 정결히 해주고, 여름에는 헛간을 서늘하게 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마굿간을 정결히 해주고, 헛간을 서늘하게 해 주지 않는다. 이처럼 생각하지 않으면서 군마를 다루면 되겠는가?

항상, 한 여름 몹시 더울 때에는 마필(馬匹)을 그늘진 곳에 매어 두라. 성시(城市)에서 그늘지고 서늘한 공간이 없으면 성 밖의 인가나 촌락(村落)의 수풀이 짙은 곳, 또는 동서북쪽 삼면의 성벽(城壁) 아래에 매어 두고 사육(飼育)하라.

한 겨울 몹시 추울 때에는 성벽 남쪽 바깥의 양지 바르고 밝은 쪽을 향하여 매어 두고, 밤이 되면 언치를 안장 밑에 깔아 등을 덮어 주고 두대(肚帶 : 배띠)를 감아서 말의 어깨 위에 묶어 주어 찬 기운을 막아서 추위를 견디게 하라.

전진(戰陣)에서 사용하는 군마(軍馬)의 경우에는 담당하는 각 관군(官軍)이 모두 적과 싸워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분(義憤)의 마음을 가지지 않을 경우에는, 오직 이를 제 몸을 챙기는 수단으로 여겨서 꼴과 물과 사료를 깎아 내어 줄이고, 때 없이 노역(勞役)을 더함이 번다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하여 마필(馬匹)을 손실하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피로하게 하고, 상처를 입으면서도 정해진 시간이 따로 없으니 어떻게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겠는가?

하물며, 벌을 내리는 예는 매우 엄하여 주장(主將)과 편장(裨將), 비장(裨將)이 다 면하지 못하는 바이니 진실로 엄하게 더욱 상세히 조사하여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각 영장(營將)은 등급과 차례를 정해두고 문서와 장부 두 벌을 돌려가면서 해당 관원으로 하여금 보게 하되, 마필의 통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내되, 일일이 한 마리 한 마리씩 추궁하여 친히 검사한다.

기왕의 상태를 근본으로 분간하여 뽑되, 상·중·하 및 하하(下下)의 오등급으로 비교하여 점검한다.

1등(一等)의 범위는, 말이나 노새가 아주 토실토실하면서 기세가 굳세어서 응당 1등으로 견주어질 수 있는 자와, 토실토실한 정도가 약간 처지나 2등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자가 해당된다.

2등(二等)의 범위는, 말이나 노새가 토실토실한 정도가 2등의 상등(上等)보다 뛰어난 자와, 1등의 하등(下等)에 버금가는 자가 해당된다.

3등(三等)의 범위는, 말이나 노새가 파리하고 약하나 탈 수 있는 자와, 파리하고 약하나 일을 어긋나게 하지 않는 자와, 너무 파리하고 약하여 거의 다 죽게 된 자가 해당된다.

3등의 범위는 선발 범위에 넣지 않고, 때에 따라 기록을 유예하니, 이를 헤아려 결단하기가 어려워서 그 기준을 얻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사람으로 하여금 격려하고 권면할 수 있겠는가? 무예를 조련

하면서 함께 등급을 정한다.

말이나 노새의 등급을 매기는 구칙(九則)은 다음과 같다. 상등 가운데에서 매우 토실토실하여 보통보다 정도가 넘치면 상의 상(上上)으로 하고, 매우 토실토실하나 기름기가 넘치지 않으면 상의 중(上中)으로 하고, 토실토실하나 좀 덜하면 상의 하(上下)로 한다.

토실토실하나 밀치(마소의 꼬리에 거는 나무 막대기)가 가지런하지 않으면 중의 상(中上)으로 하고, 반쯤 토실토실하면 중의 중(中中)으로 하고, 하등(下等)에 견주어지기에는 조금 덜 살찐 자와 중등(中等)에 견주기에는 조금 덜 미치는 자는 중의 하(中下)로 한다.

비록 수척(瘦瘠)하나 약함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면 하등에 견주어 붙여 하의 상(下上)으로 한다. 수척하고 약하나 탈 수 없고 사육할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하의 중(下中)으로 한다. 수척하고 약하여 탈 수도 없고 사육할 수도 없으면 하의 하(下下)로 한다.

이와 같이 점검하여 기록하면 때를 당하여 마치 물 흐르듯이 헤아려서 처리할 것이니, 사람이 그릇되게 수고하지 않고 말도 또한 견주어짐에 있어서 합당함을 얻을 수 있으니, 다시 의심하고 어렵게 여길 바가 없으니, 자못 그 방법을 체득하였다고 할 만하다.

상등(上等)과 중등(中等)의 육칙(六則)에 해당되는 마필(馬匹)에 대해서는 각 군(軍)으로 하여금 스스로 편의에 따라서 정성을 다하여 사육하게 하고, 하등의 삼칙(三則)에 해당되는 마필에 대해서는 근신관(勤愼官) 1명에게 책임을 맡겨서 오로지 ‘말 구유 깎는 일’과 ‘말 먹이는 일’만을 관리하게 하되, 날마다 각 군의 꼴을 조사 점검하게 한다.

그리고 말이 밤에 먹을 꼴을 조사하여 만약 정성을 다하지 않거나, 꼴을 모자라게 주는 자가 있으면 곧 스스로 문책하여 다스린 다음에 문책하여 다스린 연유를 장부에 기록한다.

관할 부대의 장관(將官)은 매 삼개월마다 일차씩 점검한다. 만약 2등에 해당하는 마필이 사육을 잘하여 1등에 이르렀거나, 3등에 해당하는 마필이 사육을 잘하여 2등에 이르렀으면, 모두 처음에

비교했을 적의責임을 면제하고, 곧 장부에 명시하기를 “아무개는 원래 2등이었는데 지금 1등에 들었다.”고 하고, “아무개는 원래 3등이었는데 지금 2등에 들었다.”고 하고, 각자 따로이 사육하도록 한다.

만약 3등에 해당하는 마필이 사육을 잘하여 1등에 이르렀어도 또한 장부에 명시하기를 “아무개는 원래 3등이었는데 지금 1등에 들었다.”고 하고, 그 ‘말 구유 깎는 일’을 면제해준다. 이어 음식을 주어 위로하고 상을 준 다음, 공역(工役)과 차역(差役)을 면제해준다.

만약 3등에 해당하는 마필의 살찐 정도가 더 나아지지 않았으면 각각 곤장 20대를 때린다. 그 사이에 만약 1등에 해당하는 마필이 사육을 잘못하여 거꾸로 2등이 되고, 2등에 해당하는 마필이 사육을 잘못하여 거꾸로 3등이 된 자도 이와 마찬가지로 문책한다. 그리고, 3등에 해당하는 마필이 사육을 잘못하여 거꾸로 수척하고 약하게 만든 자는 곤장 40대를 때린다. 이들에게는 각각 이전의 사례를 참조하여 ‘말 구유 깎는 일’과 ‘말 먹이는 일을 하도록 하고, 매 계절마다 한 차례씩 장부에 기록하여 수행을 독려하고, 이를 장부에 기록하여 관할 부대에 보내되, 모두 삼 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2등에 해당하는 마필은 사육을 잘하여 1등에 이르러야 하는데, 중간에 만약 살찌는 정도가 더해지지 않으면, 청원서를 올려 처분을 요청한다.

3등에 해당하는 마필이 그대로 3등에 머물러 있거나, 수척하고 약하게 만든 자는 각각 곤장 40대를 때려 책임을 다스린다.

속임수를 써서 토실토실하고 기세가 굳센 좋은 말을 사거나, 군마의 낙인을 지우거나, 수척하고 약한 마필을 가지고서 그 상태를 명백히 보고하지 않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둘러대어 말썽을 일으킨 사람은 준엄하게 군법(軍法)으로 징계하여 다스리고, 해당 장령(將領)은 연좌(連坐)하여 처벌하고, 마군(馬軍)은 죄를 배가(倍加)하여 엄중히 처벌하되 단연코 가볍게 용서하지 않는다.

위의 이 글은 동남지방에서의 경우를 위해서 쓴 것이지, 소택(沼

澤)이 많은 지방을 대상으로 해서 쓴 것은 아니다. 예컨대, 운남(雲南)·귀주(貴州)·사천(四川)·호남(湖南) 등지는 모두 동남지방으로 물이 많고 수면(水面)이 적어서, 그 지방에서는 또한 마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말에 관한 백분의 일 정도의 요점만을 쓰는 것이다. 이 부분이 이 책 수족편(手足篇)의 끝 부분이며, 말도 또한 수족(手足)의 다른 한 부분이기 때문에서이나, 생각건대 너무 소략(疏略)하다 하겠다. 다만 민(閩)과 월(粵) 지방에서는 말을 운용하는 일은 없으나, 이 편(篇)이 양념단지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으리라.

무릇 여름과 가을에는 부대를 바꿔가면서 수초(水草)를 따라 나아가 군마(軍馬)를 방목(放牧)하고, 저녁이 되면 돌아와 각기 그 주인에게 교부하는데, 만약 그 방목에 제대로 튼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말들로 하여금 굶주리게 한 자가 있으면 해당자를 파총(把總)에게 보내어 죄를 다스리게 하고 장부상에 등재한다.

그리고 각 군사들이 스스로 풀을 베어 말을 사육하기를 원한다면 이 뜻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민(閩)과 월(粵) 지방은 경우가 다르다. 봄철과 겨울철에는 마필이 구유에서 풀을 먹는 시각이 길기 때문에 밤에 먹을 풀을 남겨두고 날마다 마실 물을 때맞춰서 주어야 한다. 만약 밥에 먹을 풀과 마실 물이 없어서 실수를 저지른 자는 대총(隊總)과 기총(旗總)이 조사하여 이를 다스린다. 일차로 곤장 5대를 때려서 문책하고, 만약 일이 중대하면 곧바로 파총에게 보내어 다스리고 장부에 기록한다.

무릇, 말은 지엽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상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근원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상하는 것이다. 굶주림으로 말미암아서 상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배부름으로 말미암아서 상하는 것이다. 해가 저물고 갈 길이 멀면 반드시 오르고 내림을 구분하여, 차라리 사람이 수고로울지언정 절대로 말을 수고롭게 해서 안된다.

항상 힘이 넉넉히 남아도는 힘을 유지하게 하여 미리 헤아리지 못했던 사태에 쓸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무릇 빠르게 치달릴 적에 가고자 하는 자가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헤아려서 느긋하고 여유있게 고삐를 당기고 갑작스럽게 바짝 조여서 당기면 아니된다. 항상 스스로 척도(尺度)를 조절하여 말이 숨이 차서 헐떡이면서 달려서 손상을 입하게 해서는 안된다.

모든 전마(戰馬)는 해당 마군(馬軍)이 스스로 신는 마초와 사료를 제외하고는 남을 대신하여 물건을 싣거나, 남에게 고용되어 그 사람을 타게 한 자가 있으면 고용한 자와 태워준 자를 각각 말 1필(匹)로 배상하게 하는 처벌을 한다. 그리고 해당 마군(馬軍)은 군법(軍法)으로 곤장 100대를 때리고 목에 칼을 씌워 호령(號令)하고 여러 사람 앞에 조리를 돌린다.

모든 전마(戰馬)는 해당 마군(馬軍)의 병기(兵器)와 갑옷 및 끼니로 먹는 음식을 제외하고는 물건을 싣지 못하며, 15근(9kg)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전마는 하루를 조련하면 다음 날은 반드시 조련을 쉬게 한다. 각각 오경(五更 : 새벽 네시 전후)에 일찍 말을 내어놓고 풀을 베어 말이 먹을 하루치 사료를 준비하여 다음 날 조련에 나가는 데 편리하도록 한다.

무릇 마병이 자기 말의 풀을 깎아서 줄인 자는 엄중히 다스리고, 이와 아울러서 말을 잘못 길러 수척하게 만든 자도 책임을 추궁한다.

이상의 법은 모두 초관(哨官)에게 감독하고 문책할 책임이 있으며, 파총(把總)은 이를 살피서 조사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기총(旗總)과 대총(隊總)은 이를 자세히 헤아려 살필 책임이 있다.

무릇 원래 책정된 마초의 지급에 관해서는, 지급되는 날 해당 부대의 대총(隊總)은 하루에 한 번 조사하고, 초관과 천총(千總)은 평상시에 사람을 보내어 종합하여 조사한다.

만약 군마의 사료를 팔아먹거나 꾸어주는 방식으로 남에게 제공한 자는 조사해 내어서 군마의 사료는 본군(本軍)에 회수하고 군법(軍法)으로 곤장을 치며, 기총(旗總)은 죄를 면죄한다. 만약 붙잡혀서 잘못이 드러나면 해당 부대의 대총(隊總)이 검사 보고하여 한꺼번에 연좌시켜 팔아넘긴 자와 사들인 자를 함께 처벌한다.

무릇, 말은 비록 사람이 기르는 짐승의 부류이나 그가 드러내는

피땀어린 노고와 전진(戰陣) 사이에서 국가(國家)를 위하여 힘을 다함은 관군(官軍)과 더불어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또 군사(軍士)를 위하여 타고 오르게 하여 수고를 대신하니, 이 또한 가장 공이 큰 군사인 것이다.

싸움터에 나가서 죽었을 경우에는 귀와 발굽을 잘라 그 사실을 보고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리고 해당 아문(衙門)에서는 모두를 땅속에 파묻되, 이를 벗기고 잘라서 식용(食用)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만약 여기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군법으로 엄중히 다스린다. 무릇 관부(官府)에서는 가죽을 보내어 검사를 받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에 이 조목을 가지고 증거로 삼을 책임이 있다.

▣ 양화병간수[養火兵看守 : 화병을 양성하여 간수하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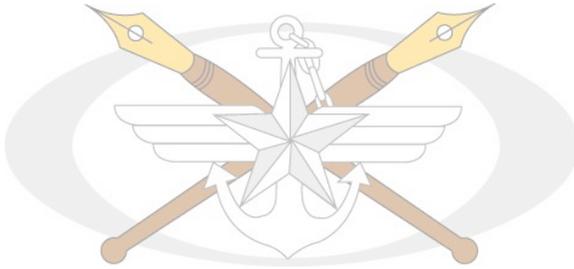
마상(馬上)의 안장(鞍裝)과 고삐에 딸린 부품은 15종이니, 매번 1개월마다 영장(營將)이 한 차례를 점검하고, 매번 반개월마다 파총(把總)이 한 차례를 점검하고, 매 세 차례 조련(操練)을 마칠 때마다 기총(旗總)과 대총(隊總)이 한 차례를 감독 조사한다. 거기에 이어서 모름지기 몸소 사창(仕倡)이 되어 반드시 규정된 조목을 대조하되, 먼저 자기의 말을 가지고 일일이 점검한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군사들에게 규칙대로 하지 않은 죄를 책망할 수 있는 것이다.

소속된 휘하에 몸소 사창(仕倡)이 되어 반드시 규정된 조목을 대조하면서, 먼저 자기의 말을 가지고 일일이 점검하는 절차를 행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 영장이 조사해 내어 죄가 가벼우면 스스로 문책하여 다스리고, 죄가 무거우면 주장(主將)에게 보내어 엄중히 다스린다. 영장의 말은 대장(大將)의 허락을 받아 점검하고 이를 다스린다.

『시경(詩經)』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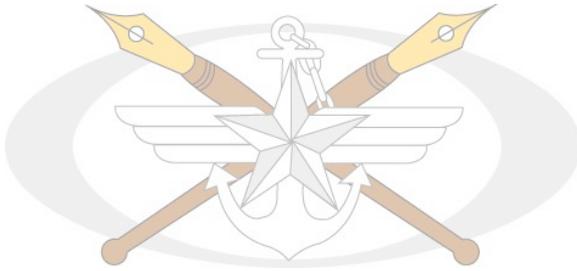
마음가짐이 착하고 깊을 뿐만 아니라 秉心塞淵
큰 암말이 삼천필이나 되도다. 駉牝三千

장령(將領)들은 이를 명확히 익히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紀效新書(上)]

권6 비교편[比較篇]



■ 권6 비교편[比較篇]

호령(號令 : 지휘 명령 체계)이 이미 분명해지면 형벌(刑罰)과 표창(表彰)이 또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머무르고 움직이며 나아가고 물러남에 마땅히 전쟁(戰爭)에서 적군(敵軍)을 공격하여 죽이는 것과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찌르는 등의 무예(武藝)와 함께 가르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예를 비교(比較)함에 법이 없을 수 없으니, 여러 가지 무예의 법칙을 모르고서 비교하는 책임을 맡기면, 거기에 화법(花法)이 들어가고 정법(正法)은 혼미해질 것이니,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 비교편(比較篇)을 차례에 넣은 것이다.

▣ 비무예해[比武藝解 : 무예 비교에 대한 해설]

무릇 무예(武藝)란 것은 관부(官府)의 공사(公事)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네가 싸울 때가 되어서 몸을 지켜서 적을 죽이고 공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것이다. 너의 무예가 고강(高強)하면 결단코 적을 죽일 수 있을 것이니, 적이 어떻게 너를 죽일 수 있겠는가? 만약 너의 무예가 상대방만 못하면 상대방이 결단코 너를 죽일 것이니, 만약 무예를 배우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물며 관비(官費)를 소비하고 또 상벌(賞罰)까지 있으니, 사사로이 비용을 들여서 교사(教師)를 청해다가 무예를 배우는 것에 비하여 편리하고 유익함이 많다. 생각건대, 지난 날에 그대들 모든 병사가 무예(武藝)를 배우지 않고, 기계(器械 : 병기)를 닦지 않고, 중갑(重甲)을 착용치 않으면서, 마음 편한이 지내고 있다가 적을

보면 곧바로 달아난다. 평소에 창과 칼을 손에 잡고 익숙하게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이니, 모든 원인은 스스로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전진(戰陣)에 임하여 평소(平素)에 기율(紀律)이 없으면 의당 먼저 달아나 공(功)과 죄(罪)가 불명하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싸울 마음이 없는 것이다. 이제 연좌법(連坐法)이 이미 정해지고, 호령(號令)이 이미 분명해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감에 모두 법식(法式)이 있으니[전약(戰約)의 조항을 보라], 십만인이 전진(戰陣)에 임하여 설사 한 사람이 먼저 물러나더라도 조사해서 법식의 조문에 의거하여 시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대들에게는 이미 몸을 빠져서 달아날 방도가 없으니, 무예를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이는 생명을 원수에게 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만약에 몸에 두툼고 든든한 투구나 갑옷이라도 입었으면 상대방이 나를 찌르고 베어도 상처를 입히지는 못할 것이니, 나의 무예가 보잘 것 없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고, 나도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으니, 어찌 구태어 갑옷을 입지 않고서 곧바로 죽는 것과 같겠는가? 이것을 생각하라. 이것을 생각하라.

▣ 권화병[勸火兵 : 화병을 권면함]

무릇, 화병(火兵 : 취사병) 가운데에서 능력이 있고 열심히 배워서 무예(武藝)를 정통하게 익힌 자는 병사(兵士)로 승진시키고, 병사들 가운데에 게을러빠져서 무예를 익히지 않고 호령(號令)에 익숙하지 못하여 서투른 자는 교체한다. 매월마다 한차례씩 시험하며, 평시에는 각 화병이 스스로 신고하면 즉시 시험하여 교체한다.

▣ 대비교[大比較 : 대규모로 무예를 비교함]

사격술(射擊術)의 비교(比較)는 이렇게 한다. 중군(中軍)이 호포

(號布) 한방을 터뜨리고 남색 고초기(高招旗)를 올리면 각 영(營)의 사수(射手)는 모두 중군 진영으로 와서 중군의 지시를 받고 파총(把摠)의 시험을 받는다.

이때 중군은 먼저 친병(親兵) 1기(旗)를 배정하여 보궁(步弓)⁸⁷⁾이 점검하는 것을 호위하여 따라다니면서 몇 보(步)인가를 보고하고, 10보(步)에 1고(鼓)를 울려, 이에 도달하면 멈추게 한다. 그리고, 뇌고(擣鼓)와 놀함(吶喊)에 대취타(大吹打)를 연주하여 대장에게 파총(把摠) 진영의 점검이 끝났음을 보고한다.

중군(中軍)은 먼저 시전(視箭)·수전관(數箭官)·창사(唱射)·하주(下籌)·고수(鼓手)를 배정하여 대기하게 한다. 다섯 사람을 창명(唱名)하여 한 줄로 세워 놓고 시험받게 한다. 사람마다 각각 화살 아홉 대씩을 쏘는데, 창사는 차례에 따라 한다. 화살 한 대가 떨어지면 다시 한 대를 쏘라고 창명(唱名)하고, 화살이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다시 창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그렇게 한 자를 처벌한다.

만약 창명하는 자가 소리의 빠르고 느린 속도를 범칙에 맞게 했는데도 쏘는 자가 이를 따르지 않아서 쏘는 데에 빠르거나 느림이 있으면 즉시 그 화살 한 대에 벌점(罰點)을 가한다. 무릇 화살을 쏘는 데에 있어서는, 몸을 세운 자세가 시령에 걸친 것과 같은 입신대가(立身大架), 화살을 매길 때 허리를 재빨리 움직이는 탑전요쾌(搭箭腰快), 눈으로는 오직 적만 바라보는 안전시적(眼專視賊), 앞 손으로는 자세를 안정시키는 전수주정(前手主定), 뒷 손으로는 활줄을 힘있게 당기는 후수가력(後手加力), 앞 손으로는 활을 쥐는 전수과궁(前手把弓), 화살은 마치 달이 솟아 나오듯 한 모습의 여월출전(如月出箭) 등, 이 여러 가지 자세들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자를 상등(上等)으로 한다.

그 가운데에 만요(彎腰)·기마(騎馬) 등의 사법(射法)도 있으나,

87) 보궁(步弓) : 토지(土地)를 측량하는 데에 쓰는 나무로 된 도구. 위에 자루가 있는데, 모양이 활처럼 생겼으며, 두 다리 사이의 거리를 1보(步)로 하였는데, 옛날 영조척(營造尺)의 5자(尺)에 해당한다.

이미 정통하고 숙달된 사람은 반드시 바꾸어서 연습할 필요가 없다. 이른바 옛날 한단(邯鄲)의 걸음걸이⁸⁸⁾를 배우려 하는 실수를 저지를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활쏘기는 서는 것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입신대가(立身大架)의 사법(射法)으로 바꾸어서 따르려고 애를 쓴다. 이 사법은 과녁 한 복판을 맞추는 데에 전념하지 않고 굳센 활을 잡아당겨 큰 화살을 쏘아서 평평하고 멀리 날아가서 깊이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이니, 이는 등급을 뛰어넘는 초등(超等) 사수이니, 예사롭게 대우해서는 안된다.

쏘아서 멀리 날아가지는 못했으나 굳센 활을 평평하게 당겨서 무거운 화살을 쏘아 맞힐 수 있는 자는 2등(二等)이다.

쏘아서 멀리는 날아가기는 했으나 평평하지 못하며 화살이 가볍고 활이 유연한데 많이 맞힌 자는 3등(三等)이다.

왜놈 오랑캐들의 활쏘기는 모두 멀리 날아가지를 못하는데, 화살이 무겁기 때문이다. 화살이 무겁기 때문에 사람이 맞으면 깊이 들어가 중상(重傷)을 입힌다. 왜놈들의 화살은 활축 뒷부분의 쇠로 된 화살대의 길이가 7~8치(21~24cm) 내지 1자(30cm)에 이르기 때문에 사람 몸 깊이까지 들어간다. 사거리(射距離)는 멀어야 80보

88) 한단(邯鄲)의 걸음걸이 : 『장자(莊子)』의 「추수편(秋水篇)」에 다음의 이야기가 나온다. 공손룡(公孫龍)은 중국 전국시대 조(趙)나라의 사상가로 자신의 학문과 변론이 당대 최고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장자(莊子)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변론과 지혜를 장자와 견주어 보려고 위(魏)나라의 공자 위모(魏牟)에게 장자의 도(道)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장자의 선배인 위모는 공손룡의 의중을 알고는 안석에 기댄 채 한숨을 쉬고 하늘을 우러러 웃으면서 우물 안의 개구리가 밖의 세상을 볼 수 없다 라고 말하고, 가느다란 대롱구멍으로 하늘을 보고 송곳을 땅에 꽂아 그 깊이를 재는 꼴이라며 비웃었다. 그리고는 이어서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네는 저 수릉(壽陵)의 젊은이가 조(趙)나라의 서울인 한단(邯鄲)에 가서 그곳의 걸음걸이를 배웠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가? 그는 한단의 걸음걸이를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본래의 걸음걸이마저 잊어버려 옆드려 기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걸세. 지금 자네도 장자에 이끌려 여기를 떠나지 않고 있다가는 그것을 배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네 본래의 지혜를 잊어버리고 자네의 본분마저 잃게 될 걸세.” 이 말을 듣고 공손룡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도망쳤다고 한다. 이 고사에서 ‘한단지보(邯鄲之步)’라는 말이 비롯되었으며, 이는 자기 본분을 잊고 함부로 남의 흉내를 내는 지각없는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웃어준 이야기이다. 한단학보(邯鄲學步)와 같은 말이다.

(步)가 그 한계이다. 보궁으로 5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중원척(中原尺)과 재척(材尺)과 의척(衣尺)과 보궁(步弓)은 모두 각각 파총(把摠)이 만들어 매 총(總)마다 대소 4개씩 보유하라. 모두 형겅에다가 오랑개의 형상을 그리고 그 위에 나무 말목 두 개를 사용하여 네 모서리에 노끈을 묶고 못을 박아 가지고 다니기에 편리하게 한다. 높이는 7자(210cm)이니, 사람이 말을 타는 형상과 같다. 넓이는 2자(60cm)이니, 사람이 막 몸을 돌리는 것과 같다. 모두 사람과 비교해서 약간 뚱뚱해 보인다.

▣ 교화기[校火器 : 화기를 비교함]

활쏘기(弓射) 무예의 비교가 끝나면, 다시 20보를 옮긴 다음, 중군(中軍)이 호포(號布) 한방을 터뜨리고 홍색 고초기(高招旗)를 세우는데, 이는 총(銃)을 지휘하는 기(旗)이다. 이 기가 세워지면 조총(鳥銃)·호준포(虎蹲砲)·불랑기(佛狼機)·화전(火箭)은 모두 중군 진영으로 와서 중군의 지시를 기다린다.

조총수(鳥銃手)는 5인의 이름을 부르면 곧 대(臺) 위로 올라가 주장(主將)의 면전에 나란히 선다. 먼저 총구의 크고 작음을 살피고 평일에 각 담당 부서에서 일찍이 총을 가지고 총구가 서로 같은 것을 뽑아 비교하여 같은 기(旗)로 편성했는지 아닌지를 살펴본다. 이어서 납 탄알이 표준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총구에 맞는 지 여부를 본다. 그리고 탄알의 마광(磨光) 상태, 개수 등을 일일이 헤아려 무게의 적합성과 각 총구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탄알이 흘러 들어가기 쉽고 어려움은 삭장(槩杖 : 꼬질대)을 써서 밀어내려 보아서 법식에 맞는지를 보고, 발사해서 힘이 있고 바른지를 본다.

삭장은 견고해야 하니, 그 묘리는 삭장의 끝과 총구가 맞음에 있고, 삭장이 곧바로 들어가 밑바닥에 이르면 배[총의 중심 내부]가 둥글고 곧은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화문(火門 : 화기의 아가

리)은 작은 것을 법식(法式)으로 삼는다. 화승은 바짝 건조되는 것을 법식으로 삼는다. 화약은 건조하고 가늘고 성질이 빠른 것을 법식으로 삼는다. 화승은 그 굵고 가늘음과 장단을 보아 앞의 법식에 맞도록 힘쓰고, 약관(藥管)은 총의 대소를 가지고 판단하며, 장약(裝藥)과 총구(銃口) 및 탄알은 둘로 나누어 조사하고 점검해서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함을 법식으로 한다. 짐물(什物:부속기구)·약(藥線:불심지)·석별(錫籠:화약통)·연자대(鉛子袋:탄알주머니)는 법식에 맞는지를 일일이 조사 점검한다.

모든 약은 본인으로 하여금 직접 맡아 5푼을 불에 당겨서 그 완급(緩急) 여하를 시험하며, 총의 표적은 반드시 백보를 기준으로 한다. 마땅히 총가(銃歌:총기취급요령구호)를 옆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장전이 끝나면 사격할 장소로 가서 나팔이 한 번 울리면 한 사람이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시작한다. 매 1인당 9발로써 그친다. 보명(報名)이나 하주(下籌) 등은 모두 활쏘기의 예를 참조한다. 조총수는 반드시 눈으로 보아야 한다.

두 가능자를 일치시켜 손을 움직이지 말고 머리를 돌리지 않으면서 명중시킨 횟수가 많은 것을 상등으로 친다. 발사 방법은 법식과 같이 한다. 그리고 명중한 횟수가 적은 자는 그 다음으로 하되, 발사시 머리를 돌리고 손을 흔들면 비록 명중했다라도 하등에 둔다. 가장 먼저 발사를 마친 총은 또다시 장전을 마치고 나서 재차 발사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조총은 본래 이기(利器)로서 적을 치는데 가장 믿을 수 있는 병기이다.

그런데 어찌 각 군병들은 이 가장 믿을 만한 병기의 중요성을 생각지 않는 것인가? 조련(操練)할 때와 전진(戰陣)에 이르렀을 때 여러 사람이 일제히 발사하면 연기와 화염이 독기가 되어 가득히 퍼져서, 한 눈으로 보는 것과 한 손으로 가리키는 것 모두가 불편하다. 총신(銃身)을 잡을 때에는 뺨과 얼굴을 붙이지 않고 가능자를 맞추지 않으며, 그저 손을 낮게 늘어뜨려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을 써서 화승에 점화를 하고 용두(龍頭:화승을 물어주는 갈고리)를 사용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다만, 이것이 생소하며 담력이 적고 황망하여 화승을 끄집어 내어 용두에 집어 넣지를 못하고 빨리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면 틀림없이 맞추지 못할 것이니, 조총을 소중히 여길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하물며 조총이란 이름을 붙인 것은 그것이 능히 나르는 새를 맞출 수 있음을 이룬 것이다. 즉, 조총이 목표물을 맞추어 명중을 많이 시킨 것을 표준으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조총을 이와 같이 취급한다면 그 형세가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겠다. 바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적을 맞출 수 있겠으며, 하물며 새를 맞출 수가 있겠는가?

각 대(隊)에는 10총(銃)이 있는데, 이를 2층(層)으로 나누면 5층이 되고, 이를 5층으로 나누면 2층이 되며, 만약 층을 나누지 않으면 10총 1열(列)이 된다. 적이 멀리 있을 경우, 대장은 총 없이 눈으로 총수의 미세한 잘못을 살펴 보고, 손으로 자세를 바로잡아 준다. 이와 같이 단도리를 한 후에도, 조총과 쾌쟁(快鎗: 화포)을 쏠 때에는 대장이 총수를 따라다니면서 감독 관찰한다.

만약 전과 같이 그대로 손을 늘어뜨리고 이를 쏘거나, 뺨과 얼굴을 붙이지 않고 가슴자를 맞추지 않거나, 한 손으로 점화를 하거나, 혹은 점화하지 않거나, 혹은 화문(火門: 화기의 아가리)을 손상시키거나 하늘을 향하거나 땅을 향해서 발사하는 자에게는 대장이 다음의 조치를 취하도록 허용한다. 평시에는 패(牌)를 떼어 압수하거나 약통을 압수하거나 모자를 압수하는 것을 허용하여 군을 따라다니면서 적발에 힘쓰도록 하되, 간편하게 기구 한 가지를 증거로 삼도록 한다.

조련이 끝난 뒤에 각 총(摠)에 보낸 다음, 대동하여 영장(營將)의 지휘부로 가서 처치를 받는다. 만약 정식조련이나 싸움터에서의 경우에는 귀를 베거나 수염과 머리카락을 베어 즉시 주장에게 보내면 목을 베어 여러 사람에게 보이고, 해당 대장(隊長)은 그 연좌를 면한다. 만약 서로 숨겨주다가 검열을 통해 적발되면 대장은 함께 연좌되고, 전진(戰陣)에서는 대장과 병을 함께 목낸다.

불랑기(佛狼機)는 각 좌(座)마다 자총(子銃) 9개가 있는데, 각 위(位)마다 3명을 써서 장전과 발사를 맡게 한다. 2명은 각각 자총 1문(門)을 잡고 먼저 대 위로 올라간다. 주장은 모총(母銃)의 총복(銃腹 : 총의 배통) 안이 둥글게 반짝이고 깨끗한가? 자총의 총구 주위가 촘촘하게 조여져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가의 여부, 자총과 모총이 꼭 들어맞는가의 여부, 탄환 크기가 자총의 총구 크기와 맞는가의 여부, 화약주머니에 담겨진 화약량의 적정 여부, 약선의 길고 짧음과 연소 속도의 빠르고 느림이 규칙에 맞는지의 여부, 화약과 탄환 다지는 쇠몽둥이가 총구로 잘 드나들고 약선 자르는 가위가 날카로운지의 여부, 총기의 받침대 시령을 빠른 속도로 높이하고 낮게 하고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 편리하게 되어 있는가의 여부, 포탄 하나를 3명이 함께 장전하는데 총가를 외우며 장전하고 채우는 것이 법식에 맞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이 끝나고 사격을 하기에 이르면 자바라를 한 번 불 때마다 한방을 쏜다. 한 사람이 세 방을 쏘는데, 맞추는 자는 지위를 뛰어 넘겨 승진시키는데, 이에 대해서는 따로 논한다. 맞지는 않았으나 법식과 같게 한 자는 추궁을 면제한다. 높낮이가 현저히 차이 나거나, 빗나감이 너무 심하거나, 경계를 어겨서 뒤쪽에 배열하거나, 잡고 쥐는 자세가 일정치 않은 자는 모두 하하등으로 한다.

호준포(虎蹲砲)는 바로 백자총(百子銃)이니, 그 모양이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은 것과 같다는 데에 연유하여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다. 먼저 포신(砲身)을 보고, 다음에는 화약을 보고 약선(藥線)을 태워서 연소 속도가 빠르고 느린지의 여부, 화약과 탄환 다지는 쇠몽둥이가 총구로 잘 드나들고 약선 자르는 가위가 날카로운지의 여부, 화약 뒷박의 크고 작음과 화약주머니에 담겨진 화약량의 적정 여부, 화승이 바짝 마르고 팽팽한지와 화약 다지는 나무 송자(送子)와 나무 꼬챙이가 단단한지의 여부, 큰 탄알은 돌 탄알이건, 납 탄알이건 관계없이 포의 구경에 맞는지의 여부, 목마(木馬 : 격목)은 부드럽게 내려가 포구의 평평하게 자리잡았는지와 작은 납탄환과 쇠탄환은 수량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이 끝나고 매 1기 휘하의 3대의 대장은 호준포 1문을 널찍한 곳에 함께 장착하고 총가를 외우면서 장전을 하는데, 화약이 어디에 이르고, 목마가 어디에 이르고, 탄환이 어디에 이르렀는가를 반드시 일일이 법식에 맞게 하며, 그런 다음에 발사하도록 하는데, 표적을 맞치면 초등(超等)으로 한다. 이 화기는 탄환의 수효가 많으므로 반드시 표적을 맞추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만약 맞추지 못한 자는 하하등급으로 평가한다.

화전(火箭)을 발사함에 있어서는 먼저 화전이 법식에 맞게 쇠뇌(鉏) 위에 안정되게 거치되었는지, 바르고 곧게 잡았는지를 보아서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 비록 높이 쏘아 올려서 떨어뜨리는 것이나, 그 자세가 나로 말미암지 않아, 머리가 돌아가거나 손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앞 손으로 한 군데를 고정시키고 뒷 손으로 높낮이를 조절하면 법식에 맞는 것이다.

무적신비포(無敵神飛砲)는 원래 신기(神器)로 정해진 것이다. 관병(官兵)이 대상(臺上)에다가 운반해 놓으면 먼저 자총과 모총이 들어맞는지의 여부를 보고, 다음에는 철산(鐵門: 쇠빋장)이 단단하고 두터운가와 화약을 다지고 덮는 낭두(榔頭)와 송자(送子)와 목마(木馬: 격목)가 포구에 평평하게 들어맞았는가를 본다. 그리고, 약선(藥線)을 태워보아서 연소 속도와, 길고 짧음이 격식에 맞는가를 보고, 화약주머니에 담겨진 화약량의 합치 여부, 탄알과 화약에 따르는 도구의 부족하지 않음의 여부, 이 여러 가지 조건이 격식에 세밀히 들어맞는지를 본다. 장치를 법식에 맞게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호준포의 등급과 차례를 살펴서 평정하는 예를 참조한다.

▣ 수화기[收火器 : 화기의 수납 관리]

매번 사격이 끝나면 총을 씻어서 말리며 계속해서 비가 내리면 처음 개이는 날 또한 곧바로 한 차례 씻어서 말린다. 평일에는 총가(銃架)에 수납하되 법식대로 하여 습기로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만약 총가에 수납하기를 법식대로 하지 않고 벌에 쪼여 말리지 않아 손상이 있게 한 자는 본역(本役 : 당사자)은 군법에 의해 중히 처단하며, 대장(隊長)을 연좌하여 그대로 배상시키는 벌을 준다.

▣ 찰유실[察遺失 : 총기유실에 대한 감독]

모든 화기(火器)와 죽통[竹筒 : 화약을 담는 데 쓰는, 대로 만든 긴 통], 화승(火繩), 화선(火線), 시주[匙鏟 : 화약넣는 수저], 도전[刀剪 : 약선 자르는 가위], 유단[油單 : 기름에 곁은 두껍고 질긴 큰 종이], 화약(火藥) 등 일체가 온전하지 못한 채로 입장하거나, 휴대하고 오는 것을 잊었거나, 화약이 건조되지 않았거나, 이상의 각각이 법식에 맞지 않으면 대장(隊長)을 함께 처벌하고 장본인은 가중하여 다스린다.

▣ 계손폐[稽損廢 : 손실품과 폐품의 조사]

병사가 휴대하는 각종 화기의 부품이 파손되었을 경우, 만약 사사로이 만들 수 없는 것은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각 기총(旗摠)은 이를 다시 상부에 보고하여 만들어 지급하도록 한다.

▣ 교원패[校圓牌 : 원패를 비교함]

중군(中軍)이 호포(號布) 한방을 터뜨리고 흑색 방기(方旗)를 올리면 이는 패(牌)를 모이게 하는 기의 신호이니, 각 영(營)의 패수(牌手)는 모두 중군 진영으로 와서 중군의 지시를 받는다. 두 사람을 창명(唱名)하여 한 줄로 세워 놓고 시험받게 하는데, 방패로 몸을 가리는 것을 묘기로 삼는데, 머리를 낮추고 앞으로 나아가 말을 타고 덤벼드는 적에 대해서는 말의 다리를 찍어 제치고, 도보로 덤벼드는 적에 대해서는 사람의 다리를 찍어 제친다. 원래는 퇴보(退步)하고 도무(跳舞 : 뛰면서 춤을 춤)하는 보법이 있으나, 전진(戰陣)에 임해서는 도무(跳舞)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다음 장창수(長槍手)를 운용하여 맞닥뜨려 찌르게 한다. 창이 다가감에도 허둥지둥하지 않고 먼저 움직이지 않으며, 창이 한번 찌르면 곧바로 창을 따라 나아가고, 창 끝이 멈춘 뒤에는 다시 멈추고, 창끝이 다가올 때에는 걸음걸음마다 창을 막고, 구태어 방패로 사람을 막지 않고, 창을 향하여 칼로 막고 사람을 향하여 배면서 창수(槍手)의 몸을 향해 다가간다. 이를 상등으로 한다.

뛰면서 움직이는 동작은 서투르나 숙련된 상대와 대등하게 견줄 경우에는 중등(中等)으로 한다.

뛰면서 움직이는 동작은 익숙하나 서투른 상대와 대등하게 견줄 경우에는 하등(下等)으로 한다.

창이 다가감에 먼저 움직여 허둥지둥하는 자는 겁이 많고 배짱이 없으므로 그런 사람은 쓸모가 없으며, 방패(防牌)와 칼을 어지럽게 휘둘러 창을 막는 방법을 모르는 자는 하하등(下下等)으로 한다.

▣ 교표창[校鏢槍 : 표창을 비교함]

은전(銀錢) 3개를 30보(步) 안에 세워 놓고 표창(鏢槍)을 던져서 한 가운데를 맞추거나, 위, 가운데, 아래, 어디를 맞추거나에 상관 없이 숙달된 것으로 평가한다.

▣ 교장도당파[校長刀鎗鈹 : 장도와 당파를 비교함]

중군(中軍)이 호포(號布) 한방을 터뜨리고 백색 방기(方旗)를 올리면 이는 장도수(長刀手)와 당파수(鎗鈹手)를 모이게 하는 기의 신호이니, 각 영(營)의 장도수(長刀手)와 당파수(鎗鈹手)는 모두 중군 진영으로 와서 창명(唱名)하기를 기다린다.

왜도(倭刀)는 두 사람을 창명(唱名)하여 한 줄로 세워 놓고 시험 받게 하는데, 도무(跳舞)하는 길이 많아 몹시 빠른 것을 상등으로 한다. 다음에는 왜도(倭刀)를 가지고 서로 맞닥뜨려 베는데, 칼은 위 아래로 들고 내림이 몹시 빨라서 상대방이 틈을 타고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자를 상등으로 한다.

당파(鎗鈹)는 두 사람이 한 줄로 서서 함께 쓰는데, 평평하게 움직이면서 자루를 흔들리게 하는 것은 힘이 있어서이다. 도무(跳舞)하는 기술이 익숙하면서도 팽팽하고 몹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상등으로 한다. 도무(跳舞)가 끝나면 장창수와 맞닥뜨려 겨루는데, 대개 단병(短兵)으로 장창(長槍)과 접촉하지 않으면서 열 번 찔러서 아홉 번 들어가고, 창이 유인해도 동요하지 않고 당파(鎗鈹)를 잡음에 기세가 넘치며, 창이 나아올 적에는 걸음걸음마다 당파 끝으로 창끝을 견제하면서 한 번 치고 한 번 찌르면서 들어가는 자를 상등(上等)으로 한다.

창이 다가오면 손이 움직이고 몸이 흔들리며 창이 나아올 적에 기창(騎槍)⁸⁹⁾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줄 모르는 자를 하등(下等)으로 한다.

■ 교장창[校長槍 : 장창을 비교함]

중군(中軍)이 호포(號布) 한방을 터뜨리고 홍색 방기(方旗)를 올리는 면, 이를 듣고 본 각 창수(槍手)는 모두 중군 진영으로 와서 창명(唱名)하기를 기다린다.

두 사람을 한 반(班)으로 하는데, 도무(跳舞)할 때에는 창신(槍身)이 부드럽게 흔들리도록 손을 익숙하게 놀리는 자를 상등(上等)으로 한다. 두 사람이 맞닥뜨려 겨룰 때에는 교봉(交鋒)하던 창이 서로 떨어지면 곧바로 나아가는 자를 상등(上等)으로 한다. 만약 교봉하던 창이 서로 떨어졌는데도 나아갈 줄을 모른 채 창을 멈추고 상대방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는 자를 하등(下等)으로 한다.

■ 교대봉[校大棒 : 대봉을 비교함]

중군(中軍)이 호포(號布) 한방을 터뜨리고 남색 방기(方旗)를 올리면, 이를 듣고 본 곤수(棍手)는 모두 중군 진영으로 모이고, 화병(火兵)도 또한 곤수이니, 와서 창명(唱名)하기를 기다린다. 봉수(棒手) 두 사람이 맞닥뜨려 치고 받을 때에, 내리치면서 지르는 소리가 중후하고 힘차면서도 상대방의 본새가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89) 기창(騎槍) : ①기병(騎兵)이 쓰던 긴 창 ②조선(朝鮮) 시대(時代) 때 말을 타고 창을 쓰던 법. 무술(武術) 시험(試驗)에 말을 타고 달리면서 좌우(左右)에 선 추인(蜀人 : 꼴로 만든 사람)을 창으로 차례(次例)로 찔렀는데, 한 번 맞히면 5점씩 주었음.

박위(拍位)⁹⁰ : 악곡의 박자치는 위치. 여기서는 힘을 주어 내리쳐야 할 위치)의 아래를 내리치고, 상대방의 끈을 아래로 밀어붙이면서 나아가는 자, 그리고 진로의 가짓수가 다양한 자를 상등으로 한다. 치는 기세가 힘이 없으나 숙달된 자, 그리고, 힘이 있으나 서투른 자는 중등으로 한다. 겁을 먹고 더디게 치며 늦게 들어올려 적을 기다리는 자는 하하등(下下等)으로 한다.

▣ 교눌함[校唵喊 : 고향 소리를 비교함]

‘눌함(唵喊 : 고향 소리)’은 군(軍)의 위세를 왕성하게 드높이는 원인이나 조건이 된다. 만약 가지런히 정돈되어 일치단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순시기(巡視旗)가 잡아다가 군법으로 다스린다.



▣ 교마기[校磨旗 : 깃발 휘두르는 것을 비교함]

영(令)에 따라 시행하는데, 깃발을 휘두를 때 두 손으로 밀어 펼쳐서, 높이 들어 올린 다음에 기의 몸을 엮었다가, 기의 허리를 돌리고, 기의 머리를 한 바퀴 돌린 다음에 비로소 일으켜 세운다.

▣ 교타고[校打鼓 : 북치는 것을 비교함]

무릇 북을 치는 자세는, 단단한 나무로 북채를 만들어서, 시작은 느리게, 끝맺음은 빠르게 한다. 두 손을 높이 들어 이마를 지나게 하여 침착(沈着)하고 장중(莊重)하게 북을 치면 소리가 가지런하고 멀리 퍼진다.

90) 박위(拍位) : 악곡의 박자치는 위치. 여기서는 힘을 주어 내리쳐야 할 위치

▣ 비분구칙[比分九則 : 비교하고 구분하는 아홉 가지 법칙]

상등의 삼칙(上等三則) 상상(上上) 상중(上中) 상하(上下)

중등의 삼칙(上等三則) 중상(中上) 중중(中中) 중하(中下)

하등의 삼칙(上等三則) 하상(下上) 하중(下中) 하하(下下)

- ◆ 지극히 정예롭고 지극히 숙달되어 상의 상(上上) 범위 밖으로 드러나, 기능을 체득하고 마음이 상응하여 스스로 기미와 법칙을 알아서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자는 초등(超等)으로 한다.
- ◆ 도무(跳舞)하여 대결함에 있어서, 기운이 세차고 올바른 법칙에 어긋나지 않고, 거기에 더하여 빠르고 숙달되어 있는 자, 또 기능을 체득하고 마음이 상응하나 초등에는 한 칸이 미달되는 자는 모두 상의 상(上上)으로 한다.
- ◆ 도무(跳舞)하여 대결함에 있어서, 기운이 세차고 올바른 법칙에 어긋나지 않고, 또 몹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며, 혹은 몹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나 약간 겁이 있는 자, 혹은 다만 몹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자는 상의 중(上中)으로 한다.
- ◆ 도무(跳舞)하여 대결함에 있어서, 기운이 세차고 올바른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자로서, 혹은 속도가 좀 모자라거나, 혹은 겁이 있는 자는 상의 하(上下)로 한다.
- ◆ 도무(跳舞)하여 대결함에 있어서, 올바른 법칙에 합치되고 또한 숙달되어 있으나, 속도가 약간 느리거나, 혹은 약간 약한 자는 중의 상(中上)으로 한다.

- ◆ 도무(跳舞)하여 대결함에 있어서, 기운이 세차고 올바른 법칙에 합치되나, 약간 서투르고 매끄럽지 못한 자는 중의 중(中中)으로 한다.
- ◆ 도무(跳舞)하여 대결함에 있어서, 기운이 세차고 올바른 법칙에 합치되나, 상대방과 맞서서 약간 서투르고 매끄럽지 못한 자는 중의 하(中下)로 한다.
- ◆ 무예는 비록 약간 숙달되어 있으나 올바른 법칙을 모르는 자, 올바른 법칙에 합치되나 숙달되어 있지 못한 자, 숙달되어 있으나 속도가 느리고 둔한 자는 하의 상(下上)으로 한다.
- ◆ 도무(跳舞)를 하나 대결을 할 줄 모르는 자와, 대결을 하나 도무할 줄을 모르는 자는 비록 정예로워도 단지 하의 중(下中)으로 한다.
- ◆ 도무(跳舞)하여 대결하는 한 가지 일(기능)은 할 수 있으나 도무(跳舞)하여 대결함에 서투르고 올바른 법칙에 모두 어긋난 자는 비록 숙달되어 있다 할지라도 또한 하의 하(下下)로 한다.
- ◆ 도무(跳舞)하여 대결하는 두 가지 일(법칙과 기능)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익히지 않은 자를 부지(不知)로 한다.

이상을 비교(比較)에 관한 조문들과 함께 법식(法式)으로 삼아 종합적으로 참고하면 자연히 그 본질을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 비잡류[比雜流 : 비정규 군속을 비교함]

무릇 비정규군속(非正規軍屬)인 잡류(雜流)의 무예는 창(槍)·총(銃)·사전(射箭)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가지고 이를 그대로 비교한다. 원래 사전을 하지 않은 자는 기패(旗牌)로 비교하게 하고, 사전을 할 수 없는 자에게는 하조호령(下操號令)으로 비교하게 한다.

취고수(吹鼓手) : 취타(吹打)로 비교하고, 이어서 하조호령(下操號令)으로 비교함.

오방기수(五方旗手) : 마기(磨旗)로 비교하고, 기호령(旗號令)을 병용함.

초요기수招搖旗手) : 마초요(磨招搖)로 비교하고, 기호령(旗號令)을 병용함.

금고기수(金鼓旗手) : 기호령(旗號令)으로 비교함.

문기수(門旗手) : 기호령(旗號令)으로 비교함.

좌독기수(左蠱旗手) : 기호령(旗號令)으로 비교함.

인기수(認旗手) : 기호령(旗號令)으로 비교함.

각기수(角旗手) : 기호령(旗號令)으로 비교함.

호총수(號銃手) : 총호령(銃號令)으로 비교함.

의생(醫生)·수의(獸醫) : 각각 의학(醫學)을 살핌.

각 가정(家丁) 1명은 살피지 않음.

화약장(火藥匠) : 화전(火箭) 9대, 소약선(小藥線) 3가닥, 대장군포(大將軍砲) 등의 장전과 발사법 등을 살피서 각기 무예 한 가지를 비교하게 하되, 그 잘하는 바를 따르게 함.

순시람기(巡視藍旗) : 각각 무예 한 가지를 비교하게 하되, 순시호령(巡視號令)으로 함.

수영과당(隨營擺塘)·조탐야(瓜探夜)는 거두지 않고 당보호령(塘報號令)과 궁시(弓矢)로 비교하게 하며, 이어서 다른 무예 한 가지를 비교하게 함에는 사격을 위주로 하되, 사격을 할 줄 모르는 자는 칼쓰기를 위주로 하도록 한다.

▣장관과 파총 휘하의 잡류

서기(書記) : 사격으로 비교하게 하되, 사격을 알지 못하는 자는 다른 무예 한 가지를 비교하게 함.

군뢰(軍牢)·반당(伴佻) : 무예 한 가지를 비교하게 하되, 사격을 할 수 있는 자에게는 그렇게 하게 함.

집인기자(執認旗者) : 문기호령(門旗號令)으로 무예 한 가지를 비교하게 함.

가정(家丁) : 무예 한 가지를 비교하게 하되, 사격을 할 수 있는 자에게는 그렇게 하게 함.

마라부(馬騾夫) : 무예 한 가지를 비교하게 함.

주역(廚役) : 비교를 면제함.

신수(薪水) : 비교를 면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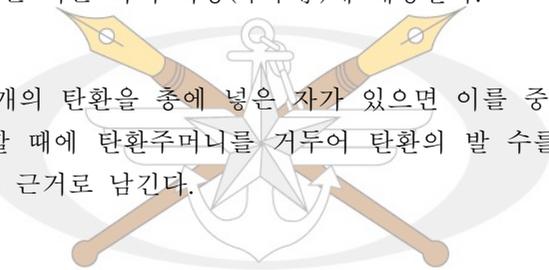
군반(軍伴) : 비교를 면제함.

이상의 잡류는 모두 각자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무예에 따라서 종류와 형태에 상관없이 비교한다. 그러나 대개 잡을 만한 자루가 있는 무기로서는 칼(刀)을 익히고, 잡을 만한 자루가 없는 무기로서는 봉(棒)을 익힌다.

궁전(弓箭)·불랑기(佛狼機)·조총(鳥銃)·쾌창(快鎗)은 모두 9발을 한도로 하고 매 발에 탄환 한 개씩만 넣게 한다.

- 9발을 맞춘 자는 초등(超等)에 해당한다.
- 8발을 맞춘 자는 상의 상등(上上等)에 해당한다.
- 7발을 맞춘 자는 상의 중등(上中等)에 해당한다.
- 6발을 맞춘 자는 상의 하등(上下等)에 해당한다.
- 5발을 맞춘 자는 중의 상등(中上等)에 해당한다.
- 4~3발을 맞춘 자는 중의 중등(中中等)에 해당한다.
- 2발을 맞춘 자는 중의 하등(中下等)에 해당한다.
- 1발을 맞춘 자는 하의 상등(下上等)에 해당한다.
- 맞추지 못한 자는 하의 중등(下中等)에 해당한다.
- 알지 못하는 자는 하의 하등(下下等)에 해당한다.

만약 두 개의 탄환을 총에 넣은 자가 있으면 이를 중별로 다스린다. 장전할 때에 탄환주머니를 거두어 탄환의 발 수를 모두 조조하여 이를 근거로 남긴다.



▣ 비연좌[比連坐 : 연좌하여 비교함]

매 1사(司)의 휘하에서 다 상(賞)을 받고 벌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를 초등(超等)으로 한다.

- 상의 수가 10분의 9인 경우를 상의 상등(上上等)으로 한다.
- 상의 수가 10분의 8인 경우를 상의 중등(上中等)으로 한다.
- 상의 수가 10분의 7인 경우를 상의 하등(上下等)으로 한다.
- 상의 수가 10분의 6인 경우를 중의 상등(中上等)으로 한다.
- 상의 수가 10분의 5인 경우를 중의 중등(中中等)으로 한다.

상의 수가 10분의 4인 경우를 중의 하등(中下等)으로 한다.

상의 수가 10분의 3인 경우를 하의 상등(下上等)으로 한다.

상의 수가 10분의 2인 경우를 하의 중등(下中等)으로 한다.

상의 수가 10분의 1인 경우를 하의 하등(下下等)으로 한다.

초등(超等), 상의 상등(上上等), 상의 중등(上中等), 상의 하등(上下等) 등은 모두 공로의 크고 작음에 따라 상을 주는 규정, 즉 상격(賞格)이 있다.

초등(超等)을 한 자에게는 상을 주는 외에도 교사로 승진시켜서 병사들을 가르치도록 하고, 성과가 뛰어난 교사에게는 관대(冠帶)와 사령장(辭令狀) 등을 지급하는데, 이러한 사례는 너무 많으면 안된다.

중의 상등(中上等)과 중의 중등(中中等)에 대해서는 추궁을 면제한다.

중의 하등(中下等)에 대해서는 장관(將官)이 처벌의 양을 정하는데, 중군(中軍)과 천총(千總)에게는 10대, 파총(把總)에게는 20대, 초관(哨官)에게는 30대의 매를 친다.

하의 상등(下上等)에 대해서는 장관이 중벌을 내리는데, 중군과 천총에게는 20대, 파총에게는 30대, 초관에게는 40대의 매를 친다.

하의 중등(下中等)에 대해서는 장관이 참장(參將)으로 강등되고, 중군과 천총은 매 20대를 맞고 파총으로 강등되며, 파총은 매 30대를 맞고 초관으로 강등되며, 초관은 매 40대를 맞고 기총(旗總)으로 강등된다.

하의 하등(下下等)에 대해서는 장관이 병사 훈련의 임무를 어기고 거역했다는 죄목으로 매를 맞고 참장에서 교체되며, 중군·천총·파총은 매 80대를 맞고 교체되며, 규정을 근거로 하여 반액을 감봉하고, 초관은 초를 떠난다.

▣ 상벌책식[賞罰冊式 : 상벌에 관한 문서 양식]

◆ 상벌비교책식(賞罰比較冊式 : 상벌을 비교하는 문서의 양식)

이 비교 문서 양식에는 모든 비교를 하는 장병의 이름을 미리 하의하 등급란 아래에 써놓고, 점검 결과의 순위를 각 등급란에 점으로 찍어서 표시한다.

【그림 116】 상벌비교책식 ①

上等		上等		上等		賞罰比較冊式 比較冊式凡比較稱將兵名填在天下之下當中空內閱過等第點在各等格內
上	上	上	上	上	上	
中	上	中	上	中	上	
下	上	下	上	下	上	
中等		中等		中等		
上	中	上	中	上	中	
中	中	中	中	中	中	
下	中	下	中	下	中	
下等		下等		下等		
上	下	上	下	上	下	
中	下	中	下	中	下	
下	下	下	下	下	下	
某		某		某		

【그림 117】 상벌비교책식 ②

右乃別級尾用時不拘物類其姓名是為數等本用賞罰由張在前	上等	上等	上等
	上上	上上	上上
	中上	中上	中上
	下上	下上	下上
	中等	中等	中等
	上中	上中	上中
	中中	中中	中中
	下中	下中	下中
	下等	下等	下等
	上下	上下	上下
中下	中下	中下	
下下	下下	下下	
	某	某	某

위의 양식은 따로 한 편을 판각하여 소용될 때 몇 백장이건 상관없이 더 찍어서 병사의 이름을 써놓아 일정한 수를 이루어 매 책 한 벌을 상벌 시행에 활용한다. 앞에 있는 한 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 분사습[分私習 : 부대를 나누어 무예를 익히게 함]

조련(操練)에 들어갈 적에 진영(陣營) 설치가 끝났을 경우, 또는 끝나지 않았을 경우라도, 각 영장(營將)과 각 파총(把總)은 모두 개별적으로 파(把) 단위로 부대를 나누어서 연습에 들어간다. 무예(武藝)를 학습함에 있어서는 옷사람을 존중하여 먼저 쓰게 하고 검법(劍法)·창법(槍法)·봉(棒法) 등을 익히면서 타격하고 도무(跳舞)할 적에는 정중히 예(禮)로써 대하여 존중하며 아랫사람은 창명(唱名)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을 진열할 필요는 없다. 이는 곧 스스로 익히는 사습(私習)이기 때문이다. 중군(中軍)은 과녁을 세우고, 살피고, 조정하되, 무예를 비교하는 자들을 창명(唱名)을 하는 등의 조항은 상례와 같이 한다.

▣ 금화법[禁花法 : 화법을 금지함]

무예(武藝)에 있어서는 정해진 법식(法式)을 열심히 살피어 그에 맞는 연습을 하여야 한다. 실제로 적과 맞닥뜨려서 싸우는 본연의 사태에 이르러서는 진짜로 치고 때려서 충격을 가해야 하는 것이니, 겉보기에만 화려하고 위력은 없는 허울좋은 헛동작인 화법(花法)을 배우는 것을 금지한다.

▣ 습예기[習藝期 : 무예를 익힐 수 있는 시기]

국가에서는 군정(軍政)을 제정하기를, “조련(操練)은 3일을 하고, 5일을 쉰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매월에 10일을 조련에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 여름과 한 겨울에는 조련을 면제한다.

지금 남쪽 지방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정월·2월·3월·4월에는 조련을 할 수가 없으나, 6월과 7월의 한 여름이 지난 나머지의 달 8월·9월·10월·11월·12월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서 조련하기에는 아주 좋은 계절이다. 또한 장차 군사를 모집하여 후하게 길러서 편안하고 여유있게 살 수 있게 해준다면 옛날의 지방군인 토군(土軍)이나 민간자위단체인 민가(民社)에 건줄 수 있을 것이다.

▣ 유차역[有差役 : 현지 주민의 차역으로 무예를 조련시킴]

자기 집에 거주하는 자는 개별적으로 상황이 서로 같지는 않으나, 매월에 15일은 쉬고 15일을 조련(操練)하도록 한다.

그때마다 3일은 무예(武藝)를 익히고, 1일은 진영(陣營) 연습을 하며, 1일은 무예를 비교(比較)하여 이를 한 주기로 하니, 이는 파총(把摠)이 주관하는 조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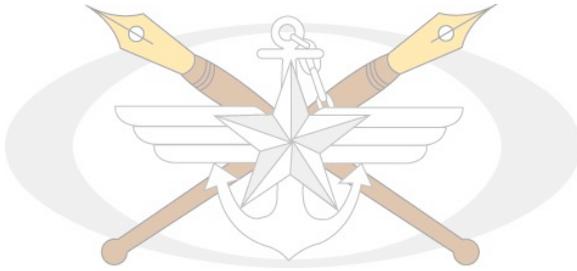
이 때 각 개인은 장병무예(長兵武藝) 한 가지와 단병무예(短兵武藝) 한 가지를 비교하여 익힌다. 예컨대 조총수(鳥銃手)의 무예는 장병무예이므로 쌍수도(雙手刀)를 비교하여 단병무예로 삼는다. 낭선(狼筈)은 단병무예 중의 장병무예로서 장단의 구별이 없으므로 다만 본래의 무예인 낭선으로만 비교한다.

등패(藤牌)는 단병무예로 표창(鏢槍)을 장병무예로 삼는다. 장창(長槍)은 단병무예 중의 장병무예로 궁사(弓射)를 장병무예로 삼는다. 남방의 궁사를 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당과(鎗)를 단병무예로 삼고 화전(火箭)을 장병무예로 삼게 한다.

관(官)에서는 궁사(弓射)로 장병무예를 삼게 하고 당과(鎗)와 창(槍)과 등패(藤牌)와 곤봉(棍棒)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무예를 익혀서 단병무예로 삼게 한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모두를 다 익혀서 널리 통달한 자는 더욱 우대한다.

[紀效新書(上)]

권7 영진편[營陣篇]



■ 권7 영진편[營陣篇]

이미 호령(號令)에 속달되고, 형벌(刑罰)과 상(賞)이 분명함을 모두 아니, 바야흐로 교장(敎場)에 정렬하여 앉고 일어섬과 나아가고 물러섬을 거듭하고 영진(營陣)의 제도를 행하고, 평상시처럼 익히니, 거의 적과 맞닥뜨려서 일을 그릇되게 하는데에는 이르지 않아 실용(實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영진편(營陣篇)으로 차례한 것이다.

□ 영진해[營陣解] : 영과 진에 대한 해설

중군이 교장(敎場)에 들어가서 승장포(升帳砲)를 올릴 것을 보고 한 뒤, 장호(掌號)할 것을 아뢰고 하영(下營)한다. ‘연이목조(練耳目條)’ 안의 ‘행중군품청○[군]지(行中軍稟請○[鈞]旨)’를 참고한다. 지금 황제폐하(명나라 신종)의 휘(諱) ‘군(鈞)’자를 피하여 ‘대(臺)’자로 한다. 장호(掌號)를 한 번 올릴 때에는 먼저 징 가장자리(金邊)를 올리고 당보(塘報)를 보내어 적정(敵情)을 탐지하는데, 그 인원수의 많고 적음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래서 혹은 2명을 1당(塘)으로 하거나, 3~5명을 1당으로 하기도 하고, 혹은 당의 수를 2, 30~100당으로 하기도 한다. 멀고 가까움에 따라서 수시로 헤아리고 판단하여 매 당 사이의 거리는 60보(步) 내지 100보, 또는 반리(2km)로 하는데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품의하여 결정하되, 육안(肉眼)으로 볼 수 있는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교장(敎場)에서는 10당을 운용하는데, 중군이 주장의 지시를 청하여 시행한다.

호포(號砲) 한 방을 쏘아 올리고 바라(哮囉) 한바탕을 올리면, 각 관할구역의 관병은 각 영에 위치하여 장대(將臺) 위에 세워진

기(旗)가 어떤 색깔의 것이며, 어떤 영의 것인가를 보고서, 어떤 방위를 향하여 끄덕이는가를 기다리고, 또한 자신의 해당 방위를 향하여 끄덕이면 영기(營旗)가 향하는 바를 따른다.

남방지역은 도로가 좁고 논밭이 많아서 행군에 있어서 원앙대(鴛鴦隊)만 운용한다. 전사(前司)가 제일 먼저 출동하고, 다음에 좌사(左司), 그 다음에 중군(中軍)이 나아간다. 이어서 우사(右司)가 나아가고, 다음에 후사(後司)가 나아간다.

전영(前營)은 장대(將臺) 앞으로부터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직행한다. 좌열의 각 영은 차례로 대열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나아가 우열의 후미에 이르러 남쪽을 향해 내려간다. 우열의 각 영은 좌열의 후미가 다 이어지기를 기다려서 가되, 만약 남쪽 아래가 우열과의 거리가 서로 가깝게 되면 다만 대열을 차례로 연결하여 발 밑에서 몸을 돌릴 것이요, 대열이 마치 ‘고기 꿰미’, 즉 어관(魚貫)의 형태로 엮히게 해서는 안된다. 이는 가장 나쁜 전개방법이다.

만약 좌열과 우열 두 행렬이 서로 거리가 멀어서 서로 뒤섞일 염려가 없다면 그것이 ‘고기 꿰미’, 즉 어관(魚貫)의 형태로 가도 무방하다. 그것도 교장의 크고 작음과 병력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한 바퀴를 돌고나서 멈춘다.

병력이 많고 교장이 좁으면, 두 길로 행영을 설치하거나, 혹은 교장 밖으로 나와서 행영을 설치해도 된다. 이 경우에는, 병력이 이동을 시작하여 전영(前營)의 선두가 교장 앞에 도착하기를 기다려서 중간에 당도하면 호포(號砲) 한방을 쏘아 올리고 바라(哮囉)를 울린다.

관병은 앞서서 휴식을 취하면서 1각을 기다린다. 당보기(塘報旗)가 적이 다가오고 있음을 탐지하여 호포 한방을 쏘아 올리고 바라를 울리면, 각 부대는 다른 곳으로 몸을 옮기라는 신호나팔을 불고 북을 짧고 가볍게 두드리면서 대오를 전개하라는 신호나팔을 분다.

이때 병력을 일자로 늘어세우고 보유한 병력의 수에 따라 몇 개의 사(司)를 둘 것인가를 미리 가정하여, 혹 1사를 2층(層)으로 나누

거나, 1사를 1층으로 하기도 하고, 2사를 2층으로 나누기도 하여, 매 층의 거리를 20보로 한다. 매 기(旗)는 3대로 하고, 가지런히 정렬시켜 하나로 모은다. 옆으로 보아서 기마다 사람의 몸을 제외하고서 세 길의 공간을 남겨둔다.

중군의 기고(旗鼓) 등은 중앙에 위치하여 앞으로는 전층의 후미를 밀어주고 뒤로는 후층의 선두를 인도해준다. 이때 다시 대열을 단열(單列)로 전개하라는 신호나팔을 불어 원앙대에 의하여 서로의 거리를 각각 1길로 한다. 조총수(鳥銃手)는 모두 병사들의 앞으로 나와서 5보 간격의 단열로 정렬한다. 징을 쳐서 나팔을 멈춘 다음에 동발을 치면 앉아서 휴식을 취하다가, 적이 100보 안으로 다가오면 호포(號砲) 한방을 쏘아 올리고 바라(哮囉)가 올리는 소리를 듣고 일어선다.

혹은 총을 가지고 한 차례에 다 쏘거나, 혹은 매 대의 2인 1층을 5차로 나누어 쏘게 하는데,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고 지시하되, 천아성(天鵝聲) 나팔을 신호로 삼는다. 단지 1층만 배열하고 천아성 나팔을 한 차례 부는 것이 이것이다.

무릇, 총을 발사할 때 천아성 나팔을 부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견주어서 비교함에 힘쓰게 하려는 것이다. 마치 바라를 치는 기세로 힘을 가하여 적을 치는 것이다.

무릇, 일부러 연기가 자욱해지기를 바라서 위를 향하여 곧바로 하늘에 대고 쏘거나, 만약 머리를 낮추고 아래를 향하여 땅에 대고 쏘아서 흙먼지를 일으키는 자는 모두 잡아내어 중벌로 다스리되, 전진(戰陣)에서는 목을 베고 대장(隊長)은 연좌해서 처벌한다. 여러 대(隊)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기총(旗總)을 연좌해서 처벌하고, 여러 기(旗)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초관(哨官)을 연좌해서 처벌한다. 이러한 단계적 처벌은 파총에 이르러서 끝이 난다.

문건대, 너희들 총을 쏘는 사람들이 어찌 이런 악사빠른 속셈으로 일부러 연기를 피워 말뚝을 만들어 낼 수 있단 말인가?

한 무리의 전층 당과수(鎗鈹手)들을 동원하여 조총수(鳥銃手)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하여 나란히 정렬시키고서 화전(火箭)을 쏘게

하고, 사수(射手)는 화살을 쏘게 한다. 이때, 화전(火箭)에 살촉이 있어서 교장 안에서 쏠 수가 없으니, 미리 살촉이 없는 기화전(起火箭)을 만들어서 대용하도록 하면, 또한 비용을 줄여서 아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때 각 당파수들은 기화전 한 대씩을 불붙여서 쏘고, 궁수(弓手)는 9발의 화살을 쏘는데, 호포(號砲) 한방을 쏘아 올리고 북을 짧고 가볍게 두드리면 당파수와 궁수는 원대의 후층으로 돌아와서 부대 사이로 나아가 부대 앞에 서서 나아가기를 기다린다. 북이 울리고 천아성(天鵝聲) 부는 소리가 들리면 고향을 지르며 대오를 정돈하고 나는 듯 달려가 첫 번째 싸움을 한다.

다시 북이 울리면 더욱 빠르게 움직인다. 북이 울리고 천아성 부는 소리가 들리면 고향을 지르며 싸움을 멈춘다. 다시 북이 울리면 더욱 빠르게 움직인다. 또다시 북이 울리고 천아성 부는 소리가 들리면 고향을 지르며 싸움을 한다. 이때 각 병사는 원앙대(鴛鴦隊)의 진영을 이루고 하나로 뭉쳐 앞을 향하여 나아가되, 춤춤하고 뻑뻑하게 밀고 들어가 적과 격렬하게 싸운다. 적이 패하면 징을 치고 북을 멈춘다. 바라를 한 차례 올리면 각자 대오를 정돈한다. 다시 바라를 한 차례 더 올리면 각자 원대에서 나누어진다.

징을 세 번 치면 무기는 전방을 향한 채로 몸과 머리를 후방으로 향하면서 약 20~30보를 물러난다.

징을 두 번 치면 이는 적이 추격하여 온다는 신호이니, 각 병사는 즉시 몸을 돌려 호랑이가 울부짖는 소리를 한 차례 지른다. 안정이 되면 다시 앞서의 명령대로 약 20~30보를 물러난다. 또다시 징을 두 번 치면 각 병사는 즉시 몸을 돌려 호랑이가 울부짖는 소리를 한 차례 지른다. 안정이 되었는데, 적이 또다시 쫓아오려는 기세를 보이면 호포 한방을 쏘아 올리는 소리를 듣고 북이 울리고 천아성 부는 소리가 들리면 고향을 지르며 원앙대(鴛鴦隊)의 진영을 이루고 하나로 뭉쳐 앞을 향하여 나아가되, 춤춤하고 뻑뻑하게 밀고 들어가 천아성 나팔 울리기를 모두 세 차례 북을 울리기를 모두 세 차례, 고향지르기를 모두 세 차례, 적과 교전하기를 모두

세 차례를 하여 적이 패하면, 다시 앞서의 퇴병하라는 호령에 의하여 세 번 물러나 조총수의 대열 앞에 이르러서 징소리가 두 차례를 울림과 함께 멈추어 선다.

또다시 적이 쫓아오려는 기세를 보이면, 조총수는 급히 와서 물러나서 돌아온 1층 대열 앞에 서서 호포 한방을 쏘아 올리는 소리를 듣고 천아성 나팔 부는 소리가 들리면 일제히 한 차례 사격을 하고 기화전(起火箭) 한 대를 쏘아 올리는 것을 신호로 하여 일층 대열 안으로 물러나서 돌아온다.

당파수와 사수는 먼저 나와서 총수와 함께 화전과 화살을 발사하는데, 앞에서의 조련에 시행하던 호령에 의거하여 징을 치면 멈춘다. 또다시 호포 한방을 쏘아 올리고 북을 짚고 가볍게 두드리면 원래의 1층의 병이 출병(出兵)하지 않았을 적에 나아가 싸운다. 그리하여, 앞에 나아간 이층의 병과 호령이 동일하니, 병력을 거두어 물러나는 것도 또한 앞서의 명령과 동일하여 물러나 조총수의 대열 앞에 이른다.

적이 추격하여 온다는 신호인 징소리 두 번에, 호랑이가 울부짖는 소리를 한 차례 지르고 안정을 되찾으며 적이 또다시 쫓아오려는 기세를 보이면 1층과 2층 두 층이 모두 앞서의 호령에 의거하여 함께 멍쳐 적을 물리친다. 북이 울리고 천아성 부는 소리가 끊임이 없고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그치지 않으니 이는 첫 번째 교전에서 격렬히 싸워서 적이 패퇴할 때에 징을 멈추고, 바라를 울리면 각 병사들이 앞서의 준례에 따라 부대를 정돈하며, 꽃잎 모양으로 중첩하여 후퇴하되, 명령은 전과 같이 하여 세 번 후퇴해서 각각 원위치에 이르러 신호포를 한 번 쏘고 동발(鑼)을 울리면 앉아서 휴식한다.

이에 중군(中軍)이 대장(大將)에게 보고하기를, ‘적이 이미 패패하여 달아났습니다.’라 하고, 대장의 지시를 청하여 방영(方營)을 설치하고 장병들의 공(功)과 죄(罪)를 심사한다. 호포(號砲) 한방을 쏘아 올리고 징을 울려 표기(表旗)를 세우고, 북을 짚고 가볍게 두드리면서 대오를 전개하라는 대오를 전개하라는 신호나팔을 불면

각 병사는 깃발 색깔의 방위에 따라 방영 설치를 마치고 나서, 즉시 거마창(拒馬槍)⁹¹⁾을 설치하고 마름쇠(蒺藜)⁹²⁾를 까는데 어느 영(營) 어느 대(隊)를 막론하고 모두 공통적으로 낱알의 개수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여 그 설치 장소를 외층(外層)과 자층(子層)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설치가 끝나면 신호포가 한 번 울리는 소리를 듣고 다시 징 가장 자리를 울려, 먼저 복로군(伏路軍)을 배치하고 원거리까지 당보병(塘報兵)을 보내어 초계(哨戒)하도록 한다. 이들은 중군 진영에 함께 가서 자호(字號)와 영진(令箭)을 수령한 다음에 진영문을 나가서 적의 접근이 예상되는 통로에 매복한다. 그리고, 중군(中軍)은 관원을 보내어 인원수를 헤아린 후에 돌아와서 보고하도록 한다.

또, 호포(號砲) 한방을 쏘아 올리고 바라(哮囉)를 울리면 관병은 앞서서 휴식을 취한다. 또다시 호포(號砲) 한방을 쏘아 올리면 중군은 황기(黃旗)를 세우고 북을 쳐서 군사를 동원하는데, 땀나무하는 일과 물 길는 일을 하는 병사로서 말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곧바로 나가서 말에게 물을 먹이고, 본영(本營)에서 앞서 내보낸 차관(差官)과 목인(目人) 등은 사방으로 방향을 나누어서 밖으로 내보낸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수를 헤아린 후에 돌아와서 보고한다.

징을 울리면 기를 뒤짚고 호포(號砲) 한방을 쏘아 올린 다음, 중군은 호적(號笛)을 울리고 발방(發放 : 귀환)을 청한다.

각 관기가 중군 진영에 이르면 호적을 일제히 멈춘다. 대상(臺上)에서의 대발방(大發放)은 다시 하지 않고, 앞서 제정된 규정에 의하여 전진(戰陣)에서 이루어진 득실 여부에 대하여 제반 사정을 고치고, 바로잡고, 따르고, 연습한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군령(軍

91) 거마창(拒馬槍) : 전쟁에 쓰던 방어용 무기. 요충지에 두고 적 기병의 접근을 막았다. 거마는 일종의 이동할 수 있는 장애물로서, 옛날에 기병의 내습을 막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붙인 것이다. 당(唐)나라 때에는 거마창(拒馬槍)이 있었으며, 명(明)나라 때에는 거마목(拒馬木)이 있었다. 사면에 날카롭고 뾰족한 철사를 설치해 두었는데, 마름모꼴과 직각사각형, 삼각형 등이 있어 도로에 깔아서 적측의 인마와 거량의 접근을 저지하였다.

92) 질려(蒺藜) : 마름쇠 모양의 뾰족하고 날카로운 철제 병기, 전시에 도로상이나 수중에 깔아 적측 인마의 전진을 저지하였다.

습)을 거동(舉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빼놓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짚어서 발방(發放)하되, 무릇 이전의 전진에서 합격한 자나 명령을 어긴 자를 이때 모두 결정하여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처분한다. 만약 다시 어떤 항목의 호령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모두 명백히 깨닫도록 알려준다.

각 파총(把總)은 당일에 불참한 자와 차출되어 사역하는 자와 병(病)이 있어 본인의 성명(姓名)을 장부에 기록한 자를 유보(類報)⁹³⁾하는데 이를 체거자(遞擧子)⁹⁴⁾라 한다. 명금(鳴金)과 대취타(大吹打)가 각 부대의 주둔지에 전파되고 호포(號砲) 한방을 쏘아 올리면 중군(中軍)은 황기(黃旗)를 세우고, 이어서 호적(號笛)을 한 차례 울리고 바라(哮囉)를 불게하여 합영(合營)한다. 이때 병사들은 모두 일러나서 병기(兵器)를 잡고 적에 대비하는 형상을 취한다. 대취타(大吹打)를 불어 영문(營門)이 열리면 땀나뭇하고 물기는 초급병(樵汲兵)을 들여오게 하는데, 4명의 인원을 파견하여 각 문에 가서 병사들의 인원수를 점검하여 들여오게 한다.

중군은 인원 보고가 끝난 다음 징을 두 번 울리면서 취타가 멎고, 호포 세방을 쏘아 올리면 대취타를 불어 영문이 열고 호포(號砲) 한방을 쏘아 올리고 바라(哮囉)를 울리면 관병은 앉아서 휴식을 취한다. 기화(起火) 신호 한 대를 쏘아 올리면 진영 안에서 불을 피우고 동라(銅鑼)를 차례로 울리면 갑옷을 벗고 나서 간혹 출정(出征)하는 예에 따라서 밥을 지어 잠자던 곳에서 새벽밥을 먹기도 하고, 혹은 단지 밥짓는 시늉을 하여 익히기도 한다.

당보군(塘報軍: 척후병)이 깃발을 휘두르거나 복로군(伏路軍: 복병)이 포를 한방 쏘는 것은 아무 방면(某面)에 적이 온다는 신호이니, 중군이 아무 색깔(某色)의 깃발을 세워서 이에 응하며, 바라를 불면 아무 방면의 병사가 일어나서 대오를 정돈하며, 신호포 한방을 쏘고 북을 느리게 치면 바깥 주위에 있는 병사들이 천천히

93) 유보(類報) : 부지런히 시행하고 사사로움이 없이 하여 보고함.

94) 체거자(遞擧子) : 체거자의 체는 파발로 편지를 전달하는 것으로서, 차례로 전달한다는 뜻이다.

걸어가서 교전하되 적이 백보 안의 거리에 이르렀을 때 병력을 수습하여 후퇴하기를 모두 두 층으로 진영을 배열한 전진에서 발령되는 호령에 의해서 시행한다.

이때 다만 이 일층을 사용하여 전진을 배열하여 적이 패하면 병력을 수습하여 원진지로 돌아와 영장(營牆: 진영의 장애물) 주위에 정렬한다. 징소리가 멎으면 중군이 당일 불참자와 차출 사역자와 병이 있어 본인의 성명을 장부에 기록한 자를 유보(類報)한 체거자(遞擧子)에 의거하여 관병(官兵)의 숫자를 조사한다.

병력을 수습할 적에 솔발(擗哮)이 울리면 중군이 대취타로 이에 응한다. 이와 같이 다시 일면씩 조련을 하여 사면의 조련이 완료되면 중군이 진영의 조련이 끝났음을 보고한 다음에 주장의 명령을 청하여 진영을 수습한다. 중군이 신호포 한방을 쏘고 바라를 한 차례를 불게하면 각 병사는 몸을 일으키고 솔발이 울리면 대오를 수습하되, 매 기를 1취(聚)로 한다.

중군이 깃발을 꽂고 방영을 설치하되 앞서의 변화에 의거하여 2첩(疊)으로 하여 제자리를 잡은 뒤에 개영포(開營砲) 세 번을 쏘아 올리고 천아성 나팔을 불면 각 병사는 세 차례 합성을 지르며 중군이 대취타를 연주하게 하면 전시(前司)는 앞의 왼쪽 길에 있고 좌사(左司)는 왼쪽에 있어서 전사의 뒤를 이으며 우사(右司)는 앞의 오른쪽 길에 있고 후사(後司)는 우사의 뒤를 이으며, 좌사와 우사는 가운데 길을 따라 중군의 좌우 가장자리로 나란히 걸어나가 각기 원위치로 돌아가서 서 있다.

중군이 장대 아래에 이르러 징을 세 번 울리면 취타를 멈추고 라(鑼)를 불면 하마(下馬)하여 중군이 양변(兩邊)으로 대오를 전개시키고, 다시 라를 불면 앞서서 휴식하고 무예를 비교할 것을 청한다.

▣ 영루해[營壘解 : 영루에 대한 해설]

대개 이분(二分)을 외루(外壘)로 삼고 일분(一分)을 자벽(子壁 : 안쪽에 있는 보루)으로 삼는데, 중앙을 비워 中軍이 머물게 한다. 예를 들면 一개 사(司)에 5개 초(哨)가 있으면 조총수(鳥銃手) 1초(哨)를 자층(子層)으로 삼고 나머지 4초(哨)를 외루(外壘)로 삼아 매 면(面)이 1개의 초가 되게 하며, 만약 2개 사에 10개 초가 있으면 6개 초를 외루로 삼고, 4개 초를 자벽(子壁)으로 삼으며, 3개 사일 경우에는 2개 사를 외루(外壘)로 삼고 1개 사를 자벽으로 삼으며, 4개 사일 경우에는 1개 사가 각각 한 면이 되게 하고 각각 2개 초를 뽑아 자벽으로 삼는다.

만약 5개 사일 경우에는 4개 사를 외루로 삼고 1개 사를 자벽으로 삼는데, 각각 조총수 一개 초가 또한 자벽이 되게 하며, 6개 사일 경우에는 4개 사를 외루로 삼고 2개 사를 자벽으로 삼는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서 확충하면 병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 오직 원양진(鴛鴦陣)만이 반드시 변함없이 이 방식대로의 운용이 가능하다.

▣ 원기해[圓機解 : 접적시 기밀 유지에 대한 해설]

아군(我軍)이 거듭 패전하는 까닭은 평소에 절제(節制)된 법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이며, 또 의지할 만한 영채(營寨)나 장벽(障壁)이 없어서 사람들이 마음에 먼저 겁을 먹기 때문이다. 병사들로 하여금 모두 야전(野戰)에서 이기게 하려고 하나, 족히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마침내 패주하여 뿔뿔이 흩어져 이기지 못하니, 또한 달아나서 의지할 바가 없는 것이다. 매번 패배하여 오래도록 마지 아니하니 이른바 ‘절도(節度)가 없는 군대는 유능한 장수가 지휘하더라도 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다.

만약 병력의 열세로 속전이 불가능하여 영루(營壘)를 세우고 있는데 적병이 충돌해 올 경우 적이 50~60여 명일 경우에는 아군은 모두 깃발을 눕히고 북소리를 멈춘 다음, 은밀히 병기를 잡은 채로 정숙을 유지하여 동요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적병이 십여 보안으로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적은 반드시 물러간 다음에 다시 병력을 증강하여 접근하여 올 것이다.

이때 적의 병력 수가 만약 백십(百十 : 많은 수를 이룸) 이상에 달하는 다수일 경우에는 포수(砲手 : 총수)는 적을 만났을 때의 전투지시 요령에 의거하여 혹은 목성(木城)이나 혹은 참호(塹壕) 혹은 거마(拒馬) 아래에서 번갈아서 적을 향해 사격을 한다. 이때 빈 총은 다시 장전(裝填)을 하고 장전된 총은 계속해서 쏘며 쏜 총은 바로 다시 장전하고 장전한 총은 또다시 발사한다. 이와 같이 하면 비록 종일토록 싸우더라도 총포(銃砲)를 계속 발사하여 끝이 없을 것이니, 반드시 총알이 떨어져버려서 쏘지 못한다는 실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궁노수(弓弩手)와 화전수(火箭手)는 기화(起火 : 발사신호 화살) 한 가지를 쏘아 올리면 이에 따라 조총수들이 교대로 사격하는 전투요령에 의거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이것은 절제된 정식 전투이다. 전투간에 좌우익을 나누어 복병을 배치함으로써 그들이 의심하여 전심으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런 다음에 기병(奇兵)이 갑자기 뛰어나와 적의 허점을 덮쳐 번을 교대하고 유사시에 임하여 전기를 조성하니, 이것이 장수의 뛰어난 안목인 것이다.

■ 근경마[謹驚馬 : 말이 놀라지 않도록 삼감]

총포(銃砲)를 사격할 상황에 닥쳤을 때, 만약 각 관의 병사가 마필(馬匹)을 묶어놓지 않아서 뛰어나와 내달려서 진영(陣營)을 소란스럽게 할 경우에는 해당 병사는 마필을 보살피는 담당자의 죄와 동일하게 다스린다.

▣ 치후기[治後期 : 집합 시기에 늦은 책임을 다스림]

무릇 각 병사가 교장(敎場)에 나아감에 집합 시기에 늦게 도착하였거나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 같이 추궁하여 다스리며, 각 교장의 문을 봉쇄한 이후에 관계가 없는 사람을 들여보내거나 늦게 온 병사를 제멋대로 돌아다니게 내버려두어 진영으로 들어가게 할 경우에는 모두 순시기(巡視旗)의 죄를 다스린다.

▣ 계차피[稽差避 : 규정을 어기고 숨기는 것을 조사함]

무릇 교장(敎場)에서 조련(操練)하는 날 장령(將領) 이상은 각각 홍색 유지(油紙)로 만든 초롱과 작고 둥근 목패(木牌) 10면을 비치하여 몸소 간수하고, 만약 사람을 파견하여 교장에 출장하게 하려면 반드시 장령에게 보고하고 목패를 지급하여 검사한 후에 출장을 허가한다. 만약 목패가 없으면 이는 사사로운 출입에 해당하니 잡아 보내어 처치하고, 진을 치고 적과 대치하고 있을 경우에는 영문을 출입함에 있어서 반드시 영전(令箭)과 기호(旗號)를 가지고 증빙하여야 한다.

▣ 정등위[正等威 : 부대의 등급과 위의를 바르게 함]

무릇 조련을 해산할 적에 각 초(哨)는 중군(中軍) 이상으로부터 일제히 뒤따르는 인원과 기고(旗鼓)와 두답(頭踏 : 의장부대)의 위의(威儀)를 진열하고 각각 본영(本營) 기병을 따라 가운데 길에 이르러 해산하여 나가되 주장(主將)을 기다려 전송하지 못하도록 한다.

▣ 근영벽[謹營壁 : 영벽의 관리를 삼감]

무릇 진영을 설치함에 있어서, 만약 영반(營盤 : 진영을 둘러싼 방벽 주변)이 세워진 뒤에는 문이 있는 곳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관원을 막론하고 이곳을 제멋대로 지나가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철저히 저지하고 절대로 그대로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 만약 통과시키는 자는 모두 군법(軍法)에 따라 처리한다. 그리고 본대(本隊)의 병사라 할지라도 반드시 출입할 때에는 또한 영門을 이용하여야 한다. 적이 30리 이내에 있을 경우에 이를 범한 자는 목을 베고 해당 부대의 지휘관은 연좌(連坐)하여 곤장을 친다.

▣ 엄영문[嚴營門 : 영문의 관리를 엄중히 함]

영내(營內)에는 매일 밤마다 초관(哨官) 한 명을 차출하여 번갈아 문을 지키게 하고, 주장의 친위병(親衛兵)이 남기(藍旗 : 순시기)을 잡고 문마다 두 명씩 지키게 한다. 그리하여 아침 저녁에 취타(吹打)하여 문을 열 때를 제외하고는 문이 닫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영기(令旗)와 영전(令箭)이 있어야만 비로소 문을 열어준다. 그리고 문을 열 때에는 좌우에 가까이 있는 한 기대(旗隊)의 관군이 병기를 진열하여 잡고[披執] 엄격히 진용(陣容)을 갖추어 대비하여야 한다.

공식적인 임무를 지닌 사자(使者)가 왔을 경우에는 영문(營門) 밖에 멈추게 한 후에 먼저 그가 가지고 온 문서(文書)나 믿을만한 물건을 받아서 지휘소에 보고하면 중군(中軍)이 주장(主將)에게 영기(令旗)를 내려줄 것을 청하여 데리고 들어오게 한다. 영문(營門)을 닫았을 때에는 만약 영기와 영전(令箭)이 없으면 설혹 사신(使臣)과 대장(大將)이 문 밖에 있으면서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또한 반드시 진영을 지키는 주장(主將)에게 보고하여 영기 또는 영전을 지급 받아서 영문에 이르러 진위 여부를 검증하여 밝힌 연후

에야 비로소 들어오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주장이 진영 밖으로 나갈 때에는 반드시 한 사람으로 주장을 대신하여 지휘를 맡도록 하여야 한다. 장수가 군중에 있을 경우, 임금의 명령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바로 이때가 그렇다. 옛날 주아부(周亞夫)의 세류영(細柳營)⁹⁵이 모범적인 교훈이 될 수 있다.

공식적인 임무를 지닌 사자가 타고 온 마필은 모두 영문 밖에 머무르게 하고 인원만 단신으로 들어가게 하고 영문을 파수하는 사람이 그 마필을 보살피되, 마필을 소홀히 관리하여 실수가 있을 경우에는 영문을 파수하는 사람이 배상한다. 대장이 영문안으로 들어올 경우에도 대장만 말을 타고 그 수행원 이하는 모두 도보로 들어간다.

▣ 신계방[愼啓放 : 인원출입을 엄중히 관리함]

각 진영의 병사들이 출입할 때에는 각기 본영의 영문을 이용하도록 하며, 그 영문을 지키는 자는 출입하는 사람의 관의 관자와 의복과 허리에 차는 패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 확인하여야 한다.

95) 주아부(周亞夫)의 세류영(細柳營) : 한(漢)나라 문제(文帝)때, 흉노(匈奴)가 자주 침입하자, 문제는 유례(劉禮)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패상(霸上)에 주둔하게 하고, 서려(徐厲)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극문(棘門)에 주둔하게 하고, 주아부(周亞夫)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세류(細柳)에 주둔하게 하여 흉노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황제가 몸소 군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패상과 극문에 당도하자, 파수하는 군사들은 모두 황제를 곧바로 진영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그런데 황제가 세류영에 오자 파수하는 군사들은 주장의 군령을 받지 못했다 하여 황제를 진영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다. 이에 문제는 사자로 하여금 절월(節鉞)을 가지고 가서 장군에게 조칙을 전하게 하였으며, 그런 다음에야 주아부는 전령을 내려 영문을 열게 하였다. 성에 들어간 황제는 말고삐를 잡고 서행하여 진영에 이르자, 주아부가 군례로 황제를 알현하였다. 이에 황제가 말하기를 “이야말로 참된 장군이로다! 전번의 패상과 극문의 군대는 마치 어린애 장난 같은 것이었구나!”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후세에 기강이 엄격하고 명백한 군영을 세류영(細柳營)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이와는 반대로 기율이 해이된 군대를 극문군(棘門軍)이라 부르게 되었다.

영두(纓頭)⁹⁶· 의복(衣服)· 요패(腰牌)⁹⁷ 등 모두를 일일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다른 영의 병사가 잘못 남의 영문으로 나온 자를 고의로 놓아보내면 영문을 파수하는 병사와 지휘관은 함께 군법으로 연좌해서 다스린다. 만약 법을 범한 자를 잡아오면 군법으로 시행하고, 잡아온 관군은 전공부(戰功簿)에 기록하여 한 차례 전공을 세운 것으로 간주한다.

▣ 계출영[稽出營 :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을 살핌]

무릇 관병(官兵)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어기고 영문 밖으로 나간 자는 곤장 100대를 치고 진영에 조리를 돌려 여러 병사들에게 보인다.



▣ 사군기[查軍器 : 병기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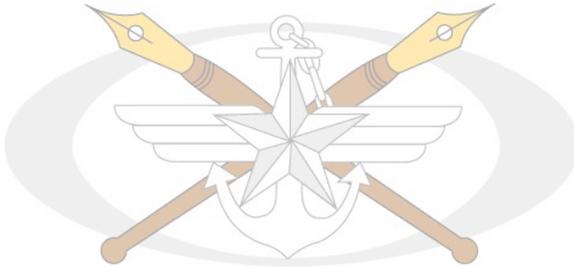
무릇 군영(軍營) 설치가 끝나면 군의 화기(火器) 부품에 대하여 각 지휘관은 즉시 부대의 건제(建制) 순서대로 점검하여 찢어져 터지거나 망가졌으면 즉시 전투에 대비해서 완전히 보수하고 손질 하되, 만약 버리거나 망실한 것이 있으면 즉시 주장에게 보고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법에 따라 처벌한다.

96) 영두(纓頭) : 끝에 술이 달려 있는 장식용 끈. 주머니, 도장, 칼, 깃발 따위를 차거나, 달거나, 꾸미는 데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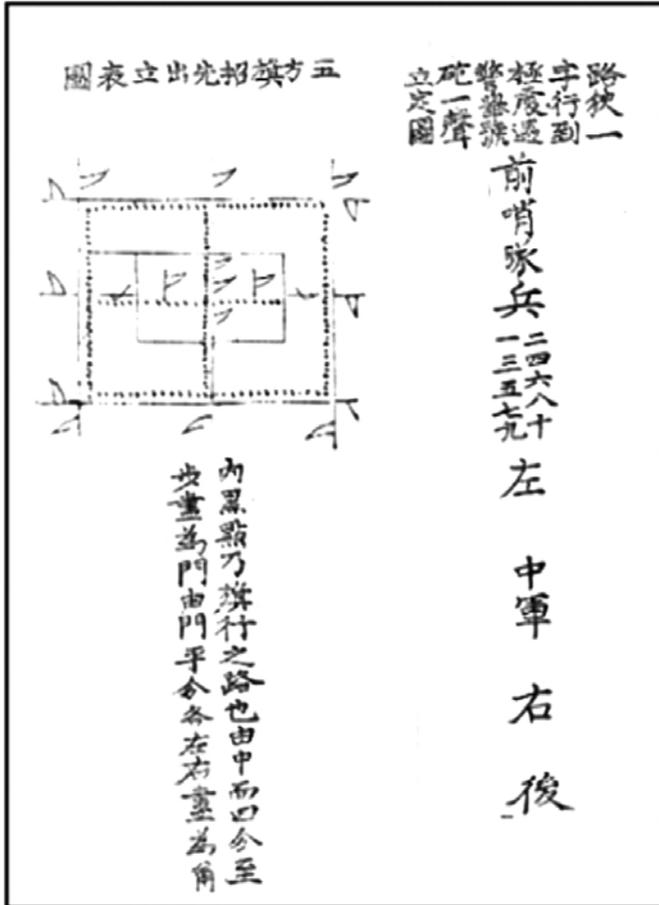
97) 요패(腰牌) : 조선 시대에 군졸·사령·별배 등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허리에 차던 패. 나무로 만들어 패의 위쪽에 ‘엄금(嚴禁)’이라고 새겼다.

▣ 혁신차[革抽差 : 병력을 함부로 빼내는 것을 단속함]

진영을 설치하거나 전진을 배열하는 도중에 장령들이 제멋대로 부대를 편성한 대오 가운데에서 단 한 사람의 병사나 단 한 기의 기병이라도 빼내간 자가 있을 경우, 군법에 따라 처벌한다.



【그림 118】 노협일자행도극처우경거호포일성입정도[路狹一字行到極處遇警舉號砲一聲立定圖 : 길이 좁으면 일자로 나아가 막바지에 이르러 경계할 상황에 닥쳤을 때 신호포 한 방을 쏘아 올리고 부대를 정지시킨 도형]



▣ 입표해[立表解 : 표기를 세우는 방법에 대한 해설]

미리 병력(兵力)의 수를 계산하여 몇 개의 사(司)를 편성하고 밖에 있는 보루(堡壘)를 몇 개 대(隊)로 편성하여 대마다 1길(300cm) 간격으로 땅을 나누되, 중군(中軍)으로부터 양쪽으로 나누어 각기 약간의 보(步)를 확보하도록 하며, 자벽(子壁)도 이와 같이 한다. 사방의 큰 깃발은 문이 있는 자리에 세우고 사방의 고초기(高招旗)는 문 안에 세우되, 기를 잡고 표기(標旗)를 세우는 사람은 징가장자리를 울리는 신호를 듣고서 행동한다. 오방기(五方旗)를 잡은 기수(旗手)가 중군의 중앙에서 사방 직각으로 행보(行步)의 수를 세며 걸어간다.

그리하여 행보의 수가 다 차면 제자리에 서서 사정[四正 : 동서 남북의 정위치를 이룸]의 표[자리를 표시한 위치]로 삼는다. 또한 진영의 각 사각(四角)에 세운 표기는 오방기와 함께 밖으로 나아가 정문에 세운 깃발 아래로부터 나란히 좌우로 걸어가서 행보의 수가 다 차면 제자리에 서서 사각의 표로 삼는다. 그런 다음 병사들이 진영 설치를 마치기를 기다리는데, 만일 행보의 수가 합치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옮겨놓아 서로 합치되도록 한다.

▣ 부표해[附表解 : 부표에 대한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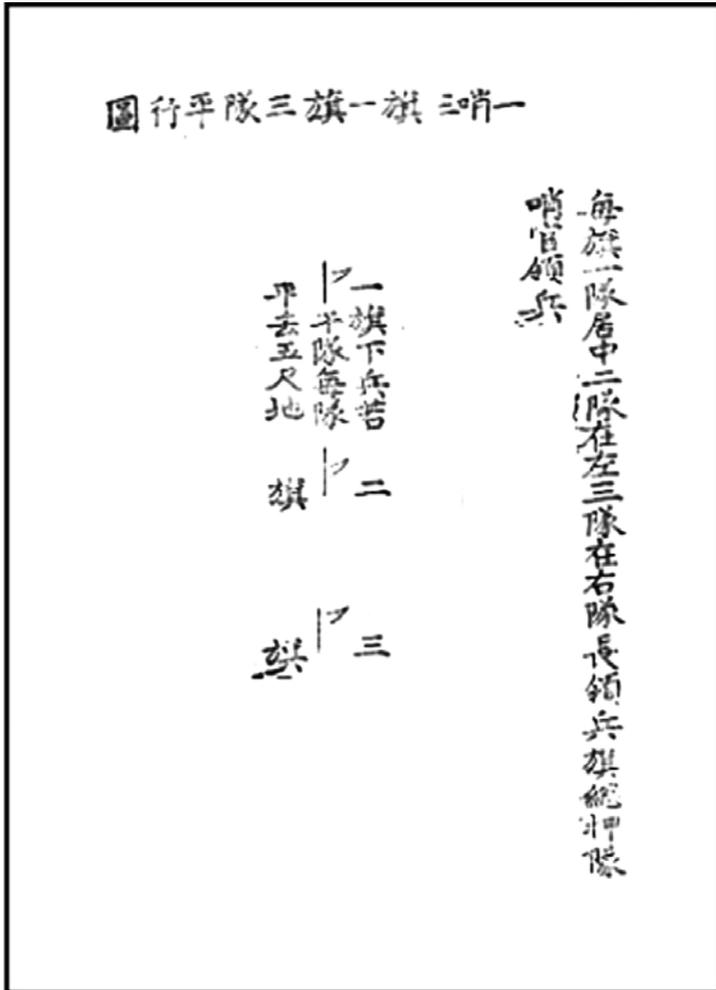
무릇 사(司)·초(哨)·기(旗)·대(隊)는 각 방면의 깃발 색깔에 따라서 표를 바라보고 개미떼처럼 달려들어가서 부대가 진영을 설치하면 매 기를 한 무리로 편성하여 옆으로 볼 때에 매 기마다 사람 몸을 제하고 4길 5자(12.5m)의 공간을 남겨두고 정렬을 기다린다. 천아성(天鵝聲) 나팔소리가 길게 울린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긴소리로 나팔소리가 울리면 방영도(方營圖)에 의거하여 산개하여 원양진법(鴛鴦陣法)에 의거하여 정렬한다. 이때 옆으로 볼 때에 대마다 사람 몸을 제하고 4길 5자의 공간을 남겨둔다. 그런 다음

적의 기마(騎馬)가 침입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인 거마색(拒馬索)을 설치하는 자는 거마색을 설치하고, 마름쇠(疾藜)를 뿌려야 할 자는 마름쇠를 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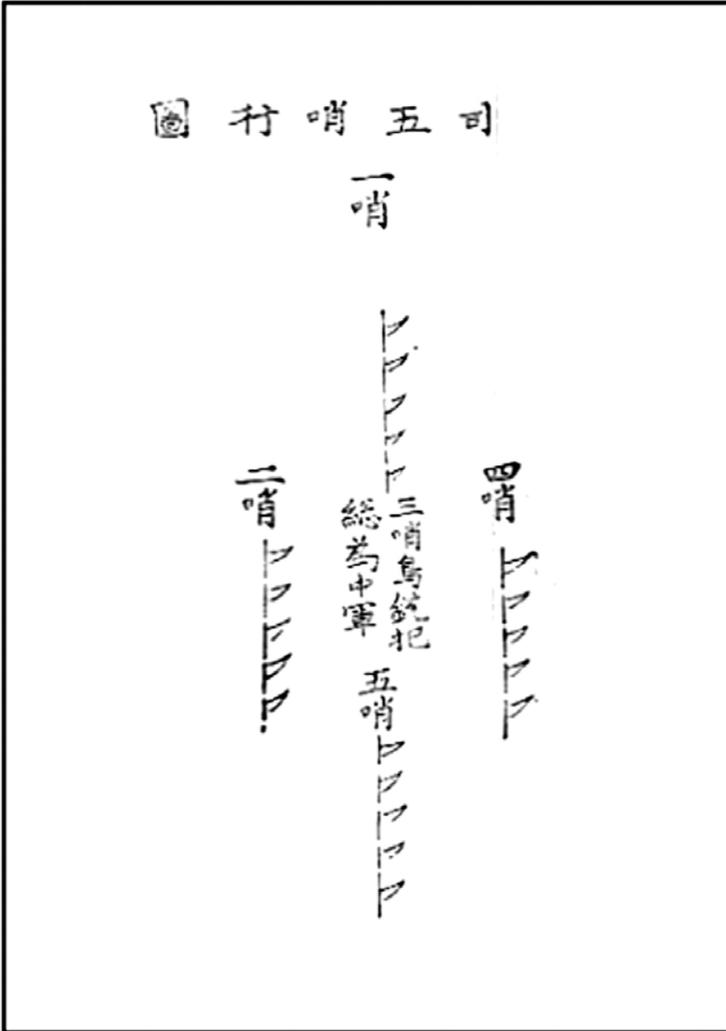
【그림 119】 행영도[行營圖 : 진영설치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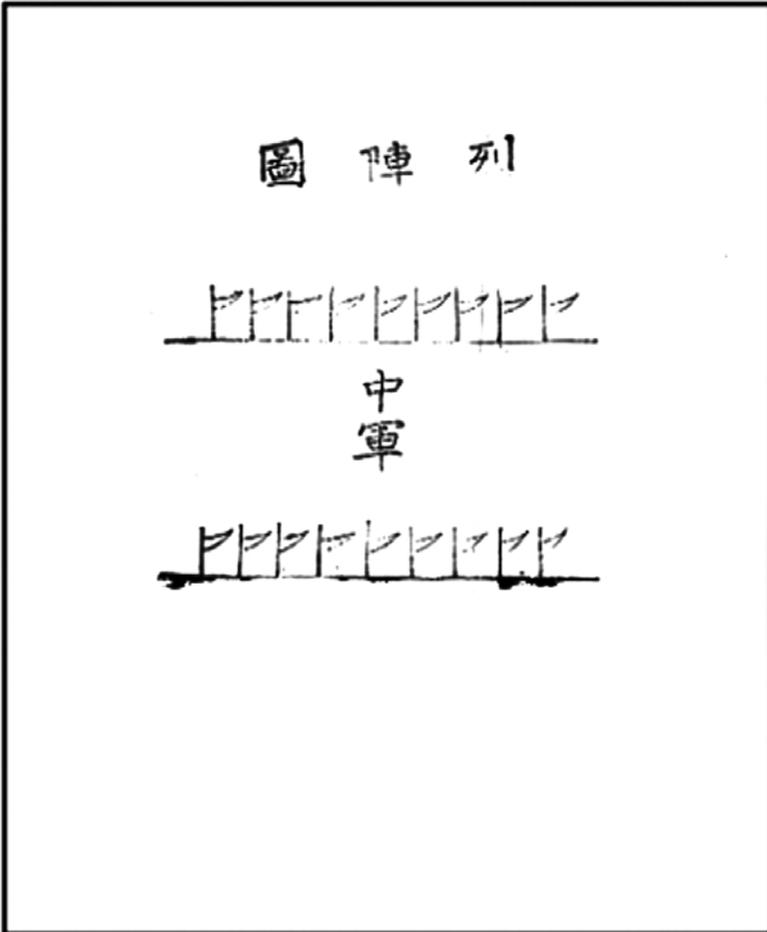
【그림 120】 일초삼기일기삼대평행도[一哨三旗一旗三隊平行圖
: 1개 초를 3개 기로 하고 1개 기를 3개 대로 편성
하여 나란히 행군하는 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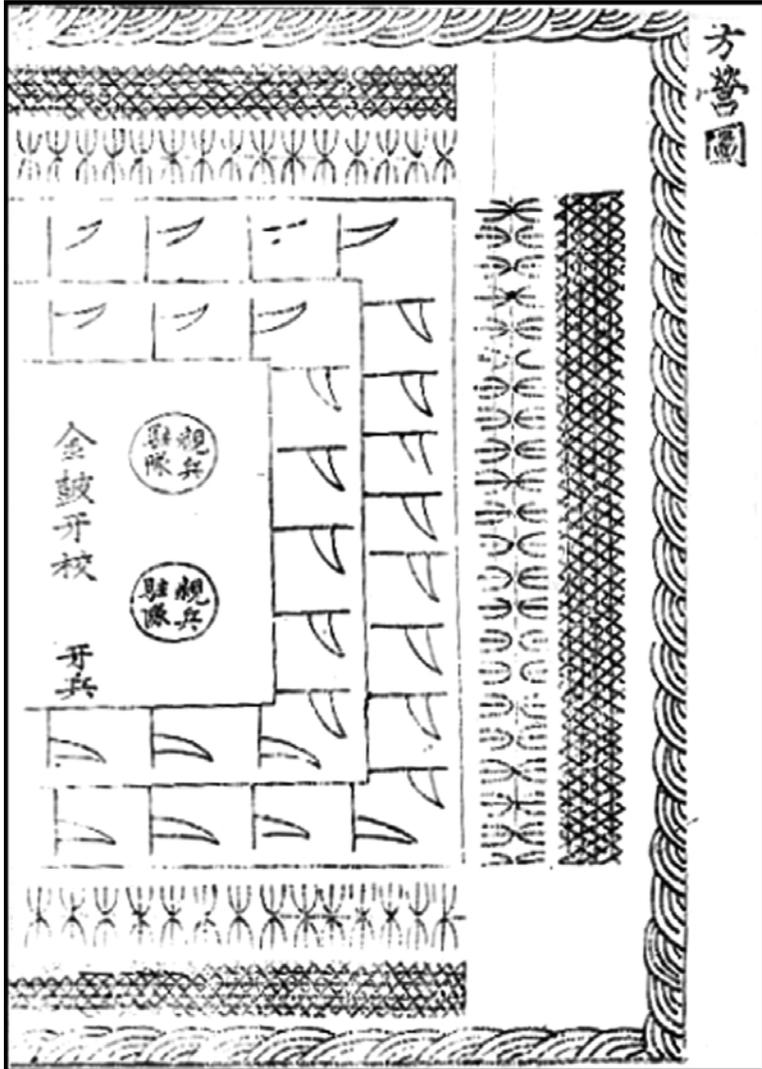
【그림 121】 일사오초행도[一司五哨行圖 : 1사를 5초로 편성하여
행군하는 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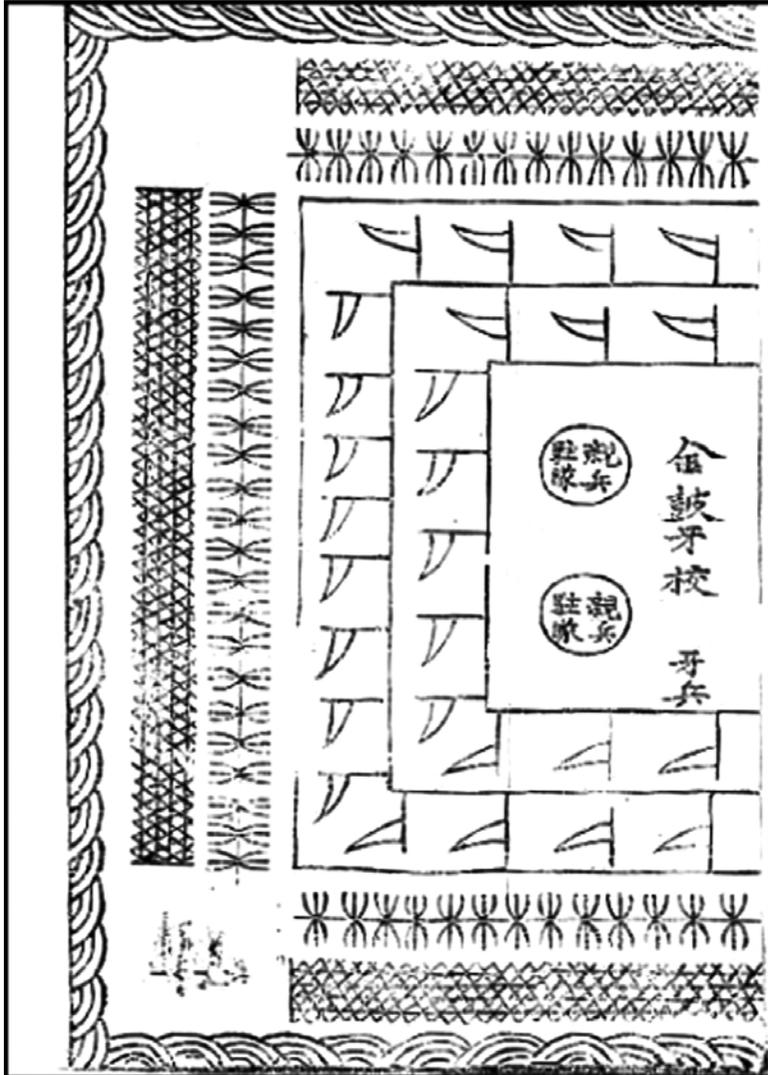
【그림 122】 열진도[列陣圖 : 진영을 배열하는 도형]



【그림 123】 방영도 오른쪽[方營圖：방영의 도형]



【그림 124】 방영도 왼쪽[方營圖：방영의 도형]



▣ 복병해[伏兵解 : 복병에 대한 해설]

왜놈 오랑캐의 성질은 스스로 싸움에 있어서 소수 병력을 골라 뽑아서 아군의 배후를 습격하는 데에 능하다. 비록 대패한 경우에도 한편으로 달아나면서 한편으로는 복병을 남겨둔다. 심지어는 한 두 사람이 작은 나무나 골짜기에 숨어서 왕왕히 그 피에 빠지기도 한다. 그런데 신유년의 난리(1561년 명 세종 嘉靖 40년)에는 한달 동안에 열 번이나 이기고 아군(명나라 군대)은 손실이 6~7인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를 논의하는 자가 이르기를 그 원인은 ‘아군의 전술이 정교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적의 전술이 졸렬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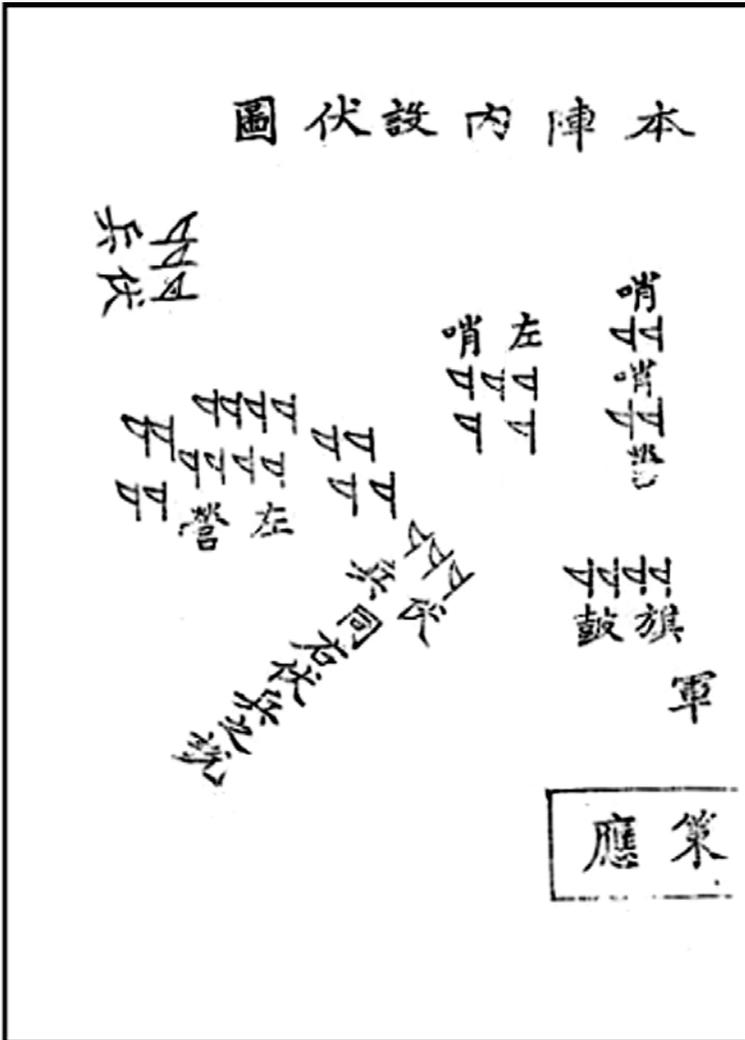
즉, 이 왜구(倭寇)는 다른 왜구들이 복병을 배치하던 것과는 달리, 예전의 매복 전법을 몰랐거나 평소에 익숙하게 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군이 인구가 밀집한 지역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심리를 추격했음에도 전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적이 복병을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아군에게 복병 배치 여부를 수색하고 지키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복병이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그 방법은 이러하다. 만약 적이 한 번 싸우다가 패하여 달아나면 아군은 추격하다가 임목이나 인가, 시냇물 건너는 곳, 모서리가 급격히 굽은 지형 등을 만나면 항상 임목과 가옥의 담장 만곡(彎曲)의 대소를 헤아리고 일대 혹은 1초를 남겨두어 그 반드시 나올 입구를 지키게 하고 다른 병력은 일면으로 곧바로 앞을 향하여 추격을 한다. 그러면서 매번 한 곳을 만날 때마다 그 한 곳에 병력을 남겨두고, 또 혹은 촌락이 아주 큰 경우에는 즉시 통행을 금지시키고 사람들을 수색한 다음, ‘적이 없다’고 고성으로 신호를 하고, 다시 나아가 추격을 한다. 보리밭이나 풀이 무성한 지역으로서 모두 복병이 있을 만한 곳은 아군의 매 1초 내에서 1대를 나누어서 길에 남겨두고 보리밭이나 풀밭에 뿔뿔이 흩어져서 수색하면서 소리를 지르게 하고, 일면으로 정병은 곧장 추격을 계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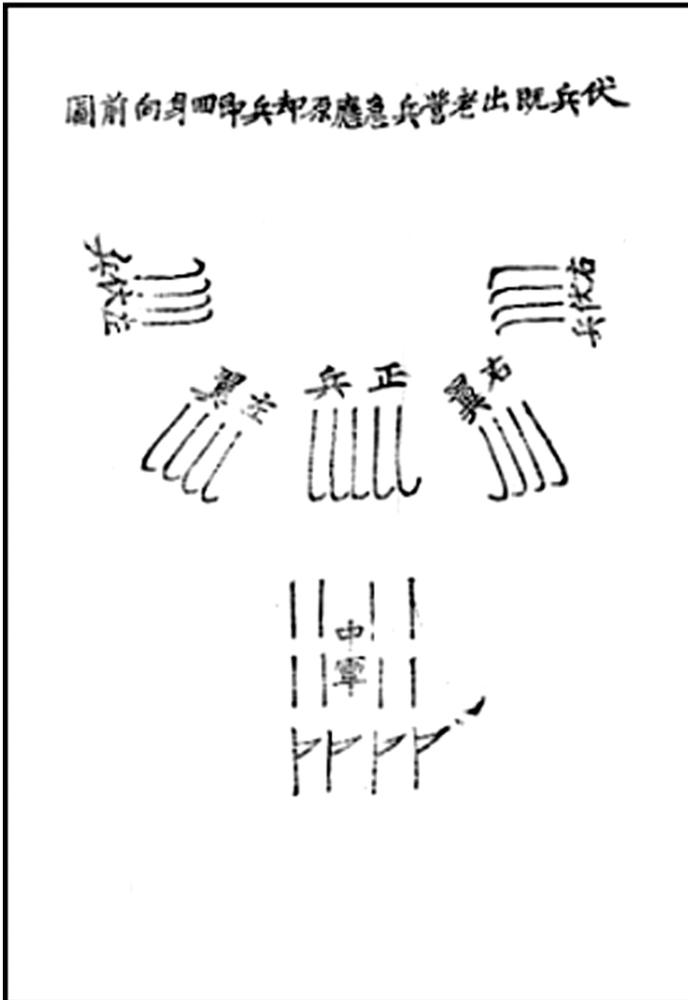
【그림 125】 출전수변취어본진내설복도 오른쪽[出戰隨變就於本陣內設伏圖：출전하여 변화에 따라 본진 안에 복병을 설치하는 도형]



【그림 126】 출전수변취어본진내설복도 왼쪽[出戰隨變就於本陣內設伏圖：출전하여 변화에 따라 본진 안에 복병을 설치하는 도형]



【그림 127】 복병기출노영병급응원각병즉회신향전도[伏兵既出老營兵急應原却兵即回身向前圖：복병이 이미 출전하고 주장이 위치한 본진의 병력이 급히 우군의 작전을 지원하고 형세에 호응하면, 최초로 퇴각했던 병력이 즉시 몸을 돌이켜 전방을 향하여 공격하는 도형]



▣ 조복해[操伏解 : 복병대비훈련에 대한 해설]

나무로 된 패에다가 ‘맥전(麥田)’, ‘촌옥(村屋 : 시골 집)’이라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글자로 구분해서 써 가지고 한 사람으로 하여금 교련 장에다가 편리한대로 꽃아 놓게 하고 잿가루로 구불구불하게 양의 창자처럼 구불구불 휘고 좁은 길들을 그려 놓고, 북을 치며 가상 접전 훈련을 한다. 이미 싸워 이기고 적을 추격함에는 앞에서 설명한 도형의 법식에 따라 분산 진진하는데, 목패를 세워 놓은 곳에서는 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수색하고 방비한다.

교장에서 조련하여 숙달이 되면 곧바로 교외의 들판과 촌락이 있는 곳으로 나가서, 촌락을 따라서 실제 상황에 닥쳤을 경우와 다름없이 조련을 한다. 교장에서만 조련을 하고 야외에서 조련을 하지 않아 끝내 실제의 경우를 경험하지 못하여 유사시에 그 적절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만약 먼저 교장에서 조련을 하지 않고 곧바로 야외에서 조련을 하면 사람들이 표준이 되는 방식을 몰라 미혹하고 혼란하여 또한 뜻과 같이 훈련의 소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서인 것이다.

▣ 칙복병[飭伏兵 : 복병에 대한 경계]

적과 조우했을 때, 기동하지 않거나, 일찍 기동한 자에게는 복초(伏哨)를 거느리는 대장(隊長)을 모두 목 벤다. 각 병사가 공장(工匠)이나 취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을 강박하여 불법으로 급휙(給恤)을 받으면 모두 곤장을 쳐서 다스린다. 만약 정병(正兵)이 기병(奇兵)이 복병(伏兵)의 공격을 받아 싸우는 것을 보고 즉시 돌아와 접응하지 않는 자는 같은 예로 처단한다.

【그림 128】연설복도[練設伏圖 : 복병 배치 훈련에 대한 도형]



▣ 분련해[分練解 : 부대를 나누어 조련하는 것의 해설]

부대를 차례대로 나누어 조련하는 데에 있어서, 제1대로부터 시작하여 제3대에 이르러서 조련이 끝난다. 한 기를 모두 통합하여 조련할 경우, 제1기로부터 시작하여 제3기에 이르러서 조련이 끝난다. 한 초를 모두 통합하여 조련할 경우, 제1초로부터 시작하여 제3초에 이르러서 조련이 끝난다. 한 사를 모두 통합하여 조련할 경우, 제1사로부터 시작하여 제4사에 이르러서 조련이 끝난다. 이와 같이 하여 한 영을 모두 통합하여 시행하는 조련이 끝난다.

영을 모두 통합하여 각 영이 조련을 한다 할지라도 3인이건, 5인이건, 10인이건 또한 전법(戰法)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며, 또한 기병과 정병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법(射法)에서도 비록 적이 5보(步)안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활시위를 충분히 잡아당기고 쏘아야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비록 3인이건, 5인이건 또한 전법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병력을 모아 놓고서 하는 조련에서 숙달이 되고, 또한 여러 병사들을 모아놓고서 하는 조련이 짧은 시간 안에 일을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그 보고 이해하는 능력이 고르게 미치지 못하여 소규모 인원을 자상하고 세심하게 조련시키는 것만 못하다.

대체로 기정론(奇正論)을 가지고 논한다면 머리 하나에 두 날개가 있는 것에 불과하며, 중군(中軍)은 중심(중앙)이 되므로 이것을 악기(握奇)라 하니, 마음이 사지를 움직이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지휘통솔하여야 한다. 적을 맞는 부분이 머리가 되어 적의 예봉(銳鋒)을 상대하고, 꼬리부분은 뒤를 이어 연속해 와서 머리와 번갈아 출동하여 끊이지 않고 두 날개가 뒤따라 먼 곳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이르러 앞에서 적을 맞아 싸운다.

그리하여 어느 곳이든 적과 대치하는 곳은 곧 머리가 되어 정병(正兵)이 되고, 좌우에 해당하는 곳은 곧 날개가 되어 기병(奇兵)이 되며, 뒤에 해당하는 곳은 곧 꼬리가 되어 책응병이 된다. 그 군중(軍中)에서 지휘하는 징과 북 및 은 명령 체계는 비록 5인을 조련하건 10인을 조련하건 1대로부터 1영에 이르기까지, 1영으로

부터 10만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법은 마찬가지이다. 조발(調發)된 한 대는 앞으로 나아가 제자리에 섰다가 징이 울리면 땅 위에 앉는다. 신호포 한 방을 쏘아올리고 긴 소리로 천아성(天鵝聲) 나팔을 불면 각기 일어나 병기를 잡으며 신호포 한방을 쏘아 올리고 파대오(擺隊伍: 헤쳐모여 나팔)를 불고 남대기(藍大旗)와 홍대기(紅大旗), 백대기(白大旗) 세 개를 세우면 삼재진(三才陣)으로 변환하며, 신호포 한 방을 쏘아 올리고 가볍게 북을 두드리면 앞으로 나아가고 북을 빠르게 치고 천아성 나팔을 불면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교전한다.

징소리가 세 번 울리고 솔밭(搥鉢)이 울리면 대오를 수습하여 정돈하고 제자리에 선다. 신호포 한 방을 쏘아올리고 징소리가 세 번 울리면 면전에서 물러나 돌아온다. 잇달아 징소리가 두 번 울리면 즉시 전면을 향하여 일제히 한소리를 지르며 제자리에 선다. 또다시 적이 공격해 오는 상황이 발생하면 신호포 한 방을 쏘아올리고 도북을 빠르게 치고 천아성 나팔을 불면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화포를 날리면서 전진한다. 교전이 끝나고 적이 패퇴할 때 징과 북을 멈추고 솔밭을 울리면 각 병사들이 부대를 정돈한다.

또다시 징이 울리면 물러나서 돌아오는데, 이와 같이 하기를 세 차례를 하고 물러나서 원래 조발되어 온 곳에 이르러 근거 진지를 세운다. 솔밭이 울리면 곧 병력을 수습하여 원앙대(鴛鴦隊)를 이루고 득승고(得勝鼓)를 울리면 돌아와서 공지(空地)에서 있다. 징이 울리면 앞서서 휴식하다가 다시 신호포 한 방을 쏘아 올리면 남대기와 백대기 두 개를 세우면 각 원앙대는 나뉘어서 매화진(梅花陣)이 되는데 1오(伍)를 1대(隊)로 하되, 진도(陣圖)에 의거하여 하되, 조련에 관한 명령은 전과 같다.

조련이 끝나면 앞서서 휴식한 뒤에 다시 신호포 한 방을 쏘아 올리면 황기 한 개를 세우면 원앙대가 되고 조련 방법은 전과 같다. 세 번 진형을 변화하기를 모두 마치기를 이와 같이 하면 다시 기총기(旗總旗)를 가볍게 흔들면 제2대가 앞서의 예에 의거하여 전투연습을 하고, 이를 마치면 다시 기총기를 가볍게 흔들면 제3대가 앞서의 예에 의거하여 전투연습을 하고, 이를 마친다.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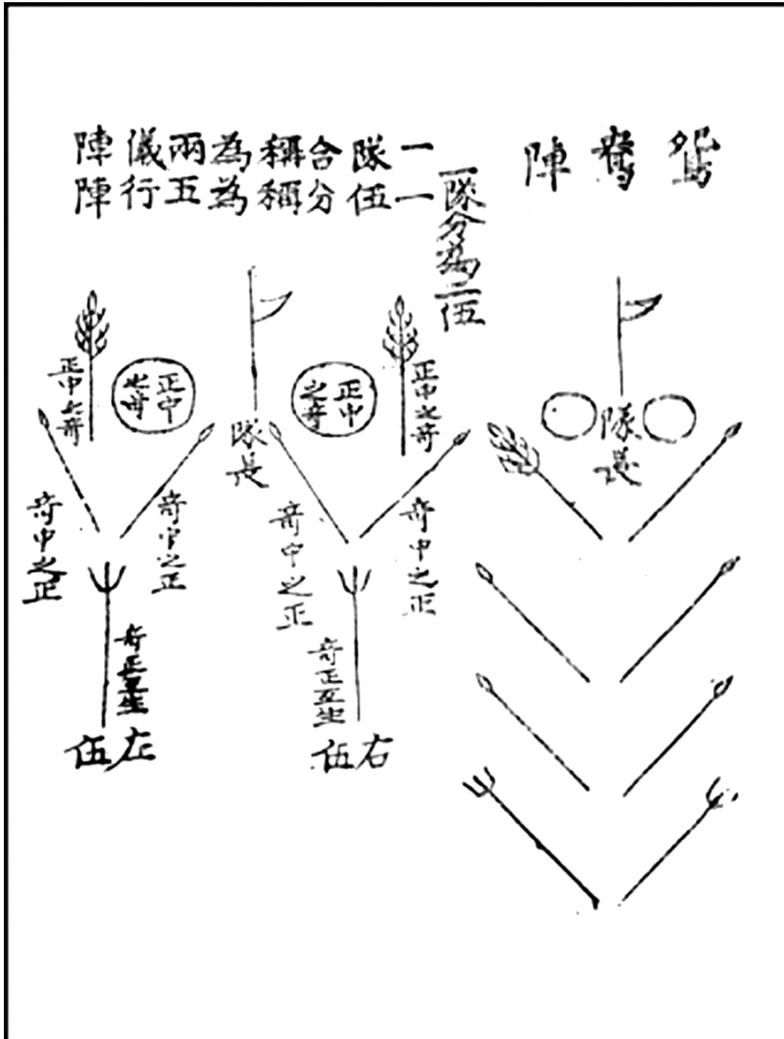
투연습의 호령과 거동은 모두 제1대의 경우와 같다.

이는 바로 1기가 끝나면 다시 2기와 3기가 그 뒤를 따라서 각각 한 기씩 교대로 조련하는 법이다. 조련이 끝나면 다시 공지로 돌아와 라(羅)가 올리면 앉아서 휴식하고 이와 같이 하기를 세 차례를 하고 신호포 한 방을 쏘아 올리면 본과 파총이 본초 초관의 방위색과 같은 기를 흔드는 신호를 보고서 초관이 이에 응하여 기를 흔드는데, 3개 기가 이를 마치면 관병은 일제히 줄지어 앉아서 휴식한다.

다시 신호포를 쏘아올리고 바라를 부는 소리를 들으면 일어나는데, 조련 방법은 모두 1대의 예와 같다. 매 진마다 가로로 1길의 간격을 두어서 원앙진을 배열한 다음, 매 대마다 3개의 소대를 만들어 정렬하여 삼재진(三才陣)을 이루고 진도에 의거하여 적과 대진하는데, 호령은 전과 같다. 그런 다음, 다시 매화진(梅花陣)에서 원앙진(鴛鴦陣)으로 2차, 3차로 나누어서 변형시킴으로써 조련을 마친다. 다시 이와 같이 조련하기를 제2초, 제3초, 제4초의 순서에 따라 시행하여 바야흐로 한 사의 조련을 마치는데,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사가 조련을 실시한다.

모든 사가 조련을 하면 조총수(鳥銃手)를 운용하는데, 매 대마다 인원의 수효에 구애되지 않고, 매 초마다 기의 수효에 구애되지 않고, 매 사마다 초의 수효에 구애되지 않으니, 대략 이와 비슷하게 증가하고 감소하기를 편의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니, 지혜로운 자는 이를 응용하고, 어리석은 자는 이에 얽매인다.

【그림 129】 원앙진도[鴛鴦陣圖 : 원앙진의 도형]



【그림 130】 양의진변삼재진도[兩儀陣變三才陣圖 : 양의진을 삼재진으로 변형시키는 도형]



▣ 원앙진해[鴛鴦陣解 : 원앙진에 대한 해설]

이는 바로 적을 죽여서 반드시 이기는 데에 자주 효과를 나타낸 진형으로 속오법(束伍法)에 있어서 가장 요긴한 전법(戰法)이다. 이패(二牌)가 대열을 나란히 하여 나아가면 낭선(狼筴)이 각각 일패(一牌)씩을 엄호한다. 장창(長槍) 매 2대가 각기 1패씩을 맡고, 낭선(狼筴) 하나가 단병무기(短兵武器)인 장창을 방어해주면서 나아가다가, 장창수(長槍手)가 지치면 곧바로 밀고 나아간다.

만약 이미 북소리를 들었는데도 멈칫거리고 나아가지 않으면 군법으로 목을 벤다. 낭선은 등패(籐牌)와 장창을 써서 구원한다. 낭선이 단병무기인 장창을 구원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이는 마치 오행(五行)이 서로 살리는 원리와 같은 것이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하면 이는 마치 오행이 서로 죽이는 원리와 같은 것이 된다.



▣ 영액해[營額解 : 진영의 인원수에 대한 해설]

대(隊)를 3으로 제한한 것은 진법(陣法)을 따른 것이며, 기를 3으로 제한한 것은 병력의 수에 구애된 것이며, 초(哨)는 4, 5, 6초가 모두 가능한 것은 편의에 따른 것이다. 한 영(營)은 5, 6개의 사(司)에 지나지 않고, 한 군(軍)은 10개의 영(營)에 지나지 않는 것은 장군(將軍)의 역량이 단지 이에 그치기 때문이다. 가령 병력이 십, 백, 천, 만에 이르더라도 모두 똑같은 법칙인데, 이것을 확충하고 변화하여 운용할 분이다. 이 숫자를 고집하여 일정한 법식으로 삼아서 가감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 야영해[夜營解 : 야간 숙영 훈련 한 해설]

남방(南方)에서 용병(用兵)을 한 이래로 터득한 바에 의하면, 만약 적을 만나 낮에는 공복(空腹)으로 적을 포위하고 싸우며, 밤에는 또 주린 상태에서 20~30리를 달려 인가나 혹은 성곽(城郭)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하는데, 새벽에 이르러 다시 회전(會戰)하게 되는데, 적이 하루밤 안에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에 미리 복병(伏兵)을 설치하고서 이곳 저곳으로 제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좌충우돌할 것이니, 저녁때부터 새벽 50~60리에서 적의 이러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니, 아군은 날이 밝을 때까지 적이 간 곳을 찾느라고 피로하고 나태해져서 싸우기도 전에 적이 매복해 있는 곳으로 들어가 패전을 자초하게 된다.

그리고 혹 적의 매복지점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리한 지형을 빼앗기고 만다. 이렇게 되는 경우, 우리는 피로하여 미처 계책을 세우지 못하는 반면, 적은 편안하여 그 계략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연유로 사전에 야영(夜營) 훈련을 철저히 실시하고 취사장을 마련하여 밥을 지어 배불리 먹인 뒤에 적과 밤낮으로 대치해 있다가 적이 피로할 때에 기병(奇兵)으로 공격하고, 우매한 적을 만나면 결사대로 제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적은 이곳 저곳으로 흩어져 노략질을 하려고 하여도 아군이 철저하게 지킬 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형세를 분산하지 못할 것이며, 또 한 곳에 모여 싸우려고 하여도 우리에게 수비의 도구가 있으므로 우리와 교전할 수가 없을 것이니, 기각(掎角)의 상책(上策)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깃발 위의 등롱에 덮개[罩]를 걸치는 것은 야간(夜間) 조련을 하기 위한 도구이다. 진영 주변에 까는 마름쇠나 거마색 등은 영루를 세우는 기본 자재이며, 가래 썰이 등은 영루(營壘)를 구축하는 기구이다.

▣ 조후해[操後解 : 조련이 끝난 뒤의 행동 요령 해설]

장령(將領)들과 사졸(士卒)들은 각자 원위치로 돌아가 휴식하거나 군무를 처리한다. 만약 방영을 설치할 때에 실제로 취사가 끝났으면 다시 취사할 필요는 없으며, 만약 실제로 취사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취사병이 쉬는 집에서 밥을 지어와서 병사들에게 먹인다. 야영(夜營)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먼저 낮에 조련을 한 다음 밤에 낮동안 익힌 야영 방법을 숙달되게 익힌다. 방영(方營)의 설치가 끝나면 야간의 암호(暗號)를 발령하고, 징 가장자리를 울려 복로군(伏路軍)과 당보군(塘報軍)을 출발시키는데, 관원 4명을 차출하여 4개 영문에서 인원수를 파악해서 나가게 하는데 이는 가지 않는 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보고가 끝나면 신호포 한 방을 쏘아 올리고 흑색 깃발을 세운 다음에 대취타(大吹打)가 울리면 영문을 닫는다. 영문 단기가 끝나면 기화(起火) 한 대를 쏘아 올리고 중군(中軍)이 연등(燃燈)을 하면 각 영(營)과 대(隊)가 일제히 등(燈)을 올린다. 대낮에는 빈 등롱(燈籠)을 사용하여 이를 연습한다. 대각(大角)을 불고 뇌고(擂鼓)를 치며 종을 울리는 것은 종은 금으로 대신하는데, 신호가 끝나면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달한다.

“관군(官軍)은 들으라! 야간 순찰을 각별히 삼가고 조심해서 하라. 만일 일을 그르칠 경우에는 군법이 엄히 다스리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예”하고 대답하되 되도록 큰 소리로 일제히 길게 하는 바, 발방(發放)의 내용은 한자(漢字)로 열 글자를 기준으로 한다.

시각을 알리는 신호로 정경포(定更砲)를 쏘아 올리면 밤 시각인 경(更)을 알리기 시작하여 매 경마다 한 차례씩 북을 친다. 각 영은 조두(刁斗)⁹⁸ 소리를 한 차례 서로 맞추고 매 1기를 돈 다음에 멈추도록 한다.

98) 조두(刁斗) : 야경용 징. 군대(軍隊)에서 야경(夜警)하느라고 치던 동라(銅鑼)

신호포를 쏘아 올리고 나를 올리면 앉아서 휴식하며, 사마다 병사 한 명과 기총이나 초관 한 명을 차례로 차출하여 야간에 순찰하게 하고, 기대마다 병사 두 명을 차출하여 영 밖에서 불을 피워 올리게 한다.

측간 구덩이 1개를 파서 사용하고 진영을 이동할 때에 흙으로 메꾸어 병사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한다.

경보를 접하였을 경우에는, 혹은 당보군이 먼저 도착하였거나, 혹은 북로군이 먼저 알려와, 진영 밖에서 신호포를 쏘아 올리고 기화 화살을 쏘아 올리면 진영 안에서도 신호포 한 방을 쏘아 올리고 바라를 붙여 병사들을 일으켜 세워 보고를 기다리게 한다. 적이 30보 정도의 근거리로 다가오면 조총 화기 화전 궁시가 이를 쳐서 사격을 가하는데, 반드시 사격 순번을 교대하는 방법을 써서 때 1대는 총수 1명씩 10차에 걸쳐서 교대로 사격하게 하되, 사격이 끝나면 다 쏜 자는 장전이 끝나면 다시 쏜다.

그리고 여기에 화전 궁시를 겸하여 또한 때 기와 대마다 번갈아가면서 발사하도록 한다. 1기대를 셋으로 나누어서 밤이 새도록 그치지 않고 쏜다. 적이 진영 아래로 다가와서 싸울 경우에는 주간 조련의 호령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각 병사는 적의 기병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장애물의 범위를 떠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장애물 주변에서 장병무기를 가지고 이에 대항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적이 비록 장애물의 바로 앞까지 접근해온다 할지라도 총포와 궁시를 더욱 쉴사이 없이 쏘아대야 한다. 그리고 적이 더욱 가까이 접근하면 돌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

▣ 야호해[夜號解 : 야간 암호에 대한 해설]

매일 해질 무렵에 주장이 먼저 각 초에 야간 암호를 발령하면 각 초는 각 병사에게 전달해서 알리는데, 다만 한 가지[一字]만을 사용하여야 하는 바, 때에 따라서 정하도록 한다. 모든 병사들은 야간에 서로 만났을 경우, 먼저 “누가 왔는가?”라고 물었을 때 “아무개가 왔다.”고 대답하면, 상대방이 바로 같은 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야간에는 이름을 말하는 것을 불허하고 이름을 말한 자를 곧바로 붙잡는데, 그가 바로 해당 부대의 참장(參將)이나 유격(遊擊), 또는 주장(主將)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한다.

▣ 등화해[燈火解 : 등화에 대한 해설]

대취타(大吹打)가 끝나고 야간 순찰 명령을 하달하고 곧 밤 시각을 밝힐 것을 알린다. 각 대는 등 한 개를 깃발 위에 달고, 각 기는 등 한 개를 깃발 위에 달고, 각 초는 등 두 개를 인기(認旗) 위에 달고, 각 사는 등 세 개를 인기 위에 단다. 다만 정기(正旗)는 반드시 등 한 개를 사용하여야 하며, 높고 낮음이 격식에 맞아야 한다.

야간의 진영은 모두 등불과 횃불 신호에 의거하여 운용하되, 각 진영은 중군에 달아놓은 등불을 보고 행동하며, 각 과총은 본영에 달아놓은 등불을 보며, 각 초는 본사에 달아놓은 등불을 보며, 각 기는 본초에 달아놓은 등불을 보며, 각 대는 본기에 달아놓은 등불을 보며, 각 병사는 본대에 달아놓은 등불을 보고 행동하되, 중간에 깃발을 보고 행동하는 요령과 똑같이 한다.

반드시 등을 먼저 준비하고 중군의 호령을 기다려 등룡을 올려서 건다. 그리고 본영 밖 30보 거리에 장작불 한 무더기를 피워서 적이 다가오는 것을 멀리서도 바라보아 적이 와서 아군의 상황을 측량할 수 없도록 한다. 불을 피우는 사람은 매 1기마다 기총이 1명씩을 뽑아서 각자 암호를 수령하고 나간다.

▣ 암영해[暗營解 : 암영에 대한 해설]

무릇 암영(暗營)을 설치할 때에는 영문을 닫을 때의 신호를 보아야 하는데, 이때 대취타를 연주하지 않는 것은 암영을 설치하겠다는 신호이다. 이때 각 영은 삼베 가리개를 사용하여 땅에 감춰 두는데, 이것은 암영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쓰지 않아서 안되는 물건이다. 한 동안은 등불에 불을 붙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불을 붙이려면 미처 다 붙일 수가 없다고 할 경우에 미치지 못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중군이 먼저 영전(令箭) 두 대를 영장(營將)에게 전달하여 알리면 각 대장들이 차례로 전달하며, 다시 전초의 제1대 대장에게 전달하면 영전 한 대를 풀어 한 사에 의해 피총에게 주어 진위를 확인하게 하고 이 영전 한 대를 전달한 다음에 돌아와서 병사들로 하여금 암영을 설치하게 한다. 그리하여 여러 사람들이 모두 알면 작고 짧은 화살 한 대를 전달하여 각 초가 순서대로 은밀히 행동을 개시한다. 앞에 미리 차출된 군관이 저쪽에 있다가 암호를 물으면 대답한다.

그러면 즉시 그 군관의 지휘에 따라 뻑뻑히 서로 연결해서 진영을 설치한다. 진영을 설치하는 도중 어그러져서 순서가 틀리고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일이 생길 경우, 다만 [진영 설치를 지휘하는 군관] 한 사람만이 은밀히 왕래하면서 낮은 소리로 바로잡아서 고치되, 입을 벌리고 큰소리로 떠드는 것을 불허한다. 위반하는 자는 군법으로 처벌한다.

▣ 변보사[辨報事 : 보고할 사안을 분변함]

무릇 야간에 와서 사안을 보고하는 사람이 본영의 지시나 명령을 전달할 경우에는 먼저 자기 소속부대와 야간 암호를 알린 뒤에 사안을 말해야 하는데, 한결같이 진영 밖에서 명령을 듣는 것을 준례로 한다.

▣ 전야전[傳夜箭 : 야간의 신표로서 화살을 전달함]

각 대는 병사 2명을 뽑아서 목성(木城 : 목책)을 지키도록 한다. 목성이 없으면 적 기마부대의 접근을 막기 위한 거마영을 지키게 하는데, 이들에게 야간의 신표로서 화살을 전달한다. 이 화살을 망실하고 바꿔친 자는 상하의 순번을 차례대로 조사해서 책임 소재를 밝히고 군법으로 처벌한다.

▣ 하야영[下夜營 : 야간 진영을 설치함]

무릇 기병을 출격시키거나 또는 진영을 이동할 경우에는 다른 곳에 등룽을 밝혀두어서 가짜 진영을 만들어 놓는다. 각자 때에 따라 자호(字號 : 군호)를 정하는데, 큰 바람이나 비가 올 경우 등불을 밝히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이다. 이 자호를 미리 정하지 않는 것은 적의 세작이 이를 알까 염려해서이다. 만약 적이 근거리에서 있을 경우에는 자호를 사용하지 않고 새나 짐승의 소리를 군호로 사용하는데, 때에 따라 초관에게 급여하면 초관은 순세에 따라 각 기와 대에 통지하여 알려준다. 어느 초에서는 닭 울음소리를 흉내내고, 어느 초에서는 소 울음소리를 흉내내게 하는 바, 때에 따라 은밀히 익히고 미리 정하지 않는다.

▣ 명암해[明暗解 : 명영과 암영에 대한 해설]

만약 명영을 설치하였는데 갑자기 암영으로 바꾸려고 할 경우, 명영을 그대로 남겨두고 중군이 쌍등을 깃발에 연결하여 흔드는 것을 보고 각 영에서는 등화를 모두 점화하며 암호를 전달하여 각각 등화를 가리개로 가려서 원래의 장소에 감춰둔다. 진영을 이설한 뒤에는 적당하고 용감한 사람을 남겨두어 한사람이 등 하나씩을 맡아 등불을 밝히고 돌러가며 방고(梆鼓 : 딱따기)를 치도록 한다.

▣ 출야기[出夜奇 : 야간에 기병을 출격시킴]

한 밤중에 적이 내습하여 대영을 침범할 경우, 그 멀리에 배치한 기병과 복병은 각각 적정을 살피 대영에서 교전하고 가장 용감한 사람 수십 명을 뽑아서 곧 그 뒤에서 큰소리로 외쳐서 적을 의혹에 빠지게 하여 승세를 탈 수 있는 기틀을 확보하여 반드시 이기도록 하고 주둔한 곳의 수림이 우거지고 암석이 많은 골짜기에 미리 화약과 땀나무로 쓰는 풀 땀나무로 쓰는 풀을 묶어두거나 혹은 주장이 병력을 파견하여 적당한 시기에 불을 질러 대영이 적의 상황을 분변할 수 있도록 하고 아군의 복병이 다수라는 것을 나타내어 적의 예기를 꺾는 것이다.

▣ 경주해[更籌解 : 시각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해설]

날씨가 흐리거나 캄캄한 밤중에 행군을 하다가 유숙할 경우에는 반드시 更을 정하고 시간을 헤아려 낮과 밤, 이르고 늦음과 완급에 대비를 하여야 한다. 1일에는 100각(25시간)이 있어, 12시(1시 = 125분, 12시 = 1500분)로 나뉘며, 매 1시마다 8각 20분(1각 = 1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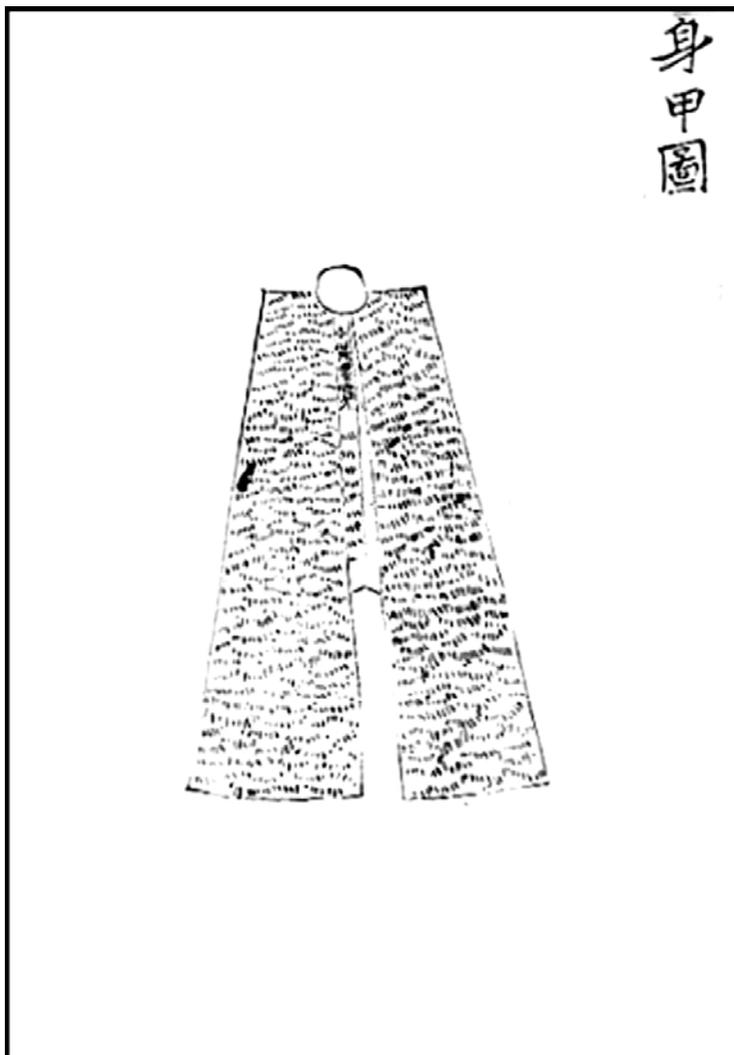
1분 = 0.25분)이 있으며, 매 1각은 60분으로, 모두 500분을 1시로 한다. 24절기에 의거하여 12개의 산가지를 만드는데, 해가 뜨고 지는 것을 가지고 그 법칙을 삼았다. 각 산가지마다 길이 2자 4치(cm)로 그 위에 각각 해당 절기와 해가 뜨고 지는 시(時), 각(刻), 분(分)과 낮과 밤의 길고 짧은 수치를 쓴다.

혹은 산가지를 쓰지 않고 두 꿰미 내지 한 꿰미의 구슬로 수를 헤아리기도 하는데, 작은 구슬 740개를 가지고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보통 걸음으로 걸으면서 740여 보를 헤아리면서 구슬을 다 헤아려 740개를 거리의 한도로 하여 해당 2리 27보쯤을 1각으로 한다. 걸어가면서 7,400개를 헤아려 거리의 한도로 하여 20리 270보쯤을 10각(주야 공통)으로 한다. 해당 74,700여 보를 거리의 한도로 하여 208리쯤을 100각으로 한다. 매 1시는 8각 20분이므로 6,225보를 갈 수 있으니, 구슬을 헤아리면 6,225개를 1시로 할 수 있다. 12시는 대략의 거리의 한도가 100각과 같다.

무릇 시각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은 낮과 밤이 각각 길고 짧음이 달라서 12시후(時候)의 절기에 의거하여 각각 그 길고 짧음을 각수(刻數)로 하여 때에 따라서 여러 갈래로 나누되 아침에는 해뜨는 시각을 가지고, 밤에는 해지는 시각을 가지고 그 출발 점을 삼아 낮의 시각을 정하고 밤 동안의 시간을 알리는 누수(漏水)를 정하였으니, 모두가 대동소이하여 적을 경계하고 대비하는 데에 쓸만하다.

그리고 진영을 배치하는데에 있어서 1면을 188보로 하면 4면은 모두 752보가 되니, 만약 산가지를 50차례 옮기면 나머지는 모두 500여 보가 된다. 해가 뜨는 곳은 동지의 경우에는 밤이 매우 길고, 하지의 경우에는 밤이 매우 짧으니, 24절기는 모두 다르고 같은 차이가 있어 나머지는 이를 본떠서 운용한다.

【그림 131】 신갑도[身甲圖：몸에 입는 갑옷의 도형]



▣ 신갑해[身甲解 : 갑옷에 대한 해설]

갑옷은 생명을 유지하는 근본으로 사용되는 것이니, 적의 칼날에 맞닥뜨려서도 똑바로 서서 패하지 않는 바탕이 되는 것이 이것이다. 남방은 지형이 험하고 우묵한 구덩이가 많아서 보병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병(步兵)은 무거운 것을 메고 달리기가 어렵다. 비가 많이 내리고 땅에 습기가 많아 철갑(鐵甲)에 쉽게 녹과 흙집이 생겨 반드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만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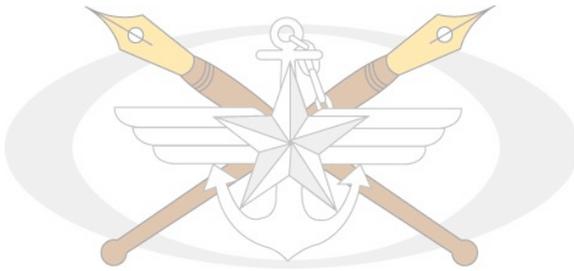
왜놈 오랑캐들이나 지방의 도적들은 모두 총포와 화포를 사용하면서 반드시 등패와 각패(角牌)를 쓰니 착용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총포의 납 탄알이 모두 다 뚫고 들어갈 수 있으면 또한 몸체가 무거워서 오래 지탱하기가 어렵다. 지금 그 이로운 점을 택하니 보병에게는 오직(緝甲 : 실로 엮어서 짠 갑옷)이 있으니, 명주 포목을 써서 만드는데, 그 두께가 고르지를 않아서 만약 바탕의 천이 모두 얇으면 납탄환은 말할 것도 없고 화살이 또한 뚫고 들어올 수 있다.

지금 반드시 두께 1치로 만들어야 하니, 그 방법은 앞에 있다. 명주나 포목을 촘촘하게 엮어서 그 길이가 무릎에 이르도록 한다. 너무 길면 논바닥의 진흙탕에서의 행동이 불편하다. 너무 짧으면 몸을 가릴 수가 없다. 왜구의 갑옷은 짧은 것을 중히 여기는데 또한 군대의 힘이 아니면 얻을 수 없고, 또한 관비(官費)가 아니면 만들 수가 없으니, 그대로 두고 말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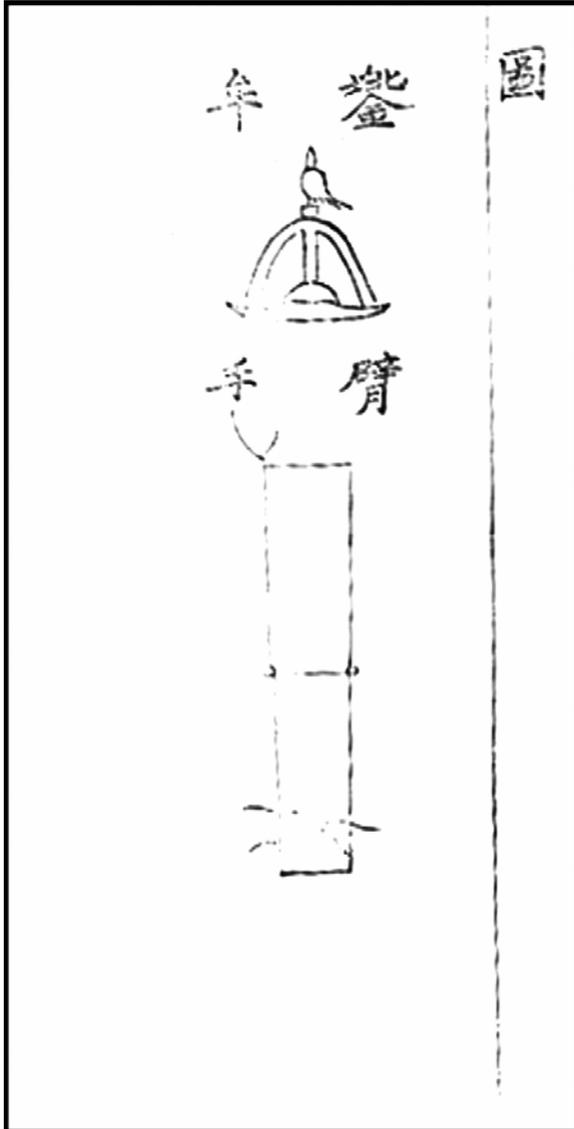
오직 배 안에서는 무거운 갑옷을 착용할 수가 있으니 대개 먼 길을 행군하지 않고 진흙 밭을 밟지 않기 때문이다. 적의 총포는 견고하지 못한 갑옷에 미치면 막을 수가 없다. 철갑의 도형은 주사편(舟師篇)에서 제외하고 지금은 기록하지 않는다. 투구 또한 등나무덩굴 안에 면화를 가지고 촛모[櫛帽 : 안에 받쳐쓰는 모자]를 만들어서 쓰니 매우 단단하고 가벼워서 더할 나위가 없다.

▣ 정대[鞆帶 : 허리띠]

남방에서는 포목 1필을 써서 허리 사리를 둘러서 묶는데 가지 가지 형태와 방법으로 묶을 수가 있어서 더욱 절묘하다. 도형은 그리지 않는다.



【그림 132】 모두도(牟菟圖)



▣ 두모해[兜牟解 : 투구에 대한 해설]

가느다란 등나무 덩굴로 만든다. 등나무 덩굴 양간을 가지고 그 안에 명주로 만든 모자 한 벌을 넣는데, 모자 겉에는 포목 두 겹을 대고 모자 속에는 포목 한 겹을 대고서, 다시 그 안에 사면[絲綿 : 실솜] 약간과 견지[繭紙 : 누에고치로 만든 단단한 종이] 약간을 넣고 명주실로 엮어맨다. 모자의 뒷부분이 딱 맞지 않고 3치가 높은 것은 사람의 머리가 크고 작음에 따라 편리하고자 함이니, 때에 따라 스스로 꿰매어서 쓰라는 것이다. 투구 안쪽과 투구 꼭대기에 붉은 빛의 갓끈을 붙이니, 한편으로는 그 모양새가 굉장하여 볼 만 해서이고, 한편으로는 남방의 빛깔을 따르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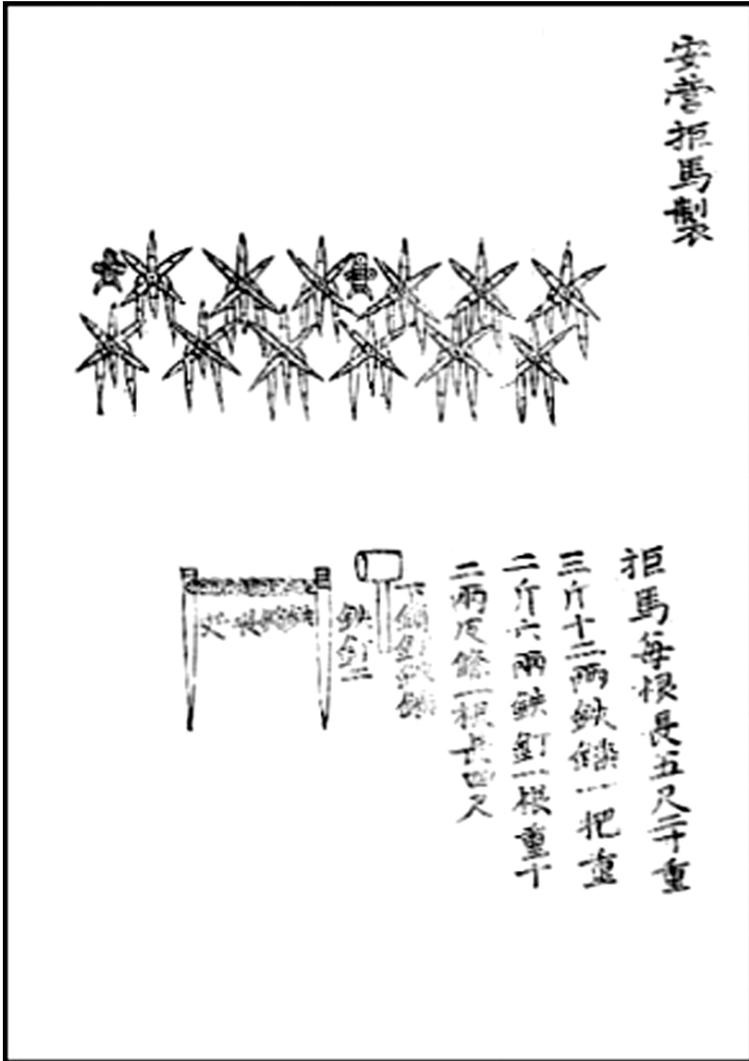


▣ 비수해[臂手解 : 팔 보호대에 대한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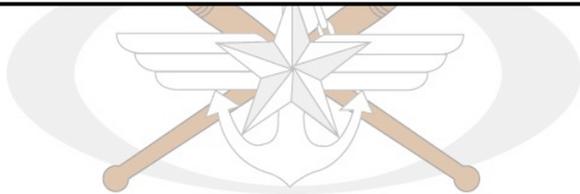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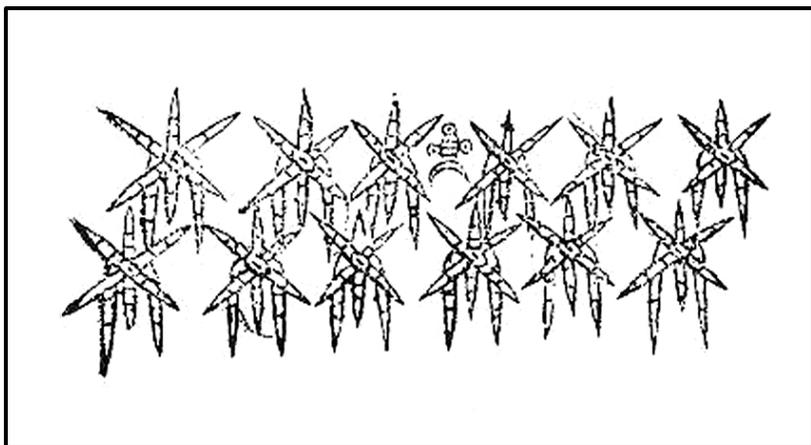
팔 보호대 매 한 벌마다 포목을 안팎에 네 겹 약간의 길(丈)과 척(尺)의 길이로 대고, 다시 그 안에 면화 약간과 견지(繭紙) 약간을 넣고 긴 명주실 약간 돈(錢)을 넣는다. 그 견고성이 북방의 철제와 같으니, 이는 바로 활동하기 편리하고 가볍고 정교하다. 모두 옷소매를 잘 가다듬어서 윗부분은 두텁고 아랫 부분은 얇아서 그 중에도 더 얇은 부분이 있어서 팔다리를 굽힐 때에 굽히고 펴는 데에 편리하다.

위의 것은 관에서 만들어서 병사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제법이 이와 같다. 무릇 지휘관이 스스로 만들 경우에 겉에는 명주나 포목을 쓰고 안에는 누에고치 솜을 쓰니, 더욱 오묘하다.

【그림 133】 안영거마제[安營拒馬製 : 진영 배치 후에 적 기병의 침입을 막기 위한 장애물 제조 방법] ①



【그림 134】 안영거마[安營拒馬]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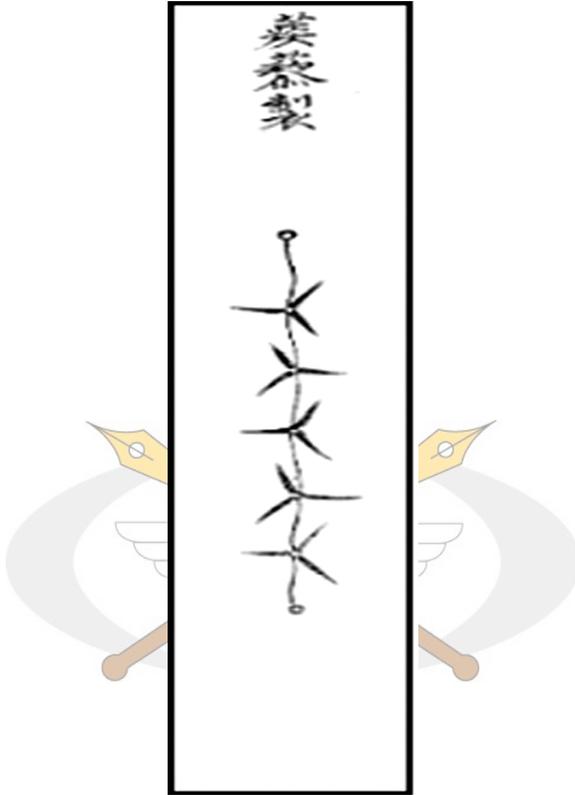
▣ 거마해[拒馬解 : 거마에 대한 해설]

모양은 북틀과 같으며 세 뿌리가 서로 이어져 있어 이리저리 넘어뜨리거나 굴려도 언제나 서있고 쓰러지지 않는다. 뿌리는 길이가 5자이고 지름은 각기 1치 5푼이며 자루에는 날카로운 칼날을 쓴다. 거마(拒馬) 1대마다 땅 5자를 차지하는 바, 적 2명을 막을 수 있다. 한 소대에는 땅 1길 5자가 필요하고 거마 3대를 사용한다. 2층의 진영에는 6대를 사용한다. 부대마다 병사 한 명이 거마 한 대를 교대로 지고 가면 1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거마 1대마다 쇠사슬 한 가닥이 있는데 길이가 1길이니, 가볍고 가늘어서 더욱 오묘하다. 땅에 박는 못 두 벌이 있는데, 길이가 1자로 이어서 묶기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다. 땅에 못을 박는 쇠망치 1자루가 있는데 무게는 1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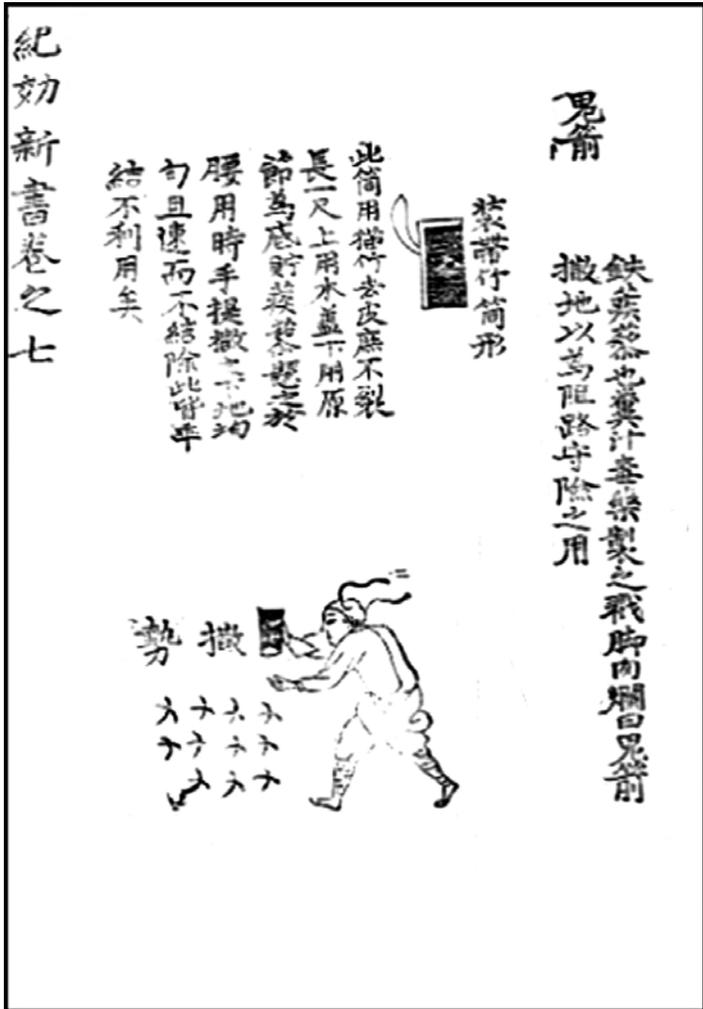
【그림 135】 질러제[蒺藜製 : 마름쇠 제조 방법]



▣ 질러해[蒺藜解 : 마름쇠에 대한 해설]

마름쇠를 밧줄로 묶어서 연결하면 거두어 들이고 일으키는 데에 편리하다. 매 소척(小尺) 1자마다 1개를 진열하고 1보마다 5개를 진열하되 노끈을 사용하여 마름쇠의 속을 꿰어 나오게 한다. 한 소대(小隊)마다 전면이 간화첩진(間花疊陣)의 5층(層)으로 되어 있으면 매 대에 모두 15개를 사용하는데 창과 방패의 위에 붙여서 진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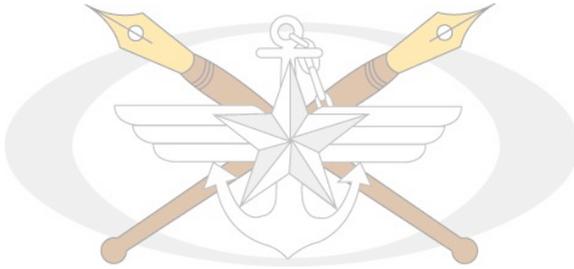
【그림 136】 귀전도[鬼箭圖 : 귀전의 도형]



귀전(鬼箭)은 쇠로 만든 마름쇠이다. 똥물이나 독약을 묻혀서 만드는데, 다리를 찢러 살을 썩게 한다. 이것을 귀전이라고 하는데, 땅에 뿌려서 통로를 막아 험고한 곳을 지키는 데에 사용한다.

보관하는 주머니는 대나무통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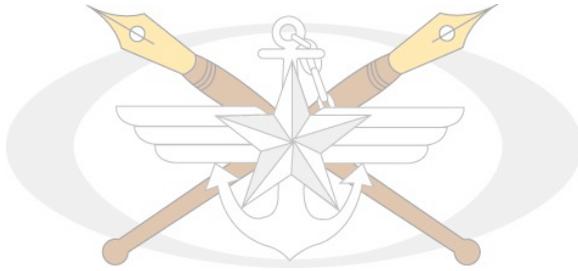
이 통은 묘죽(猫竹)⁹⁹⁾을 써서 쪼개지지 않을 정도로 껍질을 벗겨 길이 1자로 만들어 그 위에 나무뚜껑을 달고 아래는 원래의 마디를 바닥으로 하여 마름쇠를 채워 넣고 허리에 찬다. 사용시에는 이 통을 손으로 잡고 땅에 고르게 빨리 뿌리는데, 얽히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것이 모두 어긋나고 얽히면 이용하기에 좋지 않다.



99) 묘죽(猫竹) : 중국 무이산(武夷山)에서 나는 줄기가 크고 두꺼운 대나무. 모죽(毛竹) 또는 모죽(茅竹)이라고도 함.

[紀效新書(上)]

권8 행영편[行營篇]



■ 권8 행영편[行營篇]

행영(行營)에 대해서는 이미 장조(場操)에서 그 대강을 연습하였다. 다만, 징집(徵集)과 동원(動員) 그리고 적과 맞닥뜨려 싸우는 것, 이것은 실제의 상황이나 훈련에서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 여기에서 장조를 전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행영(行營)에 대해서는 다시 상세히 하고자 한다. 무릇 장조의 부분에 이미 갖추어진 것은 다시 다루지 않고 모두 장조에 의거해서 시행한다. 이는 이른바 실제의 상황이므로 여기에서 행영(行營)이라고 차례한 것이다.



▣ 연계행해[練啓行解] : 출정길에 오르는 과정의 훈련 해설]

각 부대의 장령(將領)들은 자기 자신과 거느리는 가정(家丁)¹⁰⁰과 각 병사들의 휴대품과 도구, 군용 화기 등을 때때로 준비하고 갖추어서 항상 출정(出征) 길에 오르는 것과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 갑작스런 위급한 상황이 보고되거나 위급을 알리는 신호(信號)가 발령되면, 주장(主將)은 출정할 시기를 알려주고, 한편으로는 휘하의 부대원들과 맹세를 하는데, 날을 가려서 이를 공표하고 기일이 되면 교장(教場)에 모인다. 주장은 털이 흰 닭[白鷄]과 술 등의 제물과 서약(誓約)의 글을 준비하여 대(臺) 위에 진설(陳設)한다. 제사(祭祀)가

100) 가정(家丁) : 고대에는 각급 부대의 장령(將領)들이 가까이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하 인원으로 편성한 정규군이 아닌 사적인 조직으로서의 정예부대나 자신의 휘하에 필요한 참모 조직을 둘 수 있었는데, 이를 가정(家丁)이라 하였으며, 여기에 충원된 인원들의 지위나 대우는 일반 군사들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끝난 다음에는 군문(軍門)의 사형 집행을 맡는 회자수(劊子手)가 닭을 갈라 그 피를 술병 안에 담근다.

먼저 주장(主將)이 이렇게 맹세의 말을 한다.

“공(功)에 대해 상(賞)을 줌이 공평하지 않거나 기고(旗鼓)의 지휘체계가 엄정하지 않으며, 함부로 사람을 죽이거나 사사로 이 재물을 탐내며, 좋아하는 바에 치우치거나 고락을 함께하지 않으며, 성심으로써 나라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 자는 이 피와 같이 될 것이니라.”

마시기를 마치면, 다음으로 파총(把總)이 꿇어 앉아서 술잔을 받들고 이렇게 맹세의 말을 한다.

“만약 몸소 사졸(士卒)들보다 앞장서지 않거나 공(功)과 죄(罪)에 대한 처리가 공평하지 않으며, 진실한 마음으로 적을 향해 나아가지 않아서 소속 부대의 장령(將領)을 구원하지 않으며, 재물을 약탈하고 전공(戰功)을 다투며, 함부로 일반 백성을 죽이고 고의로 적이 도망치도록 놓아준 자는 이 피와 같이 될 것이니라.”

마시기를 마치면, 곧 영장(營將)에게 보내어 공문(公文)으로 보관한다. 초관이 하는 맹세는 ‘소속 부대의 장령을 구원하지 않으며 [不救本管將領]을 ‘소속 부대의 우두머리를 구원하지 않으며[不救本管頭目]’이라고만 고치고, 나머지 구절은 같다.

다음으로 기총(旗總), 다음으로 대장(隊長), 다음으로 병사(兵士)가 맹세를 하는데, 각 1기(旗) 3대(隊) 휘하의 33인(人)이 한 무리가 되어 술잔을 들고 이렇게 맹세의 말을 한다.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한 가지로 하지 않거나, 적을 보고서도 윗사람의 명령을 받들지 않으며, 재물을 약탈하고 전공을 다투거

나, 함부로 죽여 백성들에게 재앙을 끼치고 움츠러 물러나서 적이 도망치도록 놓아주거나, 대장(隊長)과 우두머리를 구원할 것을 포기한 자는 이 피와 같이 될 것이니라.”

마시기를 마치면, 곧 이를 문서(文書)의 격식(格式)으로 보관하는데, 매 1군(軍)마다 맹세하는 말이 끝나면 곧 몸을 돌려서 받들어 올린다. 한 기(旗) 내의 병사들이 맹세를 마치면 또 다른 한 기가 모두 맹세를 마치고, 여러 사람이 주장(主將)에게 사례한다. 이때 주장은 충의(忠義)롭고 격렬(激烈)하며 인정(人情)에 간절한 언사로 다시 한 번 깨달아 알도록 이렇게 타이른다.

“너희 각 병사들은 이것을 들어서 알고 문서(文書)를 만들어서 나는 이미 이것을 거두어서 관부(官府)에 보관하고 진영 문을 나서서 전진에 나아감에 반드시 이에 의거해서 군법대로 시행할 것이니, 험뜯거나 원망하지 말지니라.”

▣ 결장식[結狀式 : 문서 작성의 격식]

- 참장(參將) 유격(遊擊) 아무개 아무개 등은 지금 신(神)의 앞에 마주하여 성심(誠心)을 다하여 소속 부대의 주장(主將)을 보위(保衛)할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 전장(戰場)에서 전투할 때 감히 움츠리고 물러나거나 서로 도와서 보호하지 않고 명령을 어기거나, 전투를 중도에 그만두어 버릴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다. 본대의 주장을 소홀히 보위하여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죽음을 달게 여기고 목숨으로 갚겠습니다.
- 파총(把總) 아무개 아무개 등은 지금 신의 앞에 마주하여 성심을 다하여 소속 부대의 장관(將官)을 보위할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 전장에서 전투할 때 감히 움츠리고 물러나거나 서로 도

와서 보호하지 않고 명령을 어기거나, 전투를 중도에 그만두어 버릴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다. 본대의 장관을 소홀히 보위하여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죽음을 달게 여기고 목숨으로 갚겠습니다.

- 초관(哨官) 아무개 아무개 등은 지금 신의 앞에 마주하여 성심을 다하여 소속 부대의 파총을 보위할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 전장에서 전투할 때 감히 움츠리고 물러나거나 서로 도와서 보호하지 않고 명령을 어기거나, 전투를 중도에 그만두어 버릴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다. 본대의 파총을 소홀히 보위하여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죽음을 달게 여기고 목숨으로 갚겠습니다.

- 기총(旗總) 아무개 아무개 등은 지금 신의 앞에 마주하여 성심을 다하여 소속 부대의 초관을 보위할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 전장에서 전투할 때 감히 움츠리고 물러나거나 서로 도와서 보호하지 않고 명령을 어기거나, 전투를 중도에 그만두어 버릴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다. 본대의 초관을 소홀히 보위하여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죽음을 달게 여기고 목숨으로 갚겠습니다.

- 대총(隊總) 아무개 아무개 등은 지금 신의 앞에 마주하여 성심을 다하여 소속 부대의 기총을 보위할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 전장에서 전투할 때 감히 움츠리고 물러나거나 서로 도와서 보호하지 않고 명령을 어기거나, 전투를 중도에 그만두어 버릴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다. 본대의 기총을 소홀히 보위하여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죽음을 달게 여기고 목숨으로 갚겠습니다.

- 아무 대 소속의 아무개 아무개 등은 지금 신의 앞에 마주하여 성심을 다하여 소속 부대의 대총을 보위할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 전장에서 전투할 때 감히 움츠리고 물러나거나 서로 도와서 보호하지 않고 명령을 어기거나, 전투를 중도에 그만두어 버릴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다. 본대의 대총을 소홀히 보위하여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죽음을 달게 여기고 목숨으로 갚겠습니다.

▣ 상세행[詳啓行 : 출정 길에 오르는 과정을 상세히 함]

출정할 기일이 다가오면, 주장은 원문(轅門 : 영문) 앞에서 두호(頭號 : 첫 번째 나팔)를 불게 하고 각 장수는 진문 앞에서 함께 두호를 불게 하며 각 관군(官軍)은 밥을 지어서 먹고, 중군관(中軍官)은 당보군(塘報軍)을 미리 밤에 파견하는데 파견되는 당보군은 작은 황기(黃旗) 1면, 궁시(弓矢) 1벌, 요도(腰刀) 1자루를 가지고 아직 장두호(掌頭號) 나팔을 불기 전에 미리 밥을 지어먹고 행장(行裝)을 수습하고 장두호 나팔을 기다려 모두 주장(主將)의 진문(陣門) 앞으로 가서 집결한 다음, 약간의 거리를 정하여 1당(塘)을 둘 것을 청한다.

정 가장자리를 울리는 신호를 듣고 주장이 거처하는 숙소로부터 시작하여 제1당을 배치하고, 여기서부터 보수(步數)를 헤아려 2명씩을 머물게 하여 제2당을 삼고, 차례로 당보군을 남겨 당보병의 인원이 다하면 멈추고 각각 앉아서 휴식하면서 기다린다. 그리고 부대가 행군하면 당보군도 차례로 전해서 이어 함께 가며, 부대가 행군을 멈추면 당보군도 차례로 전해서 이어 모두 걸음을 멈춘다. 주장의 앞에서 제1당이 출발하여 만약 수목(樹木)과 인가(人家)가 있거나 지형이 굽고 휘돌아서 적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경우에는 앞의 근거리에는 당보군이 반드시 뒤에 있는 당보군을 돌아보고 두 깃발로 서로 신호한 뒤에 통과하며, 평탄한 곳에서는 서로 멀리 바라보고 신호한 다음 다시 걸음수를 맞추어 걸어가면서 법식(法式)에 따라 정탐하여 보고하도록 한다.

그러다가 적정(敵情)이 나타났을 경우, 상황이 급하면 깃발을 빠르게 흔들고 뒤채여서 멈추지 않되 몸 주위로 돌리지는 않으며, 상황이 느긋하면 깃발을 천천히 흔들어 끄덕거리고, 적의 병력규모가 다수일 경우에는 깃발을 몸 주위로 크게 빙빙 돌리면서 흔들

고 뒤채이되, 기타의 행동 요령은 전례와 같다. 그리고 만약 전면
에 큰 수택(水澤)이 있거나 협착(狹窄)한 골짜기가 있어서 부대의
행군(行軍)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을 구두(口頭)로 다음의
한 층(層)에 전달하면 각 층이 앞의 예에 의거하여 일시에 모두
이와 같이 전달한다.

만약 적이 물려올 경우에는 앞에 있는 한 층이 후퇴하여 다음
층에 이르고, 만약 적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군(行軍)한다.
만약 적이 다시 추격해오면 앞에 있는 한 층이 또다시 다음 한 층
으로 후퇴하되 진영 앞에 이르러서는 멈춘다. 그리고 깃발을 저은
뒤에는 적이 추격하든, 추격하지 않든 일제히 병력을 끌고 돌아오
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통제한다. 만약 곧바로 돌아왔을 경우에는
군법(軍法)으로 처벌하여 조리를 돌린다.

두 번째 신호나팔이 울리면 각 관군(官軍)은 공지(空地)로 나와
서 진영 설치를 마친다. 세 번째 신호나팔이 울리면 주장은 진영
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나와서 말에서 내려 위임된 관원들에게
사무를 분장시켜 기일에 늦게 도착한 자는 잡아다 곤장을 치고 귀
를 자르되, 연고가 있는 자에게는 군대를 따라 출정하여 공이 있
으면 죄를 면해주고, 공이 없으면 채워서 곤장을 친다.

부장(副將)인 편장(偏將)과 비장(裨將)들은 주장(主將)의 지휘기
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모두 주장 앞으로 모여서 금일에 행군해서
가야 할 방향과 적정(敵情)의 완급(緩急)에 대한 상황 및 길을 분
담해서 나가야 할 일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약속을 한다. 그런 다음,
징을 쳐서 병력을 자리에 앉아 휴식하도록 한다. 조금 후에 신호
포가 한 차례 울리고 바라(哮囉)를 불면 일어나서 신호포 세 발을
쏘아 울리면 큰소리로 세차례 고함을 지른다.

여덟 방향의 문을 사용하는데, 각기(角旗)¹⁰¹⁾ 1벌씩을 네 곳의
문 앞에 길한 방향을 따라서 세운다. 부대가 출동할 때에 단일(單

101) 대기치(大旗幟)의 하나. 진중(陣中)에서 방위(方位)를 표시하는 군기(軍旗).
각각 방위에 따라 네 가지 빛으로 표시하는데, 수효는 4개나 8개를 씀. 깃발
은 4척의 정방형(正方形)이고, 깃대의 길이는 12척, 영두(纓頭)와 주락(珠絡)
이 있음.

日)102)에는 왼쪽에 있는 대원은 병기(兵器)를 잡고 오른쪽에 있는 대원은 행리[行李 : 행장]를 간수하며, 쌍일(雙日)103)에는 오른쪽에 있는 대원이 병기를 잡고 왼쪽에 있는 대원이 행리를 간수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적이 행영(行營)에 접근하거나 또는 전방이나 후미 또는 중앙에서 돌출하여 행장을 땅에 놓으면 각 화병(火兵)들이 이것을 간수하며 행리를 잡았던 병사들은 즉시 대오[隊伍 : 상대편의 대원]가 잡고 있던 병기를 손에 잡고서 지휘명령에 따라 적을 상대한다. 이때 만약 중군(中軍)이 멀리 있으면 반드시 중군의 지휘 명령을 기다릴 필요 없이 갑자기 경계상황에 맞닥뜨렸을 경우의 대처요령에 따라 [과총과 초관이 지휘하여] 결행한다.

병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심지어는 연도에서 걸가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메고가게 해서 적이 지방민으로 가장하여 군기를 메고 가다가 그들의 소굴로 달아나 버려 많은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곧바로 지형을 선택하여 방영(方營)을 설치하고 휴식하면서 대오를 정돈하고 땀나물을 하고 물을 길어오며 다시 명령을 듣는다. 길이 좁으면 매 1영(營)마다 차례로 행군하되, 원양진(鴛鴦陣)의 규칙에 의하여 병사 두 사람이 길을 가게 되면 호포(號砲) 한 방을 쏘아 올리고 곧바로 제자리에서 서서 징이 울리면 앉아서 1~2각(刻)을 휴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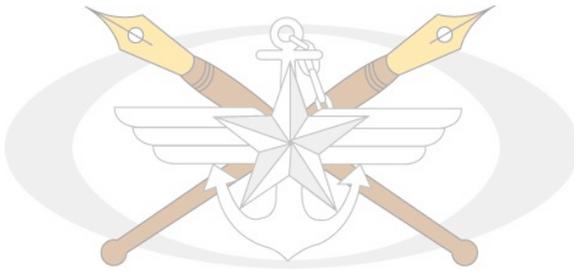
만약 적이 30리 밖의 지점에 있고 모든 경로가 험준하면 당보군이 경로가 험준하다는 것을 보고하며, 중군은 가정(家丁)과 정병(精兵)을 선발대로 보내어 험준한 곳으로 달려가서 매복(埋伏)을 하도록 한다. 매복이 끝나면 호포 한 방을 쏘아 올리고 북을 가볍게 둥둥둥 두드려 병사들이 험준한 지역을 통과하도록 한다. 행영의 중군은 별도로 위임한 지구관[知穀官 : 담당관] 1명과 전초(前哨)를 함께 가게 하되 오방기(五方旗) 1벌과 초요기(招搖旗) 1벌을 가지고 가서 유사시에 펼치도록 하는데, 수목(樹木)이 우거진 곳에서는 오방기의 청기(靑旗)를 펼치고, 수택(水澤)이 있는 곳에서는 흑기(黑旗)를 펼치며, 적의 병마(兵馬)가 있는 곳에서는 백기(白旗)

102) 단일(單日) : 1, 3, 5, 7,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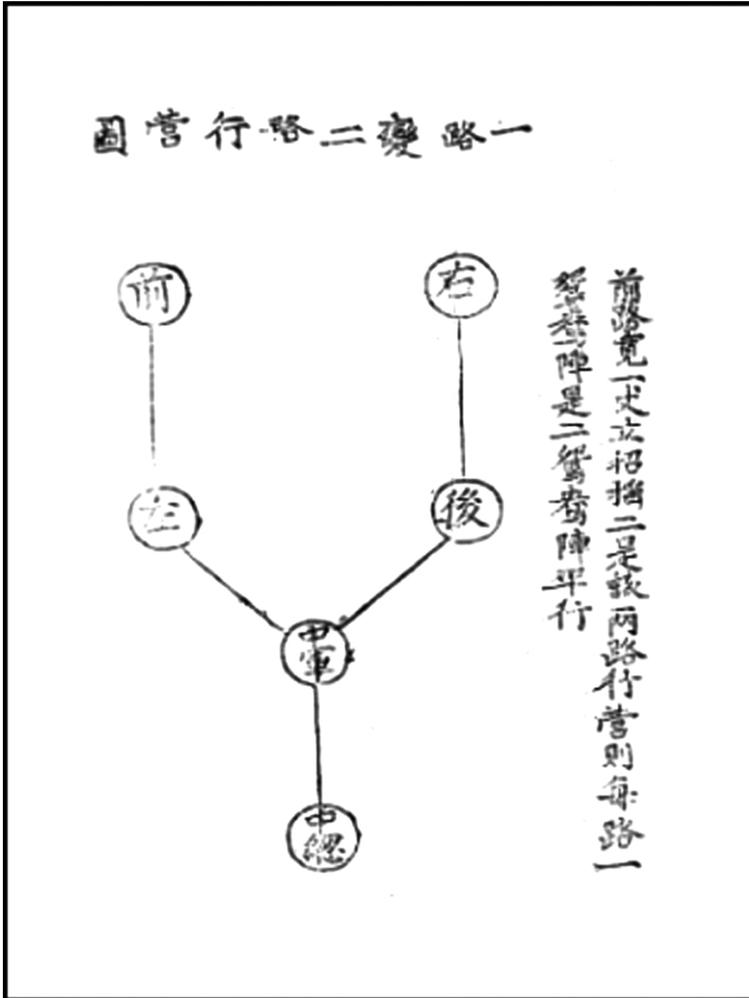
103) 쌍일(雙日) : 2, 4, 6, 8, 10일

를 펼치고, 산악(山嶽)이 험준(險峻)한 곳에서는 황기(黃旗)를 펼치며, 연기가 나는 곳에서는 홍기(紅旗)를 펼치는데, 보이던 물건을 지나치면 펼쳤던 기를 도로 감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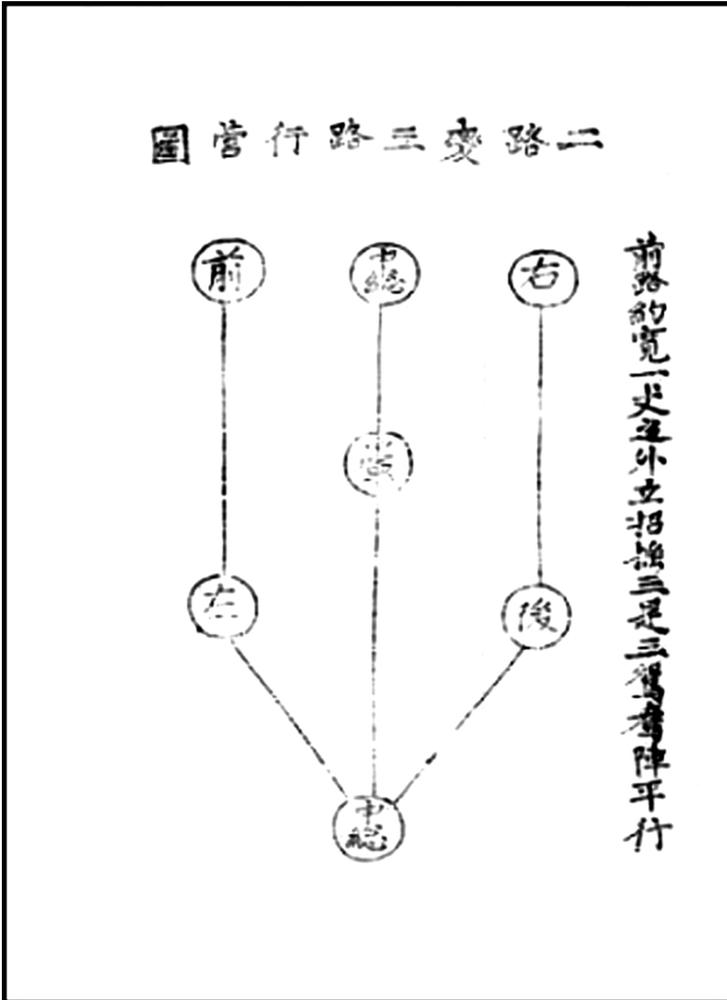
모든 초요기는 전방의 도로가 한 길로 갈 수 있으면 한 개를 세우고, 두 길로 나란히 갈 수 있으면 두 개를 세우고, 세 길로 나란히 갈 수 있으면 세 개를 세우고, 네 길로 나란히 갈 수 있으면 네 개를 세우고, 모든 영이 다 갈 수 있으면 다섯 개를 세운다. 후미 부대는 서로 이어가면서 구두로 앞 길에 어느 색깔의 오방기와 어느 색깔의 초요기가 세워졌는가를 전달한다. 그러면 중군은 곧바로 진영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신호포를 쏘아올리게 하고 방비하는 지휘명령을 하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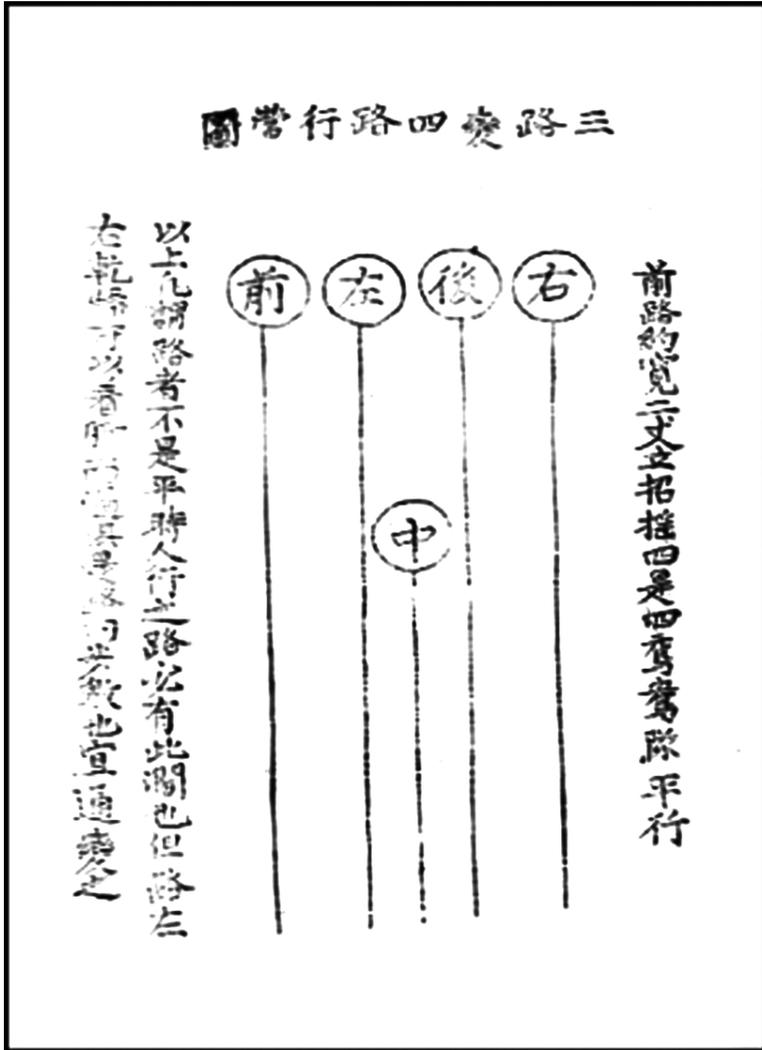
【그림 137】 일로변이로행영도[一路變二路行營圖 : 일로를 이로로 변형시켜 진영을 설치하는 도형]



【그림 138】 이로변삼로행영도[二路變三路行營圖 : 이로를 삼로로 변형시켜 진영을 설치하는 도형]



【그림 139】 삼로변사로행영도[三路變四路行營圖 : 삼로를 사로로 변형시켜 진영을 설치하는 도형]



▣ 행암영해[行暗營解 : 암영 설치에 대한 해설]

암영(暗營)을 설치할 때에는 징이나 북소리, 기치의 색깔을 사용하지 않고 뒤에 나오는 물건들을 전달하면 명령에 의거하여 행동거지(行動舉止)를 한다. 무릇 어떤 물건이 전해질 적에, 출발한 곳으로부터 전해져 오면 반드시 친히 행영의 주장의 수중에 도착하여 명백히 기록된 뒤에 바로 원인[原人: 경험 많고 근신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서 돌려서 조사해 살핀 다음, 만약 주장(主將)으로부터 발송된 것이면 그대로 주장에게 전해서 교부(交付)하여 거두어 조사하게 한다.

행영(行營)을 정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목(草木)의 가지를 전달한다. 행영을 앉아서 쉬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돌덩어리를 전달한다. 행영을 느리게 이동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간 뭉둥이를 전달한다. 행영을 빠르게 달려가도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이소전[貫耳小箭 : 귀를 꿰는 작은 화살]을 전달한다.

행영을 수습하여 전투를 준비하고자 하거나, 적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거나, 매복한 적을 막고자 할 경우에는 긴 영진(長令箭)을 전달하여 즉시 제자리에 서도록 한다. 매 사(司)를 1영(營)으로 하여 지세(地勢)를 선택하고 원래의 조련 규정에 의거하여 영진(營陣)을 세우고, 매 총(總)을 1처(處)로 하되 서로 잇대어서 자리잡지 못하게 하면서, 또한 서로 형세를 호응하도록 한다.

▣ 선봉해[選鋒解 : 정예병 선발에 대한 해설]

평시(平時)의 조련(操練)에 이미 무사할 때의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또 익힌 바가 유사시에 즈음하여 바쁘게 서둘러서 쓰지 않아도 된다. 또다시 선봉(選鋒 : 정예병)이라 이름을 붙여 각 초(哨)와 대(隊)에서 굳세고 성실한 자를 뽑아 모아서 선발하니, 병사가

선봉에 뽑히는 것을 우려하지 않고 홀로 적과 맞닥뜨려서 장수의 위태로움을 대신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심이 문득 바뀌어 소속의 행오(行伍)가 분리되어 상하가 거꾸로 뒤집어지니, 이미 책임 지우기가 어렵다. 그래서, 공을 이루지 못하면 핑계를 댈 구실을 제공해 주는 것이니, 이는 그 병사를 비축해 둔지 오래이나 오합지졸(烏合之卒)이기는 처음과 똑같은 까닭이다.

지금 조발(調發)하여 파견함을 당하여 반드시 그 강약(強弱)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부서의 관직명만 패(牌)에 써서 조발하는 데에 그친다. 그러나, 저가 이미 평시에 교련의 책임을 맡고서 적과 맞닥뜨려서 규율을 어기면 마음에 다른 핑계를 댈 말이 없을 것이니, 그 마침내 이 일을 자기의 책무라고 자임하면 평시에도 필연코 교련(敎鍊)에 마음과 힘을 다하여 고무될 것이다.

하물며 선봉은 대개 경계 상황이 없을 때에 뽑지, 보루(堡壘)를 구축하고 적과 대치하고 있을 때에 뽑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한영(營) 안의 병사 모두가 다 강하고 약한 자가 없는 것도 아니다. 병가(兵家)에서도 또한 약한 것을 버리고 쓰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에 생각건대 전부 조발하면 병사들의 뜻을 단련하고 그 마음을 하나로 하여 적과 맞닥뜨려도 거의 가즈런히 용기를 발휘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이다.

▣ 청화기[請火器 : 화기 지급 요청]

결손되어 부족한 군의 화기(火器) 부품은 출정하기 삼일 전에 지급을 요청하여 완비하고, 급히 떠날 경우에도 또한 하루 전에 지급을 요청해야 하며, 적과 맞닥뜨려서 다 쏘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억지로 달라고 하는 것을 불허한다. 또 없으면서 은폐하여 있는 것처럼 하는 것도 불허한다. 적발시에는 모두 적을 두려워하여 달아난 죄로 따진다.

▣ 정보사[定報事 : 사안을 보고하는 절차를 정함]

전초(前哨)는 청도(淸道)를 담당할 인원을 차출하여 청도남기(淸道藍旗)와 영기(令旗), 영전(令箭)을 급여한다. 무릇 크고 작은 사무가 생기면 모두 사람을 파견하여 중군(中軍)에게 보고하고, 마땅히 맞이하여 기다리고 사안을 보고할 사람과 각처에서 온 긴급공문을 전달할 사람을 인기(認旗) 아래로 보내어 명령을 하달받게 하되, 제멋대로 와서 주장(主將)의 처소에 직접 보고하는 것은 불허한다. 회보(回報)함에 있어서도 만약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중군에게 보내어 심문한다.

초관(哨官) 이상은 또한 자신의 인기를 관할 구역에 세워 군사 1명을 시켜서 지키는 것을 허용하는데, 무릇 본대의 지휘관은 그곳에 가서 기(旗)를 지키는 사람에게 이를 알려준다. 무릇 소속 부대의 모든 사람들은 공사간의 사정을 보고하고자 하면 다만 인기 아래에서 기를 지키는 사람을 찾아가 대신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그 차인의 지시를 기다린다. 아울러 소속 관군은 진영을 떠나거나 본대의 대장이나 파총(把總)을 찾아가는 것을 불허한다. 보고라는 명목으로 이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모두 다 법으로 다스린다.

▣ 전호령[傳號令 : 명령과 지시의 전달]

바야흐로 행군간에는 1영(營)이 행군하는 데에도 또한 10여 리의 거리가 되어, 금고(金鼓) 소리 또한 들리지 않으니, 명령과 지시가 직접 전달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여야 도달하게 할 수 있는가? 회신(回信)하여 보고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여야 그 참을 얻을 수 있을까? 언어로 전달하고 통보하는 것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간략하게 한 두 구로 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기총(旗摠)과 함께 육성(肉聲)으로 전한다.

그리고 1기(旗)는 다시 그 다음 1기로 차례대로 전달하되, 순서를 뛰어넘는 것을 불허한다. 혹은 앞으로부터 뒤로 전하고, 혹은 가운데로부터 앞·뒤로 전하여 모두 전해서 도착하는 곳에서 그대로 전해서 돌아갔다고 하면 순서를 어기고 전달한 원래의 출발처는 명령을 유실한 죄로 다스리고, 전달받은 자는 전달이 단절된 곳을 조사하되 앞의 한 부대의 기총은 '이러 이러한 말을 전했다.' 하고, 뒤의 한 부대의 기총은 '모른다.'고 말하면, 곧 전하지 않은 사람을 걸어서 일을 그르친 죄로 처벌하고, 전시에 임해서는 군법으로 처단하여 병사들에게 보인다.

▣ 청행오[淸行伍 : 행군 대열의 정리 정돈]

길 사이에 행영(行營)과 대오(隊伍)를 편성할 때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명백하고 청결 엄숙함이다. 행렬이 정체되지 않고 전대와 후대의 성김과 뺨뺨함이 한결같지 않게 단절되어 집중되지 않거나, 행군(行軍 : 서행)과 주행(走行 : 속행)이 뒤섞여서 어수선하고 제멋대로 대오를 이탈할 경우, 진격신호의 북이 울려도 하달되지 않거나, 정지명령인 징소리를 듣고서도 멈추지 않을 경우, 기가 눌혀졌는데도 앞드리지 않고 기가 세워졌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기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도 접응하지 않고 영을 받고서도 전달하지 않거나 명령의 전달이 명확치 않을 경우, 도로를 손상시키거나 시끄럽게 떠들면서 말하는 자, 모두를 군법으로 다스리고 적과 맞닥뜨렸을 때에는 모두 목을 벤다.

▣ 금장령[禁將領 : 장수가 어겨서는 안될 금지사항]

행영(行營)할 때에 장수(將帥)가 진영을 떠나는 것을 불허한다. 먼저 앞서 가는 것도 불허한다. 진영의 후미에서 행군하되 경계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상황에 즉응하여 나아가고, 그 상황에 즉응하여 멈춘다. 군영(軍營)을 출발하여 대적할 때에도 진영에 위치하여 전황을 듣는다. 주장(主將)은 각군을 지휘 통솔함에 병력의 집중에 중점을 둔다. 주장이 이제 막 하영(下營)하고, 만약 파총의 군사가 후미에 위치하여 곧 하영(下營)을 하는데, 장수가 거느리는 가정(家丁)이 영채(營寨)를 이탈하면서 선봉(先鋒)이라고 가칭하는 자가 있으면 장수도 아울러 한꺼번에 군법(軍法)으로 다스리고 종사하는 각 대장(隊長)은 전방에 위치하여 대(隊)를 거느리고, 각 기총(旗總)은 후방에 위치하여 대를 감독한다. 노상에서의 행군(行軍)과 주행(走行)을 함에 있어서 군율(軍律)을 어기는 일이 있으면 책임을 추궁하는데, 기총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다.

▣ 방해수[防解手 : 대열에서의 이탈을 방지함]

무릇 행군(行軍) 도중에 무장(武裝)을 해제한 관군(官軍)이 있으면 길을 벗어날 때[下道之時] 해당 소속 부대에 즉시 한 사람으로 하여금 곁에서 이를 지키게 하고 원래의 오(伍)로 쫓아서 들어가기 를 기다리되, 5리 이상 뒤쳐져서 이르지 못하는 자는 귀를 꿰어서 조리를 돌린다.

▣ 수병핍[收病乏 : 병들어서 지친 자를 거둬]

무릇 군대가 행군(行軍)함에 있어서 병(病)이 든 병사(兵士)와 지친 군마(軍馬)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가 있으면 곧바로

주장(主將)에게 보고하여, 신표(信標)를 지급하여 차인(差人)을 뽑아 인근 지역의 성곽(城郭)이나 부(府)·위(衛)·주(州)·현(縣)·영채(營寨) 또는 보(堡)가 있는 순사[巡司 : 순찰사의 관서] 등의 관부에 압송하여 조리하도록 한다.

동시에 병자가 소속 부대 안에 친하게 아는 자가 많아서 2~3명을 머무르게 하고 그렇지 못한 병자는 1명을 잠시 머물게 하여 따라가서 질병의 치료를 보살피게 한다. 병이 나오면 즉시 본영(本營)으로 보내고 해당 지역에서는 먼저 전아결잔[痊痾結狀 : 질병치료 기록]을 구비하고 이를 조사하여 만약 병이 나왔는데 본대의 소재로 오지 않는 자는 기일에 늦은 죄목으로 논한다.

만약 행군 도중 죽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대와 오에서 묘를 파고 묻은 다음 뜻말을 세워서 기록하고 장령과 지휘관은 음식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올린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고의로 사체를 버린 죄로 다스리며, 일이 끝난 뒤에 다시 와서 시신을 회수해가지고 간다.

▣ 근도유[謹途遺 : 길에 떨어진 물건을 조심스럽게 다룸]

무릇, 군대가 행군(行軍)을 할 적에 길에 떨어진 기계(器械)나 짐물(什物) 등은 발견한 자가 즉시 거두어 가지고 숙영지에 이르러서 중군(中軍)에게 보내어 유실물(遺失物)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물건을 습득한 사람에게는 격식(格式)에 의거하여 상벌(賞罰)을 시행한다. 숨기고 보고하지 않은 자는 죄를 다스리며, 사사로이 서로 주고 받는 것을 불허한다.

▣ 도수조[渡水阻 : 물길이 막힌 곳을 건너감]

무릇 큰 하천이 있는 곳을 건널 적에는 먼저 하천 가까운 곳에

방영(方營)을 설치하되, 당보군(塘報軍)이 사방의 멀찍하고 높은 곳에서 매복하고 있는 적이 없는가를 살펴서 적의 지경이 아니면 또한 진영을 설치하고, 그런 다음에 건넌다. 순서에 의하여 1초(哨)가 정해진 법식에 의거하여 건너는데, 1기(旗)가 건너면 1기의 진영을 구성하고, 군용(軍用) 화포(火砲)와 기계(器械)의 정렬을 완비하고, 화승(火繩)과 화기(火器)를 법식에 맞게 안치하며, 만약에 적이 면전에 있을 경우에는 한 차례 싸우고 나서 그런 다음에 징을 울리고 앉아서 휴식하면서 대기한다.

1초(哨)가 초의 진영을 완성하고, 1사(司)가 사의 진영을 완성하고, 1영(營)이 대영(大營)을 완성하면, 1영은 바야흐로 명령을 하달하여 시행을 하는데, 이후의 각 부대는 이에 의거해서 한다. 그런데, 도하중에 만약 당보마가 갑자기 경계상황을 알려오면 반드시 도하할 것 없이 각 부대는 하천 양쪽 기슭에서 기다렸다가 전투를 한다. 서로 배를 먼저 타려고 시끄럽게 떠들거나, 행렬의 순서를 따르지 않거나 여러 사람이 서로 밀치면서 앞을 다투는 것을 제일의 금지사항으로 삼는다.

오직 초와 대는 순서에 따라 건너야 하니, 단 한 사람도 앞에 끼어들고 뒤를 뛰어넘지 않으면 자연히 소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툼이 없을 것이다. 이를 어기면 평시(平時)에는 곤장(棍杖)을 치고, 적전(敵前)에 임해서는 군법(軍法)에 따라 처벌하고 소속 지휘관을 연좌(連坐)해서 처벌한다.

▣ 변분병[辨分兵 : 분산해서 나가는 부대를 분별함]

병력(兵力)을 분산(分散)하여 여러 갈래의 길로 떠날 경우에 다쳐서는 반드시 각 부대(部隊)의 기호(記號)를 정하여 낮에는 기치(旗幟) 신호를 보고서 분별을 하고, 밤에는 횃불 신호를 보고서 분별한다.

▣ 우산림[遇山林 : 행군 중 산림을 만났을 경우 조치 방법]

적과 대전(對戰)할 때 지대가 낮고 물기가 많으며 물풀이 무성한 저택(沮澤)이나 초목(草木)이 무성한 심림(深林)이나 큰 산을 만나 함부로 지나칠 수가 없을 경우, 반드시 그 형세에 의지하여 한편으로는 수색(搜索)을 하고 한편으로는 중군(中軍)에게 보고하여 명령을 들은 다음에 행군을 재개한다.

▣ 우졸경[遇卒警 : 갑작스런 경계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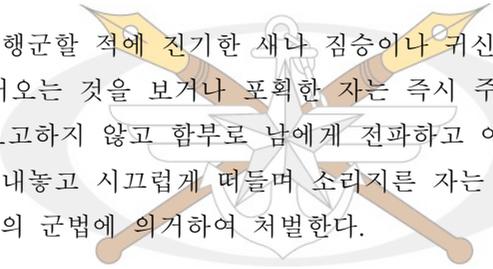
남방(南方)의 산수(山水)는 임목(林木)이 우거지고 얽히고 설켜서 다만 지형에 따라 진(陣)을 설치하고, 적정(敵情)에 따라 응용을 달리 하고 군의 정세에 따라 변화(變化)와 전용(轉用)을 해야 하며 일정한 법식(法式)이 있는 것이 아니니, 어찌 일정한 진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물며 군대의 행렬이 이미 길어지니, 느닷없는 변이 뜻밖에 일어나면 어찌 능히 중군의 호령(號令)¹⁰⁴을 기다리면서 당보(塘報 : 척후)¹⁰⁵하는 것을 머뭇거리다가 만약 적이 행영의 중간, 또는 앞뒤로 돌연히 출현하여 하영(下營)에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니, 파총(把總)과 초관(哨官)은 모두 지휘 통솔을 스스로 주관하여 즉시 급변에 즉응한다.

104) 호령(號令) : 지휘(指揮)하여 명령(命令)함. 큰 소리로 꾸짖음. 주(主)로 단체(團體) 행동(行動)에, 어떤 동작(動作)을 일제(一齊)히 하도록 하는 간단(簡單)하게 규정(規定)된 말.

105) 당보(塘報) : 척후(斥候)하는 군사인 당보수(塘報手)가 당보기(塘報旗)를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서 적의 동정(動靜)·형편(形便)을 살펴 알리던 일. 적병의 형세(形勢)가 느리면 기를 세우고 급하면 급히 흔들고, 적의 수가 많고 형세가 급(急)하면 몸을 뺄 돌리며 급히 흔들고, 일이 없으면 원(圓)을 세 번 그렸음. 밤에는 기 대신에 등불로 알렸음.

함께 행군하는 영(營)과 사(司)는 적과 조우한 파사(把司 : 파총이 지휘하는 사령부)의 영을 들어야 하니 (이는) 곧 중군(中軍)의 명령 지휘와 마찬가지로이다. 행군해 나아가야 할 지역으로 떠날 때에는 복병을 배치한 후에 영병(營兵)이 한편으로는 먼 곳에서 지세가 높고 가파르며 험하여 막히고 끊어져 있는 곳에 의지하여 진영, 장벽, 관할구역을 배치하고, 각 화병(火兵 : 취사병)은 밥을 지어 수비에 대비한다.

▣ 봉괴이[逢怪異 : 괴이한 상황에 부딪침]



군대가 행군할 적에 진기한 새나 짐승이나 귀신 괴물이 영루(營壘)에 들어오는 것을 보거나 포획한 자는 즉시 주장(主將)에게 보고한다. 보고하지 않고 함부로 남에게 전파하고 여러 사람을 모아 놓고 드러내놓고 시끄럽게 떠들며 소리지른 자는 전진(戰陣)에 닦쳤을 경우의 군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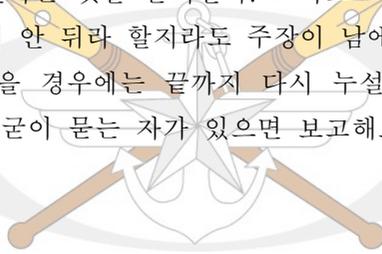
▣ 엄초법[嚴哨法 : 초계 근무 방법을 엄중히 관리함]

행영(行營)을 함에 있어서 적정을 과해쳐 확실하지 않은 풍문, 애매모호한 거짓 정보, 진실이 아닌 허술한 정보를 과해쳐 염탐한 경우, 적이 매복하고 있는 것을 빠뜨리고 발견치 못한 경우, 이 모두 일을 그르친 경우에 준하여 즉시 목을 벤다. 관군(官軍)의 징발(徵發)에 대한 전달이나 보고를 지연하여 기일이 늦게 한 자는 죄를 1등 감하여 또한 사형에 처한다.

▣ 밀군기[密軍機 : 군사기밀을 엄밀히 유지함]

무릇 당보군(塘報軍)과 관병(官兵)이 적중의 소식을 입수했을 경우에는 중도에 맞아서 가로막고 묻거나 대답하는 것을 불허한다. 일체 입을 다물고 빨리 주장(主將)의 처소에 와서 보고해야 한다.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파총(把摠) 등의 지휘관인데, 이 말을 만약 주장을 보기 전에 감히 중도에서 남이 물어서 말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주장보다 먼저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군기를 누설한 것으로 정죄하여 물은 자나 대답한 자 모두를 군법에 의하여 연좌 처벌한다.

바로 소속 부대의 지휘관인 파총이나 초관(哨官), 또는 동료가 물어도 먼저 누설하는 것을 불허한다. 그리고 이미 주장에게 보고를 거쳐서 주장이 안 뒤라 할지라도 주장이 남에게 전해서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였을 경우에는 끝까지 다시 누설하는 것을 불허한다. 그래도 감히 굳이 묻는 자가 있으면 보고해오게 하여 일체 중벌로 다스린다.



▣ 연부중[練負重 : 휴대품의 중량에 대한 훈련]

무릇 장도(壯途)에 오를 때에는 각자 반드시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기계(병기)를 휴대하되 가급적이면 적과 대진(對陣)할 때에 몸을 가볍게 해야 한다. 만약 길이 멀고 날씨가 무더우면 다시 더 편하게 함을 허용할 수 있다.

▣ 비건초[備乾炒 : 말리고 볶은 식량의 준비]

평시에 각 병사는 1인당 쌀 2되를 휴대하는데, 누렇게 볶은 것

1되, 갈아서 고운 가루로 장만한 것 1되이다. 보리국수 1되 5홉을 따로 싸는데, 5홉은 향유(香油)를 써 떡을 만들어 찌서 익히고, 5홉은 상품 소주(燒酒)를 써서 담갔다다 햇볕에 쪄 말렸다가 다시 담그는데 한도를 넘지 말게 한다. 갈아서 만든 밀가루 5홉을 따로 싸는데, 소금과 초에 담갔다다 햇볕에 쪄 말려 역시 한도를 넘지 말게 하고, 갈아서 가루로 장만하여 따로 싣는다. 행군할 즈음에 적의 포위를 당하여 곤궁하거나 지극히 긴박한 상태가 아니면 꺼내어 사용하는 것을 불허한다. 병사가 행군에 휴대하는 것을 잊은 자는 병기(兵器)를 망실한 것과 같은 죄로 처벌한다.

▣ 임숙해[任宿解 : 유숙할 장소 마련 절차에 대한 해설]

군 부대가 이르는 지역이 만약 평탄하면 야영(野營)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따로 야영에 관한 항목에 실었다. 만약 인가(人家)에 들어가서 안배(按配)할 경우, 각 병사는 성 밖 또는 마을 안의 공지(空地)에 이르러 전초(前哨)의 제1기 기총(旗總)은 이렇게 보고한다.

“이미 아무 곳의 성 밖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기총은 차례로 전하고 돌아온다. 그 후에 주장이 전령하여 이렇게 말한다.

“어떻게 진영을 설치하였는가? 이어서 순서에 따라 보고하라.”

제1기총이 회보하여 이렇게 말한다.

“알겠습니다.”

이때 각 관병은 매 1영을 1로 하여 1자로 진영을 정한다. 매 1영의 병사들이 당도하면 과총(把總)이 신호포를 쏘고 징을 울리면 앉아서 휴식을 취하면서 약간 사의 영이 도착하기를 기다린다. 도착이 완료되어 주장이 단바라를 불게하면 각 초관(哨官)과 대총(隊總)이 몸을 일으켜 기를 잡고 화병(火兵)과 함께 성으로 나아가거나 촌락(村落)으로 들어가 쉼 집을 찾는다.

매 1대(隊)는 같은 집에서 쉬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잠시라도 서로 떨어져서 사단이 생기는 것을 불허하며, 서로 살피고 깨우쳐 준다. 만약 한 집이 1대를 다 수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나누어진 사이에 아문(衙門)의 사대부(士大夫) 등의 집이 서로 사이하고 있으면 그 한 단을 사이하여 1대의 인원이 완전히 들어간 뒤에 1대를 다시 안배하되, 끼어들고 뛰어 넘는 것을 불허한다.

만약 본대의 처소를 따르지 않는 자는 대장과 각 병사를 군법으로 다스린다. 1초가 한 골목에 있으면 소속 부대의 초관은 이를 따르고, 1사가 한 모서리에 있으면 소속 부대의 과총은 이를 따르고, 1영이 한 방면에 있으면 소속 부대의 영장은 이를 따른다.

본영(本營)의 각 부(部)는 서로 섞이는 것을 불허하며, 본부(本部)의 각 사(司)는 서로 섞이는 것을 불허하며, 본사(本司)의 각 초(哨)는 서로 섞이는 것을 불허하며, 본기(本旗)의 각 대(隊)는 서로 섞이는 것을 불허한다. 깃발을 각 집의 문 앞에 꽂고 성으로 나와 이렇게 보고한다.

“쉼 집을 다 찾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쌍바라 신호가 울리면 몸을 일으켜 신호포 세방을 쏘고 나팔을 부는 소리가 들리면 큰 소리로 세 차례 고함을 지른다. 북소리가 가볍게 둥 둥 둥 울리면 각 영이 순서대로 들어가는 데, 대소 장령은 각 병사가 쉼 근거지로 간다. 신호포 한 방을 쏘아올리는 것을 듣고서 거리에 인접한 전라(傳鑼)를 부는 신호수인

각 군은 모두 인가로 들어와 편안히 쉰다. 대소의 장령(將領)은 바야흐로 인가로 나아가고 주장도 이와 같이 한다. 만약 쉼 집을 찾지 못하고 군이 감히 먼저 가서 이미 문 앞에 도착하여 군령을 받들지 않고 먼저 들어간 자는 잡아내어 곤장 80대를 치고, 같은 오(伍)의 병사들은 연좌 처벌한다. 장관(將官)으로 먼저 들어간 자는 군령을 위반한 죄로 논한다. 장관이 쉼 집 한 면을 다른 부대가 먼저 찾아서 이미 정해 놓았으면 들어가지 않는다.

▣ 발순시[撥巡視 : 순시기를 다스림]

무릇 군부대(軍部隊)와 군마(軍馬)가 행동하고 멈추며 자고, 먹고 거처를 정함에 있어서, 순시관(巡視官)을 임명하고 기수(旗手)를 두어, 군령(軍令)을 범한 자가 있으면 즉시 사실을 지적하여 보고하되, 숨기거나 토색질하고 속임수를 써서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을 불허한다. 제멋대로 병사들을 풀어놓아 사단을 일으킨 자는 법에 의거하여 죄를 따지고 다스린다. 일을 저지른 경우를 당하여 보고하여 다스리지 않다가 따로이 발각된 자는 순시기(巡視旗)도 같은 죄로 다스린다.

▣ 변간세[辨奸細 : 간첩과 세작을 분별함]

무릇 각처에서 퇴각하는 병사에 대해서는 모두 문무(文武)의 아문(衙門)에서 잡아서 신표(信標)를 대조하는데, 그 다수가 민간(民間)에 흩어져서 다시 거두어 들일 수가 없으니, 평상시와 행군(行軍)하고 야영(野營)을 설치할 즈음에 간사한 무리들이 이 표문(表文)을 가지고 입으로는 와서 투항(投降)한다고 하면서 따로이 변사(變詐)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하니, 참과 거짓을 묻지 않고 간첩

(間諜)이나 세작(細作)으로 논하여 곧바로 잡아 묶어서 중군(中軍)에 송치(送致)하여 심사해서 가부(可否)를 논(論)하여 그 어느 한 가지만을 택하여야 한다.

▣ 방무역[防貿易 : 무역을 방지함]

군대가 행군(行軍)할 적에 이르는 곳에서는 반드시 양식을 소비하고 물건을 만드는 데 대한 품삯을 흥정해야 하는데, 이때 은(銀)을 가지고 공평하게 교역하여 사들임으로써 차라리 작은 이익을 양보하여 저자의 상인들로 하여금 충심으로 기뻐하게 하면 얼마 안되어 모든 물건들이 더욱 많이 모여들어 저절로 값이 내릴 것이니, 자그마한 이익과 편익에만 그칠 일이 아닐 것이다.



▣ 신군령[申軍令 : 군령을 명백히 밝힘]

무릇 부대가 행군할 적에는 행동하는 인원이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제멋대로 대오(隊伍)를 이탈하거나, 행군 순서를 어기거나 서로 치고받고 싸울 경우, 거짓을 자행하거나 부녀를 간음할 경우, 모두 군법으로 처치한다. 적정(敵情)을 보고하되 진실을 잃은 자는 목을 베고, 백성의 재물을 약탈한 자는 목을 베고, 군령을 위반하여 그릇되게 한 자는 목을 벤다.

전진(戰陣)에 임하여 움츠리고 물러나는 자는 목을 베고, 함부로 사람을 죽인 자는 목을 베고, 전공(戰功)의 등급(等級)을 허위로 보고한 자는 목을 벤다. 포로가 된 자녀를 죽이거나 숨긴 자는 목을 베고, 수공(首功 : 전투에서 적장의 목을 자른 공로)을 다투는 자는 목을 베고, 해당 관할 인원은 그 경중을 구분하여 연좌시키되, 정도가 심한 자는 정범(正犯)과 함께 마찬가지로 목을 벤다.

▣ 발야순[撥夜巡 : 야간 순찰 관리 운용]

부대가 행군하다가 멈춰서 숙영(宿營)하는 곳에서는 매 사(司)마다 군사 1기(旗)를 교대로 관리 운용하되 초관(哨官) 1명이 각기 야간에 순찰을 하는데, 그 당일 밤에 화재(火災)가 일어나는 소동이 있거나 간첩(間諜)의 변고가 있으면 그 죄가 야간 순찰을 맡은 관병(官兵) 모두에게 연좌되고, 그 파총(把總)은 불시에 몸소 면밀히 조사한다.

▣ 육병주행해[陸兵舟行解 : 육군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의 해설]

◆ 연계행[練啓行 : 출발시점의 연습]

중군(中軍)이 신호포 한 방을 쏘게 하고 북을 빠르게 치고 행기(行旗)를 올리고 대취타(大吹打)를 연주하고 장호적(掌號笛)이 끝나면 각 관기(官旗)는 중군(中軍)으로 와서 명령을 하달받는데, 당일에 갈 바와 멈출 바에 대한 주장의 뜻을 듣는다. 명령 하달이 끝나면 해산하여 돌아와 신호포 세 방을 쏘아올리고 천아성(天鵝聲) 나팔을 부는 소리를 듣고서 큰 소리로 고태치기를 세 번 한 다음에 가볍게 북을 둥 둥 둥 올리면 중군(中軍)에 어떠한 색깔의 기를 세웠는가에 의거하여 그 색깔이 서로 같으면 거기에 응하여 움직인다.

영(營)도 또한 가볍게 북을 둥 둥 둥 올리면 배를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영의 순서에 의거해야 한다. 만약 행군 도중에 중군이 대포 한 방을 쏘 경우에는 주간(晝間)에는 깃발을 흔들고 야간(夜間)에는 쌍등(雙燈)을 돌려 신호를 하여 선박(船舶)이 머무르기에

편리하게 하고 진영을 치고 머무름에 있어서는 일제히 중군을 둘러싸고 중군의 지휘 신호를 기다린다.

◆ 분영종[分營踪 : 선박으로 구성된 진영을 나눔]

선단이 멈추어서 숙영할 곳에 이르러서는 앞서 가는 영(營)에서 신호포 세 방을 쏘아 올리고 징을 울리면서 깃발을 내리면 매 사(司)는 화살 한 바탕의 거리를 두고 배 한 척이 자리 잡아 다같이 깃발을 내린다. 신호포 한 방을 쏘아 올리고 북을 빠르게 치면서 깃발을 올리면 장호적(掌號笛)을 들고 명령을 하달받는다. 만약 끝나면 징을 울리면서 깃발을 올리지 않으면, 각 관의 긴급한 일이 있는 자는 중군(中軍)에 가서 사안을 보고하고 보고할 사안이 없는 자는 근거지 삼가면서 지키고 병사들의 대오를 엄숙 단정하게 정제(整齊)한다.

만약 명령의 변경 사항이 있으면 순시기(巡視旗)를 파견하여 구두로 전달한다. 혹은 영표(令票)가 있으나, 이 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날이 저물면 중군(中軍)이 신호포 세 방을 쏘아 올리고 영문을 닫으라는 북을 치기를 마치면 북을 빠르게 치기[播鼓]를 기다려 각 영은 중군의 예에 의거하여 다함께 순야인(巡夜人)을 모아 파총(把摠)이 자리잡은 선박 주변에 꿇어 앉아서 명령을 하달받는데, 이는 육지(陸地)에서의 조련(操練)의 경우와 같다.

◆ 명경고[明更鼓 : 밤 시각을 알리는 북의 신호를 분명히 함]

밤 시각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한 번 울리면 이를 듣고 모든 파총(把摠)의 처소에서는 밤 시각을 계산한다. 그 각 선박 1척 내에서

선박의 크고 작음을 구분하지 않고 5명이 교대로 분간한다. 매 경(更)마다 1명이 뱃머리에서 대나무 딱다기를 가지고 밤 시각을 계산하되, 매 경에 북을 한차례 칠 때마다 딱다기를 한 차례 친다. 날이 밝으면 각각 본영(本營)으로 돌아가 보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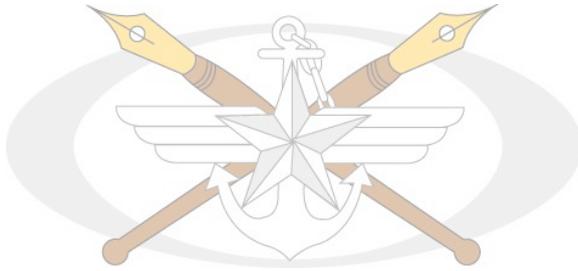
◆ 발방호[撥防護 : 방호체계를 운용함]

중군관(中軍官)은 매일 1초(哨)씩을 교대로 차출하여 주장(主將)에게로 가서 기계(器械)를 잡고 교마(驕馬 : 가마와 말)와 주사(舟師 : 수군 선단)를 따라 나아가고 멈추면서 후방에서 주장을 둘러싸고 배열한다. 야간에는 이 초를 가지고 야간 순찰을 하는데, 기패관(旗牌官) 1원(員)과 함께 교대로 밤 시각을 주관한다.



[紀效新書(上)]

권9 야영편[野營篇]



■ 권9 야영편[野營篇]

야외(野外)에 주둔(駐屯)해서는 적과 영루(營壘)를 마주해서 진영(陣營)을 배열하고, 지역을 구획하여 지키며, 취사용 나무를 채취하고 군마(軍馬)를 먹일 풀을 베어 후방에서 조달한다. 그리고, 야간(夜間)에는 적의 기습공격을 방어하고 경계하며 주간(晝間)에는 진영을 구축해야 하니, 그 역할은 수고롭고 그 일은 험난하다. 아군으로 하여금 항상 사기(士氣)가 날카로운 상태에서 나아가서 싸우고 물러나서 지키게 하면서 이러한 효과들을 거두도록 해야 하니, 아!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이 야영편은 군사가 야외에서 주둔하면서 적과 영루를 마주하는 실제의 상황이다. 그러므로 야영편(野營篇)이라고 차례한 것이다.



▣ 차야영해[筭野營解 : 야영 설치에 대한 해설]

무릇 행군(行軍)을 할 경우에는 오시[午時 : 낮 11시~1시]에 취사를 마치고 다시 행군을 하는데, 이때 영(營)과 사(司) 안에서 각각 지형을 잘 아는 영구관(營穀官) 1명씩을 보내어 전초(前哨)와 함께 간다. 미시[未時 : 오후 1시~3시]가 되면 주장(主將)이 주둔할 진영(陣營)을 설치할 장소를 선택하는데, 말을 달려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자세히 관찰하여 산과 물이 있어서 의지할 만한 곳을 선점하여 군을 주둔시켜야 한다.

그리고 만약 산이 없으면 평야(平野)에 진영을 설치하되 반드시 진퇴에 편리한 장소와 수초(水草)를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方便], 형세를 관망할 수 있는 곳[可觀]을 선택한다. 그리하여 중군(中軍)의 기치(旗幟)를 세우고 함께 행군하는 병력의 숫자를 계산하여

몇 개의 영(營)을 설치할 것인가, 영마다 몇 개의 보수(步數)를 차지할 것인가를 판단하여 징 가장자리를 울리는 신호를 하고 표기를 세운 다음 표기에 따라 영을 만들도록 한다. 호포(號砲) 한 방을 쏘아올리고 대오(隊伍)를 전개하라는 나팔을 불고 표기(標旗)를 흔들면 각 병사는 기의 움직임에 따라 마치 개미떼가 모여드는 것처럼[蟻附] 진영을 설치한다. [下營] 진영이 완성되면 징소리와 나팔소리를 멈춘다. [金鳴喇叭止] 이때 만약 적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다만 거마(拒馬)와 질려(蒺藜)를 늘어놓아 진영을 만든다.

중군은 주장의 장막과 처소를 세우고 날이 저물면 등불을 밝히고 복로군(伏路軍)을 배치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평상시 조련(操練)의 지휘명령체제와 같게 한다. 땀나무를 하고 물을 길어 오는데, 마군(馬軍)은 말 3마리 중에서 그 중 2명이 말 1마리를 끌고 나가서 말 3마리가 먹을 풀을 채취하고, 나무하러 간 병사와 물 길러 간 병사와 함께 돌아오되, 날마다 교대로 한다. [日逐輪流] 만약 적과 가까운 지역이거나 혹은 적지(敵地)이거나 또는 국경 밖으로서 의심스러운 지역일 경우에는 마땅히 목책(木柵)을 세워 밤을 지내야 한다. 그렇게 하되, 반드시 당보군(塘報軍)이 사방이 바라보이는 높은 곳에서 자세히 살펴보아 무사할 경우에는 기를 세 번 흔들고 세 번 감으면, 다시 자벽[子壁 : 내성]을 열지 않고, 거기에 에 있는 병사들로 하여금 진영을 지키게 한 다음, 신호포(信號砲) 한 방을 쏘아 올리고 황기(黃旗)를 세우며 북을 빠르게 치거든 사면에 있는 병사들은 대나무나 나무가 있는 산림(山林)으로 달려가 대나무나 나무를 채취해 온다.

그리하여 병사마다 나무 두 그루를 세우는데, 나무의 굵기는 3치(9cm)쯤 되게 하고 길이는 8~9(240~270cm)자가 되게 한다. 나무 한 그루를 가로 세우되, 나무의 크기는 약간 가늘고 길이는 1길(300cm)쯤 되게 하며, 또 대나무 하나를 깎아서 연화침(蓮花籤)¹⁰⁶을 만든다. 만약 대나무가 많고 나무가 적으면 대나무를 나무 대신 사용하고, 나무가 많고 대나무가 적으면 나무를 대나무 대신

106) 연화침(蓮花籤) : 연꽃모양의 꼬챙이인듯 하나 용도는 자세하지 않다.

사용하여 연화침과 목책(木柵) 밖에 사용할 말뚝을 만든다. 이때 만약 대나무가 없으면 단단 나무를 뾰족하게 깎아 말뚝으로 사용하고 가늘고 연한 나무를 뾰족하게 깎아서 연화침으로 대용한다. 이렇게 한 다음 연한 풀을 꼬아 끈을 만들어 목책을 단단히 묶는다. 다시 신호포 한 방을 쏘아올리고 황기(黃旗)를 흔들어 병사들을 돌아오게 하면 병사들은 1자 간격으로 나무 두 개를 서로 연결하여 세워서 목성(木城)을 만든다. 그리하여 목성이 완성되면 다시 앞의 방식에 따라 병력을 차출하되, 각 대(隊)마다 절반 병력으로 매 명마다 각기 작은 나무 한 개와 벗짚이나 풀단 한 묶음을 가져오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그 나무와 풀을 가지고 움집을 만든다. 각 대마다 각기 풀을 엮어 움막 한 칸씩을 짓고 그 위 지붕을 만들고 땅을 파서 앉고 눕기에 편리하게 한다.

대취타(大吹打)가 울리고 진영(陣營) 문을 열면 땀나무를 하고 물을 길어 오고 말에게 물을 먹이는 등의 사항은 한 가지로 교장(敎場)에서 조련할 때의 지휘명령체계와 같이 한다. 만약 나간 인원이 많고 들어온 인원이 적으면 이는 부상을 당하거나 포로가 되지 않았으면 반드시 도주를 했거나 또는 갑작스런 질병 때문일 것이니, 해당 영(營)과 사(司)에서는 적합한 인원을 차출하여 영전(令箭)을 가지고 진영(陣營) 밖으로 나가서 찾도록 한다. 만약 나간 인원이 적고 들어온 인원이 많으면 이는 숫자를 잘못 헤아렸거나 간첩(間諜)이나 세작(細作)이 끼어들어온 것일 것이니, 해당 영에서는 곧바로 조사하여야 한다.

한편 자영[子營 : 자벽의 병사들은 목성 바깥 울타리가 완성되지만 움집에 사용할 나무와 대나무를 채취하는데, 병사마다 중군(中軍)에서 사용할 나무 한 개씩을 가져와 작은 망루(望樓) 하나를 세워서 관망하기에 편리하도록 한다. 그리고 파총(把摠)은 남은 나무를 가지고 각각 작은 망루를 진영의 네 귀퉁이에 세우는데 병사 4~5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한소수[限蔬水 : 채소를 사들여오고 물을 길어오는 시간을 제한함]

매일 오경[五更 : 새벽 3~5시]이 지나고 북을 빠르게 치는 것이 끝나면, 첫 번째 신호포(信號砲) 소리를 듣고 각 병사(兵士)들은 모두 일어나서 머리를 빗고 낫을 씻은 다음, 두 번째 신호포 소리를 듣고 각 병사들은 모두 목성 주변으로 가서 각자 창(槍)을 들고 성(城)을 지키는 자세를 취한다. 각 영(營)의 영문(營門)을 파수하는 병력은 중군(中軍)으로 가서 영문을 지키는데 아무 사고도 없었다는 보고를 마친다. 그러면 대취타가 연주되고 진영 문이 열리면 교장에서의 조련시의 지휘명령 신호체계에 의거하여 물 길어오는 급수병(汲水兵)을 내보낸다.

급수병은 1각(刻)을 한도로 하여 교장에서의 조련시의 지휘명령 신호체계에 의거하여 성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소채(蔬菜) 등의 물건을 사들여오는 자는 시정(市井)의 거리가 멀고 가까움을 분별하여 한 시진(時辰 : 2시간)을 한도로 해서 진영 밖으로 가서 물품을 구입해 온다. 교장에서의 조련시의 지휘명령 신호체계에 의거하여 돌아오되, 늦게 돌아오거나 늦게 나간 자는 처벌한다. 매 대마다 위반자가 2명 이상이면 대장(隊長)도 함께 문책하고, 각 대 모두 위반자가 있으면 기총(旗總)도 함께 문책하되, 연좌의 예를 따른다. 신시[申時 : 오후 3~5시]에 급수병을 한 차례 물길러 내보내되, 지휘명령 신호체계는 모두 같다.

무릇 지방의 저자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진영 밖 300보(步) 안에 모여서 한 곳에 가도(街道)를 이루는 것을 허용하되, 순시관기(巡視官旗) 2명에게 맡겨서 병사들이 규정에 의거하여 출입하며 음식을 사들이는가를 감독하도록 한다. 만약 값을 깎아 사단(事端)을 일으키는 자가 있으면 즉시 영내로 잡아들여 처치하되, 두 배로 추가하여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이어서 위반자는 귀를 꿰어서 진영 안에서 조리들린다. 순시관(巡視官)이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의 등급을 가중시킨다.

▣ 정초채[定樵採 : 땔나무를 채취하는 규정을 둠]

잠시 진영(陣營)을 설치하거나 또는 처음에 진영을 세울 때 병사들이 모두 나가서 땔나무를 한 차례 채취해 온 이후에는 매 1일 간격으로 한 차례씩 땔나무를 채취해오는데, 새벽밥을 지어먹은 뒤 정사시[正巳時 : 오전 10시 정각]에 중군이 신호포 한 방을 울리면 교장에서의 조련사의 지휘명령신호체계에 의거하여 매 대(隊)는 1오(伍)로 진영을 지키게 하고 1오는 진영 밖으로 나갔다가 한 시진 [2시간]을 한도로 해서 모두 영외에 도착하여 중군에 보고한다. 신호포 두 방이 울리면 각 병사는 목성(木城) 주변으로 가서 창을 들고 마치 사문(四門)을 열고 나아갈 듯한 자세를 취하는데, 이 경우에도 교장에서의 조련사의 지휘명령신호체계의 예와 같다.

▣ 발복로[撥伏路 : 복병을 운용함]

각 영(營)과 사(司)가 지향해 가는 지역을 신지(信地 : 주둔지역)로 삼아 매 방면마다 복로병(伏路兵 : 복병) 5명씩을 파견하여 하나의 매복 장소로 삼고, 매복 장소의 거리는 반리[2킬로]쯤 떨어지게 하며, 길마다 다섯 개의 매복 장소를 두는데, 혹은 1로, 2로, 3로에 걸쳐 복로군을 두기도 한다. 매 복(伏)마다 총(銃) 3발, 화전(火箭) 6발, 화승(火繩) 2발을 지급한다. 매 1주야(晝夜)마다 한 번씩 대원을 바꾸는데, 새벽밥을 먹고 나서 출발할 인원이 중군(中軍)에게 가서 영전(令箭)을 지급받고 교대할 사람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교대를 확인하게 하여 왕래하는 인원의 진위를 분별하여 간첩(間諜)과 세작(細作)을 세밀하게 캐물어서 색출해 내기 위해서이다. 각 아문(衙門)과 영채(營寨)에서 공식으로 파견된 인원이 본영(本營)에 들어오려 할 경우에도 주간에는 1명이 그와 함께 동반하

여 영문에 이르러 그 사실을 보고하고, 야간에는 1명이 뒤따라가서 전송해오게 하되, 영문 20보 밖에 이르러서 멈추게 하고, 먼저 뒤따라가서 전송해 온 병사에게 큰 소리로 파견된 인원의 내력을 말하게 하고, 영문을 지키는 병사는 곧바로 중군에게 이를 보고하여 그 나아가고 멈춤에 대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청한다.

▣ 금환동[禁喧動 : 시끄럽게 떠들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금지함]

무릇 경보(警報)가 이르렀을 경우에는 각개 병사는 정숙(靜肅)을 유지하면서 주둔지역을 수비하여 목성(木城)을 닫고 명령을 기다려야 한다. 군사를 발동하는데 만약 시끄럽게 떠들거나 함부로 달려가는 자는 군법(軍法)으로 무겁게 다스린다.

▣ 알인축[遏人畜 : 사람과 가축의 접근을 막음]

행영(行營)을 유지하는 동안에 행오(行伍)의 안에서와 진영(陣營)을 설치한 후의 영반[營盤 : 진영 주변 가장자리]의 사면에는 주야간에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은 규모의 가축(家畜)이라 할지라도 진영 울타리 밖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불허한다. 인원을 파견하여 밖으로 나가서 끌어다가 먼저 영장(營將)에게 보고하여 영장이 친병(親兵)에게 영전(令箭)을 지급하여 영문(營門)을 거쳐서 내보내게 한다.

사람이 곧바로 진영 울타리 밖에 접근하여 차츰차츰 앞으로 다가오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리쳐서 멀리 물러나도록 하고 이것이 만약 공식으로 파견된 인원일 경우에는 소리쳐서 영문으로 와서

말하도록 하여 영외에 단 한 사람이 있더라도 엄중히 단속하고 바로잡아 불의의 사태에 대비한다. 만약 10보(步) 안에서 소리를 질러도 물러가지 않고, 성명을 말하지도 않고, 말로도 대답하지 않는 자는, 야간에는 활을 쏘거나 조총(鳥銃)을 발사하여 쏘며, 주간에는 병사 2명을 파견하여 영문을 거쳐서 나가서 잡아 묶어와서 영장에게 보내면, 영장은 주장에게 보고하여 처분을 하도록 한다.

▣ 방축소[放廁所 : 축간을 이용하는 요령]

적병이 없는 곳으로서 멀리 영외(營外)의 100보쯤 거리에 매 1면(面)마다 큰 축간(厠間) 구덩이 2개씩을 개설하고, 영내(營內)에는 매 1기(旗)마다 대(隊)의 뒤에 작은 축간 구덩이 1개를 개설한다. 주간에 축간에 가는 인원은 각 영문을 거쳐서 요패(腰佩)를 영문 위에 걸어놓고 문을 열어주면 나갔다가, 돌아와서 영문에 이르면 요패를 가지고 본인임을 확인한 다음에야 들어가도록 한다. 야간에는 대소변을 모두 영내의 작은 축간에서 해결하고, 단 한 사람도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허한다. 날이 밝고 취타(吹打)가 울러 부대가 떠날 경우에는 흙으로 묻는다. 오래 머무를 경우에는 분뇨(糞尿)를 청소하여 영외의 구덩이로 내어 보낸다. 적이 근거리에서 접근해 오거나 대진(對陣)하였을 경우에는 주간이나 야간 모두 영내에서 대소변을 해결한다.

▣ 변순전[辨巡箭 : 순찰용 화살을 분별함]

밤이 되어서는 따로이 순전[巡箭 : 순찰용 화살]이 있는데, 이것은 주장(主將)이 발급한 것으로서, 그 장소가 어디이든 관계 없이 이 순전이 지나가면 소리를 내는 것을 불허한다. 다만 밤 시각을

관장하는 관원이 이에 따라 시각을 알리는 북을 치는데, 잘못 전달하거나 잘못 전달받을 경우에는 군법(軍法)으로 처치한다.

전 부대가 진영을 통합하였을 경우, 부대는 3개의 영으로서 족하니, 교대로 장관(將官) 1원(員)이 매 영(營)을 총괄하여 순찰하고, 교대로 파총(把總) 1원이 본영(本營)의 매 사(司)를 순찰하고, 교대로 초관(哨官) 1원이 본사(本司)의 매 초(哨)를 순찰하고, 교대로 기총(旗總) 1인(人)이 본초(本哨)의 매 기(旗)를 순찰하고, 교대로 대장(隊長) 1명이 본기(本旗)를 순찰하니, 순찰하는 법은 3경, 4경, 5경에 가장 엄격하다.

▣ 중야령[重夜令 : 야간 군령을 엄중히 함]

적과 대진(對陣)할 때에 교대의 시기를 잃고, 야순(夜巡)에 암호(暗號)를 잃고, 멈춰 자서 실화(失火)를 한 자는 목을 벤다. 까닭없이 소리지르고 치달리거나 허망한 소리로 '적이 왔다.'고 말하여 진영을 놀라게 하는 자는 목을 벤다. 적이 와서 공격할 때 장병과 사졸이 소리지르고 동요하는 자는 목을 벤다.

▣ 하암영[下暗營 : 암영을 설치함]

영진편(營陣篇)에 있는 조항의 지휘명령 신호체계에 따라서 한다.

▣ 명재발[明再發 : 명령을 뚜렷히 다시 발함]

오경(五更) 삼점(三點)의 시각에 이르러 장호적(掌號笛) 신호 한 방에 먼저 당보군(塘報軍)이 영문(營門)을 나가고, 행영(行營)의 예에 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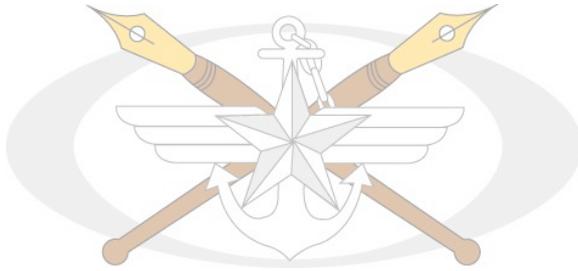
하여 각 부대는 취사장(炊事場)을 뜯고 북을 빠르게 치고 나서 신호포 두 방을 쏘아 올리고, 등불을 끄라는 신호가 떨어지면 각 영(營)과 사(司)의 등불이 일제히 꺼진다. 하늘에 먼동이 떠오르면 신호포를 쏘아 올리고 대장기(大將旗)를 올리면서 취타(吹打)를 울린 다음, 각 병사(兵士)는 각 영(營)의 사(司)로 가서 지난 밤의 상황을 보고한다.

영(營) 사(司)는 주장(主將)의 처소로 가서 야간 순찰 결과가 무사했음을 보고한다. 만약 사유가 있으면 ‘아무 곳에서 진영에 경보가 있었다.’, ‘불이 났다.’, ‘야간 시각을 알리는 데에 착오가 있었다.’는 등의 경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친다. 그런 다음 신호포를 쏘아 올려 복로군(伏路軍)을 돌아오게 하고, 장호적(掌號笛) 신호를 올려 관기(官旗)를 모아 명령을 하달한다.

혹은 장호적 신호를 올리지 않고 인기(認旗)와 초기(招旗)를 써서 관기를 모아 명령을 하달하기도 하는데, 지시가 끝난 후, 인기를 한 번 휘두르면 모두 해산하여 원래의 오(伍)로 돌아간다. 천아성(天鵝聲) 나팔이 세 번 울리면 병사들은 큰소리로 세 차례 고향을 지른다. 북을 천천히 등등등 올리면 영문을 열고 길을 떠나는데, 도로가 넓거나 좁을 경우, 몇 개의 길에 표기(標旗)와 초요기(招搖旗)를 세울 것인가를 청하는데, 호포(號砲)를 쏘아 올려 그 수와 같게 한다.

[紀效新書(上)]

권10 실전편[實戰篇]



■ 권10 실전편[實戰篇]

다들 ‘혁(鬪)’ 자는 그 형상이 싸울 ‘투(鬪)’ 자와 같으니, 형명 [刑名 : 형벌의 명칭]을 적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므로 만인(萬人)이 한 마음으로 형명의 효험을 숭상하여 진실로 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다면 한낱 손과 발을 가장 강한 것으로 삼을 것이니, 이는 또한 그 다음인 것이다. 몽둥이를 가진 사나이가 단단한 갑옷과 날카로운 병기를 가진 군사를 매질할 수 있으니 형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면 그 묘리(妙理)를 다할 것이니, 이는 실제의 상황이다. 그러므로 실전편(實戰篇)이라고 차례한 것이다.



▣ 계총수[戒銃手 : 총수에 대한 경계]

총수(銃手 : 조총부대)는 적을 잘 공격하여 미친듯이 몰려오는 적세(賊勢)를 꺾어 살수(殺手 : 창검부대)의 담기(膽氣)를 돋구어 주는 것이다. 살수의 담기가 썩썩해지면 적을 패퇴시킬 수 있어, 총수의 생명을 보전할 수가 있다. 각종의 무예(武藝)가 비록 서로 다 같은 것은 아니나, 피차간에 구호하고 보전함에 있어서는 매 한 가지이다. 하물며 공명(功名)을 세우기에 힘써야 할 것이니, 여러 사람이 이를 받아들여서 써야 할 것이다.

전시(戰時)에 이르러 사격(射擊)을 함에 법식(法式)대로 하지 않고 고의로 높게 지향하거나, 낮게 지향하거나, 그릇되게 지향하거나, 두려워하여 덜덜 떨고 흔들리면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목을 벤다. 적과 교전할 때 살수의 대총(隊摠)이나 해당 부대의 대총이

먼저 귀 한쪽을 자르는 것을 허용하고, 회군하면 조사하여 처단한다. 만약 파총(把摠)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 곧바로 그곳에 보내어 목을 벤다.

각 조총수(鳥銃手) 부대의 대장과 병사는 모두 일렬로 사수의 뒤로 나아가 아무 기(旗), 또는 아무 대(隊)와 연계한다. 조총수가 진중(陣中)에서 전사(戰死)하면 조사하고 물어서 기록하되, 짝지은 상대가 배후에 있었으면 살수를 사형에 처한다. 모든 싸움에서 얻은 수급[首級 : 적군의 머리]은 매 10개 가운데 두 개를 조총(鳥銃)의 사수(射手)와 살기(殺器 : 창·칼)를 휴대하지 않은 자에게 준다.

▣ 징허총[懲虛銃 : 공포 발사에 대한 징계]

모든 총포수(銃砲手)들은 적과 멀리서 만났을 경우에 내가 겁이 난다 하여, 늘 수 백보 밖의 탄알이 미치지도 못할 거리에서 크고 작은 총포(銃砲)를 헛되이 발사를 한다. 그리고 적이 본래 소수인데 우리는 이미 총을 다 쏘아버려 그들에게 이르지도 못한다. 이 또한 안타까운 일이다. 화약(火藥)의 힘은 적이 가까이 와야 미칠 수 있는 것인데, 적의 무리가 한 덩어리로 뭉쳐서 치고 들어오면 다만 화약과 탄알이 다 떨어졌다 하고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 밖에 없다.

이제 적이 오는 것과 맞닥뜨리면 거리가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다만 중군(中軍)의 호포(號砲) 신호 소리를 듣고 일거에 천아성(天鵝聲)¹⁰⁷⁾ 나팔을 불어 총수는 총을 발사하되, 영(營)에 의하여 몇 개의 층(層)으로 나누어 반(班)을 번갈아 교대해 가면서 한발 한발 발사하여 바르고 태연자약하게 적을 향하여 사격한다. 만약 적이 갈래를 이루어 다가오면 각자가 다만 적의 갈래를 지정하여

107) 천아성(天鵝聲): 변사(變事)가 생겼을 때, 군사를 모으기 위하여 길게 부는 나팔 소리, 또는 입금이 대궐을 나설 때 부는 태평소(太平簫) 소리

마땅히 하나의 적을 명중시켜야 한다. 중군(中軍)의 신호포(信號砲) 소리를 듣지 않거나 천아성을 불지 않고서는, 적이 진영(陣營) 안으로 다가왔다 할지라도 총의 발사를 허용치 않는다.

먼저 발사한 자가 곧 한 총으로 두 사람의 적을 쏘아 죽였다 할지라도 또한 공(功)으로 치지 않고 반드시 군법(軍法)으로 참수한다. 평시에 화기의 수발을 규정대로 하지 않아서 전진에 이르러 화약이 젖고 약선(藥線)이 젖어 아예 연소가 되지 않거나, 혹은 끝까지 연소가 되지 않거나, 혹은 연소시키지 못하는 발사자는 모두 군법으로 목을 벤다. 파총(把摠) 이하의 지휘관이 알고서도 문제삼지 않거나 임시 방편으로 넘겨서 다스리지 않은 자는 연좌(連坐)하여 일을 그르친 죄로 다스려 함께 참수한다.

▣ 신연좌[申連坐 : 연좌제도를 명백히 함]

전진(戰陣)에 임하여 절제(節制)를 존중하지 않은 까닭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아간 자가 헛되이 죽으면 상(賞)이 없는데, 비록 상을 주려 하나 조사하여 살필 바가 없기 때문이다. 뒤로 물러난 자는 요행히 살아났으되 벌(罰)이 없다. 벌을 주고자 하나 조사하여 살필 바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절제하는 제도를 정하여 문서로 명문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보건대, 죽이는 바는 불과 3~5인이니 ‘너희 중인(衆人)은 관계없으니, 곧 도망쳐도 가하다.’고 하는 것과는 같은 것이다. ‘너희는 일찍이 이 법을 세밀히 생각하지 않았으니 일행(一行), 바로 백만대병이 일시에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나면, 모두 조사하여 죽이는 바가 몇몇 사람이 될 것이니, 너에게 만약 천인 만인을 맡기면 모두 물러나서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만약에 1사(司)의 군사들이 일제히 물러나 버리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파총(把摠)을 죽일 것이니, 파총은 그 관하 1사의

군사들이 물러나는 것을 보고서도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가 물러나지 않으면 일개 외로운 몸으로 능히 몇 사람의 적을 대적하겠는가? 반드시 적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그 관하의 초관(哨官)들을 죽여 파총의 목숨을 보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초관은 파총이 물러나지 않는 것을 보고 나아가 싸워서 파총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1초(哨)의 군사들이 일제히 물러나 버리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초관을 죽일 것이니, 초관은 그 관하 1초의 군사들이 물러나는 것을 보고서도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가 물러나지 않으면 반드시 적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그 관하의 기총(旗總)들을 죽여 초관의 목숨을 보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총은 초관이 물러나지 않는 것을 보고 초관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나아가 싸워서 초관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1기(旗)의 군사들이 일제히 물러나 버리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기총을 죽일 것이니, 기총은 그 관하(管下) 1기(旗)의 군사들이 물러나는 것을 보고서도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가 물러나지 않으면 반드시 적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그 관하의 대총(隊總)들을 죽여 기총의 목숨을 보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총은 기총이 물러나지 않는 것을 보고 기총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나아가 싸워서 기총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1대(隊)의 군사들이 일제히 물러나 버리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대장(隊長)을 죽일 것이니, 대장은 그 관하 1대의 군사들이 물러나는 것을 보고서도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가 물러나지 않으면 반드시 적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그 관하의 대병(隊兵)들을 죽여 대장의 목숨을 보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병들은 대장이 물러나지 않는 것을 보고 대장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나아가 싸워서 대장을 지킬 것이다.

이와 같이 하니, 네가 만약 천만 대군중의 하나라 할지라도 하

나 하나가 다 연계성이 있는 것이다. 이 군령(軍令)에 의거하여 칼날이 개개인의 목 위에 일일이 미치니 그 어느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여 빠져나갈 수가 있겠는가? 너희가 적과 대진(對陣)하여 각대(隊) 관하의 1오(伍) 안의 한 병사가 나머지 네 명의 병사보다 앞서서 나아가는데 이를 구하지 않아 죽게 한 경우는 4인을 모두 참형에 처한다.

▣ 신전구[申戰穀 : 전투의 원칙을 분명히 함]

진영(陣營)을 배열할 때에는 반드시 단숨에 대열(隊列)을 형성하여 적으로 하여금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 데에 묘리가 있다. 적이 모르면 은밀한 명령을 내려 진영을 배열하고, 적이 알면 공개된 명령을 내려 진영을 배열한다. 배열이 끝나면 화기(火器)를 앞에 배치하고 진(陣) 앞으로 나아가는데, 혹은 적이 와서 아군과 충돌하거나 혹은 적이 진영을 배열하고 아군을 기다리거나 할 경우에는 오십보 이내까지 접근하기를 기다린다.

화기는 명령에 따라 일제히 발사하되, 단지 1차를 한 다음에 불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 각기 화전(火箭)과 궁전(弓箭)을 쏘되, 나아가면서 쏘고, 쏘면서 나아가다. 병사들은 불꽃과 연기가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틈타서 일제히 엄호하면서 나아가되, 반드시 나르는 듯이 달려서 대오가 어지러워지지 않도록 한다. 마치 별이 모이고 개미가 달라붙듯이 하고, 마치 산이 무너지고 담장이 늘어서듯 털끝만큼이라도 멈칫거리거나 의심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긴다.

이는 처서 죽이는 힘이 아니고, 바로 화염과 연기의 형세이니 날아서 나아가는 영웅이 그 마음과 안목을 빼앗으니 곧바로 앞으로 나아가 교전하니 저들은 스스로 쓰러진다. 병법(兵法)에 이르기를, “형세(形勢)가 험하고 절도(節度)가 간단하다. 그러므로 전투가

시작될 때에는 마치 처너처럼 조용하고 침착하게 행동하여, 적을 방심하도록 하다가, 적이 성문을 연 뒤에는 마치 그물을 벗어난 토끼처럼 신속하게 기동하여, 적이 미처 저항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라 하였다.

자고 이래로 군(軍)은 적이 진영 배열을 일단 완료하는 것을 보고, 곧바로 이와 같이 포(砲)를 날리며 앞을 향하여 부닥쳐 나아가면서 입에서는 함성이 그치지 아니하고 중도에 결코 멈추지 않으니, 그 어떠한 강적이라 할지라도 패하지 않을 자가 없는 것이다.

만약 적이 아군이 이제 막 진영을 배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일단 먼저 돌격해 오면 아군은 예기(銳氣)를 빼앗기지 아니할 자가 없을 것이다. 전투를 하기 위해 달려갈 때에는 간간히 화포(火砲) 1~2개가 넘어져서 혹은 기계(器械)가 손상되고, 혹은 진행 속도가 지연된다.

혹은 일시에 화기가 발사되어 시야가 흐릿하고 침침해져서, 화살과 돌팔매와 납탄알로 적을 명중시켜서 죽이지 못하니, 바로 부자 형제라도 또한 반드시 돌아보지를 못하게 된다. 결국, 건장한 자만 앞을 향하여 달려다가 적을 공격할 뿐이니, 적은 군사를 물리어 수습하고 조리하여 반드시 생명을 보전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마음을 분발하여 앞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또 넘어지거나 뒤를 돌아보아 지연되는 일을 초래해서는 적으로 하여금 다시 총을 들어 한바탕 쏠 수 있는 틈을 주어 부상을 당하는 바가 더욱 많을 것이다. 적이 돌격을 해 옴을 당하여 일단 대세가 패색으로 물리면 필경은 부상해서 쓰러져 넘어진 병사들을 구출해내지 못할 뿐 아니라, 또한 건장한 자마저도 잃게 될 것이다.

이는 그 어느 것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한 가지의 일이니, 적에게는 비록 조총(鳥銃)이 있으나 오직 하나의 포를 앞으로 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1~2발을 발포하면 그 몸 가까이에 접근하여 단병무기(短兵(武器))로 서로 접전하면 총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 만약 적과 더불어 각각 맞서 대진하여 싸우게 하면 예기를 많이 빼앗겨 다시 나아가도 이기지를 못한다.

▣ 책구응[責救應 : 호응하여 구원하는 책임을 추궁함]

앞에 나아간 일대(一隊)가 포위되었는데 본기(本旗)의 각 대가 이를 구하지 않거나, 일기(一旗)가 포위되었는데 다른 기가 이를 구하지 않거나 일초(一哨)가 포위되었는데 다른 초가 이를 구원하지 않아서 실패하게 한 자는 모두 군법으로 처단하되, 실패한 대(隊)·기(旗)·초(哨)·파(把)의 상황과 대조하여 그 구원하지 않은 대·기·초·파의 장(長)을 참형에 처한다.

▣ 홀진망[恤陣亡 : 싸움터에서 죽은 이를 보살핌]

무릇 한 사람의 인원을 손실하고 해당 부대가 적의 수급(首級)을 획득하지 못하였으면, 한달치 식량을 감량하여 전사자(戰死者)의 가족에게 지급하여 두텁게 은혜를 베풀어 구휼한다. 대장(隊長)을 잃었을 경우에는 한 대(隊)의 식량을 감량하고, 기총(旗總)을 잃었을 경우에는 한 기(旗)의 식량을 감량하고, 초관(哨官)을 잃었을 경우에는 한 초(哨)의 식량을 감량한다.

공(功)을 획득했을 경우에는 전례에 의거하여 그 잃은 바를 상고하여 모두 죄를 면제하여 또한 식량을 감량하지 않는다. 싸우다가 죽은 병사나 싸우다가 죽은 장교는 관(官)에서 은(銀)을 지급하여 두텁게 은혜를 베풀어 구휼(救恤)한다. 각 부대에 소속된 인원으로서 정범(正犯)은 마땅히 목을 베고, 군법(軍法)에 의하여 곤장을 쳐야 할 자에게는 곤장을 치는 외에도 다시 식량을 감량하는 처벌을 가하여 식량을 감량하는 처벌로서만 그치지 않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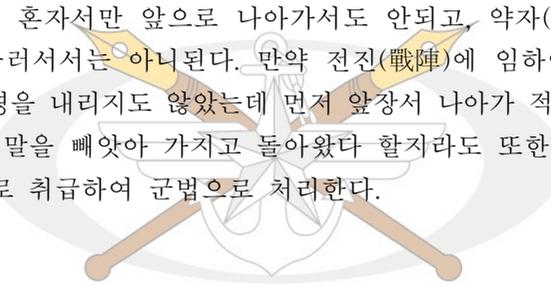
무릇 이른바 그 가족을 구휼한다는 것은 병사들의 식량을 감량하여 전사자의 가족을 구휼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곧바로 그 공로를 기록 상주하여 전사자의 자식에게 은전(恩典)을 세습(世襲)시키는 구휼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 기배상[棄背傷 : 등 뒤에 부상을 입은 자는 버림]

만약 대진(大陣)이 패주하였을 경우, 적에게 죽임을 당한 관병(官兵)이 등 뒤에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패하여 달아난 것으로 간주하여 원호(援護)의 혜택을 베풀지 않는다.

▣ 제사심[齊士心 : 군사들의 마음을 정제시킴]

적을 죽임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 강자(强者)라 해서 혼자서만 앞으로 나아가서도 안되고, 약자(弱者)라 해서 뒤로 물러서서는 아니된다. 만약 진진(戰陣)에 임하여 감히 한 사람이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앞장서 나아가 적의 목을 베거나 적의 말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또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취급하여 군법으로 처리한다.



▣ 공적자[公賊贓 : 적의 재물을 공유함]

전투 도중에 적이 재화와 보물이나 금은(金銀)·포백(布帛)·기계(器械) 등속을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는 아군이 다투어서 이를 빼앗도록 유도한 다음에 그 기회를 타 들이쳐서 공격하려는 것이다. 그런데도 아군은 종종 그 술책에 빠진다. 금후로는 진진(戰陣)에 임하여 적이 버린 재물과 포백을 발견하면 본대에 보고하여 공병(功兵)이 이를 수습하여 간수케 한다. 그런 다음 싸움에 이기기를 기다려 군사를 거두고 분명히 조사하여 병사(兵士)와 장령(將領)들에게 골고루 상을 주되, 함부로 취득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러한 재물을 은닉하거나 챙겨서 남겨두거나 뒤에 이르러

함부로 차지하는 자는 비록 공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 군법으로 처단한다. 정식으로 전투를 할 때에 적이 갑자기 물러가면서 재물을 버리는 것은, 적이 패주할 즈음에 아군이 그 재물을 탐내어 이를 취하도록 유인하고 저들은 기회를 타서 도주하려는 것이다. 심지어는 기회를 타서 물러와 도리어 아군을 이기고서, 아군의 수급(首級)으로 아군이 이를 되찾아가려고 힘을 다해 싸우도록 유인하니, 이 또한 앞의 계책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수급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금령(禁令)이 있다.

그러므로 만약에 재물과 포백을 보면, 이를 내버려두고 곧바로 직행하여야 한다. 승부는 단지 머리카락 한 오라기의 차이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병사는 힘을 더하기를 백배나 더함에 중점을 두어 더욱 용기를 뽐내어 전진하여 적으로 하여금 패전하여 진멸(盡滅)케 하면 그들의 머리는 바로 우리 소매속에 들어있는 물건이나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적이 버리고 달아난 이 일건(一件)의 물건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만약 명령을 위반하고 재물을 도모하거나, 수급을 빼앗아오는 것을 다투어서 군사가 함몰되기에 이르거나, 혹은 적이 충돌하여 왔을 때 재물을 빼앗아 챙기는 병사는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가리지 않고, 파총(把總)과 초관(哨官) 모두를 군법으로 참형에 처한다.

▣ 원군법[原軍法 : 군법을 명확히 함]

전진(戰陣)에 임하여 움츠리거나 달아날 경우, 대장(隊長)은 병사의 귀를 자르고, 기총(旗總)은 대장의 귀를 자르고, 초관(哨官)은 기총의 귀를 자르며, 초관이 즉시 대병(隊兵)을 참수하고, 파총(把總)이 즉시 초관을 참수하는 것을 허락한다. 만약 각기 움츠리거나 달아나는 것을 분명히 보고서도 고의적으로 놓아주어 귀를 베거나 목을 베지 않은 자는 죄가 연좌된다.

■ 벌고피[罰故避 : 고의로 회피하는 것을 처벌함]

병이 들었다고 사칭하거나, 고의로 군기(軍器)와 마필(馬匹)을 손괴하거나, 미리 앞서서 이를 손실하고서 전진(戰陣)에 임하여 싸움을 모면하려고 하는 자는 목을 베어 여러 사람에게 보이고 곧바로 해당 기(旗)와 대(隊)의 병사들도 조사해서 다스린다.

■ 금사수[禁私讐 : 사사로이 원수갚는 것을 금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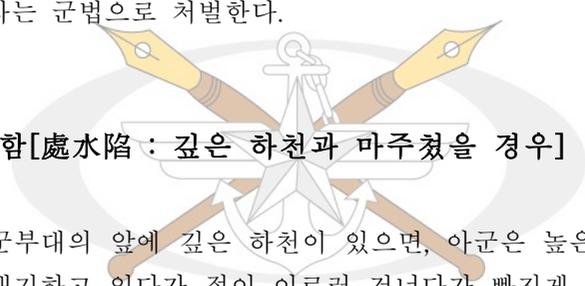
장졸(將卒)들이 사사로운 원한이 있어서 전진에 임하여 서로 보복하는 자는 군법으로 처벌한다.

■ 처수함[處水陷 : 깊은 하천과 마주쳤을 경우]

무릇 군부대의 앞에 깊은 하천이 있으면, 아군은 높은 곳에 의지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적이 이르러 건너다가 빠지게 되면 즉시 공격한다. 만약 적이 오지 않으면 복병(伏兵)을 배치하고 군사를 후퇴시켜 적을 유인한다.

■ 경산곡[經山谷 : 산 골짜기를 지나감]

산 골짜기가 있는 곳에서 적과 만나 싸울 때에는 반드시 복병을 배치하고 거깃 병력으로 적을 유인하여 복병이 있는 곳으로 끌어들이어 이를 공격한다.



▣ 사기고[死旗鼓 : 기고와 함께 죽음]

무릇, 싸움터에서 쓰는 기와 북, 또는 싸움터의 의장(儀仗) 용품인 정기(旌旗)와 절월(節鉞)을 망실한 자는 모든 대(隊)를 목벤다. 또는 적에게 탈취당한 경우에도 모든 대를 목벤다. 이때 공이 있으면 그에 의거하여 속죄하게 한다.

▣ 실전마[失戰馬 : 전마를 상실함]

전진(戰陣)에 임하여 전마(戰馬)를 상실한 자는 목을 벤다. 힘껏 싸우다가 말이 부상하여 죽게 한 자는 죄를 주지 않는다.

▣ 정추병[整追兵 : 추격 병력을 정비함]

싸움에서 이겨 적을 추격할 때 약 1리(里)의 거리를 가면 솔밭(撻鉞 : 자바라) 소리를 듣고 군사를 거두어 대오를 정비한다. 달아나는 적이 궁지에 몰려 되돌아와 싸워서 군이 어지러워지면 정비가 어려울까를 염려해서이다. 이 군령은 전투시와 마찬가지로 내려진다. 이를 주관하는 장교는 반드시 중군(中軍)¹⁰⁸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는데, 그 거리가 멀어서 서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서이다.

어느 정도 추격 병력의 정리가 되기를 기다려 다시 북을 쳐서 추격을 하는 한편, 기병(騎兵)을 나누어 내보내고, 각 처의 산 꼭대기와 나무 숲 등에는 모두 반드시 병력을 배치하여 수색한다. 적이 매복을 시켜놓고 거짓 패하여 달아나는 것이 아닌가를 염려해서이다. 종래의 남왜(南倭 : 남방의 왜적)와 북로(北虜 : 북방 오

108) 중군(中軍) : 조선(朝鮮) 시대(時代) 때의 군영의 대장, 또는 사(使)의 다음가는 장관(將官)

량개)109)는 그 꺾이기가 이리하기 때문에서이다.

과연 진짜로 대패하였기 때문에 달아나는 것이라면 멀리까지 추격하여 기회를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적을 놓쳐서 달아나게 하면 이전에 세운 공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쳐주지 않는다.

▣ 분영공[分零功 : 영세한 공로를 구분함]

흩어져서 달아나는 소규모의 적을 잡아서 박멸하는 등의 영세한 공로는 세습(世襲)되는 기록(紀錄)으로 치지는 않고, 단지 포상만 한다. 직접 싸워서 공을 세운 사람이 스스로 보고하되, 반드시 적진으로 돌진하여 적병을 찢러 죽인 공로와 동일하게 논하지는 않는다. 만약 공로에 대한 보상이 끝난 뒤에 다시 적을 죽이거나 포획한 사실을 보고할 경우에는, 이는 반드시 흩어져 달아나는 소수의 적을 쫓아서 죽이거나 포획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단연코 인정하지 않으나, 사실임이 검증되면 또한 단지 포상만 한다.

▣ 보진항[保障降 : 전진에서 항복하는 자를 보호함]

무릇 전진(戰陣)에 맞닥뜨려서 바야흐로 적이 접전을 해 와서, 만약 포로가 된 자를 몰고 앞을 향해 달려 나온 자에게는 매 초(哨)마다 [降伏旗 : 백기] 2면을 지급한다. 멀찌감치 창칼을 버리고 항복하겠다고 다 함께 외치면 죽이지 않는다. 창칼을 버린 자의 경우에는 곧바로 항복기인 백기(白旗) 아래로 가서 담당 군관이 거두어서 보호하도록 한다. 전투가 끝나면 그 수효를 보고하고 검증하여 보고하고 집으로 돌려보낸다.

109) 남왜(南倭)와 북로(北虜): 남왜는 명의 남방으로부터 침입한 일본 해적을 가리키며, 북로는 명의 북방으로부터 침입한 오이라트와 타타르 등을 가리킨다.

항복하는 인원 1명을 획득했을 적마다 해당 관군(官軍)은 은(銀) 5전(錢)을 상준다. 만약 관군이 함부로 한 사람을 죽였을 경우, 죽인 자는 사형하고, 가까운 거리의 대(隊)와 오(伍)의 지휘관이 이를 고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한다. 만약 적이 항복하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창과 칼을 들고 곧바로 앞으로 달려드는 자를 진상(陣上)에서 죽였을 경우에는 적의 수급을 획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을 기록한다.

▣ 형부간[刑俘姦 : 포로를 간음한 자를 처벌함]

전진에 이르러서 적의 부녀자를 추격하여 포획하고서 규정에 따라 보고하여 상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간음(姦淫)한 자는 군법으로 논한다. 해마다 이러한 일이 빈번히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위법을 저지른 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 여자는 적에게 포로로 붙잡혀가서 오랑캐의 아내나 종이 된 자이다. 지금 내가 무지하여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여기고 수용하였다.”

그럴 적마다 나는 이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한다.

“그것이 바로 너를 해친 것이다. 이것이 해로운 것이다.”

그러면 아무런 대답도 하지를 못하고, 마침내 이를 목낸다.

▣ 신망살[愼妄殺 : 함부로 죽이는 것을 삼감]

나는 불가(佛家)에서 이르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칠층 불탑을 세우는 것보다 더 낫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지옥

(地獄)과 윤회(輪回)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가축(家畜)으로 환생(還生)하여 원한(怨恨)의 빚을 갚는다고 하였으니 천도(天道)는 순환(循環)을 좋아하니 귀신(鬼神)이 선행과 악행에 대한 되갚음을 명백히 하지 않아서 네가 열심히 공을 세워 자식에게 은전(恩典)을 세습(世襲)시키는 기록(紀錄)으로 삼아서 자손 대대로 은자(銀子)로 내리는 상을 받게 되니, 이는 백성의 고향(膏血)이다.

그리고 백성이 불행히 적에게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게 되거나, 혹은 한동안 적에게 쫓겨서 가정이 분산되니, 사람 사람이 가련한 처지에 빠졌을 때에는 달자[達子 : 북방의 오랑캐인 달단(韃靼)]이건, 왜자[倭子 : 남방의 오랑캐인 왜구(倭寇)]이건 중국인이 무릎을 꿇고 슬프고 가련하게 하소연하면 또한 자비를 베풀어 풀어놓아주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런데 너와 나는 바로 같은 중국인이며, 조정이 백성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지금 백성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도리어 이를 죽여서 그 수급(首級)을 가지고 거짓 공로를 삼아 자손에게까지 그 혜택을 누리게 하려 하니, 이는 하늘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인간이다. 하늘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지금 이후로는 전투에서 적이 패퇴하면 거기서 포획한 적(賊)의 자녀(子女)와 인구(人口)는 이들이 참으로 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죽여서 수급을 차지하는 것을 불허한다. 단지 산 채로 해당 관서에 보내어 그곳에서 심사하여 공을 논하고 상을 주게 한다. 만약 전투가 끝난 뒤에 항복한 사람이나 중국인 부녀자를 죽여가지고 공을 세웠다고 보고하는 자는 공을 기록하는 관서에서 이를 인정치 않을 뿐만 아니라, 주장(主將)이 적과 맞닥뜨렸을 때에, 안면(顔面)에 선혈(鮮血)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보이면 앞에서 지적한 바의 폐단이 있었는가를 검증하고 조사하여, 진실로 손을 써서 수급을 취해 가지고 온 사람은 즉시 목을 베어 목숨으로 갚도록 하되, 비록 전날의 공로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용서치 않는다. 이 한 절(節)은 절대로 틀림없이 어기는 일이 없이 모든 아군의 장병(將兵)들이 악습(惡習)을 철저히 고쳐야 할 일인 것이다.

▣ 전후육책[戰後六冊 : 전후에 이루어져야 할 여섯 가지 보상계획]

◆ 보전상[報戰傷 : 전상자에 대한 보상]

무릇 전투(戰鬪)가 끝난 뒤에 병력(兵力)을 거두어 진영(陣營)으로 돌아올 적에 한 편으로 각 영장(營將)은 파총(把摠)의 사(司)에 독려하여 전상자(戰傷者)에 대한 소속 지휘관이 별도로 관련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는 자필 문서를 먼저 보내도록 하여 이를 증빙으로 삼는다.

무릇 활과 화살로 인하여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자는 1등으로 하여, 비록 중상(重傷)이나 초등(超等)으로 하지 않는다. 화살 세대 이상을 맞은 자는 비록 경상(輕傷)이라 할지라도 1등으로 한다. 화살 두 대를 맞은 자는 비록 경상이라 할지라도 3등으로 하지 않는다. 무릇 맞은 자리가 손과 발 사이인 자는 2등으로 하고, 화살이 깊이 들어가지 않고 또 경상인 자는 3등으로 한다. 그보다 좀 더 경상인 자는 4등으로 하여 그친다.

칼로 인하여 얼굴에 상처를 입은 자는 초등(超等)으로 하고, 손과 발에 중상을 입은 자는 1등으로 하며, 경상자는 2등 내지 3등으로 하여 그친다. 무릇, 화살과 칼에 의하여 입은 상처가 등 뒤에 있는 자는 인정하지 않고 또 의약품도 지급하지 않는다. 만약 적이 다수로서 사면을 둘러싸고 칼질을 할 때 아군이 그 한가운데서 적과 응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등에 상처를 입었더라도 또한 인정하여 등수를 정하는데, 반드시 영장 및 전진(戰陣)에 있었던 장관(將官)이나 소속 부대의 파총(把摠)이나 초관(哨官)이 관련 사실의 본말(本末)을 상관에게 보고하는 자필 문서를 먼저 보내도록 하여 이를 증빙으로 삼는다.

만약 다수의 병사들이 함께 패하여 일제히 달아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얼굴이건, 등뒤이건 모두를 인정하거나 구휼(救恤)하지 않으므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 만약 몇몇 사람이 다수의 병

사들과 함께 패하여 달아나다가 다시 몸을 돌려서 적과 맞닥뜨려 적을 막고서 돌아온 자는 상처를 입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두 두등(頭等)으로 한다. 무릇 부상자는 원래 모두 1·2·3·4등까지의 등급으로 하는 것이 관례이나, 모두가 각각 1등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그 상위의 등급인 초등(超等)이나 초초등(超超等)으로 기록하여 보고한다.

◆ 보진망[報陣亡 : 전사자에 대한 보상]

무릇 전사자(戰死者)에 대해서는 소속 지휘관이 별도로 관련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는 자필 문서를 보내어 “아무개가 아무 부분에 상처를 입어 전사했다.”는 보고를 한다. 모름지기 얼굴에 상처를 입고 전사했을 경우에는 같은 대(隊)와 오(伍)의 인원은 연좌(連坐)하여 목숨으로 갚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사자의 상처가 등 뒤에 있을 경우에는 연좌하지 않는다.

만약 같은 대와 오의 인원이 연좌를 두려워하여 얼굴의 상처를 등 뒤의 상처로 보고하거나, 혹은 전사자가 죽은 뒤에 그 등에 칼질을 하여 연좌를 면하기를 바란 자는 소속 지휘관이 별도로 관련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는 자필 문서가 도착하면, 다시 검증하여 주모자와 하수인 모두를 목베어 조리돌린다. 몸의 앞과 뒤 모두에 상처가 있는 자는 단지 몸 앞부분의 상처만 가지고 전사자로서의 공을 인정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만약 다수의 병사들이 패하여 달아나면서 전사한 자는 구출하지 않고, ‘퇴축피살(退縮被殺)’ 즉, ‘물러나서 움츠러들다가 죽음을 당한 것’으로 보고한다.

◆ 보공급[報功級 : 적의 수급을 획득한 공로에 대한 보상]

무릇 전장(戰場)에서 적의 수급을 획득한 공로에 대해서는 소속

지휘관이 별도로 관련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는 자필 문서를 증빙으로 삼아 “아무 초(哨)에서 함께 약간의 적을 목베고 적진으로 돌격한 아무개 아무개” 또는 “적병을 찔러 죽인 병사 아무개 아무개” 등의 공적을 기록하여 보고하고, 주장(主將)에게 전례에 의거하여 따져서 인정해서 기록해 줄 것을 청하고, 자신에게 배분된 얼마간의 은(銀)을 나누어서 자신은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대로 숫자를 헤아려 은을 내어서 상받아야 할 자들에게 지급한다.

◆ 보인구[報人口] : 적의 포로를 포획한 공로에 대한 보상]

무릇 전장에서 적의 포로를 포획한 공로에 대해서는 소속 지휘관이 별도로 관련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는 자필 문서를 증빙으로 삼아 포획(捕獲)의 주역(主役)이 된 자를 밝혀서 그 숫자에 의거하여 은으로 보상한다.

◆ 보군기[報軍器] : 적의 군기를 노획한 공로에 대한 보상]

무릇 전장에서 적의 병기(兵器)를 노획한 공로에 대해서는 소속 지휘관이 별도로 관련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는 자필 문서를 보내고 관아의 보관 창고로 보낸다.

◆ 보마필[報馬匹] : 적의 마필을 노획한 공로에 대한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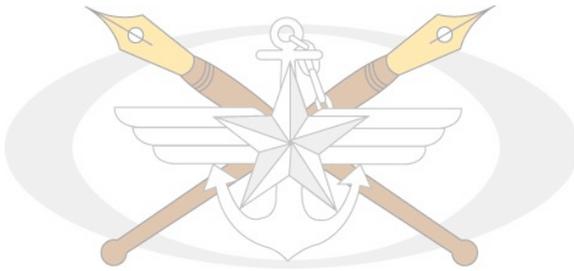
무릇 전장에서 적의 마필(馬匹)을 노획한 공로에 대해서는 소속 지휘관이 별도로 관련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는 자필 문서를 증빙으로 삼아 적진으로 돌격하여 적병을 찔러 죽인 병사와 아울러 공이 있는 사람을 상줄 것을 논의한다.

□ 기획편집 및 역주

주간 : 전 호 수 연구원

역주 : 유 재 성 해동경사연구소
상임연구원

□ 감 수 : 서 인 한 군사사부장



紀效新書(上)

軍事文獻集 23

2011年 9月 22日 印刷

2011年 9月 29日 發行

發行處 國防部軍史編纂研究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1가 8번지)

TEL: 709-3199 FAX : 709-3111

發行人 崔 北 鎭

印刷處 國 軍 人 쇄 창(11089496)

<非賣品>